# 열정과 도전의 반세기

K117-12,17/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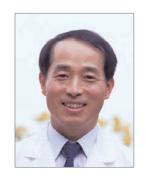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1967~2017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발간사·기념사·축사

### 대한대장항문학회의 50년, 모든 회원의 발자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올해로 뜻깊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대장항문학회가 설립된 지 반세기가 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1968년 4월 20일 외과 전문의가 주축이 되어 대한대장항문병학회를 창립하여 첫발을 내디딘 이후로, 대장항문질환 영역의전문적인 학술연구 및 최신 치료법을 체계화하여 외과 의사로 하여금 수술 요법의 보편화와 기술적인 지도, 그리고 국민 계몽이라는 목

표 아래 쉼 없이 뛰어온 지난 50년이었습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의 50년은 그간 몸담으셨던 모든 회원님들의 발자취이기에, 모든 전임 회장님 및 이사장님,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설립한 지 50년을 이어 오는 동안 우리 학회는 어느 학회도 넘보지 못할 화합과 친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장항문 분야의 수준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5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제 연구 역량과 발표논문에서 세계 어느 학회와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실력과 조직을 갖춘 학회가 되었습니다. 선도적인 세부전문의제도 시행과 대장암의 진단과 예방을 위해 대장 내시경 세부전문의제도를 운영하여 급변하는의료 패러다임에 대비하고 진료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8개 연구회와 다수의 심포지엄을 통해 회원님들의 정보 교환 및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50년간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빛나는 업적을 다시 되새기고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장항문학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선배님들이 거쳐온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정리하여 앞으로 후배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고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 위해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학회 차원의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없었고 창립 당시의 많은 선배님이 돌아가셔서 50년사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에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오승택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러 위원들의 노력으로 수많은 숨은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 었고 이렇게 학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50년의 역사책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회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관심이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017년 3월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이 두 한

### 새로운 50년의 비전과 미션을 위해



어느덧 우리 학회가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67년 아주 작은 규모의 집담회 형식으로 시작한 우리 학회가 이젠 회원 수 2,000명이 넘는 큰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초창기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대장항문 고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학회를 유지하고 이끌어주신 여러 선배님들 덕분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1990년 대 이후 대장항문 질환 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힘입어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외

과 분야에서 최초로 인정의 제도를 도입하였고, 세부전문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독특한 영역을 정립할 수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우리 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학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회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회원 상호간의 인화와 협력, 우리 회원들의 학술적인 열정, 그리고 학회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결과 우리 학회 회원들이 다기관 공동 연구를 통한 세계적인 업적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선생님들이 느끼듯이 우리의 현실과 앞날에는 많은 대내외적인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알차게 내실화를 추구하는 발전 방안을 고려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소홀히 했던 진료 영역을 확대해야 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이 수술 위주의 진료를 해 왔다면, 이제는 수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바라는 의료의 변화, 즉 예방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학회의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학회의 과거를 돌이켜 보고, 미래를 계획해 보는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열정과 도전의 반세기 - 세계로, 미래로』를 제가 이사장으로 봉직하는 시기에 발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찍이 E.H.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 라고 하였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란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가 등한시했던 과거를 다시 찾는 데 역대 임원 및 원로 회원님들께서 많은 숨겨 두셨던 자료를 찾아주시고, 인터뷰를 통해 옛일들을 복원해 주셨고 원고의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셨습니다. 이번 우리 학회의 50년사는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여러 선각자들의 말처럼 잊고 있던 과거를 되새김으로써 우리 학회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찾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50주년사의 발간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신 오승택 50주년 기념 TFT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가 미래의 새로운 50년을 빛내기 위해서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학회와 같이 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학회 50주년 기념사 발간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박규주

#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성과와 발자취는 의학계의 큰 귀감과 귀중한 사료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1967년 11월 18일 진병호 교수님(당시 서울의대 외과 주임교수)과 민광식(당시 연세의대 외과 주임교수) 교수님이 발의하여 창립하게 된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오늘날 회원이 1,900여 명인 우리나라 대장 항문질환의 대표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 50년간 외과학의 세부 영역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면서 학회의 고유 기능인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그리고 세부·분과전문의제 도 운영에 있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원님들은 시대적인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장항문 관련 질환의 치료 성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한국 실정에 맞고 국제 학술 교류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인 대장암 취급 지침서'를 제정하여 우리나라 대장암 치료와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집담회를 통해 대장항문 질환에 대한최신 지견과 경험을 전국적으로 전파하였으며 대장암 분류와 치료에 있어 통일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축적된 학문적 성과는 1985년 대한대장항문학회지를 창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대장항문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Annals of Coloproctology』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Annals of Coloproctology』는 현재 PMC, SCOPUS를 비롯한 국외의 주요 색인기관에 등재되어 우수한 국내의 대장항문질환 연구 수준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의 꾸준하고 모범적인 학술활동은 대한의학회에서 회원 학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학술 활동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증명 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환경 변화로 현대의학의 흐름을 쉽게 예견하기는 힘든 시대이지만,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지난 50년간 이룩한 학문적인 성과와 발자취는 대한의학회 회 원 학회에 큰 귀감과 학회사의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학회의 발전과 국제화를 바라는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원들의 염원이 학회 집행진의 열정적인 활동과 결합하여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학회 발전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오신 원로 회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5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신 이두한 회장님과 박규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집행진의 노고에 대한의학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원님들의 열성적인 학술 활동이 국가 의료 수준 향상의 밑거름이 되었 듯이 근간에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원님들의 핵 심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 2017년 3월 대한의학회 회장 이윤성

### 1967년 출범한 대한대장학회, 양적·질적 성장으로 타 학회의 모범



존경하는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1967년 출범한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맞아 학회 반세기의 역사를 담은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를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시』 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두한 회장님과 박규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존 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반세기 동안 학회 발전을 이끌

어 오신 진병호 초대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창립 이후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학회를 목표로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개원의와 봉직의 등 다양한 구성의 회원 2,000여 명이 활동하는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해마다 학술대회를 비롯해 학회 산하 8개 연구회 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새로운 의료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며 첨단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온 것은 다른 학회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대장항문학회의 학회지는 학술진흥재단의 평가에서 유관 학술지로는 최고의 성적으로, 등재신청 후 최단 기간인 만 2년 만에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승격된 바 있으며, 대한의학회의 학술활동 실적 우수학회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규모와 학문적 차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대장항문외과를 찾는 환자들도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학문을 연구하고,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장항문학회는 50주년을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믿으며 회원님과 대장항문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발긴	<u> </u>	6
기년	ქ사	8
축	사	10
화	보	17

### ❶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1. 전사(前史): 대장항문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기원	- 60
2.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출범과 초창기 활동(1967~1985년)	- 66
3. 정회원 학회 승격과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 발간(1985~1995년)	78
4. 국제 교류의 활성화와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1995~2007년)	90
5. 사회 공헌과 연구 역량 강화(2007~2017년)	108
6.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122

### Ⅲ 인터뷰로 보는 대한대장항문학회 반세기

김광연 128	최경달	137	이찬영	143
우제홍 150	심민철	158	박재갑	165
손승국 171	이종균	178	김영진	187
전호경 196	박규주	204	임선민	213
Junichi Iwadare	219	Takeo Mori	225	







### Ⅲ 학술 및 사회공헌 활동

1. 학회지의 역사	230
2. 국내 및 국제 학술활동	249
3. 연구회 약사	266
4.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의 발전	285
5. 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	287
V 부록	
1.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칙	296
2. 역대 임원 명단	
3. 역대 공로상 수상자	
4. 연표	315
5. 회원 수 추이	333
6. 학회 제작 간행물 및 학회 로고·엠블럼	334
7. 학회 사무실	

# 사진으로 본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

- I. 열정과 도전의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
- Ⅱ. 학술 및 사회공헌 활동

### [. 열정과 도전의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

#### 祝

#### OFFICERS AND COUNCIL THE AMERICAN PROCTOLOGIC SOCIETY

2 November, 1967

The Korean Proctologic

Dear Dr. Sir

Thank you for your very kind letter of October 27, regarding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rocto-

You and your colleagues are to be congratulated on the formation of this Society, and we in The

on the formation of this society, and we in Lie American Proctologic Society send you our greetings and congratulations on this great event.

You are very kind to offer honorary membership to me, and I accept it proudly in behalf of all my collaeguse who extend their hands to you in scientific cooperation across the broad Pacific.

Very sincerely yours,

James A. Fergusion, M.D. The American Proctologic Society

ASSOC. PROFESSOR. N.J. GEORGIADIS M.D. 3 Koumbari Street Athens (38) 617. 387 November 3rd, 1967

President, The Korean Proctologic Societ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October 21, 1957. Indeed it is a great honour to be offered the honorary membership of the Korean Proctologic. Society. I accept eagerly your offer, and together with my acceptance and thanks. I am wishing all the

with my acceptance and thanks. I am wishing all the best, to the newly founded Society.

As far as I am concerned, please be convinced, that I am going to do whatevers.

I can for the progress and the prestige of the new Society, the foundation of which I intend to announce officially, during a session on the Greek Society of

Gastro-enterology which includes Proctology in my

country.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all founders of the Korean Proctlogic Society, and especially you, Dr. Lee, for the foundation of the Society, which can be concidered as a further step in the development of your remote but heroic country.

of your remote but heroic country.

I hope that one day, I would be able to attend a meeting of the newly founded Society, and although there will exist a language barrier, I will feel at ease as I will be among frindly colleagues.

With my best wishes for the Society, and for you, Dr. Lee, and with all my thanks,

Yours Sincerely

紀 辭 (譯文)

Atsuya Onitsuka

大韓民國直腸肛門病學會 駁

大韓民國에 있어서 今般 大韓直腸肛門病學會의 誕生 에 對하여 敬意是 表하고 慶祝합니다.

現今 結腸直腸肛門病學會는 研究是 要하는 많은 課題 를 지니고 있어 貴國의 本領域을 研究하는 多數의 學 者가 이 자리에 모여서 專門學會를 創立하게 된 것은 實星 意義弘은 일로 思料됩니다. 우리 日本大腸肛門病 學會는 日本國에 있어서 斯學의 獨存的인 學會로서 創 立後 이미 20餘年을 經過했으나 斯學에 關하여는 學界 -般의 認識이 내우 淺薄하고 本會는 會員의 永年의 努 力에 依해 겨우 近年 그의 참다운 評價을 얻게 되었으 미 貴會가 創立과 더불어 貴國의 學界에서 確固한 地步 를 占하게 된데 對하여 本人은 會員을 代表하여 拍手

貴會가 貴國에 있어서 斯學의 發表機關으로서 着實 發展된 것은 勿論 各國의 同一 領域의 専門學會와 넓이 明關하여 智識의 世界的 交流에 크게 흡興되신 것 을 確信하고 疑心치 않은 바입니다.

貨會의 繁盛과 貨會員의 健康을 祝願합니다.

昭和 42年 11月

服 辭

International Seminar on Diseases of Colon, Rectum and Anus, P.O. box 677 G.P.O. Bombay. 1 (India)

November 15, 1967.

pear. Sir I gratefully accept the honorary membership of our newly formed Proctologic Society. To you I offer my hearty congratulations on your

ceaseless efforts in forming the above society. Please offer my congratulations to your colleagues as well. I wish this society well and our sure it will strive hard to believe the suffering humanity

Thanking you again, with best regards.

Yours sincerely R.K. Menda.

賀 辭

大韓直腸肛門病學會委員長 賢與會諸 先進公盤 貴會宏立 精英畢集 磋磨學術 惠濟人群 祝賀諸君 愉快成功 中華民國 <u>臺灣省</u> 東大霧院院長 李景星 敬賀

바입니다.

本直陽肛門病學會

醫學協合 誘堂에서

의 學問은 他領域에

(유니다. 토의 努力으로 1950

으며 來年에는 印度

豫定으로 되어 있

本學會가 創立되었

으로 기름을 참을 이서 斯學의 硏究

際結腸直腸肛門病 界期待하며 두 손

工業株式會社

합니다. 하는 바입니다마는

: 外 關係한 諸賢醫 교 전기 의 제요로 기 및 수 없으며 및 간 기 등은 점樂品을 通 기 등은 점樂品을 제 하여 점索報人을 송頭에 두고 全精力을 기우려 오고 있

용니다만 今後 대항증 大韓民國 語賢醫 여러분의 指 導의 鞭撻을 바라며 醫療의 進步의 社會人類의 保健福 社에 貢獻고작 하는 바입니다.

大韓直腸肛門病學會의 發展斗 諸賢醫의 健康令 祝願

昭和 42年 11月 13日

祝 電 NNNN

ZCZC NKA343 SL LCB 30 KRSK CO JPIK TOKYO 31/25 13 1527

Peesident, the Korean Proctolyic Society
HEARTY CONGRATULATION FOR THE ORGANIZATION OF THE KOREAN COLO-PROCTO-LOGIC SOCIETY SHUNII SIIHYAMA M.D. PROFESSOR OF NIHON UNIVERSITY

祝 電

DKS0210

DKS0210

MILANO 39, 17 0345

President, The Korean Proctologic Society most honoured and thankful being appointed honorary membership please accept congratulations all best wishes of every success the Korean Proctologic Society for tyre progress of science and benefit to man needing hone. man needing h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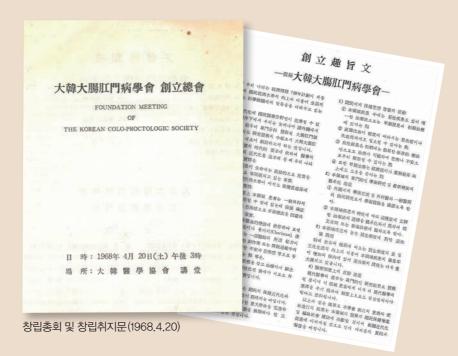
SIMONETTI M.D.

#### 창립축하 메시지(1967)

1969 \$ 11 189 (1) 3	D.4	
+ 18 + APA + MA	多去面上的人	\$ 01 stro 1 die
2 - 10 to 3 4	172. The	1 3 = 1 Min 1848
\$66\FX	放 04就是om	KIL KH K-1-1
22x)20	12-1 114310	MENTALT
Right 2	13= 1011 ( ) 21-0	· & M. H.
(B) At + A	(新華華	中的约
#14	全大便	MARKE
果 協		本夏州
· 全大楼	14.16花	母在福
一八九箱	= 大家元	
防电一	<b>▽</b> 茨電標	
李贵山	本的商	
- 在被極	JABR	
	184	
全元支	STATE TO	-
有此友	47%	
姜明至		
支加数		
新城之		
田易教在著學院工艺	女生工生主国,	1大孩孩子之
(到是多女是好多同日	· 5不以能过五名	一(在光线,在1
井安信,李用面	,李皇纪》 换日花	
0101 A 822	My May of wheel	stadt dela
	इ. संस्थार जिल्ला । इ. संस्थार जिल्ला । वे सह = अम्बर्ध ।	13 20 = 1 8 4/20

창립준비위원회 회의록과 창립준비위원회 명단(1967.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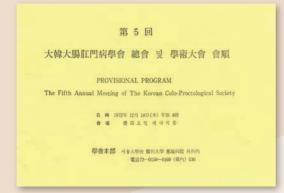




### 1968~1984 / 학술대회 프로그램



#### 1회(1968.12)



5회(197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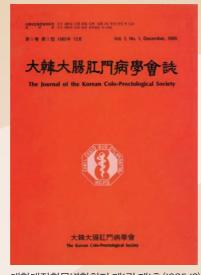


6회(1973.11)



2회(1969.12)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제1권 제1호(1985.12)





제19차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1986,11,2)



대한대장항문학회 초청 스미코시 선생님과(1988.12.2)



대한대장항문학회 초청 스미코시 선생님, 다까노 선생님(1988.12.5)



대한대장항문학회 초청 다까하시 선생님과(1989.2.17)



대한대장항문학회 초청 다까하시 선생님, 다까노 선생님 등(1989.11.12)



항문질환 국제 심포지엄(1991.9.20)



대장항문학회 초청 Prof. S. Goldberg, Minnesota.(한국의 집, 1992,12,3)



5th Asia-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 (소공동롯데호텔, 1995.6.1~3)



대한대장항문학회 춘계학술대회-세부전문의(호텔 리베라 유성, 1997.5.31)



제2차 정기집담회(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999.8.28)



제1회 연수강좌(이화의대 목동병원 김옥길홀, 1999.10.3)



대한대장항문학회 정책 세미나(부산메리어트호텔, 2005.3.11)





제3차 항암요법심포지엄(부산메리어트호텔, 2005.3.11)



비전선포식(부산 롯데호텔, 2005.4.10)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roctology 2016(소공동 롯데호텔, 2006.11,26)





학회 사무실 개소식(수서동 현대벤쳐빌, 2007.1.13)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loproctology (서울 코엑스, 2012.4.7~8)



복강경대장수술 Cadaver Workshop(서울성모병원, 2012,6.9)

## 2 대한대장항문학회 대장내시경 연수

일시: 2012년 9월 2일(일) 08:30-16:40장소: 가톨릭

● 장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2012.9.2)



The 5th Congress of Asia Pacific Enterosto Nurses Association in Conjunction (Screen Society of Color)

Constumes Dynasty

Dynasty

The 5th Congress of Asia Pacific Enterostomal Therapy Nurses Association(세종컨벤션센터, 2013,9,6~7)



가족등반대회(청계산, 2014.11.23)

## II. 학술 및 사회공헌 활동

# **50**

### 춘계학술대회 가족행사

2 0 0 3 . 4



올인 체험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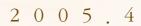
유아놀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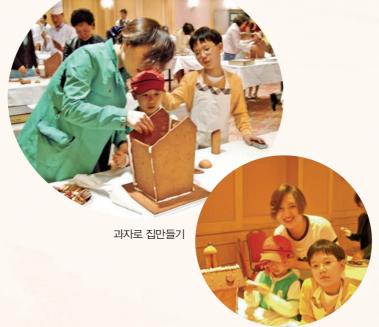




사랑의 케익만들기











## 춘계학술대회 가족행사



케익 만들기

2 0 0 6 . 4





2 0 0 7 . 4





##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제1회 대장암의 날 기념콘서트 환영사(잠실 실내체육관, 한국인의 장건강, 2007.9.8)







"대장암,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세요"

대장속체험



제2회 대장암 골드리본캠페인 홍보대사 봉중근선수(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 2009.10.7)





오색식품 전시



##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대장암 완치프로젝트 출판기념회(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 2010.10.14)



조기 발견으로 대장암 이기게 하는 생활 속 3대 골든 타임!



제3회 골드리본캠페인 기자간담회(소공동 롯데호텔, 2010.9.1)



제4회 골드리본캠페인 섭외홍보위원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1.9.1)



"대장암 5년 생존 완치의 행복한 기쁨"



제4회 골드리본캠페인 홍보대사 최인선 감독(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





제5회 골드리본캠페인 기념행사(조선호텔, 2012.9.5)



제6회 골드리본캠페인 기자간담회(달개비, 2013.9.4)



"대장의 독(毒) 변비, 내 몸의 독(毒) 대장암"







##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제7회 골드리본캠페인 기념행사(시청광장, 2014)





"러브핸들을 잡으면 대장암이 잡힌다"







































제6기 Future Forum (엘리시안 강촌, 2012,9,22)





제7기 Future Forum (전주코아리베라호텔, 2013.6.22)

















제10기 Future Forum (엘리시안 강촌, 2016.6.25)



## 학술대회 프로그램 책자 광고(1968~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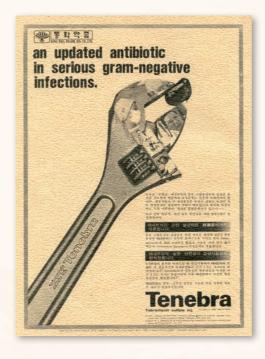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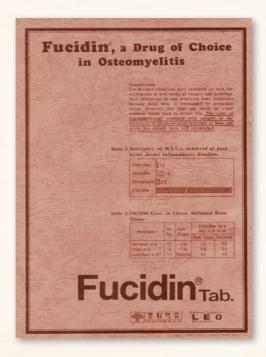








## 학술대회 프로그램 책자 광고(1968~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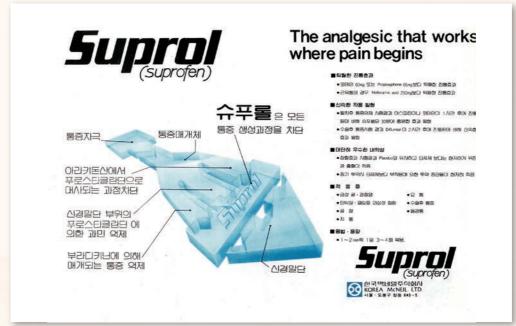












#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 1. 전사(前史): 대장항문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기원
- 2.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출범과 초창기 활동(1967~1985년)
- 3. 정회원 학회 승격과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 발간(1985~1995년)
- 4. 국제 교류의 활성화와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1995~2007년)
- 5. 사회 공헌과 연구 역량 강화(2007~2017년)
- 6.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 大韓大腸肛門病學會 創立總會 FOUNDATION MEETING OF

THE KOREAN COLO-PROCTOLOGIC SOCIETY The same that the same of the

日 時: 1968年 4月 20日(土) 午後 3時 揚 所: 大 韓 醫 學 協 會 講 堂

The transfer of the control of the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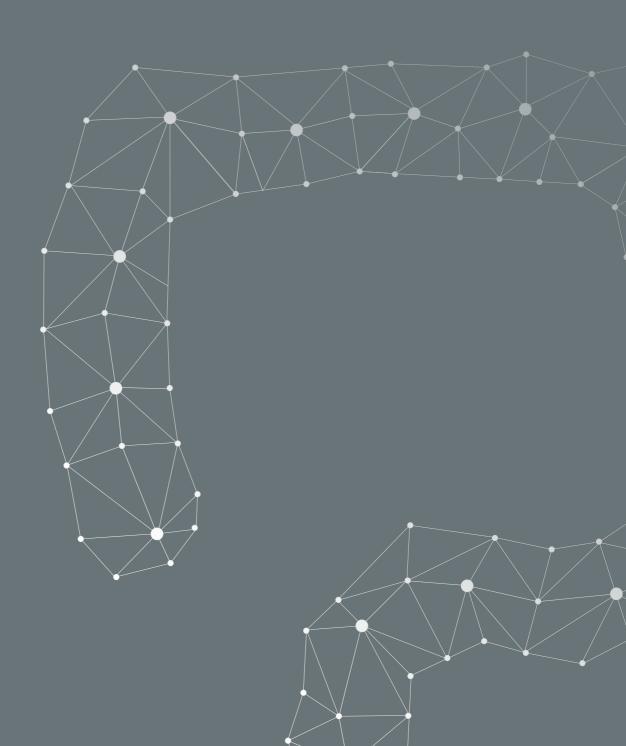
**专品商品互混大证式** n A n m n x n



## 01

전사(前史): 대장항문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기원



1967년 10월 27일, 대한항문병학회를 대한직장항문병학회로 개명하여 세계 각국의 proctology 학회에 창립 통보함으로써 대한대장항문학회의 50년 역사가 시작되었다.

초기 학회 이름에 들어간 '항문병', '직장항문병'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까지 한국의 대장항문 관련 질병은 양성 항문질환이 주(主)를 이루었다. 따라서 1955년부터 1966년까지 이관유, 심혜 일, 박재복 등 개원가들이 모여 매년 한 차례씩 집담회를 가졌던 대한항문병집담회가 학회의 모체가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장항문질환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기원을 찾으려면 적어도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항문외과 의사인 박창훈(朴昌薰, 1897~1951)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창훈은 1897년에 태어나 서울 수하동(水下洞) 보통학교 졸업 후 관 립 한성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일제강점 후인 1913년에 명칭과 편제가 바뀐 경성고등보통학교(이후 의 경기고등학교)를 제2회로 졸업했다. 가정형편 때문에 오늘날의 7급 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보통문 관시험에 합격한 후 토지조사국에 근무하였는데, 보통학교와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시험 및 보통문관

시험에서 모두 수석을 해 비상한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 나 이후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1916년 설립된 경성의학전 문학교에 들어가 1919년에 졸업하였고, 1920년 총독부 관비 장학생으로 일본 교토제국대학에 유학하였다. 1924년부터 경 성의학전문학교 병리학 조교수로 근무하였고, 세브란스의전 에서도 병리학과 해부학을 강의하였다. 1925년에 교토제국대 학에서 『본양봉와직염(本樣蜂窠織炎)에 취(就)하야』 라는 논 문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는 내장외과로 받았으나 전공은 항문외과(肛門外科), 곧 치질이었다.1)

그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조교수가 되기 전인 1922년, "조선총 독부의원 외과의원 박창훈 선생", 혹은 "총독부의원 의사 박선 생"으로 이미 조선에 이름을 날렸고, 그의 "일대 비방"이라는



박창훈의 '비방(祕方)'임을 내세운 치질 신약 광고(『동아일보』, 1922.5.27)

<sup>1)</sup> 정구층, 1985 『한국의학의 개척자』동방도서; http://www.koreanart21.com/column/collector/view?id=1198&page=6.



박창훈의 박사 논문 통과 기사(『동아일보』, 1925.2.18)

타이틀로 '치질 신약'에 대한 신문광고가 날 정도였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이 경도제국대학 교수회에서 통과되자 『매일신보』와 『동아일보』는 논문 심사 과정을 기사로 자세히 소개했고, 특히 『동아일보』는 1면의 사설로 축하할 정도로 민족사회의 기대가 컸다. 그의 은사라 할 수 있는 총독부의원장 시가(志賀) 박사도 "박군은 어렸을 적으로부터 재주가 비상한 성품으로 수석만 하여 오던 독학가인데 여기서도 수십 원의 적은 월급 중에서 그렇게까지 연구를 하는 것은 모범될 인물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조선 사람으로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가 되기로는 처음입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의 의학박사 학위 취득은 한국인으로서는 1924년에 규슈제국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동창생 윤치형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는 1928년 경의전 교수를 그만두고 낙원동에 외과를 개업하였는데, 개업 이후에도 유수한 신문과 잡지에 여러 차례 기고하고 언론사의 대담, 인터뷰 등에도 자주 등장하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했다. 1932년에는 경성에서 개업한 조선인 의사들만으로 조직된 한성의사회 부회장, 1933년에 회장을 지냈고, 1934년 11월에 발간된 월간지 『개벽』 발간 축사에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 삼천리사 사장 김동환, 변호사 이인 등 당대의 명사들과 함께 축사를 하였다. 『삼천리』 제11권 제1호(1939년 1월 1일)의 기사 '기밀실, 우리 사회의 제내막'에서 청구구락부 회원을 소개하면서 "박창훈, 하준석, 민규식, 박홍식" 등을 언급하였는데, 박창훈은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실업가 하준석, 민규식, 박홍식 등에 앞서 언급될 정도의

<sup>2)</sup> 세브란스의전 교수,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윤일선도 1920년대 의학박사 학위 취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의 의학박사 학위 취득은 우리나라 사람으론 여섯 번째였다. 한국 사람으로 의학박사 1호가 된 분은 윤치형 씨였고, 제2호는 박창훈 씨, 제3호 최일문 씨, 제4호 심호섭 씨, 제 5호 유일준 씨의 순이었다. 1920년대만 해도 한국 사람이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명예로 생각되던 때이다." (『매일경제』, 1987.3.16)



1920~30년대의 치질 치료약 관련 신문광고들(『동아일보』, 1923.3.13; 1924.9.12; 1932.7.8)

비중을 가진 인물이었다. 박창훈이 1929년 11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치 료한 사실도 의사로서의 그의 비중과 위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이다.

그런데 그가 1920~30년대 '스타 의사'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초년기의 어려운 환경을 각고의 노 력으로 이겨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미 1920년대부터 그가 전공한 항문외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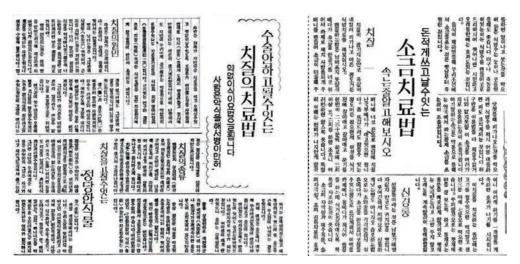
1923년 동아일보에는 일본 수상 가토 도모사부로(加藤 友三郎)가 치질과 대장암으로 심각한 상태라 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고, 할사 박창훈의 "비방(秘方)"이라고 선전되었던 것처럼 1920~30년대 내내 주로 일본에서 들여온 각종 치질 관련 약들이 "가전(家傳)", "동경항문병원장 창제(創製)" 명약으로 소개 되거나 광고되고 있었다.

<sup>3) 『</sup>동아일보』, 1923.8.5; 1923.8.13; 1923.8.21.

병세를 비관해 자살했다는 기사들 (『동아일보』, 1925,6,17; 1938,9,1)

그러나 당시 이러한 '명약'들이 기대만큼 뛰어난 효과를 보였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1925년 6월 17일, 『동아일보』에는 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에 근무하던 25세 일본인 남성이 하숙집 자기 방에서 면도 칼로 목을 찔러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자살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그는 원래 치질로 총독부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더니 낫지 못할 것을 알고 십오 일에 퇴원하야 비관 자살한 듯하다"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사건이 1938년에도 보도되었다. "엿 제조업자 이인복(39)은 30일 오후 4시 30분경 자기 집 아랫방들보에 전등줄로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는데, 그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치질로 고생을 하던 중 이즈음은 병세가 더하여 나을 희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비관코 그와 같이 한 것이라 한다"는 것이다. 1920~30년대에 항문질환이 병세를 비관하고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여전히 수술 등 '외과적 치료'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였고, 검증되지 않은 구전(□傳) 치료가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34년 3월 17일자 『동아일보』 가정(家庭)란에는 "치루를 수술하면 폐결핵이 된다함은 과연 정말인 것인가"라는 제목 아래 '미신을 타파하라'는 취지로 치질의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외과적 수술이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속설이 횡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신문의 1936년 4월 28일자에는 "돈 적게 쓰고 나을 수 있는 소금치료법"에 대해 "속는 줄 알고 해보시오"라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고, 1940년 3월 8일자에는 "수술 안 하고 될 수 있는 치질의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사람은 악식(惡食)을 해서 병이 많다", "약 없이 식이요법으로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치질을 고칠 수 있는 정당한 식물'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 기사는 "그



"소금치료법", "수술 안 하고 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한 기사들(『동아일보』, 1936.4.28; 1940.3.8)

것은 자기가 나고 자란 그 토지에서 생기는 산물(産物)"이라는 조금은 허탈한 해답을 제시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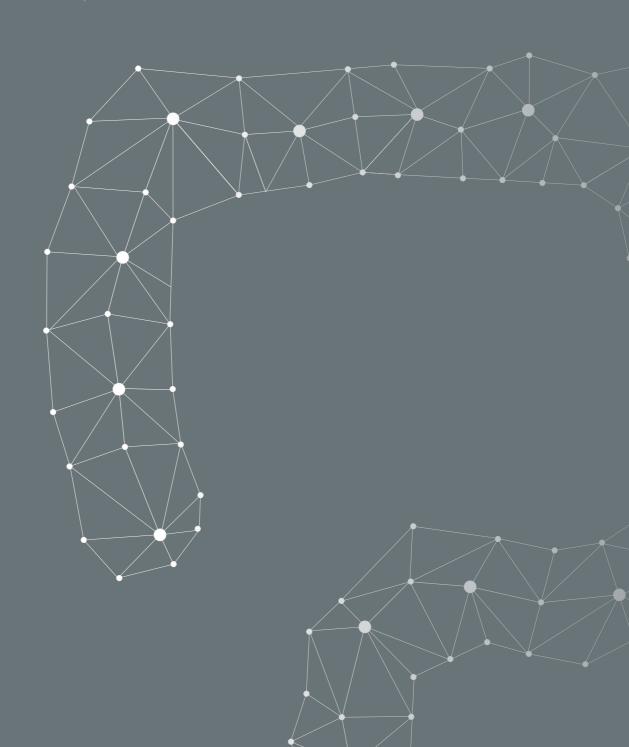
따라서 항문질환은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까지도 출신을 알 수 없는 의생(醫生)들이 수은 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적용하거나, 외과 수술의 경험이 없는 한의(韓醫)가 막무가내로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으로 남아 있었다.<sup>4)</sup>

물론 박창훈의 사례처럼 외과 의사로서 항문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도 1928년 비교적 일찍 개업하면서 대학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강의했던 경의전이나 세브란스의전에서 대장항문외과의 맥을 잇는 제자들을 길러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의 외과에서는 1960년대 무렵이되어서야 오늘날과 같은 분과가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sup>4)</sup> 밀양에서는 김우갑(46)이 수년 동안 치질병으로 고생하던 중 김영상(36)에게 수은으로 만든 훈약(薫樂)을 얻어 피우고 그 독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동아일보』, 1936,5.12) 부여에서도 의생(醫生)을 자처하는 배종순(37)이란 자가 치질을 고친다고 수은을 피우다가 김모 씨 부자(父子)가 중독되어 사망하였다.(『동아일보』, 1936.7.7) 동대문에서는 조익호(57)씨가 오랫동안 치질로 고생하여 백방으로 약을 썼으나 효험이 없어 용하다는 한의(韓醫)를 찾아갔는데, 항문을 가위로 잘라버려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동아일보』, 1938.8.7)

02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출범과 초창기 활동 (1967~1985년)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로서 정회원학회가 된 것은 1985년 3월 6일의 일이지만, 학회 가 처음 출범한 것은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5년부터 1966년까지 이관유, 박재복, 심혜일, 강명 선, 이종탁 등의 개원가들이 모여 매년 한 차례씩 집담회를 가졌던 대한항문병집담회가 1967년 10월 27 일 '대한직장항문병학회'로 개명하여 세계 각국의 proctology 학회에 학회의 창립을 통보했던 것이다.<sup>5</sup>

이는 그동안 한방식 비방으로 주사요법이나 부식, 결찰 등 비관혈적 요법을 주로 하던 개워가 중심으 로 학회를 창립하려던 계획이었다. 학회 창립 통보 이후 미국의 American Proctologic Society, 일본 대 장항문병학회, 일본 직장항문병학회, 인도의 International Seminar on Disease of Colon, Rectum and Anus 등 많은 학회에서 축사, 축전, 회환 등의 답례가 도착하였다. 이는 당시 국제적으로 학회 창립을 알 리면서 축하와 인준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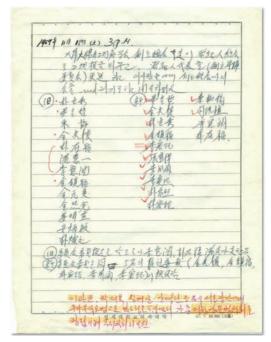


1967년 '대한직장항문병학회' 창립에 대한 국내외 축사(1967.11)

<sup>5)</sup> 당시 대한항문병집담회의 임원진은 이관윤 회장(수표교), 박재복 부회장(소공동), 심혜일 부회장(동대문)을 비롯하여 강명선(을지로), 안병민(용산), 유명귀(영등포), 박찬지, 김희태, 주협, 이종탁, 김원섭, 신진신 등 12명이었다.(김광연, 2013,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역사」 『제46차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그러나 같은 해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의 김광연 선생님 인터뷰에서는 유명귀, 신진신의 이름이 빠져 있고 대신 김병일의 이름이 포함 되어 11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2013년 봄호, 15쪽)

그러나 1967년 11월 18일 오후 3시에 의협 강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학회 창립총회를 발기인총회로 변경하고, 발기인 대표가 창립준비위원회로서 창립총회를 준비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개원가에서 준비했던 위원회 명단이 대학교수 중심으로 대폭 갱신되어 개원가와 대학가에서 공동으로 학회창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

개원가에서 준비한 위원회 명단이 박길수, 황규철, 김광연, 김진복 등 대학가 4명과 이관윤, 박재복, 심혜일, 주협, 김원섭, 김희태, 강명선, 안병민, 박찬지등 개원가 9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 새로운 위원회 명단에는 박길수, 황규철, 김광연, 김진복 등 기존 대학가 명단에 진병호, 민광식, 이용각, 장선택, 이용우, 이인희, 박부희, 박용철 등 대학가의 외과학교수 8명이 추가되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창립준비위원회' 회의록(1967.11.18)

이 발의는 당시 서울의대 외과 진병호 교수와 연세의대 외과 민광식 교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김 광연은 이에 대해 "개업의들만으로의 학회 창립은 연구 및 교육적 측면은 물론 국제적인 위상 면에서 도 적지 않은 한계가 노출될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기존의 개원가를 대표하던 이관윤, 박재복, 심 혜일, 강명선, 이종탁 선생 등 8명만이 포함되었고 그 외에는 대학교수 중심으로 학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라고 회고하였다.

결국 12월 8일 서울대 진병호 교수와 연세대 민광식 교수가 회동하였고, 진병호 교수실에서 이루어진 이 모임에서 '대장항문학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진병호 교수, 부위원장에 박길수, 김광연 교수, 심사위원에 장선택 교수와 이인희 교수, 재무위원에 박부희 교수와 박재복원장, 섭외위원에 이관윤 원장이 결정되었다. 학회 명칭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대장 및 항문외과학회',

<sup>6)</sup>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2013년 봄호, 10쪽.

<sup>7)</sup> 대한대장항문학회 '창립준비위원회' 1967년 11월 18일, 12월 8일, 1968년 1월 19일자 회의록 참고.

## 1967년 '대한직장항문병학회' 창립에 대한 김광연의 회고

(2015,12,2)

사실은 제가 학회를 만들진 않았어요. 학회를 만든 동기는 조선항문병연구회라고, 그걸 만든 분들이 시작인데. 그 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당신인데, 내년 몇 월에 독일, 일본, 미국 다 초청해서 국제학회를 하겠다고, 그러니 그걸 의논하자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당신네 영어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한대요, 독일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위 항문에다 주사 놓고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담회를 하다가 조그만 학회를 만든 거죠.

당시에는 검정의사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의과대학에 안 다니고 시험 쳐서 되는 의사를 검정의사라고 그래요. 검정의사 제도가 해방 후에 쭉 있다가 제대로 의학이 자리 잡히면서 사라졌는데, 아마 1960년대 초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의사는 공부만 잘하면 제일 아니냐고 그랬지만 임상이 주라는 걸 몰랐단 말이죠. 임상이 주지, 연구가주가 아니거든요? (중략) 그래서 그런 검정의사를 포함해 개원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 나중에는 국제학회를 열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때 주도했던 분들이 이관윤, 심해일, 박재복, 강명선, 이종탁 등등 해서 12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중에는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검정의도 있고, 항문병만 치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전 처음엔 이래서 어떻게 학회를 하느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진병호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아,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재정도 좀 있을 것 아닌가? 학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나도 도와줄 테니 시작해 보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래서 모교인 세브란스에 가서 민광식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시기상조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세요. 그러더니 결국 진병호 선생님보고 그러면 우리 김광연이 데리고 시작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대장 및 항문병학회', '직장 및 항문병학회'가 후보로 제시되었다.

이후 실무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67년 12월 22일에는 박길수 교수실에서 장선택, 이인희, 김광연, 이관윤이 참석한 가운데 장소와 회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68년 1월 19일에는 진병호 교수실에서 박길수, 박용철, 김광연, 이인희, 장선택, 이관윤, 박재복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일정에 대한 결정과 인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초대 임원 선출에 대한 결정은 합의되지 못했지만 대학가에서는 김광연, 이용우가, 개원가에서는 이관윤, 심혜일이 접촉하면서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1968년 4월 20일 대한의학협회 강당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이용우가 작성한 창립 취지문과 김광연이 작성한 회칙이 채택되었고, 초대 회장에 진병호, 부회장에 김





대한대장항문학회 '창립준비위원회' 회의록(1967.11.18)

광연, 이사장에 박길수가 선출되었다. 총무이사에는 김진복이, 학술이사에는 이인희가, 심사이사에는 장선택이 선출되었다. 또한 재정이사에는 이관윤이, 감사에는 이동식과 박용철이 선출되었다. 학회의 창립목적은 "대장항문병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에 있다"고 정하였고, 창립준비위원회 명단은 진병호, 목돈상, 김자훈, 민광식, 이용각, 장선택, 안도열, 백태윤, 박길수, 김진복, 황규철, 김광연, 박용철, 박부희, 이용우, 이인희, 김학윤, 박재복, 이관윤 등 19명으로 발표되었다. 입회비는 200원, 연회비는 1,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창립 후 학회 유지는 회원들의 회비와 이들의 기부금에 의하여 대부분을 충당하였다.

이때 학회의 공식 명칭도 1967년 세계 각국의 proctology 학회에 창립 통보되었던 '대한직장항문병학회(the Korean Proctologic Society)'에서 '대한대장항문병학회(the Korean Colo-Proctologic Society)'로 변경되었다. 명칭은 투표로 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 개원가들이 모였던 항문병집담회 측에서 기존의 직장항문병학회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1967년 개원가 중심의 '대한직장항문병학회'로 시작했던 대한대장항문학회가 1968년 대학 가 중심의 '대한대장항문병학회'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개원가 회원들의 양보와 협조가 있 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대한대장항문병학회'가 출범하였음에도 당시 대장항문학은 외 과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소외된 학문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장항문질환이 많은 데 비해 현







초창기 학회를 이끌어 간 초대 진병호, 2대 박길수, 3대 김광연 회장(왼쪽부터)

대의학의 접근이 늦은 편이었다. 1960년대 초까지는 간, 담낭담도외과, 위, 폐 등 외과적 치료를 서구에서 도입해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항문질환을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연은 "대학가나 큰 병원에서는 항문질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치료조차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이며 대장암 또한 그 발생률이 위암의 약 10분의 1에 그치면서 주목받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 따라서 대한대장항문학회 창립 후 15년간 학회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광연은 "그 기간회장단 인선과 학술대회 연재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실제로 임원진은 1968년부터 1972년 1월 진병호 교수가 작고할 때까지 회장 진병호, 부회장 김광연, 이사장 박길수, 학술이사 이인희 체제로 유지되었고, 1972년 12월부터 1974년 11월까지 회장 박길수, 부회장 김광연, 이사장 김광연, 학술이사 이인희, 1974년 12월부터 1976년 11월까지 회장 김광연, 부회장 이인희, 이사장 박길수, 학술이사 나도헌, 1976년 12월부터 1978년 11월까지 회장 이인희, 부회장 나도헌, 이사장 김광연, 학술이사 박길수로 변화하였다. 이 기간 10년 동안 심사이사는 장선택, 재정이사는 이관 윤, 총무이사는 김진복으로 동일하였으니 그만큼 소수의 인원으로 임원진이 유지된 것이다.

초창기 임원진 중 대부분은 일반외과를 전공한 인물들로 자의 반 타의 반 대장항문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초빙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학가에서 본격적으로 대장항문학을 전공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박 길수와 김광연뿐이었다. 여기에 청계천의 '이관윤 항문과의원' 원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이관윤이 개원가의 대표 역할을 하며 균형을 맞추었다."

<sup>8)</sup> 박웅채, 「우리학회 40년의 발자취(I)」.

<sup>9)</sup>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2013년 봄호, 11쪽.

<sup>10)</sup>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2013년 봄호, 10~12쪽.

<sup>11)</sup> 이관윤은 1968년 4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일경제신문』 3면 사회 면에 '치질에 관한 해설 시리즈'로서 "완치의 기쁨"이란 제하에 4주 연속으로 연재를 할 만큼 항문외과 의사로서 가장 이름난 개원의 중 하나였다.(『매일경제』, 1968.4.9; 4.16; 4.23; 4.30)

### '한국 항문외과의 효시', 박길수 교수님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2집. 179~181쪽)

올해(2009년)는 박길수(朴吉秀)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장항문외과를 표방하고 전문 진료를 개시한 지 약 50년이 되는 해이다. 선생의 제자들은 당시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늘 나비 넥타이를 매고 인자한 웃음을 띠며 아장아장 걸으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실습 강의시간에는 화장실에 얽힌(아마 전공 분야와 가까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배꼽 잡는 우스운 이야기들을 저음에 약간 쉰 듯한 목소리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해주셨다."

박길수는 1914년 출생하였다. 선생은 1942년 일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4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직을 시작하였으며, 1950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로 임명된 이후 1959년 부교수, 1965년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1972년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을 역임하였고, 1979년 정년 퇴임 때까지 우리나라 대장항문외과 분야를 개척하고 선도하는 데 헌신하였다. 정년 퇴임 후에는 을지병원 외과부장을 역임하였으며, 1994년부터 원로과학기술자문단 보건부 외과분과 단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의학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였다.

선생은 우리나라 외과의 학문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72년 대한대장항문병학회 회장, 1973년에는 대한 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7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항문외과 지침서인 『대장항문외과의 임상』을 발간하였다. 고령에도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후학을 독려하였으며, 2002년 88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현재 서울 대장항문학 연수강좌에서는 고인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매년 '박길수 교수 기념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집필: 박재갑)



박길수 박사, '신(新) 양생학, 치질' (경향신문, 197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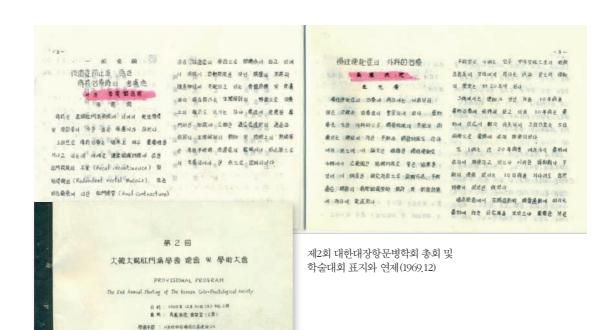
특히 학회 출범 단계부터 관여한 박길수가 1979년 서울의대를 정년 퇴임할 때까지 이사장, 회장 등 임 워진의 한 축을 구성하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박길수는 갑상선종에 대한 '자가혈액요법'과 함께 "직장 암, 즉 치질 수술에 있어서 괄약근을 보존해가면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수술"한 것을 스스로 필생 의 업적으로 꼽을 정도로 매우 이른 시기부터 대장항문외과를 전문으로 하였다. 박길수는 "이 수술은 필자에 의해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자 자신도 이 수술법을 습득하기 위해 3년여가 걸렸으 며 지금까지도 시술하고 있고, 약 300례의 수술 건수를 가지고 있다"고 회고하였다.12

1979년부터는 김광연이 1988년까지 무려 10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외과학계의 중진들을 회장으 로 초빙하는 방식으로 학회의 명맥을 유지해 갔다. 김광연은 "언제가는 대장항문학회가 일본처럼 완전 히 분리될 때를 대비해 외과학회 중진을 모신 것"이라고 회고하였다.13

1979년에 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이용각을 1981년 대장항문학회 회장으로 모신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첫 학술대회인 '제1회 대한대장항문병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는 1968년 12월 6일,

<sup>12)</sup> 박길수, 「의학 반세기의 회고」 『서울대학교병원 병원보』 1989.3. 118호.

<sup>13)</sup>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2013년 봄호, 9쪽.



앰배서더 호텔 15층에서 국내외 학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때 박길수를 좌장으로 하여 6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는데 김광연, 김익수, 김창권이 "한국인에 있어서 대장외과의 특이성"을, 이관 윤이 "직장항문병 영역의 발달에 관한 의사학적 연구"를, 박찬지가 "전기응고요법을 중심으로 한 직장항문질환의 임상치험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김광연, 김익수, 박동석이 "직장에 발생한 악성 Carcinoid Tumor"를, 박철규, 최국인, 박길수가 "직장에 국한된 다발성 Polyp증의 1례 보고"를, 그리고 장영순, 정전은이 "성인의 선천성 거대결장 치험 1례"를 발표하였다.

1969년 12월 20일 고려병원에서 열린 제2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도 이관윤, 김광연, 박길수에 의해 단 3편의 연제만이 발표되었다. 이때 이관윤은 "후유증 방지를 위한 치핵 치료 시의 고찰점"에 대하여, 김광연은 "만성 변비증의 외과적 치료"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초창기 학술대회의 연제 수는 당시학회와 학술대회의 규모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집작할 수 있게 해준다.

計畫大學校 医肺太管 附屬義配 分科司 會為 #230150 -0.71 (統約526)

(119) 884124600)

<sup>14)</sup> 대한대강항문학회, 『대한대강항문학회 소식지』2013년 봄호, 13쪽. 15) 대한대강항문학회, 『대한대강항문학회 소식지』2013년 봄호, 12~13쪽



제11회 대한대장항문병학회 학술대회 연제(1978.12.8)



학회 '로고'가 처음 사용된 1979년 제12회 학술대회 초록집(1979.12.14)

그러나 학술대회를 개최한 지 10년 만인 1978년 12월 8일 고려병원에서 열린 제11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30연제가 초록집에 실렸고, 이때부터 이러한 규모가 유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연은 "연학술대회 1회 이상과 30연제 이상이 지속되지 않으면 의학회 인정이 당시로서는 취소될 수 있었는데 이를 미처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 의학회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당시 외과학회 임원을 겸하고 있었기에 그해부터는 본인들의 양해 하에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접수된 논문 중 대장, 직장 및 항문에 관한 연제를 끌어왔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sup>49</sup>

1979년 제12회 학술대회에서는 대한대장항문병학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최초로 제작하였고 초록집도 정식 책자로 편집하였다. 또한 1980년 5월 10일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에 입회하기 위해 가입인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981년 10월 6일 분과학회 협의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소규모 연구회 수준에서 전문적인 학회로 성격을 전환하고자 했던 중요한 시도였다. 15

그러나 1968년 26명, 1969년에 39명 규모였던 학회 정회원 수는 1978년에 70명, 1980년에 81명 수준에 머물렀고, 1982년 108명으로 세 자릿수에 처음 진입하였으며 1987년까지도 186명으로 200명을 넘지 못

### '대장항문외과를 개척한', 김광연 선생님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 제2집. 189~191쪽)

김광연(金光演)은 1929년 김대우와 김성덕의 7남매 중 둘째로 평안남도 강동군에서 출생하였다. 1949년 세브란스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과 수련을 마친 후 20여년 동안 모교에서 교수로 봉직하였다.

6.25전쟁에는 군의관으로서 5년 동안 최전방에서 의무중대장을 지냈는데 이때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인생관을 확립하게 되었다고 하며 군의관 시절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졌다고 한다. 선생이 압록강변에서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무용담은 후에 많은 후배와 제자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다.

1962년에는 종래 내과적 치료에만 의존해 왔던 간디스토마의 외과적 치료에 성공함으로써 간디스토마 치료의 새 장을 열었다. 1961년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때 나이 32세였다.

1964년부터 2년간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대장 및 직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슬론 케터링(Sloan Kettering) 암센터와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에서 연수를 했다. 우리나라에 대장, 직장 및 항문외과 전문의 제1호가 탄생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 대부분의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기피하기까지 하던 대장이나 직장 항문질환이

향후에는 중요한 건강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고 이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며, 1967년에는 대한대장항문병학 회를 창립하고 20여 년 동안 이 학회의 이사장,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의 발전과 대장항문질환 연구의 최일선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특히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업적은 국내에서는 단연 독보 적이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중략)

1968년에 연세대학교를 떠나 그해 새로 개원한 고려 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하였다.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 를 거쳐 1989년에는 대한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88년 고려병원장 취임과 동시에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으로서 병원협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의료보험의 부조 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많은 업적을 남겼다. (집필: 황 의호)



김광연의 오스트리아 빈 대학 대장·직장·항문외과 전문의 자격증(1965)



'김광연 박사의 지상진단, 치질'(『동아일보』, 1973.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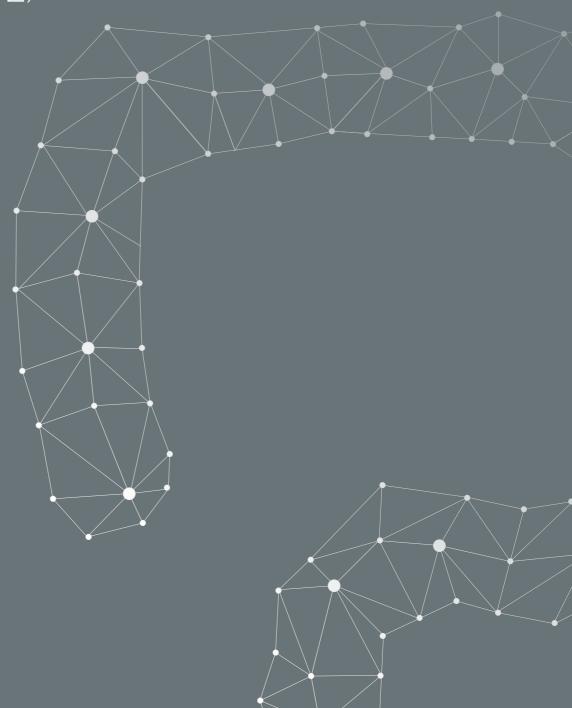
대한대장항문병학회 가입인준신청서(1980.5.10)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회 창립 시 기부터 회장, 부회장,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1979년부터 1988 년까지 10년간 이사장을 지낸 김광연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 었다면 학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를 전후하여 홍성국, 민진식, 우제홍, 박재갑, 전수한, 심민철 등 해외에서 대장항문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인물들이 대장항문학회 활동에 본격적으 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학회의 전문성 제고와 저변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1년 10월 6일 분과 학회 협의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한 이래 정회원 학회 자 격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었다. 특히 1985년 3월 6일 마침내 정회원 학회로 승격하여 명실공히 하나의 독립 된 학회가 된 것은 학회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 03

정회원 학회 승격과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 발간 (1985~1995년)



대한대장항문학회는 1980년 5월 10일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에 입회하기 위해 가입 인준 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1981년 10월 6일 분과학회 협의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함으로써 기존의 연구회 수준에서 정 식 학회로의 도약을 준비하였다.

의학협회 인정을 받기 위해 1978년 제11회 학술대회부터 초록집에 30연제를 게재하였으며, 1979년 제 12회 학술대회부터 '대한대장항문병학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최초로 제작하였고 초록집도 정식 책자로 편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5년 3월 6일 마침내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의 정회원 학회로 승격 하여 명실공히 하나의 독립된 학회로 인정받게 되었다.

1984년 제17회 학술대회까지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초록 및 특별강연 등을 중심으로 연 1회 초록집 을 발간하던 수준이었던 데 비해 1985년 12월 제18회 학술대회부터는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The Journal of the Korean Colo-Proctological Society) 창간호 제1권 제1호를 창간함으로써 정회원 학회로 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이는 이 무렵부터 정식 논문을 게재할 전문 학술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지 창간을 계기로 대장항문병에 대한 관심도 날이 갈수록 증대되어 대한대장항문병학회 지 발간도 1986년부터 연 2회, 1992년에는 연 3회, 1993년부터 연 4회로 증가하였다. 아래 사진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학술대회 사진으로, 1986년 11월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제19차 대한 대장항문병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의 모습이다. 100명 내외의 작은 규모였지만 1980년대 초반 집담회 수준에서 벗어나 학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정회원 학회 승격 이후 학회의 달라진 위상을 느낄 수 있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제1권 제1호 (198512)



제19차 학술대회(1986,11,28)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제1권 제1호 (1985.12)



대한대장항문병학회·대한외과학회 편, 『하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

다. 당시 심포지엄 주제는 Rectal prolapse였으며 좌장으로 박길수, 토의자로 전수한, 김인구, 최원, 권광 보가 참여하였다.

한편 1988년 5월부터 준비가 시작되어 1989년 3월 5일에 발간된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Colon, Rectal and Anal Cancer)』 도 정규 학술지 발간과 더불어 정회원 학회 승격 이후 학회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당시 한국인의 암 발생 빈도는 남녀 공히 위암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의 경제 사정이 점차 향상되면서 대장암의 발생 빈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런데 1988년 초 대한대장항문병학회 주관 하에 전국 주요 31개 수련병원에서 취급하는 대장암 분류 방법을 조사한 결과 각각 TNM 분류(11개 병원), Dukes 분류(12개 병원), Astler-Coller 분류(17개 병원)를 사용하고 있었고 2개 이상의 분류를 채택한 곳도 13개 병원이나 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대장암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외과학회 석상에서나 지상발표를 통해 상호 비교가 어려웠고 통일된 의견을 끌어낼 수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대장항문병학회는 1988년 5월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위원장에 김광연, 이찬영, 실행위원에 외과 5명(전규영, 홍성국, 민진식, 박영관, 우제홍), 내과 1명(민영일), 병리과 3명(김용일, 박찬일, 김명숙), 예방의학과 1명(안윤옥), 치료방사선과 1명(서현숙)과 실행간사 3명(박재갑, 이봉화, 이기형)을 선임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6회에 걸쳐 모임을 갖고 많은 토론과 staging 분류를 숙고하였다. 이에 대해 김광연과 함께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준비회의(1989.4), 워커힐 호텔 더글라스 홀에서 왼쪽부터 박재갑, 이봉화, 이기형, 이찬영

#### 이찬영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1988년 제21차 대한대장항문병학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그전에는 대장항문병 동호인 200여 명 이 모여 미약한 학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학회의 재정도 거의 없었으며, 매년 늦가을이 되면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학회의 명맥을 유지하였고, 끝나면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발행하는 학회지가 전부였다. 그나마 지금까지 학회를 이끌어주신 분은 김광연 선생님이시고, 대장항문을 좋아하는 몇 분이 도와주었다. 나는 대한대장항문병학회 회장으로 취임하면 서 낙후된 학회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조금이라도 학회에 공헌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 다 (중략)

6회에 걸쳐 위커힐 콘도미니엄을 빌려 현재 국내 외과의들의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술식 정도와 병리 과 의사의 협조 문제 등을 감안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한국형 Staging 분류를 만들었다. 본안을 제정하는 주안점은 첫째, 가급적 한국적인 독립성을 강조하였고, 둘째,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이 해하도록 고안하여 타 분류(Dukes, TNM, 일본)와 연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향후 대장암의 외 과 술식과 기타 치료 등이 향상되도록 분류하였다. 넷째, 임상 및 병리적 의학정보 요소 등을 쉽게 이해 하기 위하여 용어를 통일하였다. 다섯째, 향후 컴퓨터를 이용한 다변형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위하여 300개의 기초자료(Single data base)를 취급하였다. (중략)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한 전규영, 우제홍, 박응범(왼쪽부터)

나는 회장직을 맡으면서 남의 나라를 흉내 내는 모방 연구에서 탈피하고 싶었다. 짧은 기간(1년)에 깊은 검토를 할 수는 없었지만, 실행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암 취급지침서를 만들었고, 또한 나의 정성과 대한외과학회의 보조금(200만 원)으로 이 지침서를 편찬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었다. 또한 대장항문병학회와 외과학회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 주어 이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렇게 대장항문병학회가 활성화되니 후에 우리나라 위암학회에서도 취급지침서를 만들 계기가 되었고, 한국형 위암 분류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비록 홍보 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당대에 이러한 '한국형 Staging 분류법'이 널리 통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던 외과 실행위원 전규영, 홍성국, 민진식, 우제홍, 그리고 실행간사 박재갑, 이봉화, 이기형이 이후 회장, 부회장, 이사장, 학술이사, 총무이사 등 학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회 발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1989년 『한국인 대장암 취급지침서』의 발행은 대장항문학회 50년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무렵의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는 학회 주도 인물의 변화와 저변 확대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67년부터 1988년까지 김광연이 회장과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초기 학회를 지탱해 갔다면 1989년 이후에는 전규영(한양의대), 우제홍(국립의료원), 박응범(이화의대)이 2년씩 이사장을 맡으면서 학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갔다.

1985년 이후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는 1991~92년에 이사장을 역임한 우제홍의 회고를 통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sup>16)</sup>

"솔직하게 얘기해서 1980년대에만 해도 대장항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학회 임원도 지금처럼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처음에 국립의료워 스태프로 들어갈 때는 외과 전문의로 간 거였고 사실 위장을 했는데, 노르웨이의 제 지도교 수가 colo-rectal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진로가 바뀐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박길수 선생님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죠. (중략) 홍성국 선생님이 영국, 미국을 다녀오셨고, 저 다음으로 심민철 선생이 미국에, 박 재갑 선생도 미국을 다녀왔지요. 그래도 대장항문을 자기가 제 발로 하겠다고 온 건 박재갑 선생이 처음 이 아니었나 싶어요. 돌아가신 한양대의 전규영 선생님, 가톨릭대의 주상용 선생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장항문학회 좀 키워주십시오 해서 회장 맡으시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는 것은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박응범 선생이 이사장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때부터 흑자를 좀 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사장도 처음에 잠깐 박길수 선생님이 하시고. 88년까지는 김광연 선생님이 계속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규영 선생님으로 바뀌었나? 아무튼 85년에 정식 학회가 되고 나서 이사장 임기에 대한 규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2년씩 하는 방식이 됐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일은 총무가 많이 하던 시절이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우리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85년 부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1999~2000년에 이사장을 역임한 심민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시기 상황을 회고하였다.

"미국에 간 게 80년, 81년인데 뉴욕 Mount Sinai의 대장항문 파트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메모리얼 암센터가 유명한데 거기도 대장암 파트로 들어갔고, 뉴욕대학병원의 대장항문외과에서도 연수를 했어 요. 메모리얼 센터는 암센터인데 앵글로색슨 계통이고, Mount Sinai는 말 그대로 Sinai, Jewish 병원이 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대장항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점이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아마 저보 다 빨리 대장항문을 전공으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분은 김광연 선생님하고 우제홍 선생님 정도가 아 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 다음에 한 사람이 전수한 선생이 81년이가 82년에 했고. 그리고 손승국 선생에 게 '너 대장항문 해라' 이렇게 됐지요. 아무튼 당시에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 어요. ECFMG 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가는 사람 외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것 자 체가 굉장히 드물고 어려웠어요. 비자 받기도 어렵고 그만큼 기회가 적었지요. (중략) 한국에서 당시 대 장항문병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치질과 관련된 쪽이 많았는데 그것도 형편없는 지경이었어요. 직장암 자체는 거의 없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직장암도 흔한 질병이고 염증성 장질환 등등 국내에서는 희귀

<sup>16)</sup> 우제홍 선생님 인터뷰, 2016.4.1.

<sup>17)</sup> 심민철 선생님 인터뷰, 2016.4.1.

한 것들을 많이 보고 공부하고 올 수 있었죠. 그리고 학회는 세브란스에서 외과 레지 던트를 하고 외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국립 의료원에서 대장항문병학회 모임에 비정기 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미국 에서 연수하면서 대장항문을 전공하고 왔 으니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82년에 귀국한 이후에 본 격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민진식의 영국 St. Mark's Hospital 유학 시절(1983)

당시 대장암, 직장암 등은 한국보다 서양 에서 훨씬 흔한 질병이었고 연구도 먼저 발

전했기 때문에 우제홍, 심민철이 회고하였듯이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지에서 유학한 홍성국, 민진식, 우제홍, 박재갑, 전수한, 심민철 등의 인물들이 대장항문을 전공하고 한국에 돌아와 학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이 시기 학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 대장항문학회의 발전에 있어서 일본 대학가 및 개원가와의 교류가 미친 영향도 매우 컸다. 1972년 일본대장항문학회에서 김광연이 정식으로 한국 대표로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1973년부터 일본 학회에 참석하였고,<sup>18)</sup> 개원가인 최경달도 1980년대 초에 일본 대장항문학회에 참석하여 우연히 김 광연의 강연을 들었고, 구마모토의 다카노 마사히로(高野正博)를 만나 20년 넘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에 대한 최경달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sup>19)</sup>

"그해 대장항문학회가 경도, 교토에서 열렸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경도국제회관이라는 곳을 찾아갔더니 회의장에 들어가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회원이 약 300명, 강연장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초청 강연을 김광연 선생님이 하셨는데, 제목이 '한국 대장항문병의 현황'인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일본말 잘하니까 일본어로 쭉 발표를 하는데 상당수 병이 결핵성인 거예요. 결핵성 치루, 결핵성 대장염 등등. 그때 일본은 결핵을 거의 정복했을 때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핵이 상당히 많을 때였죠. 그러니까 질문이 한국에는 아직도 결핵이 있느냐,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회 이틀 동안의 강의를 끝까지 다 들었는데 논제가 수십 개였지만 제가 잘은 몰라도 어떤 것은 엉터리고 그랬지만 한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구마모토의 다카노 선

생, 다카노 마사히로(高野正博)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워낙 많고 제대로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구마모토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사 를 하니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에 놀랐느냐면 어떻게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왔느냐. 그 해에 한국에서 온 사람이 나랑 김광연 선생, 딱 둘이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김광연 선생님도 제가 올 줄 몰랐고, 저도 김광연 선생님이 강연하는 것도 모르고 가서 우연히 강의를 들었던 것이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제가 다카노병원과 한 20년간 관계를 맺고 일본 학회에도 그 뒤에는 한 번도 아 빼고 쭉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제홍도 1982년 다카노 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그가 개원가의 학회 참여 확대를 조언했다고 회고하였다.20)

"이봉화 선생하고 82년도에 일본에서 국제 대장항문학회를 했어요. 당시에 외국 갔다 온 사람을 찾다 보니 저밖에 없었는지, 저를 부좌장을 시키고 좌장을 다카노 선생이라고 일본 분이 하셨는데. 그분이 한 국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 대장항문학회가 어떠냐고 하시길래 우리는 지금 엉망이라고 했 더니 학회 활성화를 위해 당신이 한국에 와서 강의도 하고 가르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본은 병원도 많이 있고 학회도 굉장히 잘되던 시기예요. 당시엔 우리가 초대할 돈도 없으니까 본인이 개인 돈 들여서 오시고, 다행히 국립의료원에 외국 손님이 오면 잘 수 있는 숙소가 있으니까 숙소는 그렇게 해결 하고 그런 식으로 몇 번 오셨었지요. 그리고 그분의 윗분이 스미코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일본에 서 우리나라로 치면 박길수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양성질환에 대한 강의도 하시 고, 암 질환에 대해서는 일본 암연구소의 다카하시라는 선생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격식을 갖춘 정식 학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략) 결국 그분 들이 우리 학회를 많이 키운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영국의 세인트 마크스 아니면 일본, 특히 다카노 선생에게 많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에 많이 가기 시작했고, 회원 도 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대학들만 모이다가 다카노 선생이 개원가들도 끌어들여야 한다 고 제안을 해서 학회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sup>18)</sup> 김광연 선생님 인터뷰, 2015.12.2.

<sup>19)</sup> 최경달 선생님 인터뷰, 2016 6 12

<sup>20)</sup> 우제홍 선생님 인터뷰, 2016.4.1.

<sup>21)</sup> 이찬영 선생님 인터뷰, 2016.7.22.



학술대회 초청연자로 온 스미코시 선생과 아래 왼쪽부터 호조(일본 암센터), 김광연, 스미코시, 이찬영, 윗줄 왼쪽부터 우제홍, 전규영, 다카노(다카노병원), 이봉화(1989,12)

일본과의 이러한 교류는 1984년 12월 7일 서울대에 서 열린 17회 대장항문병학회 학술대회에서 일본 암 연구소의 다카하시 박사, 구마모토 다카노병원의 다



이기형의 일본 연수 시절(1987.4)

키노 원장 특강으로 이어졌으며, 1980~90년대 학회 발전과 개원가의 참여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서는 이찬영의 회고를 통해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sup>21)</sup>

"외국에 있는 대장항문 교수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었던 것. 예를 들어 구마모토에 있는 다카노 선생이라든가 일본 암연구소의 다카하시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회를 위해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시고, 학술 교류도 도움을 주고. 일본사회보험병원에 있는 스미코시 선생이라든가 동경대학에 있는 무토 선생이라든가, 그런 암센터에 있는 교수들이 와서 강의해주고, 후배들 교육시켜주고 이런 것들도 발전의 밑거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중략)

아무래도 미국 의학이 1960년대에 우리보다 30년이 앞서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 의학도 20년은 앞서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 대장항문 취급지침서를 만들고 나서 수술 테크 닉이 많이 발전했고, 미국보다 예후는 더 좋았지요. 게다가 올림푸스라든지 내시경을 자기 나라에서 만드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분들은 진짜 한국을 좋아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들 돈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거기

## 일본 구마모토의 대장항문 전문병원, 다카노(高野)병원 22)

일본 구마모토의 다카노병원은 1982년 1월 4일에 대장항문 전문 병원을 표방하며 탄생하였다. 창립 초기에는 70개 병상에서 시작했지만 환자가 늘면 서 증축하여 현재는 166개 병상 규모의 병원이 되 었다.

다카노 마사히로(高野正博) 원장은 1980년대 초부터 한국의 대장항문학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김광연, 최경달, 우제홍 등 대학가





다카노 마사히로 원장과 그가 대표 집필한 『항문질환의 진료』(2009)

및 개원가들과 교류하였으며, 양형규 양병원 원장 등 많은 한국인 대장항문 의사가 다카노병원에서 연수하면서 1990년대 본격화된 한국의 대장항문 전문병원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2009년에는 다카노 원장이 대표집필을 맡고 각 분야 16명의 전문의가 필자로 참여한 「항문질환의 진료」를 한 국에서 발간하기도 했는데, 번역을 맡은 이석환(경희의대 외과)은 "이 책이 다루는 전 분야에 대한 세심한 접근에 놀랐으며 임상의사에게 필요한 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가 워낙 유명하니까 가서 배우려고 하고. 구마모토에 다카노병원이 아주 컸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고. 송 도병원의 이종균 선생도 요코하마의 대장항문 개인병원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거기 이름이 송도라서 그 런 병원을 만들겠다고 이름을 송도병원이라고 짓고 그랬습니다. 다카노 선생은 매년 와서 도와줬고 다 카하시 선생도 그렇고, 동경대 외과의 무토 선생, 스미코시 선생, 그리고 미국에 있던 제 대학교 동창 박 재선 선생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도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이와 같은 해외 유학 및 국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영국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대장항문병학 회(International Society of University Colon and Rectal Surgeons)에서는 제14차 세계대장항문병학회 를 1992년 6월 한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왼쪽 『의협신문』 기사는 명예회장에 김광연, 조직위원장

<sup>22)</sup> http://www.takano-hospital.jp/; 『의협신문』 2009.6.1.

에 홍성국이 선임되어 조직위원회 구성 등 학술대 회 준비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1992년 제14차 세계대장항문병학 회는 서울이 아닌 스웨덴 말뫼(Malmiö)에서 개최 되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 유치의 시도와 경험이 결국 1995년 AFCP 한국 개최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관련된 전호경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sup>23)</sup>



"ISUCRS가 오스트리아 그라즈(Graz)에서 개최되었을 때가 1990년이었는데, 한창 대장항문외과가 발전했던 때라 우리나라에서 대장항문에 관심이 있는 외과 의사가 한꺼번에 꽤 많이 참석했지요. 그때는 홍성국 선생님이 힘을 쓰실 때인데, 그분이 부인인 최정화 여사하고 같이 오셔서 어떤 궁전을 같이 산책하고 저녁 먹으러 들어가면서 우리도 ISUCRS 한 번 개최해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때였는데, 우리가 유치하면 당신께서 필요한 돈은 다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으로 떠나신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말이 씨가 되어서 2010년에 ISUCRS를 서울에서 개최한 셈입니다."

이와 같은 1985년 이후 대장항문학회 및 대장항문학의 성장세는 1986년 11월 "국내 최초의 대장항문 전문치료소"로서 박응범이 이끄는 이화여대부속병원 외과 '대장항문클리닉'이 출범하고, 1987년 이종균 이 국내 최초의 대장항문 전문병원으로서 송도병원을 청량리에 개원하는 등 대장항문질환의 '전문적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및 기반 시설 증가와 함께 나타났다. 오른쪽 기사와 같이 이미 1990년에 이대부속 병원 대장항문클리닉에서는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서울대학교병원 등 대장 항문클리닉과 대장내시경을 갖춘 병원들이 속속 증가하였다.

<sup>23)</sup> 전호경 선생님 인터뷰, 2016.7.5.

<sup>24)</sup> 식생활 서구화로 대장암 급증, 『매일경제』1990.12.12; 「지방 과다섭취… 대장질환 크게 늘어」 『매일경제』1992.4.6; 「유전성 대장암 국내 연구 본 격화」 『한겨레』1992.6.12.

<sup>25)</sup> 오승택 선생님 인터뷰, 2017.2.8.



이대부속병원 대장항문클리닉의 대장내시경 진단 (『한겨레』1990.6.14)



유전성 대장암 연구 본격화 전망(『한겨레』 1992.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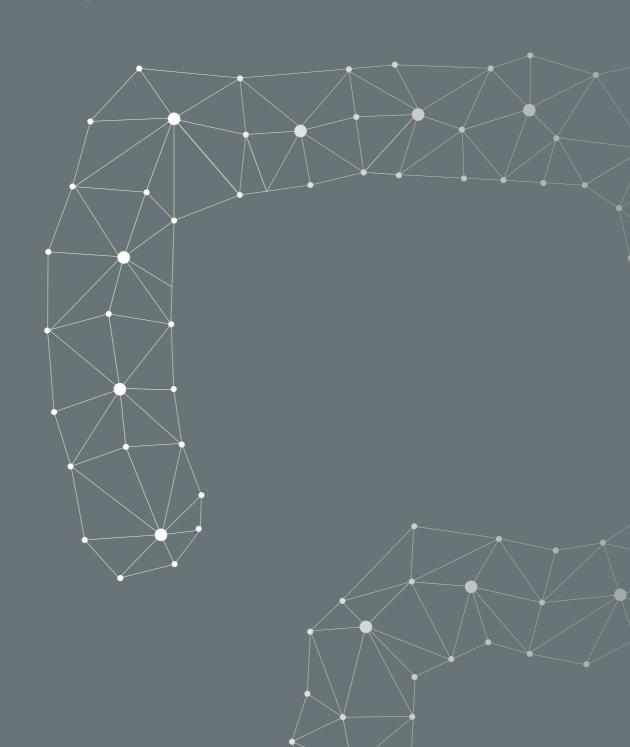
이와 함께 각종 일간지에 "식생활 서구화로 대장암이 급증한다", "지방 과다 섭취로 대장질환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가 등장하였고, 1992년에는 서울의대 박재갑 교수팀이 "유전성 대장암에 대한 국내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대장암 및 대장질환 전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sup>24</sup>

여전히 위암, 간암, 폐암 등 한국에서 전통적인 암의 발생률이 전체 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무렵에 이르러 대장암 발병 빈도는 점차 높아져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 암 사망자 중 네 번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장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94년 일-중 대장암 심포지엄에 대장항문학회 회원들이 참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일본과 중국의 대장암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심포지움을 시작하였는데, 1994년 중국 항주에서 개최된 제4차 일-중 대장암 심포지엄부터 이기형, 배옥석, 전수환이 옵저버로 참석하면서 한-중-일 3국의 대장암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된 것이다. 2년마다 개최된 이 심포지엄은 2000년에 제7차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1995년 제5차AFCP 한국 개최를 계기로 더욱 확산되었고, 이는 학회 발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25

# 04

국제 교류 활성화와 세부전문의 제도 추진 (1995~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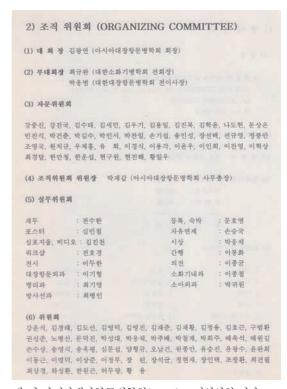


1995년 제5차 아시아 대장항문병학회(The Asian Federation of Coloproctology)의 서울 유치는 대한대 장항문학회 50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는 1985년 정회원 학회 승격 후에 '매년 총회와 함께 국내 및 국제 대장항문병학회 회원을 초청, 연제 발표 및 특별강연 등을 통해 학술활 동을 활발히' 했던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20

원래 아시아대장항문병학회(AFCP)는 1975년 1월 인도에서 창설되어 2년 뒤인 1977년 11월 일본에서 2차 대회를 개최한 이래 1992년 11월 일본에서 3차 대회를, 1993년 10월 인도에서 4차 대회를 여는 등 소규모의 부정기적 개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4차 대회에서 김광연을 차기 아시아대장항문병학회 회

장으로, 박재갑을 차기 사무총장으로 결정하였 고, 1995년 6월에 서울에서 5차 대회를 개최하기 로 하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94년 1월 13일 대학로 동숭동 아트센터 에서 제1차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 본격적인 준 비를 시작하였다. 첫 실무위원회에는 김광연, 박 응범, 전수한, 문홍영, 심민철, 손승국, 김진천, 이 봉화, 이종균, 최기영, 박기원, 최병인, 박재갑 등 13명이 모여 프로그램 초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1995년 5월 16일 롯데호텔 버클리 룸에서 김광연, 박응범, 박재갑, 전호경, 이기형, 우제홍, 박귀원, 최상경, 이두한, 문홍영, 박상수, 윤완희, 최기영, 김영진, 윤성수, 박규주 등 16명 과 사무직원 4명이 모여 제 17차 실무위원회를 진행할 때까지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차근차 근 준비가 진행되었다. 오른쪽 표는 제5차 AFCP



제5차 아시아대장항문병학회(AFCP) 조직위원회 명단

<sup>26)</sup>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2013년 봄호, 14쪽.

조직위원회 명단이다.

1994년 2월 17일의 제3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참가 인원 목표를 약 1,100명으로 잡으면서 명실상부한 국제학회 규모를 목표로 하였고, 같은 해 7월 14일 제6차 실무위원회에서는 초청 연사를 영국의 Keighley, 미국이 Lloyd Mayer, Newstead, 소아외과의 Saeki, Shinya, Watanabe, Wexner 등 해외 저명 학자들로 구성하여 질적인 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학회를 지향하였다. 전시 부스도 50개 규모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중 43개를 판매하여 학회 등록비 이외에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대외 홍보에도 치중하여 1994년 11월 의협신문과 병원신보에 각각 제5차 아시아대대장항문병학회에 대한 홍보 기사가 실렸으며, 행사 개최 직전인 1995년 5월에도 의계신문과 의사신문에 홍보 기사가 게재



제5차 아시아대장항문병학회 신문 보도 (『의협신보』 1994,11,28, 『의사신문』 1995,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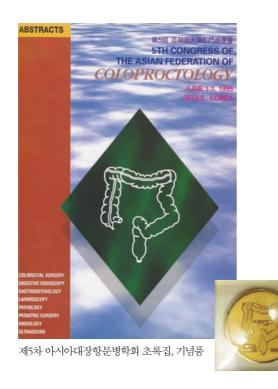
제5차 아시아대장항문병학회(1995.6.1~3, 롯데호텔)<sup>27)</sup>

되었다. 이들 신문에는 학회 참가국, 참가대상, 연수평점, 조직위원회, 학술프로그램, 특강, 워크숍, 심포 지엄, 등록안내 등 학회에 대한 매우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어 국내 참가를 독려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 지면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1995년 6월 1일에서 3일에 개최된 제5차 AFCP에는 실제로 국내 회원 702명, 국외 회원 480명, 동반자 41명 등 모두 28개국, 1,223명이 등록하였고, 실제 참가자도 21개국 1,055명에 이르렀다. 개최국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 300명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고, 미국, 중국, 대만, 호주, 태국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광연은 "당시 528편의 연제 발표와 대장항문학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41편의 특강과 13개 분야 의 심포지엄, 워크숍, 포스터 발표 등으로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수준 높은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대장 항문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총 1,223명이 등록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학술대회 사상 처음이었다"면 서 제5차 AFCP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sup>27)</sup> 위 사진의 인물들을 추정하기 위해 당시 AFCP 회장 김광연, 사무총장 박재갑을 제외한 임원진 13명의 명단과 국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hu Zeng(China), Kin Wah Chu(Hong Kong), R.S. Sinha(India), Warko Karnadihardja(Indonesia), Mohammad Vafai(Iran), Micha Rabau(Israel), Masayuki Yasutomi(Japan), Samuel KS Tay(Malaysia), Romeo Gutierrez(Philippines), Hak-Su Goh(Singapore), Tzu-Chi Tsu(Taipei), Tanit Vajrabukka(Thailand), Chuong Long Pham(Vietnam).(『제5차 아시아대장항문병화회 화술대회 결과보고서』, 13쪽)



연 도	평 생 회 원	정회원	합 겨
1985		140	140
1986		164	164
1987		186	186
1988		219	219
1989		236	236
1990		233	233
1991		239	239
1992		247	247
1993	56	312	368
1994	90	301	391
1995	109	316	425
1996	130	334	464
1997	361	271	632
1998	428	270	698
1999	534	276	810
2000	635	268	903
2001	773	275	1048
2002	915	275	1190
2003	1007	278	1285
2004	1065	280	1345
2005	1129	280	1409
2006	1229	290	1519
2007	1296	307	1603

1985~2007년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원 수 추이

실제로 제5차 서울대회를 계기로 AFCP는 매 2년마다 차기 개최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고, 아시아학회로서 조직을 강화하여 최신 정보 및 연구 업적을 신속하게 교환하고 학문적 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2003년에도 박재갑을 회장으로 제9차 대회를 다시한 번 개최하였고, 2017년에는 전호경을 회장, 박규주를 조직위원장으로 하여 제16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은 지금까지 네 차례 학회를 유치한 일본과 함께 아시아태평양대장항문학회 (APFCP)를 주도하고 있다.<sup>28)</sup>

1995년의 제5차 아시아대장항문병학회(AFCP)가 대한대장항문학회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라 할수 있는 이유는 학회 회원 수 증가와 저변 확대에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정회원 학회가 된 1985년부터 2007년까지 대장항문학회 회원 수의 추이를 보여준다. 1985년 140명에 불과했던 학회회원 수는 AFCP 개최가 결정된 1993년 처음으로 300명을 넘어섰고, 1995년 400명을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1년 1,000명을 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회원 수 증가는 AFCP 외에도 이미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장 암 및 대장질환 환자의 증가, 이에 대한 대장항문 전문클리닉 및 전문병원의 탄생 등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장암의 증가로 대학가는 대장암 수술을 중심으로, 개원가는 양성질환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 것도 학회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국제 교류 및 해외연수의 증가, 학회의 재정 자립기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1995년 AFCP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조직위원장인 박재갑 교수의 지도제자로서 각종 실무를 담당했던 박규주의 회고를 참고할 만하다.<sup>29)</sup>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항문질환이 더 많았지만, 우리가 레지던트 할 때까지만 해도 위암 수술 1,000개씩 할 때 대장암 수술은 한 100~15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대장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98년에 발령을 받았고, 95년에 펠로우를 했는데 그때부터 대장암 수술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국제 학회가 맞아떨어지면서 여러 가지가 레벨업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대장암에 대한 페이퍼도 별로 없었는데 그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박재갑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알아두었다가 그 양반들을 학회에 다 부르면서 이때 연자진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연자진으로 구성이 됐어요. 이 책을 보면 초청 연자가 다 나옵니다. 각국의 대표적인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 대사관에 편지까지 썼고, 그래서 유명한 연자들로 굉장히 수준 높은 학회를 만들었어요. 일본도 당시에 그렇게 크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회 입지도 좋아지고, 또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교류가 시작됐죠.

그때는 대장항문학회 구성원도 몇 명 없었는데 이른바 학회의 후발주자들이 여기서 만나면서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웩스너나 램지,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을 다 알게 되고 우리가 해외로 연수를 가서 우리나라의 임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학회의 존재를 알렸고, 그러면서 해외연수도 굉장히 증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만든 것인데,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을 잘했어요. 그때 보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적자 난다고 짜장면도 안 시켜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한 1억5,000원인가 남겼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학회 기금으로 넣어서 그때부터

<sup>28)</sup> AFCP(Asian Federation of Coloproctology)의 명칭은 APFCP(Asian 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로 변경되었다. 역대 대회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www.congre.co.jp/apfcp/information.html. 29) 박규주 선생님 인터뷰, 2016.7.12.

#### 대장항문 '전문병원시대'의 개막

1987년 이종균의 송도병원이 청량리에 국내 최초로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개원한 이래 1990년대 들어 대장 항문 전문병원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81년 용산외과의원 시절 30병상 수준에서 출발한 송도병원은 1990년 도선 동으로 이전하면서 60병상 규모로 확장하였고, 1994년 현재 위치인 신당동으로 본원을 이전 개원할 때에는 120병상 규모에 이르렀다. 1997년 『동아일보』보도에 따르면 이 시기 송도병원은 "세계 최대의 항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30

1990년 서울대학교 외과 출신 강윤식, 김도선, 이두한이 대장항문 전문 서울외과클리닉을 개원하였고, 1999년에는 서초구 방배동 대항병원으로 확장 이전 개원하였다. 대항병원은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 80병상을 갖추었으며 대장과 항문질환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며 변비클리닉, 복강경클리닉, 항문통증클리닉 등 특수클리닉을 개설하였다.<sup>31)</sup>

1990년에 개원한 이동근 외과의원은 1991년 3월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장비와 전자내시경을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항문질환에 대한 레이저 수술을 시행하였다. 아래 기사와 같이 레이저 수술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전문병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역시 1998년 송파구 한솔병원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1986년 구리 양외과의원, 1996년 남양주 양병원으로 확장한 앙형규도 2005년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서울양병원을 신축 개원함으로써 송도병원, 대항병원, 한솔병원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내 4대 대장항문 전문병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전문병원 시대'의 개막과 발전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이에 따라 대장암과 대장항문 질환이 모두 증가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대장암은 대학병원이, 양성 대장항문 질환은 대장항문 전문병원 및 개원가가 담당하는 '상생'의 구조가 정착됨으로써 대장항문학회는 대학가와 개원가가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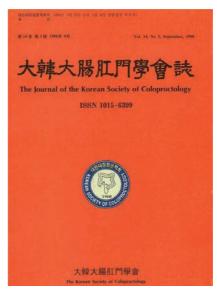
'전문병원 시대', 레이저 수술 논란 속 증가(『동아일보』 1996,9.9)



대장암 등 '하이테크 수술'로 완치 도전(『경향신문』 1999.4,29)



'대한대장항문학회'로 학회명을 변경한 직후의 학술지 표지(1997.6)



학회 로고를 현재 형태로 변경한 직후의 학술지 표지(1998.9)

학회가 살아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편 1997년에는 학회의 명칭을 기존의 '대한대장항문병학회'에서 '병(病)'자를 뗸 '대한대장항문학회' 로 변경하였다. 영문명으로는 the Korean Colo-Proctological Society에서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김광연이 회고하였듯이 "대장항문병뿐만 아니라 대장항문에 관 련된 여러 질환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다 해야 된다는 취지"이기도 했고, 전호경이 회고하였듯이 "암보다 는 치질 중심의 학회"에서 1995년 AFCP 이후 "암이 학회의 메인 테마가 되기 시작"한 시대적 흐름을 반 영한 것이기도 했다.32 이에 따라 대한대장항문학회 학회지 표지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1998년에는 1979년부터 20년간 사용해 온 학회 로고를 변경하였고, 대한대장항문학회지 14권 3호부 터 표지에 이를 반영하였다. 당시에는 1968년의 학회 창립총회를 학회 창설의 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1997년 학회 명칭을 바꾼 것과 함께 학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로고도 변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sup>30) 『</sup>동아일보』 1997.5.24.

<sup>31) 『</sup>경향신문』1999.8.5.

<sup>32)</sup> 김광연 선생님 인터뷰, 2015.12.2; 전호경 선생님 인터뷰, 2016.7.5.





제1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연수강좌(1999.10.3)

이때 바뀐 로고가 현재 학회 로고의 기본 형태가 되었다.

1998년 12월에는 학회 사무실이 의사협회 건물에 자리 잡으면서 그동안 학회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소속 대학을 따라 옮겨다녀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학회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박재갑에 이어 영남의대의 심민철이 이사장을 맡으면서 서울에 학회 사무실을 두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1995년 AFCP 이후 학회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만큼 학회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현실을 반영한 변화이기도 했다.

1999년 10월 3일에는 이화의대 목동병원 김옥길 홀에서 대한대장항문학회 제1회 연수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는 대장항문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개원의 및 수련의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학 정보를 교육하고 최신지견을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1990년대 초부터 이미 서울대, 이화여대, 경희대, 영남대 등 대학 단위에서 대장항문학 연수강좌가 시작되어 큰 호응을 얻었는데, 1999년의 대한대장항문학회 연수강좌는 이를 학회 단위에서 통합하여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제5차 AFCP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대장항문학회 역사에서 이 시기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세부전 문의 제도의 추진이었다. 1997년 12월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심사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해 83명이 대장항문외과 의사 자격증을 학회로부터 발급받았던 것이다.

이때 학회의 자체 서류전형을 통해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이들은 오래전부터 대장항문을 전문으로 해온 '원로' 의사들로, 최경달의 회고에 의하면 1호가 김광연, 2호가 최경달로 모두 초창기부터 학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라는 플래카드가 눈에 띄는 1997년 춘계 학술대회 (왼쪽부터 손승국, 심민철, 전호경, 박응범, 김광연)

회를 구성해온 멤버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재갑 이사장 시절 총무를 맡았던 전호경의 회고에 의하 면 심민철이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이 문제를 주관하였는데 이에 대한 심민철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33

"%년에 심사위원장 하면서 전문의 추진위원장이라고, 그건 직제에도 없을 텐데 그걸 맡아서 전문의 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외과학회에서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지만 학회 역사에서는 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과학회는 활동이나 실적이 저조할 때에도 우리는 단합도 잘 되고 외국도 열심히 다니고 국제학회 유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장항문 전문의를 하겠다고 주장 을 했지요. 미국은 이미 분과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선두로 나서서 분과 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외과학회에서는 싫어했지만 그때 영남의대에 있으면서 대구. 서울을 일주일 에 세 번씩 오가기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해서 추진했어요. 학회 회원들에게 대장항문 전문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지를 끌어내고, 대장항문 세부전문의 규정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많 이 했지요. 결국 97년부터 정식 전문의는 아니지만 학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1998년 3월 21일에는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심사 서류전형의 추가접수가 이루어져 12명

<sup>33)</sup> 심민철 선생님 인터뷰, 2016.4.1.

이 추가 합격하면서 '세부전문의 인정' 의사가 95명으로 증가하였고, 2002년 1월 20일에는 연세대학교 의 과대학 지하 1층에서 제1차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시험이 실시되어 지원한 130명 중 122 명이 합격하였다.

이전과 달리 자격시험을 실시한 것은 기존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던 것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세부전문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공정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의학회와 외과학회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잠정'이라는 단서를 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이 문제를 주도했던 손승국의 회고를 참고할 수 있다.<sup>34)</sup>

"제가 이사장을 할 때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인정 1회 시험을 쳤죠. 2002년 무렵일 겁니다. 그때 외과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조찬 모임을 네 번인가 다섯 번 했는데, 의협 이사, 의학회 이사, 외과학회, 이렇게 한 여덟 명이 세부전문의 시험 치지 말라고, 그리고 개업의도 반대했죠. 개업의들은 너희들이 대장항문 분야를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했었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회원들이 다 찬성했기 때문

에 한다, 그렇게 밀어붙였죠. 사실은 이미 97년에 세부전문의자격 인정심사를 신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시험을 치르는 것은 2002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걸 시비를 건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부전문의 자격증을 외과학회에서 발급하는 방식으로 타결이 되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치르더라도 같이 살아야하니까. 그런데 미국은 외과학회와 대장항문학회가 이미 분리, 독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장항문학회보보드 시험을 따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앞으로 학회가 발전하고 더 커지면 언젠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2003년 10월 4일에는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갱신증이 발급되어 1997~98년 합격자 95명에 대한 갱신이 시



1997년에 처음 발급된 대장항문외과의사 인정의 자격증

<sup>34)</sup> 손승국 선생님 인터뷰, 2016.4.2. 35) 「대한대장항문학회 2002년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2.4.11.



제7차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엄(2000.9.16)

작되어 58명이 갱신을 받았다. 이는 여전히 의학회와 외과학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대장항문학회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잠정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채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에 대한 제도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2002년 4월에 있었던 대장항문학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격증을 발송할 때 대한 의학회 규정에 따라 병원 홍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끼워 발송하는 것이 좋다", "내과는 현재의 인정의 합격증이 내과 본학회 회장 명의로 나가고 있다. 추후에는 외과학회 회장 명의로 합격증이 나가도록 발전시키자"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sup>55)</sup>

2000년대 들어 국제 교류도 날로 증가하였다. 2000년 9월 16일에는 제7차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엄이 이화의대 외과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엄은 기존의 일·중 대장암 심포지엄에 1994년부터 이기형, 배옥석, 전수환 등 대장항문학회 회원들이 옵저버로 참석하면서 한중일 3국의 모임으로 확대, 발전한 결과였다. 1990년대 들어 국제학회 참석 기회가 늘면서 젊은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에게 영어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중일 세 나라의 대장암 치료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며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설립 취지였다. 이에 따라 1996년 일본 Jichi 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 박응범, 손승국, 이기형 등이 참석하였고, 1998년 하얼빈 학회에는 10여 명의 한국인 연구자가 합류하여 2000년 서울에서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2000년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움을 계기로 참석자들이 증가하고 프로그램이 풍성해지기 시작하였



제9차 아시아대장항문학회 개막(2003.11.27~28)

다. 박응범이 2000년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움의 대회장을, 김광호가 총무를 맡았다. 그 밖에도 심민철, 손승국, 김영진, 오승택 등 대장항문학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일본, 중국의 저명 학자들과 함께 대장암에 대한 최신지견을 교류하였고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후 2002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제8회 한중일 대 장암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을 때에는 한국 참석자가 33명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 중국 상해에서 제9회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으며, 2006년에



제9차 아시아대장항문학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손승국, 골드버그, 김영진, 박응범, 전호경 등)

는 제10회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움이 서울의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때에는 손승국이 대회장을, 김광호가 총무를 맡았다. 이후에도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움은 설립 취지대로 젊은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에게 영어 발표 기회를 제공하였고, 한국인 의사들이 진취적이고 활발한 토의를 주도하였다.

2003년 11월 27~28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제9차 아시아대장항문학회(AFCP)가 개최되었다. 제5차 대회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박재갑이 대회장을, 1999~2000년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심민철

이 부회장을, 2001~2002년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손승국이 조직위원장을 맡는 등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성황리에 국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1995년 제5차 대회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린 제9차 AFCP에는 20여 개국에서 1,100여 명이 참 가하여 다시 한 번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편 대장항문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크게 공헌할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대장암의 기초 및 임상 분야, 염증성 소화기질환, 내시경, 복강경 수술, 장루, 항문, 직장 생리 및 양성 항문질환 분야 등 9개 분야 특강 및 10개 분야의 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 토픽도 마련되었다.

손승국 조직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대장암, 염증성 질환 등의 대장항문 질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발전하는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앞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을 맞추어 국민 보건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제9차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고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였다.<sup>36)</sup>

2000년대에는 대장항문학회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1985년 창간호를 낸 대한 대장항문학회지가 2003년 12월 학술진홍재단 등재후보지에 선정된 것이다. 2003년 7월 대한대장항문학 회지를 학술진홍재단에 등재 신청하였고, 2005년 6월에는 제1차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발전 정책세미나를 실시하였다. 2006년 3월에도 제2차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발전 정책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계속된 노력으로 2006년 12월에는 학술진홍재단 등재지에 선정되었다. 물론 SCIE/SCOPUS급 저널로 성장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영문 저널로 변신을 꾀하는 등 학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심민철 회장, 이봉화 이사장 시기인 2004년 2월 18일에는 회원기부금 제도를 시작하여 2004년 사업비로 약정 1,293구좌, 1억2,930만 원을 모금하였다. 이 역시 학회에 기부 문화를 정책시킨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손승국 회장, 한원곤 이사장 시기인 2005년 3월 11일에는 부산 메리어트호텔에서 회장단, 상임이사, 간사,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가졌고, 4월 1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2005년 춘계학술대회를 열면서 Vision 선포식을 가졌다. 여기서 대한대장항문학회의 향후 비전으로 '선도적 학문 연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학회'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학회 발전의 방향을 '연구'와 '사회 공헌'의 두 방향으로

<sup>36) 『</sup>의협신문』 2003.5.2.



대한대장항문학회 정책세미나(2005.3.11)

설정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확대된 학회 규모에 맞추어 2명의 총무를 둘 수 있도록 학회 정관을 개정하였고 처음으로 오승택, 김홍대의 2인 총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2005년 6월 30일에는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1호를 창 간하였고, 7월에는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어느 새 1,400명이 넘게 된 학회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 런하였다. 소식치 창간호에 '선도적 학문 연구로 국민 건강 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학회'라는 비전이 첫 머리에 실렸고 학회 회장 손승국을 발행인으로, 편집위원장 김남규를 편집 인으로 하였다. 손승국 회장, 한원곤 이사장 등은 발간사에 서 '학회 관계 소식이나 각종 연구회, 회원 동정 등에 대한 소식을 학회지 발간 때마다 약식으로 넣어서 알려드렸는데 이로 인해 제때, 정확히 학회 관계 소식이나 공지사항, 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제1호(2005.6.30)

들 동정 등에 대해 공지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학회 소식지를 창간하고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학회에 관계된 소식, 회원 동정, 회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대학에서부터 전문 병원, 개업가에 이르는 회원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매체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서울 국제항문질환 심포지엄(SISP 2006)(2006.11.26)

#### 포부를 밝혔다.

2006년에도 학회 역사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국내 최초로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개원하고 초창기부터 학회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이종균이 개원가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에 취임한 것이다. 이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거치면서 대장항문 전문병원들이 크게 성장하였고 그간 학회의 발전에 있어서도 개원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음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이후 한솔병원의 이동근(2011.4~2012.4), 대항병원의 이두한(2016.4~2017.4) 회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06년 11월에는 대한대장항문학회 제39차 추계 학술대회와 함께 SISP와 ASSR, 2개의 국제 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되는 경사가 있었다. 2006년 7월과 9월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국제학술대회 연합회의가 열렸고, SISP 준비위원으로 이봉화, 윤서구, 천성원이, ASSR 준비위원으로 박응범, 손승국, 김광호, 이석환이 참석하였다. 학회 차원에서도 이사장 한원곤, 학술위원장 전호경, 간사 이우용, 총무 오승택이 참여하여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sup>37)</sup>

'서울 국제 항문질환심포지엄 2006'(SISP,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roctology 2006)은 이

<sup>37) 「</sup>대한대장항문학회 2006년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6.7.27; 「대한대장항문학회 2006년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6.9.20.



제4회 아시아장루재활학회(2006.11.24~25)

종균 회장 취임과 함께 개원가 중심의 국제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실현된 것이었다. 이종균이 대회장을, 이봉화가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스폰서 없이 '회원의 기부를 받아 국제 학술대회를 치르는 첫 번째 학회'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36 의학신문은 "오는 11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문질환 심포지엄'(SISP 2006)을 스폰서 없이 치르게 된다. 한원곤 이사장은 "익명을 요구한 회원이 약 1억5,000여만 원의 행사 비용을 모두 지불키로 했다"며 "학회 기부 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하였다.

'제4회 아시아장루재활학회'(ASSR, Asian Society of Stoma Rehabilitation)도 박응범, 손승국, 김광호, 이석환 등 2002년에 창립된 '장루연구회'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에 유치한 국제학회로, 14개국에서 292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 학술대회에는 장루연구회 창설 이후 학회에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던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구두 24편, 포스터 37편 등 61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 학술대회에서 구두 부문에서는 2등에 김진미 간호사(계명대 동산병원)와 3등에 남선영 간호사(이대목동병원)가, 포스터 부문에서는 1등에 박경희 간호사(삼성서울병원)와 3등에 백은선 간호사(고대안산병원)가 각각 선정되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그 이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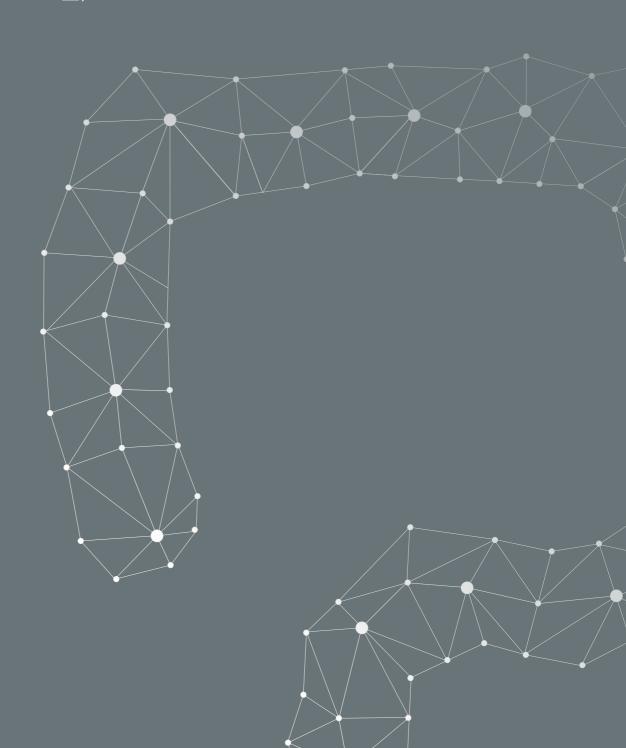
기와는 다른 수준의 학회로 발돋움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대한의학회 학술평가 우수 학회로 선정된 것도 이를 상징하는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선도적 학문 연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학회'라는 2005년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는 세부전문의 문제 등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남아 있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대장앎의 날' 행사, 각종 연구회의 발전, 세부전문의 문제의 해결 등은 그러한 비전을 실현해 나갔던 구체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sup>38)</sup> 의학신문은 "오는 11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항문질환 심포지엄'(SISP 2006)을 스폰서 없이 치르게 된다. 한원곤 이사장은 "익명을 요구한 회원이 약 1억5,000여만 원의 행사 비용을 모두 지불키로 했다"며 "학회 기부 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하였다. 『의학신문』 2006.4.28)

<sup>39) 『</sup>간호신문』 2006.12.14.

05

사회 공헌과 연구역량 강화 (2007~2017년)



21세기 들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성장한 대한대장항문학회는 2007년 들어 다시한 번 도약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서동 학회 사무실로 이전하였고, '대장앎의 날'행사를 통해 대중적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2005년에 비전으로 선포된 "선도적 학문 연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학회"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안이 실행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2007년 1월 13일, 학회 사무실이 기존의 의사협회 건물에서 수서동으로 이전하였다. 1998년 12월 의사협회 건물에 자리를 잡은 것도 이전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었지만, 2007년 1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에 30평 상당의 사무국 공간을 구입하여 이전한 것은 1995년 AFCP 이후 대장 항문학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한편 2007년 4월에는 2005년 6월에 팸플릿 형태로 창간한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를 "세상의 중심"을 뜻하는 순우리말 '가온누리'라는 제하에 잡지 형태로 확대 개편하여 발행하였다. 기존 소식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하였으나 '가온누리'로 개편하면서 오승택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제위원회로 소식지 발행 업무가 이관되었다. '가온누리 1호'는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로서는 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기사, 연수기, 해외 학회 참관기, 추억의 앨범, 정보 나눔 등 학회 및 회원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담아내어 어느새 1,600명에 달하게 된 학회 회원들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sup>40)</sup>



수서동 학회 사무실 개소식, 왼쪽부터 전호경 이사장, 배옥석 회장, 김광연 명예회장, 김은희 실장(2007.1.13)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제6호인 '가온누리' 2007년 봄호(2007.4.30.)

<sup>40) 「</sup>대한대장항문학회 2007년 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2007.3.5.



대한대장항문학회 제1회 Future Forum(2007.6.23)

2007년 6월 23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회 Future Forum을 개최하였다. 학술위원장 김남규, 학술간사 이석환, 학술위원 강성범 등 학술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한 이 행사는 대장항문학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외과 의사들에게 다양한 임상연구의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게 상호친목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대상은 40세 이하의 대장항문외과 전임의 및 조교수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였으며, 해당 병원의 과장 또는 분과장이 참가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각 병원의 과장 또는 분과장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선착순 30~50명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였는데 모두 54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2007년 6월 30일에는 대한대장항문학회 학회지의 제목과 표지를 변경하였다. 1997년 6월, 제13권 2호부터 기존의 학회지 제목인 '대한대장항문학회지(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를 사용해왔는데, 이를 23권 3호부터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orcology'로 변경하였고 표지도 붉은색 바탕에서 흰색 바탕으로 변경하면서 학회 로고를 표지 디자인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이었다. 10년 만의 학회지 제목 및 표지 디자인 변경은 학회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좀 더 활발한 학술활동

<sup>41) 「</sup>대한대장항문학회 2007년 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2007.5.30; 「대한대장항문학회 2007년 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2007.8.29.

<sup>42) 「</sup>대한대장항문학회 2007년 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7.8.29; 『머니투데이』 2007.8.14; 『국민일보』 2007.9.2.



제목과 표지 디자인이 변경된 대한대장항문학회 학회지 제13권 2호 (2007.6.30)

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

2007년 9월 8일에는 제1회 '대장앎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대장 관련 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하고, 대 장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통 해 국민 보건을 증진하며, 대장항문학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회장단과 서광욱 홍보위원장 등 홍보위원회 가 주축이 되어 준비한 이 행사는 대장암을 대국민 캠페인의 첫 번째 주제로 하여 대장암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는 대장에 대한 지식을 쌓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암' 을 '앎'으로 바꿔 '대장앎의 날'을 지정하였다. 또한 대장의 모형을 형상화한 상징물로서 골드리본을 고안하여 배지 형태로 제작, 배 포하였고,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훌륭히 극복한 탤런트

김승화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장암 조기검진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대장암 치료 방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42

이뿐만 아니라 7월 한 달간 대장암 환자 및 가족, 의료진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통해 5편의 우수 작을 선정하여 행사 당일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행사 장소인 잠실운동장 농구경기장 및 주변에 대장 모형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등의 상설이벤트를 진행하였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기초적인 대장 건강 검진 과 의료진과의 건강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장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하였고, 대장 건강에 좋은 요가 배 우기, 요구르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장에 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태진아, 양파, 백 지영, 채연, 빅뱅 등 10팀 이상의 유명 가수가 출연하는 MTV 콘서트를 겸한 공식 행사를 통해 국민적



제1회 '대장앎의 날' 홍보대사 탤런트 김승환과 학회 홍보위원 정순섭 교수(『국민일보』 2007.9.2). 오른쪽은 '대장앎의 날' BI와 골드리본





제1회 '대장앎의 날', 제2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포스터

관심을 고조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전호경 이사장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항문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연구와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장항문 지식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번 행사가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민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sup>43)</sup>

2008년 6월에는 학회지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ology'의 명칭을 다시 'Journal of Coloproctology'로 바꾸고 기존에는 한글로 발간했던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재출간함으로써 학회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이후 4개 호를 발간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나 학회지의 영문 홈페이지 도메인(www.coloproctol.org)을 개설하는 등 학회지의 위상 제고와 국제화를 위한 노력의 시발점이 되었다.<sup>44)</sup>

이는 2009년 7월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의 EMBASE 등재로 이어졌으며, 2010년 8월 26권 4호부터는 다시 표지를 현재 형태로 변경하고 영문학회지로 전환하였다. 2010년 10월 에는 학회지의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하였고, 11월에는 학회지가 SCOPUS에 등재되어 2009년 1호부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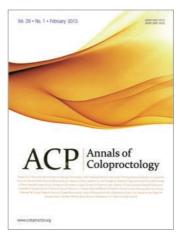
<sup>43) 『</sup>머니투데이』 2007.8.27; 『뉴시스』 2007.9.9.

<sup>44) 「</sup>대한대장항문학회 2008년 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8.7.30.

<sup>45) 「</sup>대한대장항문학회 2008년 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8.10.29; 「대한대장항문학회 2008년 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2008.11.26

<sup>46)</sup> 박규주 선생님 인터뷰, 2016.7.12.





2010년과 2013년의 학회지 표지 및 제목 변경

재를 인정받았다. 2011년 2월에는 학회지의 영문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학회지의 명칭은 2013년 2월 29권 1호부터 다시ACP, 'Annals of Coloproctology'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8년 11월 24일에는 제1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가 있었다.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에 대해서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2009.3.1)

는 고시위원회 중심으로 자격 인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응시자격을 누적 전대장내시경 시행 횟수가 500회 이상인 자, 혹은 최근 1년간 전대장내시경을 150회 이상 시행한 자 등으로 하면서 환자의 대장내시경 기록지나 심평원 청구자료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격 인정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응시원서 교부 기간을 가졌고,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응수원서를 접수하였는데, 서류전형으로 189명이 응시하여 176명이 합격하였다. 합격자들에게는 2009년 3월 1일 위와 같이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문제의 등장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대장내시경 검진 수요에 대한 대장항문학회 차원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규주의 회고를 참고할 만하다.<sup>46)</sup>

"제가 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이 되면서 주장한 게 '토털 장 케어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장 주치의'로 가서 대장항문외과에서 과민성 대장부터 염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장내시경, 그것도 인정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사실

내시경은 외과 의사가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린 맨날 수술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은 당연히 내과, 소화기내과에서 하는 거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시경은 누구나할 수 있고, 미국 대장항문외과에서도 내시경을 해요. 아까 전문병원들이 개원해서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일 중요했던 이슈가 대장내시경이었어요. 개원가에서는 항문 수술과 대장내시경, 그게 메인이었죠.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때고 이러는 것도 우리 회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외과에서는 수술적 요소가 있으니까요. (중략) 그렇게 외과도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시작이 돼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소위 말하는 검진 대장내시경이 엄청 늘어나면서 항문질환과 더불어서 개원가에서 가장 잘하고 쉽게 하고 또 돈벌이도 되는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된 것이죠. 그 전부터 기획하고 그럴 때 내과에서는 소화기내시경학회 같은 데서 뭐 자격을 엄격하게 해서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도 우리 현실에 맞는 진짜 검증된 대장내시경 인정의를 만들자고 논의가 되어서 지금은 대장내시경 연구회에서 대장내시경 인정의를 주고 있죠."

결국 소화기내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대장내시경의 영역을 대장항문외과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는 2009년 12월 제2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역시 서류전형으로 115명이 응시하여 115명이 모두 합격하는 것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2011년 11월 제3차 자격시험에서 77명이 응시하여 70명이 합격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제4차 자격시험(86명 응시, 84명 합격)과 함께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 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을 시행하여 2014년 3월 50개 신청 기관 중 4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수련병원이 46개 기관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 3월에도 51개 신청 기관 중 48개 기관으로 다시 한 번 증가하였다. 2016년 3월에는 '대한대장항문학회 인증 대장내시경 인정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이 공고되어 27명이 응시하여 27명이 합격하는 등 학회 차원에서 대장내시경 전문의에 대한 관리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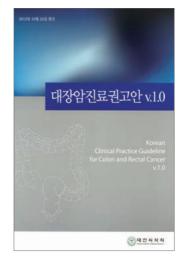
2007년 이후 나타난 중요한 또 다른 변화는 학회 차원의 다양한 저서 발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009년 12월 『대장항문학 의료행위』를 시작으로 2010년 9월에는 『알기쉬운 대장암』을, 10월에는 『대장암 암치 프로젝트』를 출간하였다. 특히 『대장암 완치 프로젝트』는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43인의 대장암관련 지식과 경험을 모은 책으로, 대장암의 예방부터 진단, 수술, 최신 치료법, 재발의 대처법 등 대장암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장암 관련 정보를 담았다. 또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조기 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의 정확한 이해, 수술과 항암화학 치료, 복강경 수술과 로 봇 수술 등의 최신 치료법, 재발이나 전이됐을 때의 치료법 등 대장암에 대한 실제적이고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수록돼 있다.







『헬스조선 M 대장암』(2011.9)



『대장암치료권고안 v.1.0』(2012.10)

부록에도 전국 유명 대학과 암센터 16곳에서 대장암 환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생생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수록해 대장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올바른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창식 홍보이사는 "대장암 완치 프로젝트 발간은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대장암으로부터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펼치고 있는 '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책은 대장암 완치에 대한 실질적 정보를 담은 동시에 대장암 예방과 극복이 대장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많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의 정수가 집약된 만큼 많은 대장암 환자가 이 책을 통해 완치의 희망과 만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11년 9월에는 헬스조선과 공동 기획으로 『헬스조선 M 대장암』을 발간하였고, 2012년 10월 에는 대한의학회와 5년간 공동 진행한 『대장암치료권고안 v1.0』을 발간하였다.

대장암 치료권고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 4월 제44차 학술대회 때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학회 차원의 '대장암 진료 권고인' 발표 계획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당시 김남규 이사장은 대장암 진료 권고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과 같은 표준화는 세계적인 조류로 한국인에 맞는 데이터를 모아 대장항문학회가 권고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오재환 국립암센터 과장을 중심으로 한위원회가 대장암 등록사업을 통해 한국인 데이터 수집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sup>47) 『</sup>국민일보』 2010.9.30.

2012년 4월 제45차 학술대회에서도 '대장암 표준 진료 권고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돼온 미국 ACCA 권고안을 한국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었다. 전호경 신임 회장은 "지금까지나온 어떤 가이드라인보다도 실용적이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면서 "가이드라인을만들기 위해 지난 5년간 미국 전문의들과 수차례 걸쳐 토론하는 과정에서 미국 전문의들이 한국 의학을 실제로 접하고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놀라워했다"고 밝혔다. 또한 "권고안이란 게 잘못하면 진료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만드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일선 의료 현장에서 권고안을 근거로 진료하면 한국의 대장암 진료가 표준화·세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0

2010년부터 규모 있는 국제학회도 그 전 시기와 비교하여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자주 개최되었다. 2010년 3월 19일부터 23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제24차 세계대장항문학회학술대회(ISUCRS XXIV Biennial Congress)가 개최되었다. 제24차 ISUCRS는 박재갑이 학회장을, 전호경이 조직위원장을 맡았고 오승택이 학술위원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오승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하는 대회여서 사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만한 계기가 많이 필요했고, 특히 학술적인 면에서 초록의 질을 높이고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한국 대회를 기점으로 한층 더 도약하는 대장항문학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석 인원은 1,500여 명 수준으로 한국에서 1,000명, 외국에서 400~500명 등이 모이는 대규모 학술행

사가 되었고, 세부적으로는 21개의 세션과 180개의 배정 초록으로 이루어졌다.
Oral은 180개, Poster는 253개로, 오승택은 "수술 전 화학 방사선 요법을 비롯, 한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복강경 등 로봇 서저리도 선보이게 될것"이라면서 "또 간호사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전공의들을 위한 세션도 내실 있게 준비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499

2010년 11월 27일에는 대한대장항문학 회와 일본대장항문병학회 공동 주최로



제24차 세계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ISUCRS XXIV Biennial Congress) (서울 코엑스, 2010,3,19~23)

<sup>48) 『</sup>의협신문』 2011.4.5; 2012.4.9.

<sup>49) 『</sup>데일리메디』 2010.2.25.



제4차 한일심포지엄 (위, 서울 코엑스, 2012.4.7)과 제5차 한일심포지엄 (아래, 후쿠오카 니코 호텔, 2012.11.16)



제1차 한일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심포지엄의 제1차 대회는 일본의 하마마츠(Hamamatsu)에서, 제2차 한일심포지엄은 2011년 4월에 대한대장항문학회 제44차 학술대회와 함께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며 한일심포지엄이 지속되어 2016년 9월 한국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심포지엄이, 같은 해 11월 일본 마에에서 제13차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한편 이러한 한일심포지엄은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여하여 리투아니아 대장항문학회와 공동 학술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2014년 4월에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니우스(Vilnius)에서 8th Triennial Meeting of the Lithuanian Society of Coloproctologists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한국 측 14명이 참가하였고, 2015년 한국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ICRS 2015(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 2015)에 리투아니아 측 6명이 참가하는 등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제45차 학술대회 및 서울국제대장항문심포지엄(SISCP 2012). 왼쪽부터 전호경 차기회장, 이동근 회장, 오승택 이사장

2012년 4월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 대장항문학회 제45차 학술대회와 서울 국제대장항문심포지엄(SISCP,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loproctology)이 함께 개최되었다. 2006년 서울국제항문질환심포지엄(SISP) 에 이어 두 번째로 개원가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이었다.

대장항문학회는 이 학술대회에서 무 엇보다 '임상의 적용'에 집중했다. 이동근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국제대장

항문심포지엄과 동시에 열려 대장항문학 분야의 변화를 접할 수 있고, 이를 조기에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오승택 이사장도 "학회가 주도해 온 대장암 진료 권고안을 소개하고, 치질 및 치루 지견과 진료실에서 접하는 다양한 양성질환을 소개하는 등 진료실에서 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스라엘을 비롯해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14개국에서 20여 명의 세계적 석학이 참석해 대장암과 양성질환 분야의 최신지견을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약 1,500명의 전문의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편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이동근 회장이 1억5,000만원의 기금을 쾌적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동근 회장은 "우리나라 대장암 치료 성적은 외국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면서 "학회가 더욱 발전해 개원가의 올바른 치료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50

2012년 9월 8~9일에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제13회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엄(대회장 김광호, 총무 이석 환)이 개최되었다. 2000년부터 한중일 3국으로 확대된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엄은 2년마다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여 2000년과 2006년에 이어 2012년에 한국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었다. 2016년 북경에서 열린 15회 대회에 이어 16회 한중일 대장암 심포지엄도 2018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sup>50) 『</sup>데일리메디』2012.4.9;『의협신문』2012.4.9.

<sup>51) 『</sup>데일리메디』 2013,9,5,



제5회 아시아태평양 상처·장루·실금 간호사 총회(APETNA 2013)(2013.9.6~8)

2013년 9월 6~8일에는 대한대장항문학회 연구회 통합학술대회 및 제5회 아시아 태평양 상처·장루·실금 간호사회 총회(Congress of APETNA)를 개최하였다.

연구회 통합학술대회는 대장항문학회의 항문질환연구회, 장루연구회, 염증성장질환연구회, 대장내시 경연구회, 항암요법연구회,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항문직장생리연구회, 대장암연구회 등 총 8개 연구회가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첫 번째 시도였다. 김광호 이사장은 "잦은 소모임으로인한 회원들의 연구회 통합 건의가 있어 왔다"면서 "아무래도 한테 모여 지견을 나누는 것이 1년 계획을놓고 봤을 때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는 전체 프로그램과 개인연구 발표가 주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연구회별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각각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제5회 APETNA는 2006년 있었던 제4회 아시아장루재활학회(ASSR)와 마찬가지로 준회원으로서 대장 항문학회를 구성하고 있는 간호사들과 함께하는 국제학술대회였다. APETNA 총회에는 태국, 중국, 홍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 2015(세종대학교 컨벤션 홀, 2015.9.12~13)

콩, 대만,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덴마크, 프랑스, 칠레, 요르단, 마카오, 필리핀, 베트남 등 총 16개국에서 참석한 외국인 255명과 한국인 146명 등 총 401명이 등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4년 9월 20~21일에는 2013년 처음 시도된 대장항문학회 연구회 통합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변모시킨 ICRS(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세계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ISUCRS 2010)나 아시아·태평양 대장암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한 경험이 있지만 대장항문학회가 주최가 돼서 국제적 규모의 학술모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학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큰 주제도 '대한대장항문학회의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으로 잡았다.

김광호 이사장은 "각 연구회를 한자리에 모이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처음 통합모임을 가졌는데 반응이 괜찮았다"면서 "올해는 연구회 단합과 더불어 최근 세계화의 흐름을 고려해 국제 규모로 판을 키웠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독일 5개국의 석학들로 해외연자를 모셔왔고, 전체참석자 500여 명 중 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의사 20~30명 정도가 이번 대회에 참석했다"며 "올해는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차츰 영어 세션을 늘리고 프로그램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0

ICRS는 2015년 9월 12~13일에 리투아니아 대장항문학회와 공동 학술프로그램을 소화하였고, 2016년

9월 3~4일에도 총 9개의 세션을 통해 대장항문질환 치료의 최신 의학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국제 학술행사로서 자리를 잡았다. 행사 첫째 날에는 소아 인공 항문 성형술, 직장암 관련 항암화학요법, 대장암, 염증성장질환(IBD) 등에 관한 심포지엄을 진행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복강경 대장 수술, 대장 내시경검사 등에 관한 최신 술기를 소개하였다. 특히 올림푸스 한국에서 '복부 및 항문을 통한 전직장간막 절제술에서의 3D 복강경 시스템 활용법'을 주제로 런천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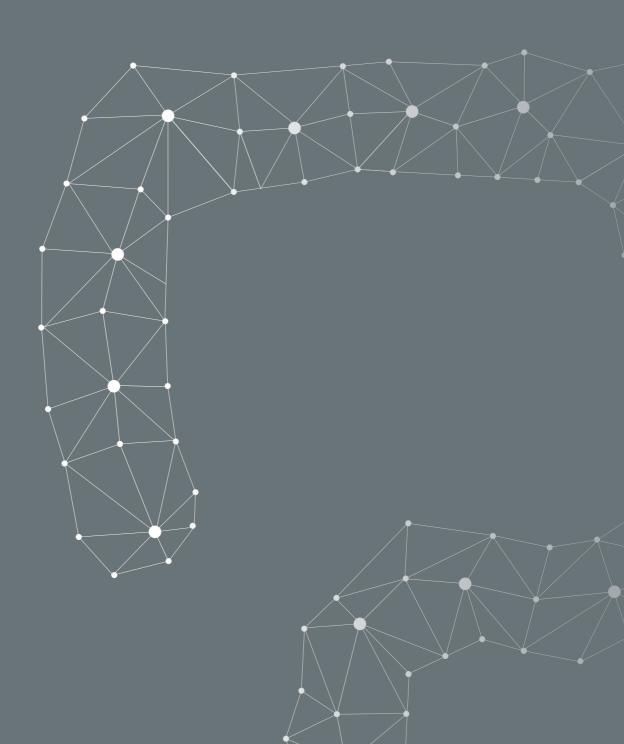
2013년 12월에는 대장항문학회의 세부전문의 인준에 관해 외과학회에 학회 인정자 명단을 송부함으로써 1990년대부터 학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제도화를 마침내 완수하였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과를 정립하여 자기 영역을 확대해 온 내과와 비교하여 위기에 처한 외과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대장항문학회 차원에서 20년 가까이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은 결과이기도 했다. 결국 외과의 세부전문 진료를 제도권에 반영함으로써 '외과의 르네상스'를 모색하는 동시에 대장항문학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회 역사에 있어서도 2010년대 이후 가장 중요한 '화룡점정'의 순간이었다.<sup>54</sup>

<sup>52) 『</sup>메디컬업저버』 2014.9.22.

<sup>53) 『</sup>의학신문』 2016.9.2; 『헬스조선』 2016.9.5.

<sup>54) 『</sup>데일리메디』 2013.5.4; 2013.5.8; 『의협신문』 2013.5.9.

**06**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1967년 10월 27일 대한항문병학회를 대한직장항문병학회로 개명하여 세계 각국의 proctology 학회에 창립을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강당에서 발기인 총회를 함으로써 대한대장항문학회의 50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85년 3월 6일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의 정회원 학회로 승격되기 전까지 학회는 박길수, 김광연 등 몇몇의 선구자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를 전후하여 홍성국, 민진식, 우제홍, 박재갑, 전수한, 심민철 등 대장항문학을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물들이 대장항문학회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학회의 전문성 제고와 저변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대한대장항문학회가 본격적인 발전의 시기로 들어선 것은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였다. 해외에서 대장항문학을 전문으로 연수하고 돌아온 인물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따라 대장암과 대장항문 질환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 학회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이와 함께 1995년 국제학술대회인 제5차 AFCP를 성황리에 치러내면서 해외 저명학자들과의 교류, 학회 차세대 인물들 간의 교류의장이 마련되었다. 1990년을 전후하여 송도병원, 대항병원, 한솔병원, 양병원 등 대장항문 전문병원들이 등장하면서 대학은 대장암과 직장암에, 전문병원과 개원의는 양성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상생의 기틀도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425명이었던 학회 회원 수가 2001년 1,048명으로 급속히 팽창하여 학회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고, 1995년 제5차 AFCP와 학회 회원들의 회비를 바탕으로 학회의 재정적 기반도마련되었다.

학회의 양적 성장에 따라 1990년대부터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분과 이후 더욱 발전한 내과의 사례나 외과보다 먼저 전문의 제도를 정착시킨 미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기도 했지만, 대장항문학외과 전문의로서 진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2000년대에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대장항문학회의 미래 비전을 "선도적 학문연구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학회"로 규정하였고, 대장앎의 날, 골드리본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갔다. 이 뿐만 아니라 제9차 AFCP, SISP 2006, 제24차 ISUCRS, SISCP 2012, ICRS 등 다양한 국제학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연구역량을 한층 강화해 갔다. 2013년에는 마침내 학회의 숙원 사업이었 던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제도를 공식적으로 정착시켜 학회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이제 대한대장항문학회는 1967년 창립 이후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중견 학회로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 대장항문학회들과 어깨를 견주고 선도해야 하는 학회가 되었다. 이런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먼저 내실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회의 내실화를 위한 필수요건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거 중심의 진료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한계점 중 하나가 불확실한 전통 치료의 합법화이다. 특히 항문 질환이나 암 치료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하고 근거가 없는 치료법들이 아직도 전통적이고 동양적이라는 이름 하에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대장항문 분야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학 전체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학회는 무엇보다도 이런 근거 없고 불확실한 진료와 연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리 학회 주관의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하여 우리 스스로 진료의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학술적 근거가 쌓이는 것이 결국 세계 최고의 학회가 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의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의학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창의적인 연구가 발표되고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학회 주도의 새롭고 참신한 연구가 더욱 발전돼야 한다. 현재 대한 대장항문학회는 대장항문 전 분야를 봤을 때 일부 연구 등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회가 세계 대장항문학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창의적 다기관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현재 각 기관들에서 각자 시행되는 여러 연구들을 학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 주도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런 수준 높은 연구 결과물들이 쌓일 때 우리 학회는 비로서 세계 최고 학회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미래의학을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이미 의학에 도입되고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향후 10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대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변화하고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대장항문 분야 역시 엄청난 변화가 도래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시행되는 수술법의 변화도 예상되고 치료약 역시 많이 발전할 것이다. 학회는 이런 흐름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을 때 학회는 공식기구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대 흐름에 뒤처져 학회가오히려 미래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런 학회의 역할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시행하고 앞서 나간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학회가 세계 최고 학회로 나이가는 방법일 것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상임이사회(2017)

# 인터뷰로 보는 대한대장항문학회 반세기



김광연 최경달 이찬영

우제홍 심민철 박재갑

손승국 이종균 김영진

전호경 박규주 임선민

Junichi Iwadare Takeo M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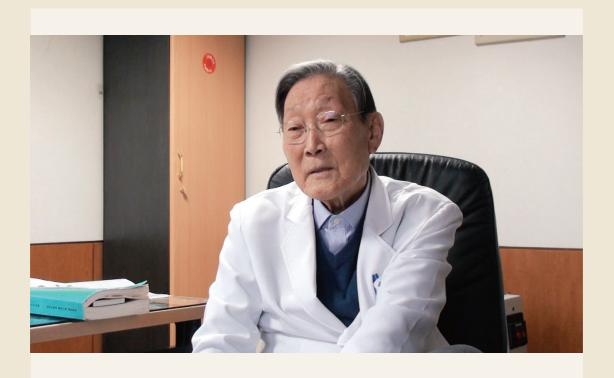








## interview



김광연 선생님

대한대장항문병학회로 출범한 학회가 50년을 맞이한 것에 자부심 느껴 선생님께서는 기록상으로는 1929년생이지만 실제로는 1928년생이라고 하셨는데 그 무렵, 일제강점기에 어떤 계기로 의학을 공부하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도 없던 시절이고, 나중에 중학교로 바뀌는 고등보통학교가 있었어요. 김성수 씨라고 전라도 갑부가 나중에 고려대학교가 되는 보성전문학교와 중앙중학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중앙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욱의전(旭醫專)에 들어갔죠. 예전부터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있던 것을 1942년에 세브란스는 미국 이름이라고 하여 '아사히 의학전문학교'로 바꾸었습니다. 아사히 이가꾸 센몬각고(旭醫學專門學校), 거길 들어가 게 1945년 2월입니다.

#### 해방되기 6개월 전, 만 17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하셨으니 굉장히 빠르셨네요.

1928년 4월 1일 생이니까, 그런 셈이죠.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소학교를 일곱 살에 들어갔고, 우리가소학교 다닐 때에는 체격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담임선생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것을 월반하여 5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학부형 누구 하나 시비 거는 일이 없었죠. 저는 3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갔다가 시원찮으니까 5학년에서 유급을 해서 제자리로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 직전에 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수는 적었고, 학생은 많았죠. 외과의 경우 1년마다교수 한 분씩 바뀌면서, 예를 들어 1년은 박 교수님이 다 가르치고, 다음 해에는 노 교수님이 다 가르치고, 그 다음은 민 교수님이 맡아서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브란스에서는 민광식 선생님이 미국에 다녀오셔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조교수 이상 선생들에게 전문 분야를 나누어 주고 너는 대장한문, 너는 간 외과, 너는 위 외과를 각각 맡게 했죠. 그 사람들을 미국에 유명한 병원에 공부하라고 보냈고, 그러면서 분과가 된 거예요.

# 아직 미국식으로 분과가 안 된 상태에서 의과대학을 다니셨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공부를 하시고 아주 젊은 나이에 의사가 되셨군요.

45년 2월에 들어가서 49년 3월인가, 4월에 졸업했는데 사실 우리가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비슷한 성적이면 가장 젊은 사람부터 뽑았어요. 저도 일곱 살에 학교 들어가고 중학 4학년에 시험을 봤으니 우리 같으면 무조건 입학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은 왜 꺼렸냐 하면 곧 징병 나갈 연령이 되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을 뽑으면 의과대학 중간에 징병을 당하니까 될 수 있는대로 많은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 나이 어

린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1세에 의사가 됐는데 당시 보사부 장관이 졸업식에 와서 한국에서 제일 젊은 의사, 아무개라고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졸업시키고 바로 군의관으로 쓰기 위해 단기로 학제를 한 셈인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졸업만 빨리 한 것이죠. 제 사촌 동생은 저보다 1년 늦게 중학에 갔는데 해방되고 중학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뉘어져서 6년제로 바뀌고, 의과대학도 6년제로 바뀌고, 전쟁도 겪고 그러다 보니 56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1년 차이가 7년 차이로 벌어진 셈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제강점기 학제 시스템의 마지막 세대인 셈입니다.

#### 그럼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하셨습니까?

세브란스에서 인턴을 하고, 외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전쟁이 나서 군의관으로 나갔죠. 그 당시에는 세브 란스만 인턴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서울대는 58년이 되어서야 인턴, 레지던트 제도를 도입했다고 들었는 데 일제시대에는 아무래도 의학의 중심이 미국이 아니라 독일과 같은 유럽에 있다 보니 미국 의사들도 졸업하고 유럽에서 2~3년 공부해야 교수가 됐고, 일본 사람들도 독일 가서 공부해오고 그랬습니다. 그 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독일어만 알지 영어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정형외과만 하더라도 2차대전 때 독일 기술이 미국에 전파됐거든요. 2차대전 중에 독일 포로를 잡아보니 두 달 전에 대퇴골이 부러졌다는데 이 친구가 절뚝거리면서 걸어 들어온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당시에 대퇴골이 부러지면 제대시키거나 걷기까지 최소 6개월인데, 그래서 야전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 뼛속에 쇠가 들어 있단 말이지. 뼈가 부러진 자리를 쇠로 이어놓은 것이죠. 와이어 수술이라고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의관이 그걸 보고 놀라서 미국 정형외과학회에 보고를하고 그런 식으로 의학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2차대전 후에는 독일의 유명한 교수를 미국으로 많이 데려오고, 유럽은 전쟁으로 다 파괴됐지만 미국은 멀쩡하고, 그러면서 역전된 것이죠.

#### 한국전쟁기에는 군의관에 지원하신 것인가요?

그때 제가 부산 시립병원, 지금의 부산대학 의과대학이죠. 거기서 외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는데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소식이 다 끊기니까 그때 저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저도 전쟁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하자, 미혼이기도 하고, 저 혼자 살아 뭐하냐, 그래서 군의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6사단에 배속되어서 낙동강 전투 이후에 북진을 하면서 강원도로 해서 함경도로 올

라가는 도중에 춘천에서 서울로 갔더니 가족들이 다 살아 있었죠. 그때는 제가 괜히 군의관으로 갔나, 그냥 가족들이랑 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하. 그래서 평양, 함흥을 거쳐서 압록강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의주 위에, 의주, 의주 위에 만포진이 있는데 그 아래 산에서 인민군들이 강을 건너 도망갈 때 산꼭대기에서 기관포를 걸어놓고 쏘기 시작하니 압록강이 피로 시뻘겋게 물들고,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도 부산까지 후퇴하면서 많이 죽었는데 특히 장교가 저격을 많이 당했고, 군인 가족, 경찰가족들도 죽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북에 올라가면서 곱게 올라갔을 리가 있어요? 서로 그렇게 죽고 죽이는 비참한 전쟁을 했는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6사단은 포위망 속에 들어가고, 그 바람에 6사단 절반이 포로수용소에 들어갔어요.

#### 선생님께서도 포로가 되셨습니까?

중공군 포위망에 들어가서 도망 다니다가 부상을 당해 할 수 없이 포로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아니까 중공군 장교하고 필담을 해서 군의관이고 외과 의사고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했더니 잘됐다고, 의사 없어서 죽겠는데 자기 환자들 좀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야전 병원도 없는 데에 천막 치고 환자들을 다 치료해줬죠. 공산군이지만 제네바 협정에 보면 의사는 어디 가서 포로가 되어도 부상자는 나라를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한 열흘 내지 보름 정도 그렇게 치료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그랬더니 김 동무 참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남쪽으로 도망을 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전쟁을 겪다 보면 대포 떨어지는 소리로 아군이 대강 어디 있겠다 감이 와요. 우리 앞에 포가 떨어지면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 뒤에 떨어지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선으로 중공군이 밀고 나가는데 최일 선으로 나가서 도망쳤죠. 부상병 두 사람하고 도망갔는데 다 헤어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운 나쁘게 또 잡혔어요. 저는 국군인 줄 알고 "나 국군 아무개다 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게 인민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인민군 포로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 중공군과 인민군 모두에게 포로가 되셨던, 굉장히 드문 경험을 하셨네요.

그렇죠. 인민군 포로수용소에서는 처음에 무척 고생을 했어요. 포로가 자꾸 도망을 가니까 나중에는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하루에 한 끼만 줘요. 그럼 힘이 없어서 도망갈 생각도 안 들죠. 그러다 나중에 군의관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더니 환자 치료를 해준다고 저는 하루에 세 끼 다 먹고, 의사니까 살았지

안 그랬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인민군도 치료해 주고, 국군 부상병도 치료해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 저를 안 돌려보내려고 해요. 여기서 일하라 이거죠. 군의관 소령 계급 주고 월급 주겠다고 꼬시는데 다행히 이OO라고 거기서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여의사인데 일제시대에 조선여자의학전문학교를 나온 분인데, 그게 나중에 우석대학이 되고 수도의과대학이 되고 나중에 고려대 의대가 된 거죠. 그 양반이 "김 동무, 여기서도 살 수 있어" 그래요. 그런데 난 아니다, 난 꼭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동무가 여기서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안 보내줄 것이다, 그래도 정 가려면 포로 분류를 할 때 혀를 딱깨물어서 그 사람들 있는 데서 피를 토하라고, 그럼 제가 이 동무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폐결핵으로 곧 죽을 거라고 보내자고 그러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곧 죽겠지만 인민공화국에 들어와서 일을 많이 도와줬으니, 마지막으로 부모라도 보고 죽으라고 보내자, 그 양반이 그렇게 도와줘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2년 반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말이죠.

# 1953년 휴전협정 되고 포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돌아오신 거군요. 포로 생활을 경험하신 분이 많지만 선생님께서는 군의관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배운 것도 많아요. 서울대학 외과에 김시창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도 의주 구호병원에 있었는데, 부상병이 많이 들어오면 저도 그리로 가서 치료해 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그 서울대 출신 분들한테 외과를 배웠어요. 제가 맹장이나 겨우 수술했지, 잘 몰랐는데 위 잘라내고, 장 잘라내는 것은 거기서 그분들한테 다 배웠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6사단에 배치가 됐어요. 원래 제네바 협정에는 바로 사회로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당시 반공정신들이 어찌나 투철했는지 청와대 가서 재복무시켜 달라고 다 누웠어요. 한 3~4일 데모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 재복무시키라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 정말 엉터리 군대였던게 군의관 대위를 사단장이 대전차포 중대장으로 나가라고 시켜요. 가서 신고했더니 마침 대전차포 중대장이 없다고 거길 가라는데 그때 인사 담당인 소령, 보임과장이 군의관이라 그런 거 못한다고 말리는데도 올 때까지 집어넣으라고, 그 한마디에 지프차 옆에 타고 대전차포 쏘는 그걸 했어요. 참호 밖에서 자고, 그렇게 한 달을 대전차포 중대장을 했죠. 그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었어요.

#### 그럼 제대는 언제 하셨나요? 세브란스로 돌아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6년에 제대해서 세브란스 들어가서 또 전공의를 했죠. 다 잊어버려서 전공의 또 하겠다고 하고, 59년에

그거 마치고 세브란스 강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수가 되었는데 1968년인가 삼성병원을 시작하면서 저를 스카우트했어요. 그게 그때는 고려병원이에요. 지금 강북에 있는 삼성병원 있잖아요. 그걸 이병철 씨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돈을 한없이 많이 버는데, 사회사업도 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성 균관대학교 총장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성균관대학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약속하고 고려병원을 먼저 만들었죠. 그 고려병원이 잘 되어서 200베드, 300베드 되면 성균관 의과대학을 만든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네 명, 연세대학에서 저, 허경발 선생 등 약 다섯 명, 또 특과 몇 사람 해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죠. 제가 그때 교수로 학생과장을 하고 있었는데도 8만5,000원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월 25만 원과 운전수 붙은 코로나 차 한 대를 조건으로 우리를 스카우트했으니 아주 파격적인 대우였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성균관 의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72~73년쯤 이병철 씨가 이사장이 됐는데, 당시 학생들이 '모리배'라고, 계란으로 치고 그러니까 할 의욕을 잃었죠.

#### 1968년부터 고려병원에 계시면서 외과 과장, 외과 부장, 원장까지 하신 것인가요?

외과 과장인데 저는 위, 소장, 대장을 주로 했고, 허경발 선생이 담낭, 담도, 췌장을 했고, 민광식 선생님이 들어와서 일반외과 전체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민광식 선생님이 오기 직전에 부총장 발령이 나서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왜 대장, proctology를 전공했느냐. 전 원래 일반외과 의사로 맹장염도 하고, 폐에 구멍이 나면 폐도 끌어내고, 콩팥도 뗴고, 비뇨기과, 외과 할 것 없이 칼 닿는 건 다 했어요. 그 땐 정형외과도 없었으니 부러졌으면 우리가 그 쇠막대기 집어넣고, 일반외과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민광식 선생님이 오셔서 허경발 선생보고 "너는 담낭, 담도 외과 주로 해라" 황규철 교수는 "위를 주로 해라", 김광연은 "직장, 대장, 암을 위주로 해라" 그런 식으로 강사급 이상 7~8명을 다 나눠 줬어요. 그런데 제가 뭐 직장암 수술을 할 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독일이 직장암 수술을 제일 잘한다니까 거기에 가 봐라 그래서 훔볼트 장학금을 받아서 날 그리로 보내줬어요. 전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가기 6개월 전부터 그저 독일어만 배운 후 또 가서도 독일어 반, 영어 반으로 대장, 직장암만 공부했죠.

지금 말씀해주신 시기는 고려병원 가시기 전에 연세대에 계실 때죠? 아까 보여주신 아메리칸 메디컬 소사이어티 오브 비엔나(American Medical Society of Vienna), 이 증서를 1965년에 받으셨으니 그 전 시기이겠네요.

맞습니다. 1964년 초에 가서 1965년에 돌아왔어요. 그 후에 세브란스에서 주로 대장, 직장, 치질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고려병원으로 나오니까 세브란스에 그거 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직장암 수술할 때에는 또 들어가서 좀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장, 직장암 여러 사람이 했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한 게 저였죠. 두 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니까. 그렇게 coloproctologist로서 일을 했는데, 그럼 그 무렵에 왜 학회를 만들었느냐? 사실은 제가 학회를 만들진 않았어요. 학회를 만든 동기는 조선항문병연구회라고 그걸 만든 분들이 시작인데 그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당신인데 내년 몇 월에 독일, 일본, 미국 다 초청해서 국제학회를 하겠다고, 그러니 그걸 의논하자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 당신네 영어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한대요 독일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위 항문에다 주사 놓고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집담회를 하다가 조그만학회를 만든 거죠.

#### 조선항문병연구회를 만든 분들은 개원하셨던 의사 분들이시죠?

당시에는 검정의사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의과대학 안 다니고 시험 쳐서 되는 의사를 검정의사라고 그래요. 검정의사 제도가 해방 후에 쭉 있다가 제대로 의학이 자리 잡히면서 사라졌는데, 아마 1960년대 초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의사는 공부만 잘하면 제일 아니냐고 그랬지만 임상이 주라는 걸 몰랐단 말이죠. 임상이 주지, 연구가 주가 아니거든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연구를 하지만 연구하는 편드를 나라에서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한테서 벌어야 하는데, 우리 의료법에서 환자한테서 돈 벌어서 연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정의사를 포함해서 개원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 나중에는 국제학회를 열어보자는 얘기가 되었고 그때 주도했던 분들이 이관요, 심해일, 박재복, 강명선, 이종탁등 해서 11명인가 12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중에는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검정의도 있고, 항문병만 치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전 처음엔 이래서 어떻게 학회를 하느냐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상의하려고 진병호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아,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재정도 좀 있을 것 아닌가? 학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나도 도와줄 테니 시작해 보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교인 세브란스에 가서 민광식 선생한테 얘기하니까 "시기상조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세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진병호 선생보고 그러면 우리 김광연이 데리고 시작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 민광식 선생님의 시기상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였나요?

대학이 주도해서 학회를 만들지 못했던 이유도 그것인데, 당시만 해도 대학도 몇 개 없었지만 coloproctology를 한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직장암이 많지만 그때는 직장암 발생 수가 적었는데, 아무래도 식생활과 관련이 있겠죠. 고기 때문에 생긴 병인데 그때는 밥만 먹던 시절이니까요. 그때는 책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민광식 선생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학회를 만들었는데, 임원이 대학에서 두세 사람 나오고 항문병연구회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도 서너 사람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학회를 하긴 했는데 사실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coloproctology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이사장을 18년 했어요. 회장 하신 분들도 진병호 선생님은 일반외과이고, 그 다음 박길수 선생님은 그래도 서울대에서 대장항문을 하던 분이지만 대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붙들어서 1년만 해달라고 하면서 유지했던 것이죠. 그만두고 우리 또래에 김진복이라든지 좀 대신 맡기려고 해도 안 한다고 호응을 안 해주니까 혼자 해내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이용각 선생도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을 제일 먼저 한 가톨릭대학 교수인데 지금 아흔두 살인데 아직 살아 있거든요. 자주 만나고 잘 아니까 "야, 선생이 와서 회장 좀 해줘", "야, 제가 대장을 모르는데 뭘 해", "그럼 이름만 좀 빌려줘" 뭐그런 식으로 역대 회장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 기록에는 처음에는 대한항문병집담회였고 1967년에 대한직장항문병학회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가 실제로는 대한대장항문병학회로 출범을 했는데, 이런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요?

대한항문병집담회는 대학교수들이 없을 때 개원의 분들이 했던 것이고. 직장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냐면 항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치질 얘긴데, 병은 거기에 많거든요. 당시에는 치질이죠. 그러다 점점 병이 바뀌어 가면서 콜라이티스(colitis),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대장에 이상한 병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외과 의사들이 무시하니까 대장에 암도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대장직장항문병학회 그랬다가 너무 길어서 직장을 빼고 대장항문병학회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97년인가 병(病)자가 빠지고 대장항문학회가 됐는데, 대장항문병뿐만 아니라 대장항문에 관련된 여러 질환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다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뺀 것으로 알아요. 전 그때 반대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병(病)자의 병이 붙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일본과 아예 연결이 없었고, 제가 72년도에 일본 대장병항문학회에 가서 정

식으로 한국 대표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73년부터 동경에서 하는 일본 학회에 갔지요.

#### 그럼 대장항문학회가 활성화되는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의료보험이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맹장염 얼마, 복막염 얼마,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죠. 세브란스에서 3만 원 받으면 개원 가서도 3만 원 받고, 수가가 똑같으니까 점점 개인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가고, 큰 병원이 많아지니까 개인병원에서 수술실 차리고 간호원을 갖다 놨더니 일주일에 수술 하나 할까 말까니까 외과 개인병원들이 다 망했지요. 대신 지금 가만히 병원 간판을 보면 대장항문은 다 살아 있거든요. 그건 하루에 수술이 되니까, 하루만 입원시키고 내보내면 되니까 뭐 큰 손해가 없고, 오히려 메이저 오퍼레이션(major operation), 위, 간, 대장, 이건 안 되고 대장항문은 개원의로서 살아남고 그렇게 되면서 학회도 활성화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식생활의 변화나 질병의 변화와 함께하는 것이지만요.

#### 알겠습니다. 오늘 주로 초창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약속도 있으시고 하니 다른 분들 인터뷰를 통해 더 보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간 다른 학회하고 시작이 다른 것이,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집담회를 하다 보니까 학회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는 남이 하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의식에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강제로 시작을 했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몇 번 중간에 그만둘까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역대 회장님들도 대장항문을 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외과 의사를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다 끌어들인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래도 그게 50년이 되었고, 이만큼 성장을 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

## interview



최경달 선생님

다카노 마사히로(高野正博) 선생과 20년 넘게 인연 맺으며 대장항문외과 전문화를 주도해 선생님께서 학회의 최 연장자이시고 개원가를 대표하시는 분이셔서 학회의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십사 하고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의학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를 학회의 최연장자라고 하시니 부끄럽습니다. 인간 못난 놈 항렬 높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 생활이 66년이니, 새삼 감개무량합니다. 사실 의과대학 진학 동기라는 게 참 회한합니다. 일제 강점기 말엽에 강제 징병을 면해보겠다는 단순하고 유치한 생각에서 택한 길입니다, 하하하. 태평양전 쟁 말기에 일제는 폐색이 짙어지니까 최후 발악으로 학도 출진이라고 대학생에게 모조리 군복을 입혔는데 유독 의과대학생만 이 징병을 유예 받았거든요. 대구 의학전문학교에 진학한 지 5개월 만에 8.15 해방을 맞이하고 미군정, 남북 분단, 학제 변경, 학원 분쟁, 대구지방 4,000여 명의 희생자가 생긴 콜레라 대창궐, 대구 '10월 항쟁'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전쟁 등 파란만장한 곡절 끝에 다행히 의사,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1966년에 부산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형병원, 특히 교육병원들이 우후국순처럼 생겨 대항이 어렵게 되었죠. 이 난국을 타파하는 길을 모색하던 중에 틈새시장으로 여겨지는 항문병 분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 진료가 꽤 까다로워 암중모색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 분야에서 수련을 받을 만한 의료기관과 선생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 이름을 날린 분이 심혜일 항문과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였죠.

대장항문학회의 전신인 집담회를 하셨던 개원가 분들 중에 심혜일 선생님의 이름을 봤습니다. 기록에는 이관윤, 심혜일, 박재복, 강명선, 이종탁,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관윤 선생은 우리나라 항문병의 발전사를 일본 대장항문학회지에 발표하신 분이고, 이종탁 선생은 부산에서 개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김병일 선생이 유명했지요. 원래 저는 위 수술이 전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때 부산에 서독 적십자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생겼거든요, 제가 그 병원에서 위 수술을, 당시로서는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외과 병원을 개설한 다음에는 모든 내장을 비롯하여 뼈관절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수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항문 분야를 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허가 없이 의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경상도에서는 이들을 조의라고합니다. 조짜 의사, 돌팔이라고 하는데 치질은 그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대장항문병학회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회장이 이용각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신장이식을 최초로 하신 분이에요. 올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회의 장소는 명동

성모병원 바로 건너편 쌍용양회 빌딩이었습니다.

이용각 교수님이 학회장을 하실 때라면 1981년 무렵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의학회에 정식 학회로 등록하기도 전이니까 굉장히 초창기 상황이네요.

예, 1981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는데, 참석자는 한 열 분 정도였고 회장님이신 이용각 선생 님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당시는 뭐 회의라는 것도 없고, 발표하는 제목도 없이 제가 지 금도 기억하는데 이용각 선생님께서 몸소 겪은 항문병 고생담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치열이라는 병이 있어. 항문이 찢어지면 몹시 아픕니다. 그 치열에 걸렸는데, 보통 병이 아니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담소를 나누는데 그게 그날 학회의 전부예요. 이용각 선생님은 이후 치질 때문에 죽을 고 비를 겪은 일화가 있죠. 이용각 교수가 당신께서 근무하는 성모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고 수술 후 거듭 되는 대출혈로 3차례나 더 긴급수술을 받다가 수천cc 수혈로써 간신히 일명을 건졌다는 치험담을 '甲子 生醫師 나의人生 70年 醫師 50年에 남겨 이 책은 외과 지망생의 필독서로 손꼽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동아 학회에 나가지 않다가 2~3년 뒤인가 고려병원에서 학회를 하다고 해요. 그곳에도 참석자는 열서 너 명이고 김광연 선생이 그날 좌장이었습니다. 역시 의제도 없고 그냥 좌담 형식인데 그날은 회원 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다름 아닌 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들이 첫 대변을 못 눠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회원은 수술 후 2~3일 후에 관장을 한다. 또는 며칠간 절식을 시킨다, 그러니까 김광연 선생이 안 아프게 하는 도리가 있다. 오늘 수술하면 다음날 아침 에 장갑을 끼고 항문을 손가락으로 확 후벼버리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와 웃고 그게 또 그날의 전부였 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일본으로 가보았으면 하고 작심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비자 내기 가 어려울 때인데 집안 어른 한 분이 국회의원으로 계셔서 그분 덕택으로 일주일짜리 단수 여권을 받아 서 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학회는 연구회 수준에서 소규모로 유지되었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때 상황을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일본 학회에 참석하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해에 교토(京都)에서 일본대장항문학회가 열렸어요. 학회장은 국제회관이었고 참석자는 300명을 훨씬 넘어 대성황을 이루고 있어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날 마침 초청 강연을 김광연 선생님이

맡으셨는데, 제목이 '한국 대장항문병의 현황'인가 그랬습니다. 발표 내용인즉 상당수 질환이 결핵성인 거예요. 결핵성 치루, 결핵성 대장염 등등. 그때 일본은 결핵을 거의 정복했을 때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핵이 상당히 많을 때였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직 결핵성 질환이 많으냐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틀간의 강의를 끝까지 다 들었는데 괄목할 만한 연제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연제에 주목을 했는데, 그동안 독학으로 암중모색하던 저를 눈뜨게 해주었거든요. '이것이다'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마모토의 다카노 선생이었죠. 그곳에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회원이 워낙 많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구마모토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면서 여권을 어떻게 받아서 오게 되었느냐며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그해에 한국에서 온 사람이 김광연 선생님과 저, 단 둘뿐이었던 모양입니다.

#### 다른 선생님들도 다카노 선생님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선생님은 일본에서 다카노 선생님을 처음 만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인연으로 다카노 선생님은 영원한 스승으로, 다카노병원을 수런병원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매년 한국 학술대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여러 병원에서 초청 강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금을 우리 학회 발전 기금으로 갹출하시는 등 큰 도움을 주셨죠. 다카노병원을 거쳐 간 한국 대장 항문학회 회원이 130명을 넘는 등 우리나라 대장항문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공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로 지난 4월 19일 구마모토 대지진 때 다카노병원도 큰 피해를 면치 못하는 시련을 겪었죠. 다행하게도 100명이 넘는 환자를 무사히 타 병원으로 이원시켰고 한 달이나 지난 뒤에야 겨우 외래 환자만 보게 되었답니다. 웬만하면 우리 학회와 다카노병원의 인연을 맺은 분들이 뜻을 모아 결초 보은하였으면 싶었는데 지금껏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저와 다카노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보다 여덟 살이나 많은 제자였습니다. 매년 저는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 잠깐잠깐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카노 선생님이 101세 노모(老母)의 상주가 되었다는 급보를 받고 문상한 일도 있고, 또 제가 아내를 잃었을 때 그 소식을 후일 전해 듣고 선생님 내외 분이 다녀가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 칩거하고 있는 터에 지난봄 난데없이 선생님 내외 분과 병원 개설 초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인 비서를 데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용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앞이 없는 제자를 한번 만났으면 하는 걸음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말문이 막히도록 고마웠습니다. 저는 좋은 제자가 못 되었을당정 자상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것을 지금껏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보니 1980년대까지도 한국은 대장항문외과가 아직 분과로서 정립되기 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 배우셨던 것이군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초창기에 외과 전문의라고 하면 최고로 쳐줬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과 전문의 시험을 치면 처음에는 한 30%밖에 합격을 못 했어요. 엘리트들은 다 외과로 모였습니다. 왜 그런 가 하면 외과라야 돈을 잘 벌었거든요. 의료보험이 없던 시절이니 위 수술 한 건이면 황소 한 마리 값을 받았죠. 그러니까 전부 외과의가 되기를 선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일본에서는 벌써 외과를 표방 하는 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쇠퇴하였습니다. 사연인즉 고된 외과를 기피하는 인력 문제, 그리고 과다 시설 투자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지요. 그래서 다카노 선생이 일찍이 대장항문 전문병원으로 출발한 것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 다카노병원은 7~8명의 의사와 100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카노 선생님은 훌륭한 선각자임이 높이 평가되었고, 후일 개원의가 맡기 어려운 일본 대장항문학회장을 역임하여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국제학회를 유치하고 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학회도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니 기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전문의 1호가 김광연 선생이고, 제가 2호올시다. 그때 세부전문의가 된 사람이 100명 미만이었지요. 이 무렵부터 외과 개원가는 경영 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질만이 살길이라고 우후죽순처럼 항문과를 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2,000명이 넘는 회원수를 가지는 큰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여 행사의 일환으로 학회로부터 김광연 선생에게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장항문학회 히스토리를, 또 저에게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히스토리를 발표하라는 위촉이 있어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고 저는 대한대장 항문학회지에다 요약해서 게재해 놓았으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 주로 일본의 다카노병원과의 인연을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연수하신 경험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만학도인 데다 새로운 제도 하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맹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 한 국내외 관련 학회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때 겪은 낙수(落穗) 한 토막을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네. 그런 에피소드도 요즘 세대에게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을 때 미국 유학이 꿈이었는데 60이 넘어서야 꿈을 이루었지요. 저 유명한 뉴욕의 마운트 사이나이(Mt. SiNai)의과대학 병원의 오창열 교수를 찾아갔을 땐데, 저는 과분하게도 attending Dr. 대우를 받았으나 미국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거들지는 못했지요. 수술이 시작되자 오 교수는 항상한 곡조를 부르고 수술에 임하셨습니다. 반야월 작사·작곡 '울고 넘는 박달재'는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 넘아 물 항라 저고리가 궂은비에 젖는구려 왕거미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굽이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관인 것은 배가 한 아름이나 되고 두툼한 돋보기 안경을 낀 흑인 노(老)간호사가 같이 장단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몇 십 년 콤비인지는 몰라도 수술실 분위기가 평화롭고 탐스러워 지금껏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한 달쯤 지나 성탄절이 다가와 선생님 내외 분은 휴가여행을 떠나시고 저 혼자 집을 지킬 신세가 되었죠. 선생님 댁에서 숙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저도 귀국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갑자기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였는데, 난데없이 타켓을 구했으니 서둘러 공항으로 나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제 동기 한 사람이 의사 겸 목사였는데 교회 신자로부터 양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희생과 박애정신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오창열 교수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또 그 목사 동기도 하느님의 소명을 받고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두 분의 은혜를 갚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그저 명복을 빌고 또 빌 뿐입니다.

#### 오늘 많은 말씀 들려주셨는데 특히 현대사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전공자로서도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면담자께서는 저의 학창 시절과 수련 기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시는데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흔히 좋은 말로 "저는 한평생에 전쟁을 두 번 겪은 사람이오" 합니다. 파란곡절을 겪었지요. 아슬아슬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이를 악물고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격변기를 용하게 견뎌 낸 끝에 얻은 신조가 있습니다. '누구랑 선두 다툼은 하지 않는다, 한발 물러서자' 그게 제 인생관입니다. 경쟁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것으로부터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일들은 누더기 같은 저 개인사이고 이번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편찬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말을 아껴야 할 나이이기에 "鳥之裝死 基鳴也哀 人之將死 基言也善"이라는 중자님의 말씀이 떠올라 이만 접도록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nterview



이찬영 선생님

한국인 대장암취급지침서 작성이 1980년대 후반 학회 발전을 이끌어 선생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과를 공부하시게 됐고 어떤 경로로 국립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됐는지, 그런이야기부터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 의과대학 4년차에 국립의료원 실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6,25전쟁 피해로 우리나라 병원들이 폐허로 변한 가운데 스칸디나비아 3국의 출연과 UNKRA 등의 원조에 의해 1958년에 현대식 병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립의료원의 현관은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바닥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이 당시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기인데 국립의료원 실습을 나가니까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10시 반에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고기밥을 먹고, 또 3시 반에 커피 타임이 있었습니다. 과장, 부과장, 수간호사들은 전부 서양 의사들이고 모두 진료 용어는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없으니까 병원 전체가 깨끗했습니다. 1960년도에 국립의료원 인턴을 뽑는다고 하여 지원했죠. 이렇게 하여 국방부 1회 전문의 군의관이 되었고, 의료 장비들은 현대식 장비로 타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의뢰할 정도입니다. 1972년도 노르웨이 유학을 할 기회에 의료장비를 비교하면 국립의료원 의료장비와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1960년대에 국립의료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외과를 선택하셨던 것이군요. 시험을 보고 합격하셨다는 것은 킴스 플랜 시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엔 TO도 굉장히 적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제가 킴스 플랜 1회 출신입니다. 당시는 외과가 인기가 좋아 경쟁자도 많았지만 외과 학문이 제일 흥미가 있고, 또 우리나라 외과가 제일 낙후된 상태라고 생각해 외과를 선택했어요. 인턴, 레지던트를 마치고 군의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국립의료원에 스태프로 들어갔는데, 당시 과장이 나도헌(羅壽憲) 선생님이신데 위장외과 전공이시고 대장항문 외과에 더욱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국 St. Mark's 병원에 유학도 하셨습니다. 서양 과장들은 대장항문을 주로 하시던 선생님들 여러 분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대장항문 쪽을 많이 알게 됐지요. 그 당시 그 서양 의사들의 외과적인 의술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외과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1960년 4월 국립의료원에서 수련하던 기간에 4.19 및 5.16 사건도 겪었는데, 총상 입은 학생을 많이 치료했지요.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훌륭하니까. 많은 환자가 몰렸습니다. 그 당시 서양 의사들은 응급 및 대량 환자 관리 능력이좋았습니다.

#### 그럼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대장항문학회에 관여를 하게 되신 건가요?

1968년에 국립의료원 스태프로 들어가서 1972년 노르웨이 유학을 다녀온 다음해인 1974년에 과장이 됐거든요. 제가 국립의료원 수련 1회 출신이기도 하고, 스승이신 나도헌 선생님이 과장을 하시다가 원장으로 승진을 하셔서 제가 과장을 조기에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과의 분과 개념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공부하고 다음에 미국, 일본을 다 다녀보니까 앞으로 분과하지 않으면 발전이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스태프 중에 우제홍(禹濟弘), 이봉화(李俸化) 선생에게는 대장항문만 전문토록 하고 내분비 외과, 위장외과, 간장외과로 빠른 시기에 그런 전문 분야를 나누어 발전시켰습니다. 1978년에 나도헌 선생님이 학회장을 하시고, 제가 1988년에 학회장을 맡으면서 국립의료원 강당에서 학회를 자주하였고, 우제홍 선생이 총무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연 선생님 말씀으로는 초창기에는 대장항문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회장을 모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서 진병호(秦柄鎬·서울의대 외과 교수)라든지 그냥 외과를 다 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회장으로 모시고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초창기 상황을 좀 아는데, 옛날에는 대장항문학회가 미약했어요. 김광연(金光連) 선생님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학회를 만들 때만 해도 외과가 분과가 잘 안 되어 전과를 진료하는 진료를 하셨지요. 진병호(秦柄鎬) 선생님(서울의대 외과), 민광식(閔珖植) 선생님(연세의대 외과)을 모시고, 김광연 선생님이 당시 총무 역할을 장기간 수고를 하셔서 지금과 같은 거대한 학회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외과의 박길수(朴吉秀) 선생님도 학회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죠. 선생님은 직장암 환자 수술에 있어서 항문 보존 수술에 역점을 두시고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장항문학회 발전 동기는 첫째로 1958년에 스칸디나비아 의사들이 국립의료원을 만들고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10년 동안환자 진료 및 교육을 시켜주셨던 것, 그것이 한국 외과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많은 외과의가 유학을 다녀오시고 후배를 양성해 외과교실의 대장항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발전의 계기이죠. 셋째로는 외국에 있는 대장항문 교수들이 우리 학회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다카노(高野) 선생 및 일본 암연구소의 다카하시(高橋) 선생, 이런 분들이 학회를 도와주시고 일본 사회보험병원에 있는 스미코시 선생, 동경대학 외과에 있는 무토(武藤) 선생, 그리고 일본 암센터에 있는 여러 교수들

이 오셔서 후배들을 교육시켜 준 것들이 발전의 밑거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미국의 박재송 선생은 학회 발전에도 노력하시고 한국 후배들이 미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 선생님께서 학회장을 하셨던 1988년 정도면 학회가 상당히 성장했을 때인가요? 아니면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셨나요?

1988년 전에도 학회가 그렇게 발전을 하지는 못했어요. 재정적 지원도 없었고 한국에서 아직 분과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제가 있을 때부터 학회는 크게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대장항문 동호인들이 100~200명 정도 주로 국립의료원 대강당에서 학회를 끝내고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식사하는 식으로 10년을 지내다가 제가 1988년도에 회장이 되면서 63빌딩에서 학회를 했거든요. 유명한 교수들도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1985년부터 학회지를 만들기 시작해 현재 크게 활성화되어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장암취급지침서(大腸癌取扱指針書)를 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1980년대 후 반까지는 항문질환 중심으로 치핵 및 치루 수술을 중점적으로 했으면서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수 준은 아니었어요. 동대문에 있는 치핵 전문병원 및 여러 선생들도 그때 계셨는데, 1980년대 후반은 지나 야 대장암과 항문질환이 전문화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많이 느꼈던 때라고 할 수 있 습니다.

### 대장암취급지침서(大腸癌取扱指針書)를 내셨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회장(1988년)을 하기 전 일본에 자주 갔을 때 대장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발전된 것을 봤어요. 왜 이렇게 발전되었나 원인을 찾아보니까 일본은 자기들 나름대로 대장암에 대한 병기 단계를 독자적으로 분류하고 있더군요. 이때 국내 병원들의 암 병기 분류는 Dukes 분류(12개 병원), TNM 분류(11개 병원), Astler-coller 분류(17개 병원), 혼합분류(13개 병원)여서 학회 발표에서 상호 비교가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침서를 만들어 대장암의 병기를 통일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선생들에게 부탁해서 워커힐의 더글라스 홀에서 여섯 번이나 회의를 하면서 만들었

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동조하지 못했어요. 그걸 만들 때 참여했던 인물들이 이 사진(1부 3장 79p 상단 사진)을 보면 나옵니다. 제일 오른쪽이 저이고, 맨 왼쪽은 서울대의 박재갑 선생, 이봉화 선생, 그리고 경희대 이기형 선생이고. 그 위의 사진(1부 3장 84p 상단 사진)은 가운데 일본 분이 치루로 유명한 스미코시 선생이고, 이게 저나, 김광연 원장, 일본 암센터의 호조라는 분이고. 서 계신 분이 다카노 선생, 제 밑에 있던 우제홍 선생입니다.

# 앞서 대장항문학회 혹은 대장항문학의 발전에 일본 분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특히 일본과의 교류가 많았던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의학이 1960년대에 우리보다 30년이 앞서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 의학도 20년은 앞서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 대장항문취급지침서를 만들고 나서 수술 테크닉이 많이 발전했고, 미국보다 예후는 더 좋았지요. 게다가 올림푸스 내시경을 자기 나라에서 만드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분들은 진짜 한국을 좋아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들 돈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일본 병원이 워낙 유명하니까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고 일본 구마모토에 대장항문 전문병원인 다카노병원에서 항문질환을 많이 배웠다고 봅니다.

서울 송도병원 이종균(李宗均) 선생도 요코하마의 대장항문 개인병원에서 연수하고 돌아와 서울송도병원을 짓고 우리나라 최대 대장항문 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어서 군소 병원(대항병원, 양병원, 한솔병원 등)이 새롭게 대장항문 병원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분들의 노고로 인해 대장항문질환의 학문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학회 발전의 계기 중 하나로 1995년의 아시아대장항문학회를 많이 말씀해주셨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995년에 김진복(金鎭福) 선생(서울의대 외과 교수)이 회장을 하시고 박재갑(朴在甲) 선생(서울의대 외과 교수)이 총무를 맡아 이 학회를 서울에 유치한 것이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이 외국에 발표될 기회가 적었는데 이 학회를 시작으로 외과 의사들이 학회에 많이 참여하게 됐다고 봅니다. 이 당시 위암 및 다른 장기를 전문으로 하는 학회도 있지만 국제학회를 유치 못했는데 대장항문학회

유치에 성공하니 이때 많은 기업이 지원해 성공했다고 봅니다.

대장항문학회는 다른 학회들에 비해 개원의 선생님들이 초창기부터 역할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비중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송도병원이나 대항병원 같은 전문병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관련이 깊어요. 외과에 대한 치료비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연수 받고 항문질환 이외의 질환은 진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근래 대장내시경 검사를 쉽게 이용하여 병원을 유지하고 개업의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분야이죠. 지금 대장암 5년 생존율이 75%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높아진 원인 중의 하나가 대장내시경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거든요. 조기 대장암을 쉽게 발견하고 생존율도 높아질 수 있었죠. 대장내시경 검사도 일본이 거의 창시자 역할을 했는데, 올림푸스라는 광학회사가 발전시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30~40% 정도는 조기 대장암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특히 대장암에 대한 예후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각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도병원 결과를 보면 대장암 환자에서 복강경 수술 자와 개복 수술자의 5년 생존율의 비교에서 10% 항상을 보았습니다(81,1%/70.7%).

#### 송도병원과는 개인적 인연도 있으시죠? 김광연 선생님도 송도병원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993년에 국립의료원에서 정년 퇴임하고 단국대학에 외과 초대 과장으로 갔지요. 10년 정도 있다가 은 퇴한 후 송도병원으로 옮겼죠. 대장항문학회의 발전에서 대장암 분야에서는 김광연 선생님이 산증인이라면 항문질환에서는 송도병원의 이종균 선생 및 대항병원의 이두한 선생이 있습니다. 대장항문의 양성질환, 치핵, 치루 부분이 발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 결과 해외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외과는 많은 세부적인 기술이 전문화되면서 대장외과가 발전하게 되는 데 또 하나 크게 공헌한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톨릭대학의 김준기 선생입니다. 대장암 복강경 수술을 가장 초창기에 시작한사람이고 지금까지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통합의학이라고 면역치료라든지 혹은 통합치료를 주장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도병원(이종균)이 이 분야에서 선두 주자로 병원 내 면역센터를 두고 계속 환자 진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은 대체로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후배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장항문에서 양성질환은 점점 퇴색하고 목욕하는 문화가 발전해 항문질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대장 및 직장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암이 1위이고 폐암, 간암, 대장암, 이런 순서 인데 대장암이 점차 많아진다고 봐야겠지요. 예전에는 수술하고 항암제를 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항암치료, 면역치료 등 종합적으로 같이하는 통합의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장항문과라고 해서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이걸 다 합쳐서 연세대에도 대장항문센터가 생기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장내시경 검사 기술이 크게 발전해조기 암 발견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대변 및 혈액 검사로 간단히 진단하는 방법이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대장암이 3~4기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전히 약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박동국(朴東國) 선생(단국의대 외과)은 대장암 복막 전이암 및 장기 전이암을 외과적 절제술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한편으로는 귀찮은 일이지만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어서 벌써 250여 사례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큰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interview



우제홍 선생님

개원가와 대학의 공생과 상호 발전이 대장항문학회 발전의 비결

####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장항문학을 전공하게 되셨는지부터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61학번이고 1967년에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국립의료원 외과 스태프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과가 세분화되지 않았으나 외과 중에서 위, 간, 담췌를 선호했으며 대장항문, 유방, 갑상선 및 그 외의 분야는 선호도도 낮았고, 환자도 위, 담췌에 비해 적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6.25전쟁 시 스칸디나비아 3국이 유엔군으로 참전한 후 한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노르웨이 등스칸디나비아 3국에서 병원을 지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시설 및 의료진에서 최첨단 및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연계 병원으로서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스태프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스칸디나비아 3국의 유명 병원에서 연수할 기회가 있었고, 마침 제가노르웨이의 오슬로대학 부속 울레발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저를 지도하신 교수님이 대장항문 전공분야여서 저도 대장항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한국전쟁기부터 스칸디나비아 3국이 만든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스태프를 하게 되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1972년에 국립의료원 외과 스태프로 발령받았으며, 77년에 노르웨이의 울레발 병원으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 및 유럽에서는 대장항문 분야가 인기 있는 과였으며, 환자도 많았습니다. 저를 지도하신 교수님은 헤르츠 베르그 교수로서 노르웨이에서는 대장항문 분야 최고 권위자였으며, 스칸디나비아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교수님이 저를 지도하게 돼서 그런 인연으로 대장항문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 장인어른도 박길수 교수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장항문을 전공하신 분 중 한 분이에요. 노르웨이 연수 중에 교수님의 추천과 주선으로 스웨덴의 콕스 교수가계신 살그렌스카 병원 및 알란 팍스 교수님이 계신 영국의 세인트 마크스에 연수을 주선해주셔서 연수를 마치고 1979년에 국립의료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물론 외과가 완전 세분화되지 않았지만, 대장항문 질환의 환자도 적었고 대장항문 분야는 대장항문연구회 형태로 1년에 한 번 을지로4가 풍림빌딩 6층에서 모여 발표회 등이 있었으나 초록집이나 논문집은 없고 발표할 제목을 발표자별로 인쇄해서 발표한 기억이 납니다. 주로 모임은 물론 대장항문을 전공하는 대학교수 및 개업하신 분 등도 오시고 그 외 대장항문에 흥미 있는 선생님들이 모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대에서 외과의 진병호 교수, 연세대에서 민광식 교수, 이런 분들이 회장을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박길수 교수, 김광연 선생님, 김진복 교수 이런 분

들이 부회장, 이사장, 총무 등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많은 분을 인터뷰하지는 못했지만 홍성국 선생님을 언급하신 분은 선생님께서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국립의료워에 근무하는데 홍성국 교수님이 좀 만나자고 해 만나 뵀습니다 홍 교 수님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박길수 선생님 바로 밑으로 대장항문을 전공하시기 위해 발령받으신 교수 셨으며, 그 다음에 박재갑 교수가 대장항문을 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 뵀더니 홍성국 교 수님이 대장항문연구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제가 가사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너 간사 좀 맡아라"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간사를 맡게 됐어요. 박길수 선생님이 회장을 맡고 김광연 선생님이 이 사장을 맡고 계셨고 홍성국 교수님이 총무를 하셨을 때데 제가 간사를 하다가 총무를 이어받고, 연구회 또는 학회에 활동을 위한 예산이라고 은행 통장을 받았는데 잔고가 하나도 없이 제로예요. 즉 활동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없이 모임이 있을 때 각자 내서 쓰고 모자라면 우선 간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 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학회에 정식으로 가입해서 지원도 받고 예산도 만들자 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정식으로 학회 활동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의학회에 가입하기 위해 규 정을 찾아보게 됐죠. 예를 들어 학회 활동이 얼마가 되어야 하고, 초록집이 몇 개가 있어야 하고, 논문집 이 얼마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의학회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 그때부터 초록집 및 논문집을 만들고 회원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마침 이봉화 선생님이 국립의료원 스태프로 발령받게 되면서 이봉화 선생님이 준비를 했고, 대외적으로 김광연 선생님, 홍성국 교수님 등이 도와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후 약 2년간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하면서 논문도 만들고 학회지도 만들고 해서 의학회 에 정식 가입을 신청하게 된 것이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일 거예요.

## 학회 사무실에서 정리해주신 표를 보면 선생님께서 총무를 처음 하신 시기가 1978년 12월이고, 이 표에는 학회에서 총무를 처음 하신 분이 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홍성국 선생님이 총무를 먼저 하셨어요. 당시에는 결국 총무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각 대학의 주임교수님을 학회 회장으로 영입하는 문제, 학회의 예산을 만드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경 마침 일본 교토에서 국제대장항문학회를 유치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한국에서 외국 갔다온 사람을 찾다보니 저밖에 없었는지 저를 부좌장으로 초청장이 와서 참석하

게 되었으며, 이때 구마모토의 다카노 선생님이 좌장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국 대장항문학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에 대장항문학회가 어떠냐고 하시길래 우리는 현재 회원 수도 적고 어려움이 많다고 했더니 학회 활성화를 위해 본인이 도와주고 싶다 하시면서 한국에 와 강의도 하고 가르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본은 대장항문병원도 많이 있고, 회원 수가 이미 1,000명가량 된다고 한 것으로 기억되며, 학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던 시기예요. 학회에 오셔서 강의도 하고, 한 번 참석했으면하시는데 솔직히 그 당시 초청 비용을 줄 수 없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니 본인이 개인 돈을 들여서 오시겠다고 해 초청했으며, 다행히 국립의료원에 외국 손님이 오면 잘 수 있는 숙소가 있으니까 숙소는 그렇게 해결하고 그런 식으로 몇 번 오셨었어요. 그 후 일본 대장항문의 권위자이신 스미코시 교수도 초청을하게 되면서 저희 학회도 국제화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홍성국 교수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다카노 선생님, 스미코시 선생님은 양성질환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암 질환에 대해서는 일본 암연구소의 다카하시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하고 또 직접 수술 술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점차 학회가 국제화하고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 그때라면 80년대 초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79년부터 활동했고, 81년도(?)에 일본을 갔다 와서 아마 그 다음해에 다카노 선생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교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결국 그분들이 우리 학회를 많이 키운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영국의 세인트 마크스 아니면 일본, 특히 다카노 선생에게 많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에 많이 가기 시작했고 회원도 늘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다카노 선생님이 개업가에 흥미 있는 양성질환에 관한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토록 권유해 개업가에서 많이 참석토록 했으며, 특히 최경달 선생, 허무량 선생, 이종균 선생, 강윤식 선생, 이두한 선생, 양형규 선생, 한솔병원 등 개업가에서 참석토록 독려하고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연 선생님이 회고하신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광연 선생님은 처음에 개원가 중심의 연구회로 있다가 이미 67~68년경에 학회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김광연 선생님의 말씀이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주로 1979년 이후의 학회 발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학회에 가입도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먼저 준학회로 가입되고 정식 학회가 되는 데에도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67~68년에 정식 학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980년 이후 의학회에 정식 가입하기로 하고 준비 과정으로 자료도 만들고 초록집도 만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역사가 필요하니까 의학회에 보고할 때는 67~68년부터 학회로서 모임을 가졌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확실치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걸 기억할 수 있는 분은 김광연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 기록상으로도 81년에 대한의학협회 분과협회의 준회원이 되었고 85년에 정회원 학회가 된 것은 맞습니다. 명칭은 이미 67~68년부터 학회라고 변경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연구회에 가까웠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1980년대에만 해도 대장항문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학회 임원도 지금처럼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대학 주임교수님을 찾아다니면서 회장으로 모시겠다고 부탁을 해야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처음에 국립의료원 스태프로 들어갈 때는 외과 전문의로 간 거였고 사실 위장을 했는데, 노르웨이의 제 지도교수가 colorectal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진로가 바뀐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박길수 선생님이 굉장히 빠른 편이었죠. 그분은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경성제대 조수로 들어와 있었는데 당시에는 분과라는 게 없이 그냥 외과 의사는 외과의 모든 분야를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활동하던 당시로는 우리나라에서 대장항문질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 당시에는 국립의료원도 마찬가지였지만 1년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장항문, 특히 대장, 직장 암의 수술환자 수가 요즘 웬만한 병원 한두 달 정도의 환자 수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적었고, 치질 환자 치료에 대해서도, 치핵 수술에 대해서도 수술 술식이 완전 통일이 안 되어서 각 대학마다 또는 각 의사마다 수술 방식이 차이가 있었고, 주사 치료법도 쓰고 그런 시절이지요. 물론 치루의 수술은 분류 및 수술법이 통일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길수 선생님은 일본, 김광연 선생님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셨고, 선생님께서는 노르웨이와 영국을 다녀오셨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그 다음 세대인가요?

대체로 그런 셈입니다. 홍성국 선생님이 영국, 미국을 다녀오셨고, 심민철 선생, 박재갑 선생, 손승국 선생, 이봉화 선생도 미국을 다녀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 대장항문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미국에 연수 또는 교환교수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장항문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의 학문적인

지식 및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회의 이사장도 처음에는 박길수 교수님이 하시고, 그이후 88년까지는 김광연 선생님이 계속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전규영 선생님으로 바뀌었나? 제가 이사장을 하고 박응범 교수가 이사장을 했으며, 이때부터 학회의 재정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85년에 정식 학회가 되고 나서 학회 회칙도 다시 재정비하고, 이사장 임기에 대한 규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2년씩 하는 방식이 됐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일은 총무가 많이 하던 시절이었지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우리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85년부터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 아무래도 대장항문이라는 분과가 정립되는 시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비인기 종목이라고 대장항문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대장항문질환 환자도 늘고, 개업가에서도 환자가 늘면서 대장항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또한 외국 연수 교수가 늘면서 연구도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홍성국 교수에 이어 박재갑 교수로 이어지면서 박재갑 교수가 특히 대장항문 분야의 연구와 국제화에 기억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대도 민진식 교수에 이어 손승국 교수가 대장항문 분야를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년까지는 분과라는게 거의 없던 시기이고 대장항문이 대학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인기 과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회장, 부회장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고 그러다가 85년 이후에 제대로 인기 종목이 되기 시작하면서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역시 개업가가 활성화되면서 회원이 많이 늘고 평생회비를 받고 학회비도 받고, 그러면서 돈도 모이고 학회가 많이 커지게 됐지요.

### 앞서 다카노 선생님이 개원가를 학회에 참여시키자는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학회 규모를 키우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셨던 건가요?

우리나라는 치질 중 제일 흔한 치핵 질환은 부위의 특성상 및 수술을 하면 고통이 심하고 고생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병원에서의 진료 및 수술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전문 의사 또는 돌팔이 등에게 의사가 쓰는 경화제 주사 요법이 아닌 부식제가 섞인 주사 요법을 함으로써 항문에 합병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회에서 이런 합병증에 대한 홍보도 했고, 항문질환이 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면 합병증도 없고 통증도 많지 않다는 홍보도 했으며, 학회에서도 양성 항문

질환에 대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면서 개업가에 많은 참여 및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의들이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랬던 거예요. 당시에는 부식제 주사 요법이라고 개원가에서도 했지만 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발표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개원가의 참여가 많이 늘어났죠. 박재갑 선생이 대장항문 국제학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회원들도 국제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학회를 유치하면서 의학회 및 여러 분야에서 대장항문 분야를 재인식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학회의 재정을 좋게 하고 아울러 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사실 그런 국제학회도 돈이 있으니까 유치할 수가 있었죠. 93년인가 평생회원 제도를 만들어서 평생회원 회비를 받게 되었으며 이런 것도 회원 중에는 불만도 있었으나 학회의 재정 및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많은 노력이 우리 학회가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서 학회 기금이 모이게 되고 국제학회를 유치할 자금이 되고 그랬던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1985년 정회원 학회가 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1985년 당시 회원 수 140명에서 1995년에는 42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역시 대장항문학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대학과 개원가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 설정을 잘했던 부분도 있고, 대장항문 자체의 특성상 역할 분담이 용이했던 부분도 있어요. 물론처음에는 갈등도 좀 있었지만 서로 역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공생이 되면서 학회에서도 협조가 잘됐던 것이죠. 다른 학회들은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benign하고 cancer하고 구분이 딱되어 있으니까, 개업가는 개업가대로 양성질환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대학은 대학대로 암 관련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최근 들어 송도병원이라든지 몇 개 대형병원에서 암을 다루고 상당한수준에 올라 있지만 아무래도 대학병원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큰 갈등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개원가도 커지고 동시에 학회도 커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요.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들은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삼아서 후배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95년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빠져서 학회에서도 이미 원로 대우를 받으면서 회장이나 하고 그 랬어요. 1996년에 인하대병원 개워을 하면서 부원장 겸 주임교수를 했고, 2004년부터 학장을 하고,

2005년에는 병원장 겸 의료원장 겸 의료부총장을 하고 정년 퇴임을 했거든요. 그래도 타이틀은 외과였지만 70년대 이후에는 대장항문 이외에는 안 했으니까 학회에 중심을 두고, 애정을 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옛날과 많이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대장항문 전문의가 별로 없으니까 개업가나 대학에서도 환자 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장 전문의가 너무 많다 보니 환자의 전료 및 치료에서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환자로부터, 또는 다른 세부전문의로부터 비난을 받게되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개업가는 개업가대로 어려워지고, 대학은 대학대로 어려워지며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잘 역할 분담을 했듯이 대학과 개업가가 잘 협력을 해야 할 것이며, 대학은 대학대로 좀 더 연구에 집중해야 하고 개업가는 개업가대로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무리한 치료나 치료 적응을 잘 지켜서 환자에게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죠. 지금도학회 회원 중에는 개업가의 회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기도에서는 다른 세부 외과 전문의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병원 및 개원가 등은 우리 학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신치료 기술의 개발 및 환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학회를 통해논의해서 우리 모든 회원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결국 학회도 발전하고 개업가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시간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 interview



심민철 선생님

세부전문의 제도화 추진이 학회 발전의 중요한 계기

#### 대장항문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방둥이와 같이 지낸 1946년 정월 생이며, 2009년 외과 춘계학회에서 심포지스트로 "외과 의사와 음주"에 대해 발표도 했고, 마르퀴즈 후즈 후 세계 인명사전에도 등재(2009년)되었습니다. 부친은 철도 공무원이셔서 2년마다 전국으로 이사, 전학을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청주에 있을 때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 달여간 입원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누가 코치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가문에서 드물게 홀로 의대를 갔습니다.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에서 레지던트, 석·박사과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부 전문화가 되지 않은 환경에서 외과 전문의가 됐어요. 세브란스병원에서 외과를 마쳤을 때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 초기이지만 의학이 뭔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세부 전문화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미국 의사고시(ECFMG)에도 합격돼 있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브란스 외과가 미국식교육이기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 가서 봐도 비슷했지만요, 다만 무슨 전공을 해야 되겠느냐 그게 고민이 었어요. 선진국인 미국에서 세부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서구식 생활 중심에 가장 많은 질환이 대장항문 병이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죠. 미국에는 대장항문 병이 제일 많았거든요.

#### 세브란스에서 공부하실 때는 일반외과를 하셨을 텐데 지도교수라든지. 선배 분들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전공의를 할 때 외과 부장, 주임교수가 황 외과 : 황규철 교수님에서 김민 외과 : 김 춘규 교수님으로 바뀌셨는데, 당시엔 그냥 일반외과이고 분과가 안 되어 있었어요. 유방 수술, 위 수술, 담낭 수술, 탈장 수술 등 세브란스에서 안 한 게 없습니다. 1970년대에는 세브란스 외과의 위상이 전국 외과 중에 최고였어요. 당시에는 외과의 인기도 1등이었고, 미국인 교수 분들도 세브란스 외과에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더 느꼈지만 미국 시스템과 거의 비슷했고 수련도 굉장히 혹독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대 외과와 전공의 교환을 했는데 서울대 외과 2년차, 3년차들은 세브란스에 와서는 수술 방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울대 외과에 교환 근무하면서 수술도 하고 환자도 보고 서울대 외과 전공의와 똑같이 일하고 발표해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타이트하고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드(업무량의 부하)가 워낙 과부하 상태라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는, 못 먹고, 못 자고, 못 눈다고 할 정도로 심했죠. 제가 지금은 체중이 약 80kg 되지만 세브란스 시절에는 평균 체중이 56kg이었어요. 한 일주일만 근무하고 나면 살이 쪽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 그럼 세브란스 수련 이후에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대장항문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신 거군요.

그런 셈입니다. 굉장히 빠른 편이었지요. 미국에 수학한 게 80년인데, 뉴욕 Mount Sinai의 외과 '팀 V' 대장항문 파트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SKCC)가 유명한데 거기도 대장외과 파트로 들어갔고, 뉴욕대학(NYU)병원의 대장항문 외과에서도 연수를 했어요. 메모리얼 암센터는 앵글로색슨 계통이고, Mount Sinai는 말 그대로 Jewish 중심의 병원이고, 뉴욕대병원은 Localio를 비롯한좀 어정쩡한 구성 멤버들의 서로 다른 특징이 있는 병원이었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곳에서 대장항문을 전문적으로 비교해 공부했다는 점이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아마 나보다 빨리 대장항문을 전공으로 공부했다고 할 수 있는 분은 김광연 선생님하고 우제홍 선생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화의대 박 응범 선생과 나 다음, 1년 뒤에 경북대의 전수한 선생이 81년에 연수했고, 그리고 연세의대 손승국 선생에게 대장항문을 하도록 강력하게 추천했지요. 당시에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ECFMG 합격으로 미국에서 정착하려고 가는 사람이나 대학교수 외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드물었어요. 국가 경제도 힘들어 재정 보증 등 비자 발급을 받기도 어려웠고 그만큼 외국의 선진 의학 연수 기회가 적었지요.

#### 선생님께서 미국에 다녀오신 이후에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학회에는 어떻게 관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당시 대장항문 병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치질과 관련된 쪽이 많았는데 그것도 학문적으로는 형편없는 지경이었어요. 직장암 자체는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직장암도 흔한 질병이고 염증성 장 질환 등 국내에서는 희귀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많이 보고 공부하고 올 수 있었죠. 그리고 국내 대장항문학회는 세브란스에서 외과 레지던트 과정 중에, 외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국립의료원에서 대장항문병학회 모임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미국에서 연수했고, 대장항문을 전공하고 왔으니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82년에 귀국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83년 10월 무통성 한냉 치핵 수술이 '저녁 9시 KBS 뉴스'에 보도된 이래로 학회에 논문 발표는 물론 연수강좌, 패널리스트, 심포지스트, 모더레이터, 좌장 등으로 활발히 참여했으며 주 연구 분야는 장 운동, 하부 직장암에서 항문 보존술 분야, 항문 직장 질환에 대한 무통성 치료에 관심과 중점을 두었죠. 항생제가 장 운동에 미치는 영향(1983년, 박사 학위 논문), 하부 직장암에서 술 전 방사선 및 화학약물 치료로 암을 소멸 내지는 감소시켜 항문 보존술을 국내 처음 구연 발표(1995

년, 대한외과학회 제47차 학술대회), 술 전 방사선 및 화학약물 치료 후 대장문합부의 견고성(1999년,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상), 편저로는 『대장항문학』 초판(1991년)에 "치핵", "직장항문 협착"을, 2, 3판(2000, 2005년)에 "치혈", "치핵"을, 대한소화기학회총서5, 『대장암』(1999년)에 "직장암의 외과적 치료와 술 전 방사선 및 화학약물치료"를 편저로, 대한외과학회의 『외과학』 책(2011년)에 "치핵"을 편저로 기고했어요. 1988년에는 대장항문학회 총무이사, 92년에 학술위원장, 심사위원장과 전문의 추진위원장(96년), 이사장(98년), 회장(2003년)의 보직을 했고, 지금은 자문위원(2004년~현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소개한 신동아 별책부록(1999년 9월, 동아일보사)에 한국의 전국 종합병원 의사 700명이 추천하는 "명의, 명 클리닉"에 '직장, 대장 분야' 명의가 뽑은 명의에도 선정되었죠.

역대 보직자를 정리한 표를 봐도 1980년대에는 상당히 단순했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보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학회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세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뒤부터 학회 활동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 전에는 김광연 선생님께서 15년 넘게 이사장을 하시면서 혼자 하시다시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찬영 선생님이 하시고, 회장은 장선택, 김수태, 김진복 선생님 같이 대장항문을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서울대, 연세대 등 원로 대학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추대해 학회 활성화를 도모했지요. 총무이사는 제가 88년부터 했지만 그 전에는 제 은사이신 연세대의 민진식 선생님도 하셨고 여러 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학술이사가 중요한테 모든 학술대회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92년부터 94년까지 학술위원장을 했고, 다음 학술위원장이 고려대 김홍영 선생인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학술위원으로 2년을 더 했어요. 그리고 96년에 심사위원장을 하면서 전문의 추진위원장이라고 그건 직제에도 없었는데 그걸 신설해 맡아서 세부전문의(인정의)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미국, 일본의 제도를 연구하게 되었죠. 학회 참석, 논문, 술기 등 여럿을 점수화해 학회에 도입해 활성화시켰고 학회 위상과 참여율이 가히 폭발적이라 대한외과학회에 미운털이 박히기도 했지만 학회 역사에서는 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대한소화기학회 부회장(2006년), 삼남외과학회 회장(2008년)으로 친목과 폭넓은 활동으로 교류했고 학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 외과 전문의만 있던 상태에서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를 따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분과학회는 회원의 활동이나 실적이 저조했고 대장항문학회는 회원들이 학회에 열성적이.

었고 단합도 잘 되고, 외국 학회에도 열심히 다녀 국제 학회 유치에도 힘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장항문 전문의를 하겠다고 주장했지요. 미국은 이미 분과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못 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선두로 나서서 분과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외과학회에서는 싫어했지만, 그때 영남의대에 있으면서 대구, 서울을 일주일에 세 번씩 오가기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회의를 주관하며 참여해서 추진했어요. 당시 학회 회원들에게 대장항문 전문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지를 끌어내고(대장항문학회지에 수록됨), 대장항문 세부전문의 규정도 만드는 등 노력을 많이 했지요. 결국 97년, 98년부터 정식 전문의는 아니지만 우리 학회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 학회 역사에서는 전문의 제도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남의대에 가신 것은 미국에 다녀오시기 전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세브란스 외과 전공의를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한 후 82년에 영남대학병원 및 외과 개원 준비를 맡았어요. 83년에 개워했는데, 82년에 혼자서 1년간 외과 강의를 다 했으니까, 그때가 영남의대 1 회 졸업생들이 본과 2학년이었을 때이지요. 그러니 영남의대 출신은 100% 제 제자들이죠. 모든 게 처음 이니까 그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바빴어요. 이것저것 외과계의 모든 준비를 하고 제가 초대 응급실장 까지 맡았는데 83년 5월에 개원했으니 차트, 제 규정, 수술기구 등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요. 당 시에 영남대학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우선적인 조건이 경북에 있는 사람만 뽑지 말자, 지역을 타파하자는 것. 조화와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경북의대를 나와서 미국 트레이닝이 1순위, 경북의대를 나와 서울에 있 는 대학 트레이닝이 2순위,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거나 경북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좀 크게 공부한 사람이 3순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에 있다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 1순위 아닙니까? 하하. 그리고 마침 서울대 출신의 연세대 유준 교수님이라고 미생물학 하시는 분이 영남대 총 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 빨리 안 내려오고 뭐하느냐고 하셔서 초기에 신설 왕립대학(?)에 들어가 준비하게 됐고 개원 리허설과 날짜도 정하게 됐죠. 그리고 개원 후 10년인 93 년에 2대 외과 과장, 주임교수를 했고, 대학원 주임교수(97년), 의학도서관장(99년), 2001년에 의과대학 장, 2007년에 의무부총장, 의료원장을 하면서 영남의대도 발전과 성장하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 고 자부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대장항문학회 회원들 덕분에 90년대 초에 300~400명 되던 학회 회원 수 가 지금은 1,800~1,900명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굉장히 수준 높은 학회가 됐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학회 활동이 더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학회의 저변확대에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 세대에는 서울에서도 대장항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김광연 선생님, 우제홍 선생님, 박응범 선생님 정도 계셨고, 미국 연수 중 가끔 만나뵌 서울대에 홍성국 선생님이 대장항문 파트에 계셨어요. 김수태 선생님이 대장항문도 좀 하셨지만 그분은 원래 외과, 간담췌이고, 그런데 그 전에 박길수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서울대학 교수하셨는데 항문만 하셨죠. 그 정도로 제가 초창기 멤버이고,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는 저보다 선배고 세브란스 외과에서 트레이닝한 전북의대의 강남부 선생님이 학회에 나오셨는데 그분도 대장항문을 전문으로 한 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외과 정회원(FACS)을 87년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FAC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브란스에서도 민광식 선생님하고 홍필훈 선생님 등 몇 분밖에 없었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대장항문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이화의대의 박응범 선생이 80년에 뉴욕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서, 전수한 선생이 81년에 미네소타대학에서, 좀 늦게 손승국 선생도 미네소타대학에 연수하고 왔고 그랬어요.

그때 학회에서는 그 세 사람, 박응범, 심민철, 손승국을 삼총사라고 했어요. 박응범 선생이 이사장을 하면 제가 학술위원장, 손승국 선생이 총무, 박응범 선생이 회장을 하면 제가 이사장, 손 선생이 학술위원장, 제가 회장일 때 손 선생이 이사장, 이런 식으로 이 세 사람이 초창기에 김광연 교수를 모시고 열심히 학회를 이끌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게 90년대 초, 2000년대 초반 이야기이죠.

# 선생님께서 대장항문학회의 다양한 보직을 하셨는데 그 시기에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행사라든지 중요한 사건이 있으신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장 재임 시에 학회 사무실을 만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에는 학회 사무실도 없었는데 사무실을 만들고, 전담 비서도 채용하고, 홈페이지도 처음 만들었죠. 학회지도 1년에 두번 내던 것을 계간지로 바꾸었고, 연수강좌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로 바꾼 게 많아요. 연수강좌라는 것은 소규모 학회라고 할 수 있는데 학회 구성원들이 최신지견을 공유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개원가의 회원님들도 오고요. 서울대, 이화여대, 영남대 등 각 대학들도 자체로 연수강좌를 개최했죠. 그런데 연수강좌는 학회가 중심을 잡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해외 학회를 포함한 국내 학술모임이 너무 많아, 그런 취지 때문에 이화여대, 영남대는 학회 의견을 존중해 중단하게 되었죠. 그게 1998~99년 무렵일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학술위원장을 하면서 제5차 아시아대장항문학회 같은 국제학회를 개최하는 데 일조를 했지요. 김광연 선생님이 대회장을 하시고, 박재갑 선생이 조직위원장을 하고, 제가 포스터 발표 코디네 이터를 맡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제9차 아시아대장항문학회는 2003년이고 제가 부회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의 일이라 제가 학회 보직을 할 때는 아니지만 2010년에 24차 세계대장항문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것도 학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그때는 세계대장항문학회 자문위원을 했고요.

# 국제학회 유치는 확실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선생님께서 활발히 활동하시던 시기에 중요한 변화 중하나가 학회 명칭이 바뀐 것인데요.

그게 옛날에는 대한대장항문병학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주장해서 대한대장항문학회로 고쳤지요. 외국 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학회 명칭에는 disease는 안 들어가 있어 '병(病)'자를 뺀 것인데 영어로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로 되었지요.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고쳤어요. 사실은 그게 좀 일본 스타일이고 일본 학회에는 아직도 대장항문 병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당시에 김광연 선생님은 일본 통(?)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대부분의 여론이 대장항문 병보다는 대장항문학이 좋겠다는 쪽이어서 그렇게 고치고 홍보도 했습니다.

#### 끝으로 후배 분들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삼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장항문학회의 주축은 암이고 학문의 중심은 대학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암이 아닌 부분은 개원의가 많이 하고 있고 비중이 거의 6대4로 보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학회는 처음부터 개원의들의 역할이 컸고 대학에서도 개원하신 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학회에 비해 오늘날까지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Long-Run 하려면 Long-Learn 해야 합니다. 계속 배우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서로 존중하고 늘 열린 마음으로 살았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걷는 발걸음이 뒷사람을 안내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의사, 뒷모습이 아름다운 연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학회도, 개인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고 영광이 따르겠지요.

## interview



박재갑 선생님

1995년 아시아대장항문학회 개최로 우리 학회가 세계적으로 자리잡아

#### 교수님께서 대장항문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서울의대에서 전임강사가 된 것이 81년 2학기인데요. 처음에는 제 지도교수이신 김진복 교수님께서 위암을 전문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당신도 위암이 전문이신데 아직 젊으시니, 저는 누구도 하지 않는 대장암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83년, 84년 됐을까, 그런데 우리 교실에 박길수 교수님이 항문 쪽을 하시다가 정년하셨고, 홍성국 교수님이 항문쪽을 하고 계셨거든요. 항문하는 분들은 계셨는데 대장암을 전문으로 하는 분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진복 교수님께서 대장암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85년부터 87년까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다녀와서 대장암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들은 제가 대장암을 전문으로 하는지 몰라서 외래로 유방암, 위암, 갑상선암 등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데, 그 환자들은 다른 해당 교수님들께 보내고 저는 가끔 오는 대장암 환자만 봤습니다. 당시에는 교수님들이 어느 하나만 정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김수태 교수님, 최국진 교수님 등등 암 수술로 유명한 분이 많았지만 대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셨죠. 그런데 저는 밖으로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외래로 오는 환자마저 다른 교수한데보내니 환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 당시에는.

#### 서울대학교병원 외과도 1980년대에는 세부전공이 확립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것저것 다 했죠. 저는 원래 교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 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7년에 미국 국립 암연구소 연수를 다녀와서도 '저는 하나를 하기도 벅차다, 그러니까 저는 대장암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아끼는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환자가 없을 때가 좋은 줄 알라고, 그럴 때 연구를 많이 하라고. 그런데 사실 세포주 연구는 미국 가기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81년 강사가 되고 나서 김진복 교수님이 저한테 어떤 실험을 시키셨는데 그게 암 환자들 면역력과 관련해서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능력을 재는 거였어요. 환자 백혈구가 K562라는 세포를 얼마나 죽이느냐에 관한 실험을 하는데, 이 K562라는 세포가 서울대학에는 없고 경희대학의 하윤문 교수님이라고 미생물학 교수가 갖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가봤죠. 그게 결국 백혈병 세포인데,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여쭤봤더니 미국에서 수입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백혈병 환자가 많은데 왜 수입하셨냐고 여쭤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수립된 세포주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신임 교수 워크숍 때 우리 학장님 말씀이 서울대 교수들이 똑똑한데 뭘 그렇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는지 정년

퇴임할 때 보면 뭘 했는지 기억에 남는 교수가 하나도 없다며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오케이, 그럼 나는 세포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몇 년 시행착오 끝에 세포주를 수립하고 그 세포주를 들고 미국에 갔고, 87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세포주로 연구하고, 실험실 셋업하고 하면서 대장암만 쭉 하다 보니까 야금야금 선전이 됐죠.

### 처음부터 양성 항문질환보다는 대장암에 초점을 맞추셨고, 또 미국 유학에서는 원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세포주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 오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돌아가신 최국진 교수님이 저보고 "아, 인제 박 선생, 컸어" 그래요. 그러 면서 "나한테 입원한 환자가 당신한테 가겠대" 그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그분이 저보다 한 8년 선배인데 대장암. 위암, 가암 다 하시는 분이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담당교수가 보내주 기 전에는 입원 중에 환자 스스로 담당교수를 바꾸는 일은 아주 터부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많 이 컸다고, 아무래도 대장암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던 모양이죠.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대장암만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초연구를 했는데, 제가 만든 위암 세포주, 대장암 세포주를 갖고 세계에서 폐암으로 가장 유명한 실험실을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이 폐암 세포주를 가지 고 한 실험모델을 그대로 위암하고 대장암에 적용해서 각종 기초실험하는 것을 배우고 논문을 쓰고 그 랬죠. 임상은 어차피 돌아와서 평생 할 거니까요. 그게 미국 NIH 산하 NCI(National Cancer Institute), 미국 국립 암연구소였습니다. 그리고 90년에는 단기연수를 3개월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본 동 경에 있는 암연구회 부속병원에 1주, 그 다음 다카노병원이라고 대장항문 전문 개인병원에 1주, 그렇게 일본에 2주 있었고. 그 다음에 워싱턴에 다시 가서 2주, 또 메이오 클리닉에 가서 2주, 그 다음에 영국 센 인트 막스에 가서 2주 이런 식으로 임상 중심으로 유명한 곳을 가서 다 봤습니다. 중간에 학회 때문에 유럽에 가서 세계대장학회 1주, 미국 대장학회 1주, 그런 식으로 3개월을 임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하 는 걸 다 보고 왔죠. 수술은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90년에 돌아오니까 대장암 수술에 대해서 는 상당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 그럼 임상 분야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셨던 1990년대에는 대장암 환자가 한국에서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나요?

그 당시에는 대장암이 많지 않았죠. 유방암, 대장암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선진화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김진복 교수님께서 저한테 대장암 하라고 그러실 때는 대장암이 중요한 분 아라서가 아니라 '과에 대장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하는 게 좋겠다'였는데, 나중에 대장암이 늘면서 굉장히 바빠졌지요. 우리 교실만 하더라도 저하고 박규주 교수밖에 없었으니까, 서울대학교병원 같이 큰 조직에 두 사람만 있으니 의사 한 사람당 환자 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일본 국립 암센터 교수들이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하는 게 1년에 한 80명 정도인데 우리는 뭐 280명, 300명을 하거든요. 물론 밑에 펠로우나 레지던트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 트레이닝한 사람들이 수술을 엄청 하고 나가서 다들 대가가 됐습니다.

#### 그럼 학회에서 본격적인 역할을 하신 것도 1990년대 들어서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학회는 김진복 교수님이 워낙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김진복 교수님이 맡았다 그러면 총 무는 항상 저였죠. 면역학회 총무, 암학회 총무, 소화기병학회 총무 그런 식으로. 그런데 김진복 교수님 이 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이나 이런 걸 못 하셨으니까 제가 총무는 안 했고, 1984년부터 감사 직책을 맡 다가 1991~92년에 학술이사를 하고 1997~98년에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학회가 자리를 잡은 게 김광연 교수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제가 조직위원장 하면서 아시아대장항문학회를 할 때예요. 이때 우리 학회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때 박규주 교수가 강사로 들 어오면서 한 2년간은 제 방에서 완전히 비서 노릇을 했죠. 그때 국제 학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용역회 사에 줄 돈을 결국 우리가 방에서 100% 품팔이 해가지고 학회에 돈을 1억인가 1억5,000, 지금 같으면 10 억원이 넘는 돈인데, 아무튼 엄청난 돈을 학회에다 남겨 줬어요. 그때가 우리 학회가 완전히 점프업을 한 시기죠. 아무래도 김진복 교수님 밑에서 여러 학회 일을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일은 총무가, 실무 자가 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제학회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다 습득했거든요. 예를 들어 암학회에서 아시아태평양암학회 총무 일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실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 게 부르고 돈이 얼마나 들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기 쉽고 다 아니까, 아시아대장항문학회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죠. 사실 아시아대장항문학회 자체가 그 전에는 완전히 와해되다시피 유명무실하게 있었어요. 인도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우리가 하면서 완전히 조직화를 했고 엄청나게 키웠죠. 그러면서 우리의 위상이나 입지가 같이 커진 거예요.

역시 아시아대장항문학회가 발전의 중요한 계기였고, 또 이사장 하시던 시기에는 세부전문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그 전부터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인데, 외과학회가 참 잘못했죠. 같이 크고 같이 잘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쪽 원로 교수님들이 너무 틀어쥐고 있으려고 하시니까, 외과가 결국 내과보다 규모가 작아졌잖아요? 하나하나 다 엄청 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세부전문의 같은 것을 진작 했으면, 내과도 각종 학회에서 분과학회들이 있듯이 외과도 충분히 서로 대응이 됐을 텐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외과 전체가 그냥 저 내과의 분과 하나 정도밖에 안 되게 된 겁니다.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외과 하나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담췌외과, 소화기외과, 혈관외과, 이런 식으로 외과가 많으면 '야', 외과 할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외과라고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외과 스스로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 할 때 아마 97년일 텐데, 세부전문의 인정심사를 신설했지만 그것도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죠. 그보다 10년, 20년 전에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세부전문의 자격증이란 것도 그때는 외과학회에서 오케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한 것이고, 나중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저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2002년인가 1차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시작했을 때에도 외과학회에서 오케이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외과학회만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가 자격을 내부 인정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까지 대장항문학회는 다른 학회보다도 개원가의 참여와 역할이 컸는데, 왜 그랬던 것인지, 앞으로도 균형 있게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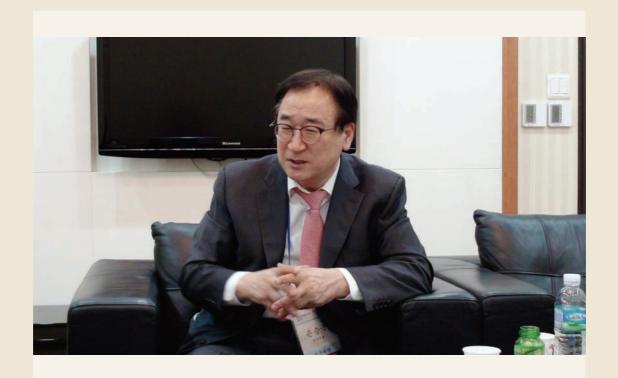
처음에는 대장암도 없고 치질이 제일 흔하니까, 항문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박길수 교수님도 주로 항문을 하셨으니까, 개원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장', 그러면 암은 거의 없고 질환이 전부 항문이었기 때문에 항문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박규주 선생이 올 때까지 저한테 오는 모든 비나인(benign), 양성질환은 아예 손을 안 대고 다 대항병원에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오는 모든 VIP까지, 뭐 김우중 회장형님, 이런 분들까지 보냈어요. 제가 얼마든지 양성질환도 할 수 있지만, 저는 대장암을 하기로 했으니까 대장암 아닌 것은 욕심을 내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손을 대다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저

도 잘 하는데, 뭐 VIP가 오고 중요한 사람이 오고 그러면 자꾸 하게 되고,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지죠. 그리고 대항병원을 만든 이두한, 김도선, 강윤식, 세 사람이 서울의대 출신이지만 걔네들은 사실 교실에서 우리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항문병 클리닉을 하겠다고 열었으니까, 대장내시경을 학교에서 배우고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 밑에 박규주 선생을 양성 질환 담당 스태프로 뽑기 전에는 다 보내줬죠. 그게 대항병원이 크는 데 나름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나 활동을 우리가 잘 배려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암은 대학병원에서 많이 하지만 암이 아닌 치질이나 다른 질병 대부분은 다 개원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학회회장도 이두한 선생이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께서 학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학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삼아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사장 하고, 2003년에 회장 하고 나서는 학회에 일부러 잘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나이든 사람들이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학회가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자기네 학교나 자기네 병원이나, 또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뭐, 뭐 했던 사람이 또 다른 감투를 자꾸 쓰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분파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감투 쓰면 그걸로 만족하고 '아, 나는 중요한 보직도 맡았구나' 하고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후배들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죠. 하여튼 그게 누구든지 학회에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세하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총명하니까 학회가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냐고 물었더니 자기위에 은사가 자기 간섭을 안 해서 받았다고, 저한테는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규주 교수도 간섭 안 하고, 정승용 교수도 간섭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요. 간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막 날고 싶은데 제가 자꾸 발목 잡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이나 개원가나 잘 손잡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잘 끌고 가고 선배들은 너무 관여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 interview



손승국 선생님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 교류와 함께 친목과 단합도 도모해야 선생님께서 어떤 계기로 의학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대장항문외과를 공부하게 되셨는지 그런이야기부터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버님이 장이 안 좋으셔서 어릴 때부터 한방으로 배에다 뜸을 뜨고 부항도 뜨고 뜨끈한 도자기를 얹어 놓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좀 고쳐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부모님도 너는 성격이 의사 성격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진짜 제가 그런 줄 알았지요, 하하, 그리고 외과를 하게 된 것은 의과대학 다닐 때 연세산악회 산악부에 있었는데 산에 다니면서 보니까 외과가 필요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다리가 부러지고 하니까 정형외과를 할까 했는데, 뼈 골절은 내려와서 고쳐도 되는데 산에서 떨어진 사람을 당 장 살리려면 외과 의사밖에 없으니까, 그런 계기로 외과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의과대학을 1974년 에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군대에 갔다 와서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83년부터 한 90년까지 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때는 갑상선 수술도 하고, 유방, 위, 대장, 간담췌 수술을 다 했어요. 그중에 유 방암 수술하고 곧 바로 유방재건하는 수술도 성형외과 신극선 선생님하고 같이했죠. 한국 최초입니다. 그리고 식도하고 기관지하고 연결된 병, TE fistula 수술도 했지요. 그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아이도 살았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다 했는데, 세부전문(subspecialty)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세대로 변화해 가니까 고민을 하다가 심민철 선생님을 만났어요. 심민철 선생님도 뭐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대장항문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그 게 유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대장항문을 하자고 의기투합을 했죠. 그리고 나서 1987년도 에 영국 세인트마크병원(St. Mark's Hospital)으로 6개월 연수를 갔어요.

#### 1983년부터 강남세브란스에서 스태프로 일하시면서 대장항문학회 활동에도 참여하셨던 것인가요?

그런 셈이죠. 제가 83년 강남세브란스 창단 멤버인데, 민진식 선생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분을 많이 따라다녔죠. 사실 학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민 선생님이 소화기학회 총무를 하셨어요. 그때 김춘규 선생님이 회장을 하셨기에 총무의 총무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다 했고, 학회 일의 노하우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민 선생님을 따라 대장항문학회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세부전문으로 이쪽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심민철 선생님과 의기투합해서 87년에 제가 항문을 해야겠다고 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해외연수도 자비로 간 거예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보

내 준 해외연수는 1990년인데, 1987년은 제 돈으로 갔죠. 민진식 선생님도 주로 위암과 대장항문을 하시면서 소화기학회와 대장항문학회에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 1987년에 자비로 세인트마크 병원(St. Mark hospital)을 다녀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1990년에 정식해외연수는 어디로 가셨었나요?

그때 저는 직장암 수술하면서 항문을 살리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항문직장생리(anorectal physiology)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외과 의사로서는, 아니 그때 내과에서도 관심이 없을 때이니까 아마한국 의사로서는 처음일 거예요. 영국의 St. Mark hospital은 원래가 치루로 유명한데, Anorectal Physiology도 강합니다. 유명하다 보니 환자가 많이 모이고 대장암 및 염증성장질환, 변실금 환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갈 때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오라고 해서 2년 동안 Anorectal Physiology를 했죠. 그렇게 2년하고 와서 그때부터 병원에서도 저는 항문만 한다 하고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미국을 다녀와서 92년부터 대장항문학회 총무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뭘 맡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쫓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때부터 심민철, 박웅범 선생님이랑 세 명이 똘똘 뭉쳐 다녔죠. 92년에 박웅범 선생님이 이사장을 할 때 심민철 선생님은 학술위원장을 하고 저는 총무를 했어요.

#### 1983년이면 대장항문학회가 정회원학회도 되기 전인데 굉장히 일찍부터 학회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레지던트 때에도 모임이나 학회에 참석을 많이 했어요. 서울대 박길수 선생님이 강의하신 것도 들었고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그때 강의하실 때 그분이 한 얘기가 "항문 수술은요, 한 시간만 붙들면요,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라고.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만큼 꼼꼼히, 천천히, 자세히 하면 실수가 없고, 재발이나 변실금 발생 등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도 항상 해요. 신촌세브란스에서는 황규철 선생님이 주로 하셨고, 그분이 제일병원으로 가셨을 때 항문수술을 하실 때 가끔 저를 불러서 항문수술을 하게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은사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때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죠. 물론 그때 민진식 선생님, 이경식 선생님도 항문도 하시고 여러 수술을 다 하셨어요. 민 선생님은 은퇴할 때까지도 위암, 대장항문다 하셨거든요.

####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장항문을 전공하신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신 시기는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응범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고 제가 총무를 할 때 그분이 학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가 대장항문학회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게 93~94년 무렵이죠. 그분이 발이 넓어서 직접 도와달라는 말씀도 직접하시고, 스폰서 부스도 많이 받아왔고 그러면서 학회를 막 키웠죠. 그리고 봄 학회를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주도에서 학회를 한다 데 반대가 많았죠. 모든 사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제주도까지 가냐, 비행기 사고 난다, 갔다가 날씨가 나쁘면 비행기가 안 떠 서울에 못 올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박 이사장님이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총무는 이사장의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주도에서 해서 성공리에 마쳤어요. 400여 명 정도? 그렇게 많이 왔고,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왔죠. 거기 실내 풀장에서 저 넉 때 만찬하고. 그래서 친목도 굉장히 좋았고 발표도 훨씬 좋았죠. 그 전에는 학회에서 가족까지 모이는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많이 달라졌죠.

학회 부스도 그 전에는 서너 개 있었다면 박응범 선생님이 이사장을 한 뒤에는 열댓개씩 생기고, 그렇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 윤충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시고 박재갑, 심민철, 손승국 이렇게 200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비슷한 세대가 학회를 이끌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죠. 특히 우리 학회의 장점이 학교 간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학회에 가면 누가 발표한다면 그것도 논문이냐 어쩌고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꽤 있었어요. 서로 파벌, 제가 최고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회는 그게 없어요. 다른 학회에 비하면 비양대는 그런 게 거의 없고 굉장히 친목이 좋죠. 그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아마도 서로 힘을 합쳐서, 그때만 해도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도 없었고 더 잘하자, 노력하자 그랬던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 1995년에 국제학회를 유치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재갑 선생님이 조직위원장을 하셨고, 김광연 선생님이 대회장을 하셨고, 제가 학술위원장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계기가 됐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그동안 국제학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고 김광연 선생님이 특히 국제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박재갑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APFC 제5회 대회를 유치하면서 최초의 국제학술대회를 치러냈던 것이죠. 그때는 PCO도 안 쓰고 우리 의사들이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기부도 많이 받았지만 박재갑 선생님이 돈을 아껴라, 그 돈으로 학회를 유지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희생하자 그래서 우리 레지던트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학술위원장이니까 편지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학회 재정도 좋아지고 우리가 직접 하니까 자연히 협동심도 생기고, 학교 간의 파벌도 없어지고 굉장히 친목이 됐죠. 서로 좀 실수를 해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학회 사무실이 생긴 것도 그 무렵, 박응범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였고, 처음으로 비서도 뽑았죠. 처음에는 사무실이 박응범 선생님 방에 있다가 나중에 대한의사협회로 갔고, 나중에 지금 사무실로 이전을 했죠.

#### APFC 이후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변화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정확한 맥락은 기억나지 않는데 1998년인가 박재갑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 학술지 표지가 바뀌었고, 그 무렵 로고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장을 할 때,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인정의 1회시험을 쳤죠. 2002년 무렵일 겁니다. 그때 외과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조찬 모임을 5~6번 했는데, 의협이사, 의학회이사, 외과학회, 이렇게 한 여덟 명이 세부전문의 시험을 치지 말라고, 그리고 개업의도 반대했죠. 개업의들은 너희들이 대장항문 분야를 독점하려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했었고. 그렇지만 저는 우리 회원들이 다 찬성했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밀어붙였죠. 사실은 이미 97년에 세부전문의자격 인정심사를 신설해서 운영했는데 시험을 치르는 것은 2002년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외과학회와 대장항문학회가 이미 분리, 독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는냐,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대장항문학회 보드 시험을 따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앞으로 학회가 발전하고 더 커지면 언젠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 이사장이나 회장 하시던 시기에 세부전문의 문제 외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제는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 기록 차원에서 남겨 둘 만한 사건이 있었죠. 김광연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학회는 처음에 개원가로부터 시작되었고 다른 학회에 비해 지금도 개원가들의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논문을 주로 내는 쪽은 대학이고, 학회 회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하는 보직도 대학에서 주로 해왔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면서 개원가에서도 많은 전문병원이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학회에 대한 기여도 커졌죠. 그러다 보니 개원가 쪽에서는 이사진 구성 등의 문제에서 개원가에 대한 배려를 더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게 합의가 잘 안 되어서 학회를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을 우리가 무사히 잘 넘겼죠.

송도병원의 이종균 선생님이 저 다음 차기 회장을 맡게 된 것이 단적인 예인데, 그 이후에도 개원가에서 한 번씩 회장을 맡으면서 갈등이 수습되었죠. 개원가에서도 그만큼 학회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2005년에 이종균 선생님이 회장을 하고 2011년에 한솔병원의 이동근 선생님이, 그 다음에 현재 차기 회장도 이두한 선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학회의 갈등 요인이고 치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강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그만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만큼 학회가 커지고 발전할 수 있었죠.

### 확실히 학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앞서 박응범, 심민철 선생님과의 인연도 말씀해주셨지만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은 또 없으신지요?

원래 학회라는 것이 아카데믹한 것들을 교류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회원들 간의 친선, 친목 도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 회장을 할 때도 친목, 화합에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저녁 같이하고, 한잔 하면서 힘든 사항을 물어보고 듣고,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더 많이 가졌죠. 그리고 박응범, 심민철 선생님 외에도 많은 분과 인연이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특히 경희대에 있던 이기형 선생이 기억에 남아요.

저하고 동기인데, 이봉화 선생은 우리보다 1년 아래니까, 연배가 비슷해서 셋이 잘 뭉쳐 다녔지요. 이봉화 선생은 총무를 굉장히 오래했고, 이기형 선생은 장루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도 장루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다니까 양보했죠. 그래서 이기형 선생이 장루 집담회를 만들고 저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세 명은 "야, 절대 싸움하지 말고 뭉쳐서 우리 일하자" 그래서 같이 잘 지냈죠. 그런데 이기형 선생이 위암에 걸리는 바람에 일본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박응범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었고, 학회 회원들한테 도와달라고 편지도 띄웠어요. 이기형 선생이 수술을 받는데 우리 돈 좀 모아주자. 그래서 1,100만 원인가를 모아서 주고 그랬죠. 그때 일본 모리 선생이라고 이기형 선생이랑도 친하고 저하고도 친했는데 그분이 직접 수술을 했었죠. 위암이 간암까지 퍼져서큰 수술을 했는데 모리 선생이 3년 3개월은 책임진다고 하더니 진짜 3년 몇 개월 만에 재발이 되어서 재수술 하다가 고인이 되었죠. 저하고 굉장히 친했는데, 참 아까운 친구예요.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들은 대체로 다 여쭤봤는데요, 마무리 삼아 학회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후배 분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이 학회에 참석을 많이 해야죠. 그만큼 기여도를 높이고 많이 배워 오고, 그렇게 해야 서로 이해도 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대학과 개원가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려면 자꾸 나와서 만나고 상대방 얘기를 들어줘야죠. 개원가나 우리나 서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날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이 참석해서 학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상대방을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학술적 교류와 함께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어요. 학술대회에서도 서로 방을 나눠서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개원가에서도 암에 대해 공부하고 대학병원에서도 양성질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서로 어울리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장항문학회가 충분히 더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 interview



이종균 선생님

새로운 진료 영역을 모색해야 학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 선생님께서 보통 구술생애사라고 부르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의학을 배우게 되셨는지요.

저는 원래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전주예수병원에서 트레이닝을 했어요. 학교에 남고 싶었는데 공부 제일잘 하는 사람하고 둘이 시험을 봐서 미끄러졌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주예수병원이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병원이라 원장님도 미국 분이셨고, 우리나라에서 개스트렉토미(gastrectomy), 위 절제수술을 제일 먼저 한 병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근무할 때 병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신 건물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 이야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암수술은 무자비한 수술이죠. 곽청술이라고 그랬 거든요. 신경하고 혈관만 놔두고 깡그리 들어내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캔서 서저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암제도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고, 뭐방사선 치료라 해봤자 코발트 치료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깡그리 들어내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런 수술만 하다 보니까 맹장 수술은 제가 치프 레지던트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것도 병원 직원들, 겨우 세 개 해보고 치질도 전부 세 번 해봤어요. 특히 치질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책보고 혼자 하는 거죠.

#### 그런데 어떤 계기로 대장항문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대장항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대는 병 있는 사람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병은 치질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병은 진단서를 써서 면제 받고, 군대에 안 오니까요. 그런데 나는 항문 수술은 경험이 없었어요. 어느 날 공군기지 병원에서 치루 수술을 하나 해 봤는데 어떻게나 아파하든지 환자가 저만 보면 엉엉 울어요. 그래서 아주 미안해서 혼났죠. 지금 생각하면 제일 안 아픈 수술이 치루 수술인데 환자가 한 일주일 동안을 아파서 엉엉 울더라고요. 정말 항문 수술이라는 거 ABC도 몰랐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썩는 주사'만 맞을 때였어요. 부식 요법이라고 해서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인데, 부식제로는 석탄산을 쓰는데 그게 원래 고체예요. 그걸 기름에 녹이는데, 알몬드 오일이라든지 식물성 기름에 녹이면 상온에서는 포화도가 5%인데 열을 가하면 7.5%까지 돼요. 5%는 경화제가 되서 치질이 단단하게 되고, 7.5%가 돼면 조직이 썩어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 부식 요법을 그때 민간요법으로 항문과 의사들이 많이 썼어요. 을지로에 아주 유명한 치질 전문병원들도 부식요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그 부식 요법을 다른 사람한테 비법을 전수하지 않았죠. 원래 그 부식 요법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영국인데, 그것을 가업으로 해서 비법으로 전수해 온 것이죠. 부식요법사에 나오는 얘긴

데 그중에 미국으로 이민 간 의사가 돈이 궁하니까 그 비법을 팔아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항문 전문의원들은 사실 일제시대 때 그 선대가 한국에 와서 부식 요법을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치료를 했다고 해요.

####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재미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도 군의관 시절에 그런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군요.

알고는 있었죠. 그때만 해도 마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부식 요법도 잘 되면 한 2 주 지나면 썩어서 떨어져 나오고 감쪽같이 나아요. 그런데 가끔 부작용이 생겨서 패혈증으로 죽기도 하고 괄약근이 썩어서 항문이 좁아진다든지, 대변을 못 참는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죠. 그래도 잘 치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파퓰러 했어요. 그런데 군의관을 마치고 개업하려고 하면서 냉동 수술을 하면 안 아프다는 말을 듣고 냉동 수술하는 기계를 사려고 했죠. 냉동수술의 특징이 노 페인(no pain)이래요. 군의관 때 치루 수술을 해놨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땅바닥을 굴렀는데 통증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때 군의관을 제대할 때 월급이 30만 원 할 때인데 그 기계가 120만 원인가해요. 제가 오픈을 하면서 치질 수술을 하려고 그 기계를 샀죠. 기계 판 사람도 아주 안 아프다고 하고 저절로 떨어져 나온다, 안전하다, 흉터가 없다, 장점들을 얘기하니까 그럼 한 번 해보자고 생각했죠. 마침 잘 아는 목사님이 치질이 심하다고 하셔서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수술 중에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냉동 수술할 때 만약에 치질이 얼음같이 돼 있는데 깨져버리면 찢어지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목사님, 참으세요. 참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다가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쇼크에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냉동 수술이 안 아프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고민에 빠졌어요. 그게 개업하자 마자니까 81년 얘깁니다.

#### 그럼 일반외과를 하시다가 항문 수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군의관 때나 개업 초기의 실패 경험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게 남들 안하는 것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항문 수술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없었거든요. 위 수술이라든지 간 수술 같은 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라 의사들도 그걸 선호했고 환자들도 그래야 알아줬지, 항문 수술을 한다고 하면 안 알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관심 밖의 질환이었어요, 돈 없으면 치료도 안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항문질환만 전문으로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냉동 수술을 했는데 쇼크에 빠지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또 한 번 다른

환자를 해봤는데 그 환자도 쇼크에 빠져요. 그런데 그때 마침 냉동 수술 기계를 파는 미국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의료기 상사를 통해 미국 의사를 만나서 "해보니까 쇼크에 빠진다"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럼 제가 좀 배울 데를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미국 냉동수술학회장을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의 이비인후과 주임교수였죠. 그런데 저는 항문 수술을 배워야 하니까 프로톨로지스트(proctologist)를 소개 받아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때는 미국에 가려고 하면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고 알래스카에서 급유하고 서너 시간을 기다리고 스무 시간비행기를 탔어요. 그렇게 가서 냉동 수술을 처음 배웠는데 마취 주사를 미리 놓더라고. 핵심은 그거였어요.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죠. 크라이오서저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너브(nerve)가 파괴되니까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처음에 얼리는 순간은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도케인(lidocaine) 주사를 주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왜 그걸 생각 못 했을까 싶죠.

#### 제대로 배울 만한 데가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던 거네요.

그랬죠. 그때 미국에서 닥터 디트라노라고, 이태리인 2세예요. 그분이 뉴저지시에 있었는데 제가 한 달동안 배웠어요. 그때 항문 수술을 그 사람한테 처음 정식으로 배운 거죠. 그런데 제가 유색 인종이고 남자고 하니까, 여자 수술은 구경도 못 하고 남자들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꼭 영어로 된 명함을 몇 십 장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의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온 닥터 리라고 하는데 수술 참관해도 좋겠느냐?" 그러면 대부분 고개를 흔드니까 한 열 명 하면 한 명 볼까 그랬죠.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수술실들어가면서 미안한 듯이 "아, 저 자식이 뭐 별 것도 아닌데 왜 안 보여주는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씩 웃으면서 들어가시더라고. 그때 제일 좋은 차였던 로얄 살롱 한 대가 1,000만 원이던 시절인데 비행기 삯이랑 한 달 체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간다고 하면 방첩대원들이 와서 신원조회 할 때예요. 친구들은 돈 벌어서 로얄 살롱 살 때 저는 그 차 한 대 값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셈이죠. 그 닥터 디트라노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때 제가 서른두 살이니까 새파랗고, 그분은 예순 살이넘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제가 아들 빨이란 말이에요. 미국 가서 코리아라고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느냐고 물어봤지,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해서 좀 잘 가르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건방지게 안 보이고 싹싹하게 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죠. 나중에 김광연 선생님도 제가 광주에서 올라온 촌놈인데 어떻게 저를 잘 보셨는지 당신께서 중요한 수술하시면 꼭 전화하셔서 "오늘 좋은 수술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려면 하라고" 그럼 만사 제쳐놓고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배운 것도 아니고 학연도 없었는데 그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 당시에 그렇게 자비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럼 일본에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러 가셨던 건가요?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올 때 일본에 들렀어요. 일본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회사 자문의사를 저한테 소개해줬죠. 그분이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송도병원, 마쓰시마 병원 부원장이었어요.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 기능하사라는 분이 자기 병원에 와서 배우라고 하셔서 2주 동안 거기 머물면서 배웠죠. 그런데 거기서는 냉동 수술은 안 하고 정말로 근대적 수술을 전문으로 했으니까, 현대적인 치료 방법을 거기서 처음으로 배웠죠. 부식 요법이나 냉동 수술은 사람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수 있는데, 칼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그러니까 칼로 수술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쓰시마 병원은 선대가 한국에서 하는 부식 요법을 하여 치료하다가 근대 수술이 들어오고 마취가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수술하고 마취하는 병원으로 일본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1년에 3,000명을 수술했죠. 그래서 그때 그런 병원이 한국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도 병원 이름을 송도병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미코시 선생님 일본의 항문외과 시조로 우리나라의 김광연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어요. 예수병원에 있을 때는 닥더 썰이라는 분이 외과에서 가장 완벽한 의사라고생각했는데, 그 때 그분 수술을 어시스트 하면서 수술하는 거 보면 '저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했죠. 열다섯 시간 동안 수술을 해도 끄떡없이 피곤한 내색 한 번 안 하고 퍼펙트하게 하는데, 그야말로퍼펙트한 서전이었어요. 그런데 김광연 선생님도 정말로 한국 사람 중에서 그에게 필적할 만큼 하나도 빈틈없이 퍼펙트하셨거든요. 그 닥터 스미코시도 꼭 그런 분이에요.

## 저도 스미코시 선생님이 1980년대에 한국에 오셨을 때 김광연, 이찬영 선생님 등등 같이 찍으신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같이 회식하다가 제 옆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닥터

리,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같이 있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가는데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낱 한국에서 옵저버 하러 온 의사인데 그런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닥터 스미코시가 영어를 좀 하셨는데 저도 콩글리시지만 그때 영어를 좀 했으니까 서로 못 하면 더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웃고 얘기하고 화장실에 같이 가고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같이 맞상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제 앞에서 꾸벅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일본에서 저보다 거의 스무 살 연상인 분들, 일본 대장항문계의 거두들하고 같이 20년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일본에 길을 터놓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때 유료 강의해주는 회사가 많았거든요. 일본이 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각분야별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항문질환 강의는 아침 여덟 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 점심시간 한 시간주고 그때 4만 엔을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40만 원이 되는데, 그때 제 봉급이 300만 원, 전문의들이 30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일요일 하루 해주는데 밥도 안 주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요. 한 시간 딱 끝나면 바로 다음 강의 시작하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돈 내고 하려니까 한순간도 아깝죠. 그리고 나중에 디스커션 하는 시간에는 철저히 질문을 다 들어줘요. 물어보고 싶은 것 다물어보니 돈이 안 아깝죠. 그래서 제가 유료 강의를 들으러 한 달에 네 번을 일본에 간 적도 있어요.

####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점점 이름이 나시고 학회 활동도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청량리에서 대장항문질환만 보는 송도병원이라고 해서 20베드로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수술하고 들것으로 들어올리고 그랬으니까 열악했죠. 그때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때 김 모라는 국회의원이 와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김영삼 씨가 면회를 오더라고, 그때 김영삼 씨도 처음 봤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김대중 씨가 안 오고 이휘호 여사가 면회 오고 그래서 또 난리가 나고 그랬죠. 그리고 모 장군들도 오고, 그렇게 오면 남자 비서나 자동차 기사들하고 와서 수술만 받고 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입원실이 1인실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수술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그랬는데 수술 스케줄이 거의 한 달씩 밀리니까 나중에 상왕십리에 있는 도선동으로 80베드를 지어서 나갔죠. 그런데 거기서도 수술이 두 달씩 밀렸어요. 그때 제가 제일 수술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서른 다섯 명까지 해봤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술했는데 응급환자들도 오고 그래서 레귤러 수술은 그때 한 스무 명 됐고,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하니까 그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도 환자가 많이 기다

리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확장해서 옮긴 게 94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만에 굉장히 성장을 했고, 이것이 외과 의사들에게 대장항문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광연 선생님이 학회에 저를 인볼브(involve)시키셨어요. 김진복 선생님은 위 전공이셨지만 그때 학회 회장을 하셨는데 85년, 86년인가? 제가 기억하는 게 63빌딩에서 학회를 했는데 일본에서 교수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외국 교수들도 초청했는데 좌석 100개 정도에 앞에 한 40~50명 앉아 있어요. 그러다 조금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오더니 뒤를 다 채워요. 그리고 학회 회원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슬슬 빠져나가고.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서울의대생들을 전부 데려다가 자리를 채운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학회를 했어요.

## 그럼 언제부터 개원가 쪽에서 학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많이 하셨던 건가요? 학회 규모가 커진 기점을 95년 아시아 대장항문학회로 설명하신 분이 많았는데요.

그때 박재갑 선생님이 학회에 기여를 많이 하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계기로 국제학회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교류도 많아졌죠. 그런데 학회 규모가 커진 데에는 역시 개원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의료보험이 되고 나서 의료수가가 적어서 돈 벌 것이라고는 항문질 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도병원이 자의든 타의든 외과 의사가 그때 제일 관심 없는 항문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우리나라가 한 15년쯤 뒤져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단숨에 따라잡았죠.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항문수술은 최소 침습수술을 해야 하고 고령사회에 들어가니까 배변장애라든지 변실금, 항문통 이런 게 또 문제가 돼요. 이제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죠.

#### 그런 기여를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2004년에 학회 회장도 하셨던 게 아닐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04년에 개원가로서는 학회 회장을 처음 했고, 그때 일본에 가서 보니까 구마모토에 있는 다카노 선생님이 외국에 있는 석학들을 불러다가 심포지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을 하면서 처음으로 외국에 있는 학회의 연자들을,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한 번 심포지엄을 하자고 해

서 그때 처음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했었죠. 저를 계기로 해서 개원한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구적이라고 하면 회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을 것이고, 학회에서 지금은 양성 항문질환에서는 개원가가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어쨌든 양성 파트는 환자들이 대학병원보다는 개인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들을 찾는 것이 좀 더 손쉬우니까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문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강서구에 산부인과 병원 하나였어요. 그러다 87년에 제가 처음으로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개원하고 있는 외과 의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방법이야 어쨌든 관심 갖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든 건 사실이었어요.

아까 배변 장애라든지, 항문질환 외에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연 선생님께서도 병원의 면역치료 파트를 보여주시면서 대학이 아닌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면역질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치질은 없어진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삶의 질이랑 관련이 있어요. 항문이 깨끗하면 치질병도 잘 안 생기거든요. 지금도 태국이나 베트남은 화장실에 가서 물로 씻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문질환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 선생님들께 우리도 자꾸 항문질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치질이라는 게 단순한 혹이니까 그거 때 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앞으로 주사 같은 걸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다. 커지기 전에 경화시키고 배변 습관을 조절하되면 치질 수술은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 고령 사회에 들어가니까 배변장애, 변실금, 탈장이 잘 생기고 하지 않으냐, 그래서 앞으로는 항문질환이 변한다는 거죠. 나이 들면 척추 질환, 척추 협착이라든지 디스크가 생기는데 그때 오는 신경 손상 때문에 항문통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변 곤란도 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먹거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자꾸 항문 이외에 다른 쪽으로 샐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면역이라는 것도, 우리 병원에 김광연 선생님 오신 뒤에 암 수술을 5,000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암이 왜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느냐? 우리 몸에 하루에도 수백 개 내지 수천 개의 암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거든요. 8년 전부터 전립선 암 수술을 하면서 느낀 게 결국은 면역질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죠. 면역력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치료도 앞으로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학회 차원에서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원가들의 학회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게 학회의 역할이거든요. - 그리고 제가 면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 항문과 의사들이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외과 의사고 캔서를 직접 만져보고 들여다봤기 때문에 내과 의사들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면역치료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수술에서 은퇴 후라도 외과 의사가 암 치료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도 면역질환의 일부예요. 제가 수술을 못하게 된 다음에 제 생애도 이것을 공부하면 충분히 아름답게 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면역 연구를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냉동 수술을 배우고 와서 국내 잡지에 아주 자세히 기고해서 내용을 다 전파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옵서베이션(observation)하는 선생님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우리 스태프 한 사람이 "자꾸 그렇게 다 가르쳐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추려고 해서 감추어지는 세상이 아니다, 지금은. 제가 아는 것 가르쳐주고 저사람이 이거 배울 때 저는 다른 걸 더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자기만 알고 있는 것만 하고, 그것만 죽을때까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하고, 학회에서 활동하는 우리 회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즐거움이죠.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오늘 초창기 양성질환 치료의 역사라든지, 학회 발전의 계기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interview



김영진 선생님

대학과 개원가 사이의 접점을 찾고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 선생님께서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대장항문외과를 공부하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979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턴 들어갈 때 과를 정해 들어갔는데, 외과가 인기가 좋았을 때니까 당시 은사님이 빨리 얘기를 해야 외과를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졸업하자마자 외과로 정하고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84년까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고, 1985년에 대장항문학회회장을 하신 김학윤 교수님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TO가 나서 그해 9월에 전임강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외과는 모든 것을 다 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최원 교수님 밑에 들어갔는데, 그분 선친께서 전남대학교를 창립하신 최상채 박사이세요. 경성의대 나오시고 외과 의사로 1944년 처음 광주의전을 설립할 때 오셔서 학장을 하시고 초대 전남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죠. 최원 교수님은 위도 하고, 유방도 하고, 대장항문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면서 서포트하고 있었는데이분이 1988년에 젊은 연세에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8년에 뉴욕의 코넬대 뉴욕병원에연수 가기로 되어 있던 것도 1년 미루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그분이 하시던 것들을 물려받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미국을 갔죠.

#### 미국에 가시기 전에는 분과로서 대장항문외과학을 전공하신 것은 아니셨군요.

그렇죠. 그래도 최원 교수님이 대장항문하고 위암 수술을 주로 하고 계셔서 저도 그걸 많이 하다가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New York hospital에서 제롬 디코세(Jerome DeCosse)라는 유명한 surgical oncologist, 교과서에도 나오는 양반인데 그분 밑에 가서 베이직 리서치 펠로우를 1년간 했습니다. 거기 있을 때 Mount Sinai병원에 연수 와 있던 한원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롬 디코세가 주로 하고 있던 연구가 대장암과 가족성 용중증이어서 family 케이스를 수집해서 registration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대 박재갑 교수님이 가족성 암 질환에 대한 연구도 하고 cell line도 만드는 과정에서 6개월 동안 미국의 연구소들을 둘러보려고 오셔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도 방문하고 registration 하는 것도 상의하고 그러셨죠. 그런데 박재갑 선생님이 대단한 것이 그때 국내에서 『대장항문학』이라는 책을 서울대 홍성국 선생님 주관으로 첫 판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원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한 챕터를 쓰고 미국으로 왔는데 그 원고를 거기까지 들고 오셔서 교정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철저한 분이세요. 아무튼 거기서 한원곤, 박재갑 선생님과 그렇게 인연을 맺고 1년 동안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 그럼 대장항문학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언제가 처음이셨나요?

대장항문학회에 처음 참여한 것은 1981년 레지던트 시절이에요. 레지던트 때 대구 한일호텔에서 대장항문학회 14차 학술대회를 했어요.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1980년에 5.18이 있었잖아요? 그때 군인들에게 총상 입은 사람이 많았고, 전남의대에 있으니까 그런 환자를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발표한 것이대장, 직장의 손상, 특히 총상에 의한 손상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김광연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당신네 병원은 군대 병원이냐, 왜 이렇게 총상이 많냐고 그랬지요. 그런 인연이 있었고, 미국 연수할 때에도 수술 참관이나 연구하는 종양이 주로 대장암이거든요. 미국은 위암은 빈도가아주 낮고, 대장암은 엄청나게 높죠. 한국이랑은 반대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colorectal을 주로 하셨고 저도 리서치를 colorectal만 했어요. 그래서 1990년에 귀국해서 대장항문학회 가을 학회에서 그런리서치 내용을 발표했고 학술위원으로서 학회와 인연을 맺게 됐지요.

#### 미국 다녀오신 후에도 위장과 대장항문을 모두 담당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종양과 관련된 것이었나요?

그렇죠. 전남의대 같은 경우는 화순병원이 2004년에 개원했는데 제가 거기 암센터 소장과 진료처장을 하면서 위암하고 대장암을 다 했어요. 화순병원에 위장관암 클리닉을 만들어 위암 스태프 두 사람, 대장암 스태프 한 사람과 함께 한 것이죠. 2006년부터 2년 동안 화순병원장을 하게 되어서 2008년 3월까지는 둘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08년에 전남대학교병원 병원장이 되는 바람에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3년간 환자와 멀어져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겼죠.

원래 전남대학교병원은 외과분과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1외과, 제2외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때는 기능상의 차이가 아니라 일본인 교수 한 사람이 한 과를 책임지는 방식이었지요. 그 전통이 이어져서 제1외과 과장이 김학윤 교수, 제2외과 과장이 조용국 교수이셨는데 김학윤 교수가은퇴하고 최원 선생이 1외과 과장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1988년 장기별로 나누자는 얘기가 나와서 위하고 대장을 위장관외과 분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간담췌, 이식과 소아, 유방과 내분비등 네 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위장관을 맡아서 위하고 대장을 계속했던 것인데, 위하고 대장은 2010년에 위장관외과와 대장항문외과 분과로 나누고 원장 끝나고 리턴하는 2011년에 대장항문외과로 들어갔어요.

#### 1990년대에 대장항문학회도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었는지요?

저는 위암과 대장암을 다 다루었으니까 느낄 수 있었는데, 위암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면서 대장암이 늘어나는 추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대장항문학회 회원 수도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암보다도 항문질환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과거에는 외과 의사들이 개업하면 감기부터 혈압까지 모든 질환의 치료를 다 했었는데 점차 영역이 밀려서 좁아진 거죠. 그런데 항문질환은 환자 수도 많고 외과 의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개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외과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대장항문 전공을 많이 선택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995년, 제9회 아시아태평양대장 항문학회, 그걸 우리 박재갑 선생님이 사무총장으로, 김광연 선생님이 프레지던트로 유치했는데 그것도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국제화하기 시작했고,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하고 교류하고, 우리 학회 국제화의 시초였다고 생각해요. 그 후로 국제 대학대장항문학회, 한중일 대장항문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면서 국제화가 더 되고학회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 선생님께서 세부전문의 규정 변화에도 직접 관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은 제가 법제위원장 하면서 관여를 했어요. 2004년 무렵에 기획위원장을 시작으로 국제, 심사, 법제이렇게 학회에서 보직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07년 무렵인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백서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보면 시기는 정확히 나올 텐데, 그때 그런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아무나 다 모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이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자격에 제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세부전문의를 시작하게된 계기가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개업한 의사를 학회에 많이 나오게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학회에 안 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술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고, 세부전문의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됐을 때 뭔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래서 학술대회 등록도 엄청 늘고 학회 회원 등록도 많이 늘어나는 기폭제가 됐어요.

그런데 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할 때 외과학회와 갈등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대장항문학회 회장도 하셨고 현재 외과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니까 양쪽 입장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세부전문의 제도 문제는 역사가 꽤 긴 이야기입니다. 세부전문의는 의학회하고 우리가 처음 추진했는데, 처음에는 세부전문의라는 용어를 못 쓰게 했어요. 환자 유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의라든지 대장항문외과 의사라든지 이 학회 자체적으로 그런 자격증을 준 거예요. 그런 데 내과는 이미 세부전문의를 했거든요, 내과가 많이 나누어진 것은 의학회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 런데 외과가 한참 힘들고 입지가 위축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과처럼 좀 세분화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자, 옛날에는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나 병원에서 스태프 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외과는 그대로 있고 내과는 분과별로 몇 명씩 있으니까 내과가 볼륨이 확 커지고 영역별로 전문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래서 우리도 세부전문의를 추진하자, 그렇게 되어서 대장항문학회에서 외과학회에 세부전문의 제도를 추진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외과 개원의 협의회가 반대를 했고, 외과학회가 개업한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 겁니다. 기존에 개업해서 진료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 자격을 따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 기존 개원의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일단 반대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에 외과학회에서 이민혁 이사장 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제가 4년간 세부전문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외과학회 각분과학회의 의견을 모아 10개의 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의학회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장기가 아닌 술기 분야라는 이유로 또는 영역의 중복 문제 등의 이유로 의학회에서 대장항문외과, 간담췌외과, 위장외과, 그리고 소아외과, 이렇게 네 개가 먼저 인준을 받게 됐어요.

처음 의도대로 10개를 같이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외과학회에서는 우선 4개라도 시작하고 점 차 늘려가자는 결론을 내리고 4개의 세부전문의 제도를 우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방질환분과 전문의가 추가되어 다섯 개가 됐지만 유방은 처음에 성형외과에서 반대했거든 요. 유방 전문의라고 하면 떼어내고 다시 성형하는 것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했고. 갑상선은 이비인후과에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이비인후과에서 결사 반대, 그 다음 혈관 쪽은 흉부외과에서 반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학회와의 문제보다는 개원하신 분들과의 관계, 관련성이 있는 다른 학과와의 관계가 더 문제가 됐던 것이군요.

그렇죠. 물론 외과학회와 좀 갈등이 있던 부분은 뭐였나면 예를 들어 미국은 ACS(American college of surgeon)하고 ASCRS, 이렇게 애초부터 학회가 딱 분리가 되어 있고 동등한 자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장항문학회가 외과학회 산하 분과 학회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연 선생님은 우리가 외과학회하고 동등한데 무슨 소리냐, 처음에 전문의 시작할 때에도 왜 저기서 우리를 간섭하느냐, 그런 생각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제도 안에서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분과 학회가 커지면서 학회 활동이 분과 학회 위주로 가니까 외과학회가 어려워지는 현실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내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옛날에는 ACS congress를 가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다 와서만 몇 천 명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아무래도 전공이 세분화되고 명확해져버리니까 내 전공이 colorectal인데 위나 뭐 다른 데 가서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외과학회는 데지던트 트레이닝 문제라든지 보험 정책이라든지, 전체 외과 의사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회원 수로 보면 외과학회가 6천 몇 백 명 되니까 큰 것 같지만 회원 수보다는 누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하느냐가 문제니까요.

## 그런 부분은 세부전공이 강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ACS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분과 학회 위에 군림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외과학회의 분과 학회들과 외과학회 회원 전체적인 이해와 관련된 부분을 외과학회에서 열심히 해결하고, 분과 학회 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 외과 의사의 이해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과 학회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외과학회에서 인증료라든지 전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걸 왜 외과학회에 내야 하느냐, 각 분과 학회가 관리하면 된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외과학회의 재정에서 세부전문의 제도의 운영 경비는 외과학회의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의료 정책이나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피부에 안 와 닿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근로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외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외과학회에 질문하고 자문을 받게

되는데, 각 분과 학회는 자신들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을 원하고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공단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전체적인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죠.

자료상으로는 1997년에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심사가 신설되었고, 81명이 처음 인정받았다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회 자체적으로 발급한 자격인 것인가요?

네, 그건 서류심사만 해서 가르칠 사람을 먼저 뽑는 것이었죠. 지도 전문의라고 해서 해외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셨다거나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을 먼저 드리고 그분들이 트레이닝을 시키고, 병원에서 펠로우들을 만들고 그랬던 것이죠. 다른 학회들도 마찬가지인데, 정형외과, 신경외과도 처음 생길 때에는 전부 페이퍼 보드라고 해서 처음 만든 사람들은 시험 안 치르고 전문의 자격증 다 받고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그런 스타일로 간 거였고, 2002년에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잠정 자격시험'을 처음 치렀어요. 의학회에서 인정받기 전이니까 '잠정'이라는 용어를 썼고, 5년에 한 번씩 갱신증을 발급하는 식의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의학회에서 인정을 받은 것은 아주 최근 일이에요. 2010년 지나 2013년 무렵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 앞서 세부전문의에 대해 개원의 분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건 외과학회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일단 레지던트가 안 오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레지던트가 전문의를 따는데 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great surgeon이 되면 이름은 근사하지만 어디 종합병원에 가서 밤마다 불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나누어 놓으면 저는 대장항문 전문의다, 그런 식으로 되면서 학생들이 외과를 더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부전문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정원을 못 채우기도 하지만 하다가 다 도망가고 우수한 친구들이 외면하니까 스태프를 시킬만한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외과 트레이닝 하고 펠로우 한 2년 하고 대장항문 전문으로 해서 대장항문만 보는 트랙을 만들어주면 훨씬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세부전문의를 추진하면 실사를 해야 돼요. 각 병원의 트레이닝을 실사하면서 여기는 왜 분과과장이 없느냐, 왜 스태

프가 한 명밖에 없느냐,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요. 사실 외과 레지던트를 안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레이닝 마치고 갈 데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들은 각 분과별로 외과 의사를 만들어라,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고 그래서 개업한 의사들도 설득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외과학회 전체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 이후에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외과 레지던트 충원율이 90% 가까이 됐어요, 그 전에는 한 60% 정도였는데. 물론 수가도 좀 올랐죠. 요즘 젊은 학생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 그렇다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25년 정도 대장항문학회의 변화를 경험하셨는데,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각각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변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학회가 국제화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의료 테크놀로 지가 엄청나게 발전한 부분이죠. 제가 복강경을 처음 접한 것이 1990년대 미국에서였어요. 리치먼드 가 서 한 일주일 보고 왔는데 그때 담낭 절제술을 복강경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때는 미국이 앞서 나갔죠. 그러다 96년인가 97년에 제1차 국제 위암학회를 교토에서 했어요. 그때 보니 복강경 위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이 확 올라갔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최첨단을 달리고 있거든요. 수술 테크닉이 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얶첬나게 발 전했고, 실제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5위인가 그럴 거예요. 영 아 사망률이라든지 생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24개국 중에 20위인 가 그 정도 돼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단 말이죠. 그러나 대장항문학회 차워에서 부정적인 면 이 있다면, 옛날에는 대장암뿐 아니라 양성항문질환과 항문 기능에 관한 연구 등을 많이 하고 논문 발 표도 개원한 회원이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대장항문학회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대학가와 개원가이죠. 대학은 주로 암 수술하고 암에 대한 치료를 하니까 개원한 의사들 이 양성질환에 대해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저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부분이 같이 굴러가야 하는데, 이게 많이 위축된 거예요. 테크닉 면에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법이 안 나오는 영향도 있고, 송도병워, 대항병워, 한솔병워처럼 개위병워들이 대형화되다 보니 여유가 생긴 부분 도 있죠. 그래서 개원한 의사들의 기여도, 발표나 참여를 좀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학술대회 이외에도 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회가 조직되고 그 중에서도 개원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구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제 경험으로 보면 2003년에 항암요법연구회를 처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항암 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통은 외과 의사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항암요법 연구회를 만들어서 토론하고 항암제를 쓰고 했습니다. 항암요법연구회가 현재도 다기관 연구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 자신도 이제 항암제를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쩌다 한 번 로테이션되어서 오는 전공의들을 믿고 항암제를 맡기가가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형병원들부터 항암제를 점점 종양내과에 맡겨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정착되고 있어요. 그리고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옛날에는 학회 회원들 간에 서로 친했던 이유가 외국 학회를 같이 가면서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또 큰 맘 먹고 가족도 동반하고 부인들끼리도 친해지고 그랬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도 우리 대장항문학회는 결국 대학과 개원가들 사이에 통로,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있는 스태프들도 암뿐만아내라 양성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좋겠고. 개원한 의사들도 테크닉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것을 또 습득해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같이 모여서 노력해야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두 축이 잘 굴러가서 학회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향후 발전 방향까지 다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interview



전호경 선생님

National research 주도할 수 있도록 학회의 연구역량 강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 선생님께서 왜 의학을 선택하셨는지, 그중에서도 왜 대장항문학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다행스럽게도 가고 싶은 학과에 아무 데나 갈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군사관학교를 갈까 아니면 공대를 갈까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공사 갈 거면 집 나가라고, 하하.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더니 의대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광자 용자 쓰시는, 서울대 국문과 교수고 소설가셨는데, 그분이 의대를 가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전후 세대, 전쟁을 겪은 세대거든요. 제가 13대 장손이니까 전쟁이 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쪽을 하라는 게 첫째 이유였고, 둘째는 장손이니까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안 사람들을 두루 좀 보살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를 가라고 하셨죠. 그때는 뭐 꼭 의사를 원했다기보다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그렇게 의대를 갔는데 들어 가서는 고삐 풀린 말 같아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어영부영 졸업을 하고 무슨 과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데 학생 때 외과를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재미있어 보였어요. 우연치 않게도 우리 아버지 소설에 외과 의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꺼삐딴 리'라는 작품이 유명한데 거기 주인공이 이인국 박사라고, 외과 의사예요. 여하튼 당시 우리 선배들도 제가 "외과 하겠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한데 "너, 정신이 있니?" 우리 때도 분위기가 그랬어요.

#### 외과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까지는 경제적으로도 외과 의사들이 괜찮았고 공식석상에서 "내과, 외과, 기타 잡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을 때니까, 하하. 이미지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업무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거야 항상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제가 석사 학위를 할 때 지도교수가 김예흠 선생님이라는 전설적인 분이었어요. 당시에 호랑이였던 김진복 선생님도 꼼짝 못 하는 분이 셨는데, 이 양반이 6.25 때 권총 차고 서울대를 지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석사를 받은 게 1983년인데 그 후에 김예흠 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도교수님이 바뀌었는데 바뀐 분이 홍성국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박길수 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하신 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장항문을 유일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일이 우연히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런데 박재갑 선생님이 김진복 선생님과 위암을 전공하다가 홍성국 선생님과 함께 대장항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박재갑 선생님

이 대장항문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그걸 하시지는 않았어요. 서울아산 병원의 김진천 선생을 만나면 자기가 처음이라고 이야기 할 텐데, 하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홍성 국 선생님한테 정식 펠로우를 한 게 김진천 선생이 처음이거든요. 저는 홍성국 선생님 밑에서 펠로우를 안 했으니까. 홍성국 선생님도 박길수 선생님께 배우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영국 세인트 마크스(St. Mark's)를 다녀오신 분이에요.

#### 그럼 선생님께서는 홍성국 선생님께 박사논문 지도를 받으시면서 대장항문 분야를 전공하게 되신 건가요?

그게 또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박사과정을 레지던트 끝날 때쯤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강남 시립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박사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영역이란 게 당시에 김진복 선생님, 김수태 선생님, 최국진 선생님, 이런 쟁쟁한 분들한테 끼여서 좁은 편이라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홍성국 선생님이 저를 보고 박재갑 선생님한테 찾아가보라고, 그러니까 박재갑 선생님은 그때 위암에서 대장항문으로 바꾼 상태였고, 원래 리서치 파워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재갑 선생님하고 논문을 썼죠. 제 기억에 제가 치프 레지던트 할 때 박재갑 선생님이 강사 발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 치프 레지던트는 모든 수술을 주도하고 수술 후 합병증도치프가 다 해결했거든요. 지금이랑은 능력 차이가 많이 나요. 당시에는 legal problem이라는 게 별로없었기 때문에 치프가 무조건 다 알아서 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 주니어 스태프가 치프를 함부로 못대했어요. 저는 학생 때 박재갑 선생님이 에듀케이션 치프였기 때문에 선생님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분이 오히려 강사로 오시더니 저를 치프라고 대우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박재갑 선생님하고 같이 박사논문을 쓰면서 인연을 맺고 대장항문을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홍성국 선생님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지도는 박재갑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 학위를 받으시고 곧바로 대장항문학회에도 관여를 하게 되신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강남시립병원에서 87년부터 92년까지 5년을 근무했거든요. 제가 홍성국 선생님하고 박재갑 선생님한테서 Colon and Rectal 쪽의 박사논문을 써서 대장항문에 관심이 많았을 뿐이지 전문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병원이 크지 않아서 모든 수술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삼성의료원은 오픈하기 2년 전인 1992년부터 젊은 의사를 뽑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제가 대장항문

외과 전공으로 뽑혀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삼성의료원에서 미국 연수를 보내주기 전에 저는 이미 대장항문 펠로우 트레이닝에 대한 접촉이 끝난 상태였어요. 사실 강남시립병원에 근무했던 이유가 시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긴다는 얘기 때문이었는데, 5년쯤 있다 보니 그게 잘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자비로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삼성의료원에서 제안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미국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와서 대장항문학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좀 미묘한 얘기지만 그때는 학회에 서울대학교 출신이 많지 않았어요. 원래는 홍성국 선생님이 학회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학회 내 위상도 매우 높았어요. 그분 동생인가 사촌 동생인가가 유명한 국회의원이고, 부인이 최정화 여사라고 수유리에 있는 대한병원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모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어서 홍성국 선생님이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물러나고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대 출신으로는 우제홍선생님, 박재갑 선생님 정도만 계셨고, 박재갑 선생님도 아직 연배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박재갑 선생님을 도와줄 사람은 이봉화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었는데, 이봉화 선생님은 한림대에 계셨고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신 편이다 보니 박재갑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 총무를 저에게 맡겨 주셨지요.

## 그럼 미국에 다녀오신 다음에, 그리고 박재갑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 총무로 활동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학회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게 1994년이니까 그때부터 대장항문을 전문으로 진료를 시작했고, 박재갑 선생님은 97년부터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사장을 하신 분들, 전규영, 우제홍, 박응범 선생님까지를 한 세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박재갑, 심민철, 손승국 이렇게 가면서 프로퍼(proper) Colon and Rectal 세대가 시작됐다고 봐도 될 거예요. 저도 원래 손승국 선생님께 연락드리고 미네소타에 가려고 했는데, 거긴 너무 춥다고 해서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 유니버시티 메디컬센터로 갔었죠. 아무튼 1995년에 김광연 선생님이 프레지던트를 하시고 박재갑 선생님이 사무총장을 하면서 AFCP를 하기 전까지는 학회의 중심이 Proctology였어요. Colon and Rectal Cancer가 아니었고. 사실 그 전에는 대장암, 직장암이 워낙 드물었기 때문에 암보다는 치질 중심의 학회였고, 박재갑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비로소 암이 학회의 메인 테마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무렵에 학회 이름도 대장항문병학회에서 대장항문학회로 바뀌었는데 그게 그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재갑 선생님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맞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잘됐고 학회도 아주 커졌죠. 미국에 연수를 다녀와서 94년부터 96년까지 참 많은 수술을 했지요.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하는 사람이 저 하나였기 때문에 1년에 저 혼자 500건 넘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약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그 덕에 우리 학회도 힘을 쓰고 재정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대학 강당을 빌려 학회를 개최했는데 제가 총무를 할 때 학회를 리츠칼튼 호텔에서 할 정도로 규모가 아주 커졌어요.

박재갑 선생님도 학회 일은 총무가 다 하는 것이라고, 당신께서 김진복 선생님 밑에서 다양한 학회 총무 경험을 하셨던 일을 말씀해주셨는데 역시 총무의 역할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사장이 학회를 이끌고 가지만 실제적인 업무는 총무가 많은 부분을 처리하게 되니 자연히 이사장이 자기 제자나 믿을 만한 후배를 총무로 임명하게 되지요. 그리고 학술위원장도 중요해요. 우리 학회는 학술위원장이 차기 이사장을 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에서 다음 이사장을 뽑을 때 학술위원장도 같이 뽑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사장을 할때 학술위원장이 김남규 선생인데 전형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규정에는 제1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되고, 차기 회장이 회장이 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학술위원장이 이사장이 된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도 암묵적인 동의 하에서 그런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우리 학회가 다시 APFCP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ISUCRS(세계대장항문학회)를 한국에서 한 번 개최했거든요. 2010년 ISUCRS의 프레지던트가 박재갑 선생님이었고 제가 사무총장이 었는데, 그러면 내년 APFCP에서는 제가 프레지던트가 되고, 박규주 선생이 사무총장을 하고, 이우용 선생이 학술위원장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ISUCRS가 오스트리아 그라즈(Graz)에서 개최되었을 때가 1990년이었는데, 한창 대장항문외과가 발전했던 때라 우리나라에서 대장항문에 관심이 있는 외과 의사들이 한꺼번에 많이 참석했지요. 그때는 홍성국 선생님이 힘을 쓰실 때인데, 그분이 부인인 최정화 여사하고 같이 오셔서 어떤 궁전을 같이 산책하고 저녁 먹으러 들어가면서 우리도 ISUCRS 한 번 개최해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때였는데, 우리가 유치하면 당신께서 필요한 돈은 다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으로 떠나신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말이 씨가 되어서 2010년에 ISUCRS를 서울에서 개최한 셈입니다.

앞서서 1990년대 중반부터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1995년에 AFCP를 하면서 학회가 크게 성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대에도 그런 전기가 되는 시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나 서울아산병원의 김진천 선생 같은 경우는 위에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서울대의 박재갑 선생님은 위에 김진복 선생님, 최국진 선생님 등 윗분들이 다 암수술 하고 계셨고, 연세대의 손승국 선생님도 위에 민진식 선생님, 이경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만큼 수술을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제약회사 스폰서십도 늘어나고 돈도 많이 모으고 그랬죠. 학회 회원 수도 늘어나면서 평생회원 제도도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사장을 할 때 수서에 있는 학회 사무실도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는 글쎄요, 그렇게 획기적인 기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쯤 되면 국제학회 하나 한 것을 전환점이라고 할수 없거든요. 그냥 쭉 발전해 갔다고 볼수 있고, 딱 언제라고 할수는 없지만 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큰 사건이죠. 박재갑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시고 제가 총무를 하면서 심민철 선생님이 그 문제를 주관했어요. 심민철 선생님이 실제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관심이 많으셔서 그것 때문에 대구에서 자주 올라오셨고, 그 다음에 이사장도 하셨죠. 또 하나는 2006년에 학술지가 학진 등재지로 선정된 것이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2006년 학술지의 등재지 선정이나 2007년 대장암의 날을 2000년대 중간 기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고 또 하나 우리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재미동포 선배 대장항문외과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으로 American Society of Colon and Rectal Surgeons, ASCRS에 참석한 것이 1992년이었는데, ASCRS를 가면 박재갑 선생님을 비롯하여 대장항문외과에 관심 있는 한국 의사를 많이 만날 수 있었지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미국 학회에 처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미국에 계시던 Colon and Rectal 전문의인 박제송 선생님, 김형철 선생님, 알래스카의 정원팔 선생님, 그리고 또한분, 이렇게 네 분이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저녁을 꼭 사주셨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바뀐 게 오히려 우리가 저녁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만큼 우리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이죠. 그때 재미있는 원칙이

뭐냐면 미국에 계신 분은 비용을 내지 않는다. 미국에 공부하러 온 한국 의사도 비용을 내지 않는다. 가족이 함께 오건 안 오건 무조건 100달러, 그 전통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게 1996년 무렵이 아닐까 싶은데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튼 그분들이 초창기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우리가 미국 학회에 가면 얼떨떨하고 쭈뼛쭈뼛할 때 그분들은 이미 미국화되어 있으니까 턱시도 입고 나오시고 우리를 많이 도와줬죠.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 소사이어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당시에는 힘을 못 쓸 때거든요. 저보다 15년 이상 위에 분들이 ECFMG를 보고 미국에 정착해서 계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미국에 연수를 나갔던 분들이 어디에 다녀왔나, 그것도 재미있는 히스토리예요. 손승국 선생님을 비롯해 몇 분은 미네소타로, 몇 분은 오하이오나 플로리다의 클리블랜드 클리닉으로, 몇 분은 레이클리닉으로, 그런 식으로 다양했어요. 저처럼 조지워싱턴 유니버시티에 다녀온 사람이 있고요. 그런 미국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우리 학회 발전에 공헌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선생님께서 92년에 조지워싱턴대학 메디컬센터로 가실 때는 굉장히 초창기인데 어떤 분의 추천을 받으셨다거나 소개를 받으셨던 것인가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컨택했던 곳은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하고 클리블랜드 클리닉이었죠. 난 레이클리닉이나 그쪽은 컨택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조지워싱턴 유니버시티 메디컬센터도 컨택을 했었죠. 그렇게 세 군데를 컨택했는데. 그때 학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어서 미네소타에 계시는 교수님의 아침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조지워싱턴에 계시는 교수님을 낮에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흔쾌하게 조지워싱턴으로 오라고, 그래서 사실 저는 미네소타 갈 생각으로 비행기표를 샌프란시스코미네소타를 끊어갖고 갔거든요. 학회 끝나고 나서 집이라도 보고 오려고. 그런데 거기서 결정을 짓고 미네소타를 안 갔어요. 미네소타에 손승국 선생님이 먼저 가 계셔서 메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준비를 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바꿔 조지워싱턴 유니버시티 메디컬센터에서 인터내셔널 스칼라로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진료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진료를 할 때 옆에 같이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안 되는데, 그때는 가능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뉴욕의 슬론 케터링 암센터에 갔을 때는 제가 프로페서라고 소개를 하면서 같이 있어도 괜찮겠냐고 환자한테 양해를 얻고 그 사람이에는 해야만 거기 있을 수 있게 됐죠. 최근에는 수술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제는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들은 대체로 다 여쭤봤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 회원 수가 2,000명이 넘을 텐데, 우리 학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원가와 대학가의 연계가 얼마나 부드럽게 되느냐, 서로 마음을 합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끌어안지 않으면 서로 파멸이거든요. 제가 이사장을 할 때 무슨 수가(酬價) 문제와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발 벗고 나서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고 그랬거든요. 이사회에 대학 쪽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최대한 갈등의 요소를 줄여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학회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에는 개원가의 역할이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면 AFCP 할 때라든지, 국제학회 할 때 송도병원의 이종균 선생님, 한솔병원의 이동근 선생님, 대항병원의 강윤식, 김도선, 이두한 선생님 이런 분들이 도네이션도 많이 하시고, 아무래도리서치나 논문 발표는 대학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개원가에서도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해줘서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명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술활동인데, 학술활동은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외국이랑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다만 문제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리서치 파워가 지금보다 훨씬 강해 져야 한다고 봐요. 이제는 많이 강화되고 있지만 제가 이사장을 할 때 제일 아쉬웠던 점이 그 부분의 틀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이고, 그때는 거기까지는 시야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셔널 리서치 같은 것을 학회 차원에서 주도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임팩트 있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논문은 최근에 로보틱 서저리하고 라파로스코픽 서저리를 비교한,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게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국력을 보여줄 수 있는 리서치를 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숙제예요. 당장 일본과 비교해 보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일본은 어떤 리서치를 학회 베이스로 했다고 하면 누구든지 믿거든요. 그 데이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위기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interview



박규주 선생님

장 질환 토털 케어 가능한 '장 주치의' 되어야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장항문을 전공하게 되셨는지, 학회활동에는 어떻게 관여하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988년부터 91년까지 레지던트를 했는데 그때부터 학회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재갑 선생 님 제자인데 그때는 대장항문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 레지던트 때는 대장암은 별로 중 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주로 홍성국 선생님께서 항문질환 쪽을 많이 하시고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외래에서 치질, 치루 수술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무렵에는 암보다는 양성질환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 부분을 꽉 잡고 리드하셨고, 박재갑 선생님은 89년, 90년쯤 에 대장항문 쪽으로 전담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박재갑 선생님 제자니까 집담회에 따라다니고 그랬죠. 당시만 해도 학회가 굉장히 작은 규모였고, 학술대회를 한다고 해도 30~40명 모였을까. 내 기억 에는 그렇게 크게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외과학회에서 대장항문학회 발표하는 게 제일 큰 형편이었 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박재갑 선생님이 이사장 하시기 전에 경희대의 윤충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셨는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갈 때 같이 갔어요. 97년인가 그랬는데 갔더니 진짜 아무 것도 없어요. 장 부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뭐 통장도 없고 서류 다발 하나 받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워치 규 선생님이 회장을 하실 때니까 89년, 90년 무렵인데, 박재갑 선생님이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질환의 전 국 데이터를 모으자고 하시면서 그걸 제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한국 가족성 용종증 등록소라는 걸 만 들고, 그 다음에 한국 유전성 비용종증 등록소라는 것도 만들었죠. 그건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학술지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 최초로 전국 서베이 같은 걸 했죠. 그걸로 원치규 선생님의 회 장 강연 자료를, 우리가 가족성 용종증 전국 등록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89년인가, 그 때는 학회가 작은 규모였지만 제가 그걸 만들어 드려서 발표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 1988년이면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관여하신 셈이네요.

그렇죠. 박재갑 선생님 제자였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박재갑 선생님이 이사장 하시면서 인수인계 받아 왔는데, 쓸 만한 자료라는 건 하나도 없고 역사도 없고 초록집도 막 펑크 나고, 그때부터 저희가 엄청나 게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한 것 중 제일 큰 게 1995년에 우리 학회에서 처음으로 국제학회를 한 것이죠. 박재갑 선생님께서 이런 기록을 좋아하셔서, 여기 결과보고서라는 책자를 보면 다 나오는데 1 차, 2차, 3차, 4차 APFCP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5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인도에서 하고 잘 안 되 고 하면서 별 볼일 없던 작은 학회였는데 박재갑 선생님이 규모를 키우셨죠. 옛날에는 국제학회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김진복 선생님이 워낙 그런 걸 좋아하셔서 박재갑 선생님이 그 밑에서 총무를 하시면서 국제암학회, CICD, 그런 학회들을 몇 개 하셨어요. 그게 저희 레지던트 때였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크게 키우실 수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때 군대에 있을 땐데, 92년에 백령도에 있었고 93, 94년에는서울 통합병원에 있었으니까 거기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랑 제약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 둘하고 셋이서 다 했어요. 요즘 같으면 대행사가 했을 일들인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쓸 만한 처지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책자가 제 고생의 기록이에요. 여기 보면 행사 일정, 납입금, 티켓, 보도자료, 이런게 다 나와요. 대행사가 없으니 호텔이나 모든 것을 제가 뛰면서 알아보고 컴퓨터도 안 좋을 때니까 엄청나게 고생했죠. 하루에 팩스도 100장씩 보내고, 편지도 100장씩 보내고, 그래서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다 모였고. 1,000여 명 넘게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걸 계기로 학회가 완전히 레벨업이 된 거죠.

#### 1995년 AFCP가 학회 발전의 중요한 전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항문질환이 더 많았지만, 우리가 레지던트 할 때까지만 해도 위암 수술 1,000개씩 할 때 대장암 수술은 한 100~15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대장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98년 발령을 받았고, 95년에 펠로우를 했는데 그때부터 대장암 수술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국제학회가 맞아떨어지면서 여러 가지가 레벨업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대장암에 대한 페이퍼도 별로 없었는데 그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박재갑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알아두었다가 그 양반들을 학회에 다 부르면서 이때 연좌진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연좌진으로 구성됐어요. 이 책을 보면 초청 연좌가 다 나옵니다. 각국의 대표적인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 대사관에 편지까지 썼고, 그래서 유명한 연좌들로 굉장히 수준 높은 학회를 만들었어요. 일본도 당시에 그렇게 크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회 입지도 좋아지고, 또 국제화가 이루어지면서 교류가 시작됐죠. 그때는 대장항문학회 구성원도 몇 명 없었는데 이른바 학회의 후발주자들이 여기서 만나면서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액스너나 램지,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을 다 알게 되고 우리가 해외로 연수를 가서 우리나라 임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학회의 존재를 알렸고, 그러면서 해외

연수도 굉장히 증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만든 것인 데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을 잘했어요. 그때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적자 난다고 짜장면도 안 시켜 먹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한 1억5,000인가를 남겼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학회 기금으로 넣어서 그때부터 학회가 살아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 말씀해주신 대로 대장암의 증가라든지, 해외 연수의 증가가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95년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95년 이후로는 학회가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여러 가지 팩트가 있죠.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개원가의 증가입니다. 항문질환을 중심으로 송도병원, 대항병원, 양병원, 이런 식의 전무병원으로 대형화가 이루어졌어요 개원을 해도 돈이 된다는 게 입증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 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대학가와 개원가가 어떻게 상생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학회에 서 공존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홍성국 선생님 때만 해도 대학병원에서 치질, 치루, 이런 항문 수술을 했어요. 그때는 암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95년 이후 암이 비약적으로 늘면서 대학은 암 이외의 수술을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대학은 넘치는 암 환자를 감당하기 힘들고, 개원가는 치질 이랑 항문질환은 워낙 환자가 많은 질환이니까 그걸 소화하면서 전문병원 형태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윈-윈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benign을 하는 개워 의사들이 늘다 보니 학회 에 와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회가 커졌고, 또 아산, 삼성병원이 생기면서 대학 스태 프 자리도 늘고 하니까 서로 커지는 거죠. 그렇게 커지면서 지식 교류가 필요하고 상호 정보가 필요하니 까 학회에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회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학회가 잘 돌아갔 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회가 커지니까 세부전문의 문제가 대두됐죠. 처음에는 인정의로 가다가 세부 전문의로 갔는데 외과학회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박재갑, 손승국 이런 선생님들이 예전부터 외과도 세부 전공으로 분과해야 살아남는다고 주장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나누어져 있었으면서도 외과에서 꽉 붙잡고 있다가 뒤늦게 아주 최근에 정식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외과학회랑 거의 싸우다시피 해서 얻어낸 겁니다. 사실 미국도 미국 외과학회보다 미국 대장항문학회 역사가 더 오래됐 거든요. 항문질환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 세부전문의 문제는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학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장항문 인기가 좋으니까 서울대학교병원에는 서울대장항문학 연수 강좌가 있거든요. 그게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90년인가, 91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대장항문 분야가 성장하면 서 이 지식을 사람들이 막 배우고 싶어하니까 중간에 연수 강좌가 대학별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어 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순간 정리를 한 번 했는데, 우리는 박재갑 선생님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으니까 그 대로 유지했죠. 그리고 세부전문의 정식 인준은 김광호 선생님이 이사장을 하실 때니까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게 2013년인가 2014년인데, 처음에는 대장항문외과에 인정의라는 걸 만들어서 인정의 시스템 을 계속 유지하다가 외과학회에 세부전문의를 만들자고 하면서 인정의를 다 그대로 세부전문의로 인정 해달라. 우리는 주장했는데 외과학회에서는 못하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로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지 금이야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때는 사실 어려웠죠. 다른 학회는 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미 인정의 오백 몇십 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에 인정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란 문제로 많이 싸웠던 거죠. 우리 학회만큼 개워의가 많은 학회도 없다 보니 그분들 은 이미 인정의를 다 받아놨는데 세부전문의를 따로 또 받아야 하면 대학에 있는 사람들만 가져가라는 말이냐. 이래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세부전문의를 만드는 트레이닝 교육기관이 규 정상 3급 종합병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병원이 있잖아요. 그건 전공의 수련기관은 아니기 때 문에 세부전문의 수련도 안 된다.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주 굉장히 많은 갈등 끝에 그쪽도 인정을 다 해주는 걸로 해결이 잘 됐죠. 학회에서 세부전문의 규정을 만들 때 '단 대장항문전문병원은' 식으로 단서 를 달면 되거든요. 그건 복지부에서 인정해준 거니까. 거기서 트레이닝 받은 것은 인정해 준다는 식으로 합의된 것이죠.

# 제도적인 문제 외에 연구 차원이라든지 수술 기법 면에서 95년 이후에 어떤 전기가 될 만한 변화는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강경 대장암 수술 도입 시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의 전기가 될 거예요. 그게 언제인가, 박재갑 선생님이 처음 한 게 있어요. 박재갑 선생님이 케이스 리포트를 하셨는데 95년인가, 그것도 그 즈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복강경 수술이 보편화되고 또 로봇이 도

입되고. 그게 수술 술기적 의미에서는 굉장히 큰 전기이고요. 그 다음 항암은 종양내과에서 하는 쪽으로 변했으니까, 외과 쪽에서는 복강경 수술, 수술 전 방사선 치료요법 보편화, 그런 역사적인 트렌드를 따라 변화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우리 분야를 넓히기 위해 염증성 장 질환이라든가 기능성 장 질환, 약물치료, 이런 부분까지도 치료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어요. 제가 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이 되면서 주장한 게 '토털 장 케어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장 주치의'로 가서 대장항문외과에서 과민성 대장부터 염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장내시경, 그것도 인정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왜냐하면 사실 내시경은 외과 의사가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린 맨날 수술한다고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내시경은 당연히 내과, 소화기내과에서 하는 거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시경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미국 대장항문외과에서도 내시경을 해요. 아까 전문병원들이 개원해서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제일 중요했던 이슈가 대장내시경이었어요. 개원가에서는 항문 수술과 대장내시경, 그게 메인이었죠.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을 떼고 하는 것도 우리 회원들이 제일 잘 하는 게 외과에서는 수술적 요소가 있으니까요.

#### 대장내시경 인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부전문의 전환을 준비할 즈음에 우리 학회 내에 대장내시경연구회가 생겼어요. 우리 학회는 분야가 많아서 다양한 연구회가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으니까 가을에 연구회 통합학술대회를 하고, 재작년부터 제가 기획할 때 그걸 국제학술대회로 만들었어요. ICRS라고 매년 하는 국제학회로. 사실 대장내시경은 특히 개원가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고 먹거리거든요. 대장내시경에 대해서도 박재갑 선생님이 기여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병원이든 내시경은 다 내과가 하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는 박재갑 선생님이 주도해서 대장내시경센터를 외과에서 하는 걸로 바꾸셨어요. 내과만 하라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외과도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시작이 돼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소위 말하는 검진 대장내시경이 엄청 늘어나면서 항문질환과 더불어 개원가에서 가장 잘하고 쉽게 하고 돈벌이도 되는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된 것이죠. 그 전부터 기획하고 그럴 때 내과에서는, 소화기내시경학회 같은 데서 뭐 자격을 엄격하게 해서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도 우리 현실에 맞는 진짜 검증된 대장내시경 인정의를 만들자고 논의가 되어서 지금은 대장내시경 연구회에서 대장내시경 인정의를 주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2008년에 제1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 인정 자격시험 공고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장항문외과의 범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항문외과가 '장 주치의' 콘셉트로 가려면 내시경은 필수적 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뽑는다면 95년 AFCP를 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정의로서 세부전문의의 특성을 정립시킨 것, 그 다음이 연구회의 발달과 대장내시경 인정의, 이런 것 들이에요. 우리 전문 분야를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특히 저는 대장내시경을 진짜 중요시 하는 것이 개워가도 앞으로 항문 수술이 줄면서 대장내시경이 살 길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느끼고 계 실 거예요. 그리고 옛날이야 학회가 환자들 보는 노하우를 전파해주고, 그게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돈벌 이에도 도움이 되니까 학회에 오면 배울 게 있다고 나왔지만, 이제는 웬만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연수 강좌 때 수술하는 영상도 비디오 테이프로 팔고 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 터넷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회라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단체라는 것을, 자신에게 도움이 되 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는 단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내과처럼 항상 변하지 않는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 회에서 회원들을 교육시키고, 내시경 인정의도 약속한 대로 만들고, 내시경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그 부 분에서 같이 협동적으로 기여를 해 온 거죠. 그리고 제가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 를 해왔어요. 요즘 바코드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준비했었어요. 학회라는 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식을 제공해주고 상호 교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원의들에게 중요한 것은 학회에 출석해야 세부전공의 인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평생 연수 평점을 계속 채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약과예요, 미국은 훨씬 더 심하거든요. 학회 출석이 안 되면 자기 자격을 유지 못 하는 거 죠. 그러면서 학회도 회원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오게 만들어야 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베풀어야 하죠.

#### 그런 면에서 역시 대장항문학회는 대학가와 개원가의 상생이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되겠네요.

상생의 문제는, 어차피 지금도 각 분야에서 잘 해나가고 있고 제가 이사장이 되면서 얘기했던 그 '장 주치의'라는 콘셉트로 개원의들을 홍보해주고, 학회가 그런 활동들을 주도해 나가면 잘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학회가 대학가와 개워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모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수 있죠.

전문병원 개원의들은 양성 쪽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 수가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고, 암 쪽은 대학에서 하고. 그래서 상생의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이익이 관계되는 부분들을 서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요. 오히려 학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회원 수를 늘린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회원 수를 줄여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회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회원들한테 제공해주는데 학회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혜택만 받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이제는 팽창의 시기를 지나 제가 이사장 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제는 질적 고양의 시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정말 대장항문에 올인하고 대장항문의 발전을 위해 학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키워 가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프랙티스에 관한 것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실질적인 베네핏을 얻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부전문의에 대한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세부전문의를 도입할 때 김광연 선생님이 외과학회에 가서 막 빌었다고요. 그래서 해준 것인데 그러면 그거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학회에 열심히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학회에 직접 나와서 보여 달라 이거죠.

## 양적 팽창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앞으로는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여쭤볼 것들은 다 여쭤봤는데, 마무리 삼아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나 혹은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학회의 발전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항상 질환의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도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화라면 좀 거창하지만 진료 지침을 세워서 우리 학회 회원들이라면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장암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양성질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동안 바쁘다고 등한시해서 안 봤던 변비 환자라든가,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골반 문제, 배변 문제, 변실금 문제,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학회의 할 일이고, 우리 회원들이 또 여전히 학회에 와서 열심히 배워가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죠. 물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장암은 피크를 이루어서 앞으로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치질은 더 이상 절대 늘 수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럼 앞으로 뭐가 늘어나겠어요? 아까 얘기한 고령화에 따른 기능성 장 질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쫓

이가야 한다는 그 정도는 보이니까요. 그래서 장 질환에 대한 토털 케어를 콘셉트로 '장 주치의'를 강조하면서 이미 학회에서도 그 방향으로 지금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개원가의 얘기도 항상 듣고 있고 서로 어떤지 알기 때문에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봐요. 제가 앞서 학회는 지극히 이기적인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앞으로 세부전문의들을 굉장히 희소성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대장항문학회도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옛날에는 엄청나게 인원 제한을 많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대장항문을 펠로우만 마쳤다고 해도 연봉 몇 십만 달러씩 주면서 서로 오라고 막 난리가 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죠.

## interview



임선민 선생님(전 한미약품 대표)

국산 의약품 확산에 물꼬를 튼 것이 대장항문학회의 또 다른 기여

# 선생님께서 제약회사에 몸담고 계시면서도 대장항문학회에 어떻게 관여하시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진약품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1992년 한미약품에 합류를 했습니다. 종합병원 마케팅을 경험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많았는데 막상 한미약품에 와 보니까 그런 경험치가 전혀 없고 회사가 규모도 작았지만 학회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미약품이 갖고 있는 항생주사제, 대표적으로 세포탁심하고 세프트리악손, 이런 약물들이 국내 기술에 의해 개발된 약들인데, 물론 물질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 제법 특허를 확보하면서 다국적 회사로부터 기술 로열티를 받은 품목이죠. 이런 것들을 의료계에 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모셨던 정지석 부회장님, 당시 부사장이셨는데 그분 밑에서 제가 영업이사를 할 때 그분 손아래 매제가 대장항문학회 수뇌부에 계셨던 이대 동대문병원의 박응범 선생님이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우리 한미약품에서 국산 개발한 의약품을 해외 기술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대장항문학회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학회에서 그룹 미팅이나 학술대회를 할 때 기회를 줄 테니 소개를 해보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스 데몬스트레이션(booth demonstration)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약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약이란 말이야?" 이렇게 의사들 세계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처음 시동을 걸어준 게 대장항문학회인셈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학회이고, 그러다 보니 애정이 굉장히 많아서 학회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다가 학술대회 지원 활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해서제가 퇴임할 때까지도 꾸준히 이어졌으니까요.

#### 박응범 이사장님이 재임하셨던 93~94년부터 학회 관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다른 제약회사들은 부스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는데 한미약품은 전문의약품이 많이 없다 보니 그런 기회를 못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부스 하나를 장만하려면 3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당시 임성기 사장님에게 "투자를 해야 하니 부스 하나 사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국산 개발 의약품, 한미약품 세프트리약손, 트리약손,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장항문학회에 어프로치한 약물은 항생제가 중심이었고, 3세대 세프트리약손인데 원 개발사가 600만 달러라는 당시로서는 최고 금액의 로열티를 주고 사 갔던 제품입니다. 스

위스 로슈사(社)에서 보니까 자기들 기술보다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냥 놔두면 전 세계 시장에서 자기들에게 영향이 있겠다고 판단하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버린 것이죠. 한국은 그때만 해도 경제 사정이나 제약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 산업을 통틀어서 최초의 기술 수출 사건입니다. 요즘 한미가 굉장히 시끄럽지만 그때부터 이어온 과정은 한미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대한민국 제약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제를 더 좋아하거든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산이라고 하면 "그거 믿을 수 있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 그런 면에서는 대장항문학회를 통해 한미약품의 약들이 알려지고 많이 쓰이게 된 것이 서로 좋은 일이 되었겠네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좋은 기술로 만든 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합류를 했고, 박응범 선생님과의 그런 인연으로 해서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때 총무가 손승국 선생님이셨으니까, 세브란스의 손승국 선생님을 찾아가서 실무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 죠. "우리 한미약품을 학회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허락을 맡고 그때부터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 저희가 소소한 프리미엄을 줬다거나 한 게 아니라 학술단체에 공식화 된 부스 비용을 내고 회사를 홍보하는 일들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홍보가 효과를 많이 봤 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다국적 회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뒤에 한미가 면역억제제를 개발했거 든요. 장기이식 수술 후에 필수적으로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 면역억제제인데 그것도 꼭 대장항문학회 선생님들은 아니지만 이식외과, 신장내과, 또 간담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도와주기 시 작하면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임상도 다 했고, 국내에서 개발한 것도 괜찮다. 그런데 굳이 외국산을 비싸게 수입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식학회, 신장학회에도 들어가서 국산 개발 약품들을 홍보하니까 관심이 증폭되어 도미노 현상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왕이면 국산을 써주자는 마인드 가 생겼고, 그런 전환의 첫 문을 열어준 학회가 저희에게는 대장항문학회였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직도 기억해주시고 오승택 회장님도 저를 만나보라고 하셨던 게 아닌 가 생각합니다.

# 93~94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장항문학회와 연관을 맺게 되셨다면 1995년에 있었던 AFCP, 아시아대장항문학회에도 지원을 해주셨나요?

그럼요. 저희가 학술대회 할 때마다 빠짐없이 끼었지만, 1995년 AFCP에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당시에 고려병원의 김광연 선생님이 대회장을 하시고 서울대의 박재갑 선생님이 조직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차병원의 이경식 명예원장님 같은 분들, 여러 분들이 관여를 하셨는데 그때 박재갑 선생님께서 "적어도 한미가 이렇게 좀 부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거기에 메이저 후원사로 들어가서 회사를 알리는 데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게 글로벌 학회였고, 굉장히 성황리에 치러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장항문학회에 소속돼 있는 외과, 대장항문외과 선생님들이 한미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겁니다. '한미가 조그마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메이저 후원 같은 것도 하네' 이렇게 돼서 그걸 기반으로 회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역시 저희가 대장항문학회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지론이 '은혜 갚는 호랑이가 되자'는 것이라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갚는다, 그러니까 대장항문학회가 우리에게 고마워하지만 사실 우리가 학회를 고마워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뭘 주고받지 않아도 정말 형, 아우처럼 가까워지니까 탄력을 받고, 아직도 서로 기억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대장항문학회에 워낙 여러 대학 선생님들이 계시고 한미약품에서 계속 스폰서십을 이어나가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대학병원에도 홍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폰서십은 1995년 AFCP가 절정을 이루었고, 그 뒤에는 항암제 관련된 다국적 회사들이 대장항문학회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메이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항생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슬그머니 2선으로 물러났지만 인맥이라든지 친분은 계속되어서 굉장히 끈끈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그때 시대상에서는 가능한 것이었는데 저희가학회 사무실을 만들 때도 좀 도와드리고 여직원, 비서분들 월급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허용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정도로 관계가 깊었다고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일했던 영진약품은 당시 업계 2위 회사였고 그래서 감염학회라든지 여러학회와 인연을 맺었는데, 한미의 위상은 당시에는 여러 학회를 둘러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인연을 중시했던 것이고, 이 학회만은 제가 제대로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300만 원짜리

부스가 한미약품에서 최초로 산 부스였습니다. 부스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학회와 관련을 맺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말하는 의리이고, 고마운 것이죠.

#### 1995년 이후에 한미약품이 학회 지원에서 2선으로 물러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이신지요?

그 이후에는, 특히 2000년대 들어 학회도 규모가 커지면서 자리를 잡았고 저희 말고도 큰 제약회사들이 더 큰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최근에 쌍벌제다 뭐다 해서 각종 제재가 생기고 법제화가 됐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자연스럽게 저희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약사 생활을 오래 해서 저 도 기억의 한계가 있지만 그런 규제들은 유권해석이 많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많아 서 법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우수연구자상, 우수논문상, 젊은 의사상, 이런 것들은 다 신고를 하고 그 상을 제정할 때는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 해야 합니다 좋은 일 하고 뺨 맞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학회에 도네이션을 하고 선정이나 심사는 학회에 맡 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회사가 직접 주고 그랬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해외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언제나 법의 맹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이 모든 걸 다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순수한 동기에서 했더라도 제3자가 그걸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 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대장항문학회와 인연을 맺었던 시절이 굉장히 아름다 운 시절이며, 미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국산 의약품을 불신하던 시대에 '기술 수출까지 한 약을 외면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애국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수수하 발상이 대장항문학회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대장항문학회에서 국산 약을 써도 전혀 문제 없 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미담이라고 생각하고, 학회 사무실 개소 하는 데 도움을 줬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미약품 입장에서 보 면 대단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 당시의 한미약품은 지금과는 꽤 다른 위상의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1992년도 한미약품은 병원 영업이 70억 원을 하고 있었고, 약국 영업이 200억 원 정도 해서 제약사 랭킹 중에서 30위권 밖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랭킹이 2위까지 갔다가 작년에 1위를 했죠. 기술 수출 로열티 받은 것까지 해서 1위가 됐는데 순수 국내 제품 판매만 가지고 봐도 5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회사가 됐

습니다. 저도 5년 전까지 몸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기여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대장항문학회의 도움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약품의 오너는 R&D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R&D도 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영업으로 외형을 키워서 R&D 비용을 만들도록 병행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렇게 좀 특이한 성장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제가 운 좋게 혹은 공교롭게 그 시대에 영업을 책임지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영업 출신 사장도 했습니다. 사장은 보통 관리적이나 오너의 친인척이 하기 마련인데 임성기 회장님이 앞서가는 경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저를 영업 사장을 시키셨어요. 말년에 총괄 사장도 했지만 그렇게 영업을 중요시했고, 한미의 발전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행운이었지요. '기업은 환경 적응업'이라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잘 적응했고, 지금은 또 지금의 현실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올드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사도 사람이고 마음을 연다는 것이 꼭 돈이나 물질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 삼아 인연을 맺어 오신 선생님들께, 혹은 후배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회의 50년사를 정리하는데 학회의 멤버도 아닌 저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선정해주신 것 자체가 감사드릴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제약사와 학회의 관계,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나거래 관계를 떠나 조그만 제약회사가 국산 개발 의약품을 들고 나와서 호소를 했는데 그걸 대장항문학회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셨던 것, 그래서 학회에도 우리가 도움을 드렸지만 사실은 회사가더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놓고 얘기하면 약간의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저희가 막 대단하게 도와드린 건 아닌데도 제가 워낙 일을 할 때 대장항문학회 선생님들의 면면을 꿰고 있으니까 직원들의 밀착도가 굉장히 강했고, 영업 조직력이 잘 동원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회만 하면 무조건 쫓아가서 심부름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한미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다는 착시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인연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은퇴해서 5년이 넘었지만저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학회와 인연을 맺어왔지만 특별히 대장항문학회는 '의리'를 아주 중요시하는 학회로 기억되고요. 어떤 일이든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 letter



Junichi Iwadare (전 사회보험중앙종합병원 대장항문병센터장)

대한대장항문학회 창립 50주년, 축하드립니다

-학회 및 한국 측 선생님들과의 교류-

#### 머리글

이번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대장항문학회(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에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이 권위 있는 학회의 50주년 기념지에 본 학회 회장이신 이두한 선생님과 박규주 이사장님으로부터 기고 의뢰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자신이 본 학회와 함께한 역사를 돌이켜보고, 본 학회 및 선생님들과의 과거 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보험중앙종합병원 대장항문병센터란?

저와 본 학회 및 한국 선생님들과의 접촉과 교류는 제가 사회보험중앙종합병원의 대장항문병센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사회보험중앙종합병원의 대장항문병센터는 제 은사인 스미코시 유키오 선생님의 '항문 출혈을 주요 중상으로 하는 환자를 모아서 치료하자'는 발상에서 1960년 2월 외과 내에 항문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항문병 센터를 개설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때까지 항문과 영역의 임상 강좌가 마련된 대학 의학부는 없었으며, 즉 매우 일반적인 병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곳은 거의 없었고 양성질환인 것을 핑계로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 치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문 전문의라 하면 항문과에서 대대로 개업한 의사로, 그 치료법은 일자상전, 문외불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비학문적 분야였습니다.

이 같은 분야인 항문병 영역에 절반은 공적인 병원 안에 항문병 센터를 개설해 구미의 의학을 도입하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 일본의 독자적인 항문병 치료, 항문병학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당 센터는 그 후 순조롭게 발전해 항문질환뿐 아니라 증가하는 대장질환도 흡수해 1975년 4월부터는 대장항문병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당 센터는 항문질환 치료의 연찬에 뜻을 두는 의사라면 학벌 및 기타 일체 상관없이 어떤 의사라도 기꺼이 받아들여 정열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이 같은 항문병학을 배우고자 일본 전국으로부터 항문병 진료에 뜻을 둔 의사들이 센터로 연수, 견학을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연수를 받고 배운 의사들은 그 후 각지로 돌아가 그곳에서 항문 전문의로서 진료를 하고, 또







제3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부산, 2008.9.21)

한 항문 전문 병원을 개업해 활동하면서 일본에서 해당 영역은 크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재직할 당시 연간 외래 환자 수는 6,000명을 넘었고, 수술 건수도 대장암 200건, 대장질환 수술 300건, 항문질환 수술 2,200건으로 일본 유수의 대장항문질환 전문 센터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센터에 1978년 3월부터 재직해, 1990년 10월에 부장, 1998년 4월부터는 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후 2006년 6월부터는 이와다레 준이치 진료소를 개설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대한대장항문학회 참가 추억

제가 대한대장항문학회에 참가했던 역사를 생각저는 대로 기술해보면 사회보험중앙중합병원 부장 시절인 1996년 11월 10일에 The 3rd Seoul Coloproctology Course1996에서는 1) Sphincter preserving methods for complicated anal fistula, 2) Surgical treatment of circumferential hemorrhoids에 대해 강연했고, 이어 대장항문병센터장 시절인 2001년 11월 4일 The 7th Seoul Coloproctology Course 2001에서는 1) New techniques in management of hemorrhoids, 2) Management of complex anal fistulas in my clinic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후 2003년 4월 12일 Korean Society of Cloproctology 2003(춘계)에서는 Special lecture 'The treatment of hemorrhoids including new therapie'를, 이듬해 2004년 11월 20일 Korean Society of Cloproctology 2004(추계)에서는 Video Symposium: 'Surgery for Hemorrhoid'를 강연했고, 그리고 2005년 9월 25일의 Asian Pacific Digestive Week 2005에서는

'Perineal Crohns Disease: What to do?'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또한 제가 사회보험중앙종합병원을 그만두고 개업한 후 제2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를 대한대 장항문학회 항문질환연구회 주최로 2008년 7월 6일에 서울 송도병원에서 1) 4단계 주사법 이론과 준비, 2) 4단계 주사법 실습을 강연했고, 제3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를 2008년 9월 21일에 부산에서 대한대장항문학회 항문질환연구회 주최로 1) 4단계 주사법 이론과 준비, 2)질의 응답을 강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09년 9월 20일(일)에는 2009 Postgraduate Course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에서 1) Lunchon Symposium lecture 'Novel Treatment of Hemorrhoids: Hemorrhoidectomy combined with Zione', 2) Special lecture on 'Management of Fistula in Ano'에 대해 강연한 것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상기 학회에 참가했을 때는 그때그때의 학회 회장 선생님들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특히 박재갑 교수 님께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눈여겨봐주시고 The 3rd Seoul Coloproctology Course1996, The 7th Seoul Coloproctology Course 2001에 강사로 추천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학회에서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고 지도해주신 스승과 같은 존재인 김광연 선생님, 대인의 품격을 갖고 계시며 당당하시고 친절히 저를 챙겨주신 경애하는 형님과 같은 존재이신 서울 송도병원의 이종균 선생님,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친한 벗으로서 항상 친족과 같이 대해 주시고 챙겨주신부산 사랑의외과의원의 허무량 선생님, 적극성과 활력이 넘치는 귀여운 아우와 같은 존재인 서울 양병원의 양형규 선생님 등에게는 매번 신세를 졌습니다. 이분들은 특히 기억에 남아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 제60회 일본대장항문병학회 총회의 추억

일본의 대장항문병학회, 즉 일본대장항문병학회의 제60회 총회를 2005년 10월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게이오 플라자 호텔에서 '대장 항문병 영역의 표준 진료란?'을 주제로 제가 주최했습니다.

일본대장항문병학회는 1940년에 유지의 항문의가 모여 일본직장항문학회를 설립한 것이 시초로, 그후 1967년에는 일본대장항문병학회로 발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최한 제60회 총회에서는 특별강연 2차례, 심포지엄 5차례, 패널 디스커션 3차례, 워크숍 4차례, 비디오 심포지엄 2차례, 모닝세미나, 이브닝 세미나를 총 7차례 실시하고 일반 연제는 531개, 학회 참가자는 2,228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최한 학회의 특별 강연 중 하나를 한국의 박재갑 교수님께 부탁드려 'Colorectal



제60회 일본대장항문병학회 총회에서. 사진 왼쪽부터 이종균, Junichi Iwadare, 박재갑, 김광연, 양형규

cancer cellbiology and its clinical implication'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고, 그 훌륭한 내용에 회원 모두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학회에서는 '한국의 항문질환의 현황'이라는 비디오 심포지엄을 이하 6개 시설(당시)의 선생님들께 부탁드려 실시했습니다.

- 1. Jong Kyun Lee 선생님(Song Do Colorectal Hospital): 'Evaluation & treatments for defecation disorders'
- 2. Hyung Kyu Yang 선생님(Department of Colorectal Surgery, Yang Hospital) 'New challenges of operative treatments for hemorrhoids, anal fissure and anal stenosis'
- 3. Lee Dong Keun 선생님(Hansol Hospital): 'Surgical techniques for treatment of chronic anal fissure' 및 'Surgical techniques for repairing of recto-vaginal fistula'
- 4. Yoon Sik Kang 선생님(Daehang Hospital): 'Transanally injected triamcinolone acetonide in levator syndrome' 및 'Wide excision and primary closure of internal opening with anocutaneous advancement flap operation for suprasphincteric horseshoe anal fistulas'
- 5. Huh Moo Ryang 선생님(Sarang Proctological Clinic): 'Operation for hemorrhoid with protruding anus'

6. Soo Han Jun 선생님(Division of Colorectal Surgery, Department of Surge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ocutaneous flap closure for high anal fistula'

이 심포지엄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 매우 유익한 학회였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의 마지막을 장식해 김광연 선생님께서 특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제60회 총회 당시 한국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한국 학회 참가와 한국 선생님들과의 교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랜 시간에 걸쳐 한국 선생님들과 접하면서 매번 느끼는 점은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예의 바름, 겸손함, 손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 등 오늘날 일본에서 사라져 가는 미덕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한대장항문학회 및 선생님들과의 교류는 지금도 그립고 즐겁게 느껴지는 저의 매우 귀중한 재산인 추억의 날들입니다.

#### 맺음말

마지막으로, 상기와 같이 많은 신세를 진 대한대장항문학회 및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학회의 무궁한 발전, 국민 의료에 대한 가일층의 공헌,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 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창립 50주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 이 글은 Junichi Iwadare 선생님이 대한대장항문학회의 50주년 축하글을 한글로 직접 작성해 주신 것입니다.

### letter



Takeo Mori

(Honorable president of Cancer and Infectious disease Center Tokyo Metropolitan Komagome Hospital)

# Congratulation for 50th, anniversary foundation of KSCP.

The first time I visited Korea for participation to KSCP congress held at GWANGJU was 1989. I and Dr. Takizawa pathologist of our Komagome hospital, and arrived at Gimpo airport.

Dr Takashi Takahashi(our boss died 2010) had many Korean friends at that time and so many young Korean surgeons came to Komagome for training and it was the reason that we invited KSCP in such young age. At Gimpo Prof. Kee HYUNG LEE waited us with his car but it was so long a way to Gwangju by car with Prof. Kee Hyung Lee's driving. It took 6 hours and Dr Takizawa slept all the way at the rear seat. So we talked and talked, and when we arrived at Gwangju we became a best friend in the world during driving. Our friendship has been kept when he died in my hand at 2002.

The place of congress was at the top of hill, and Japanese doctors invited were Prof. Kodaira(Keio Univ.) and me and we would like to show the 16mm movie presentation for the surgical operation for colorectal cancer. Prof. Kodaira had told me that his English is not so good so the explanation of operating method had already recorded in side of the film by Prof Teramoto Keio University Session started. My film had not such sound and I had to make my explanation by poor English. After my movie Prof. Kodaira started his movie with confidence. But alas, no voice from the film caused by some machine trouble. Though Prf. Kodaira would like to make speech, but operating scene went so fast that his explanation never overtook. But Korean doctors looked politely until the end. All Korean doctors said to us applauded. After the congress we were invited to official diner and lead to Korean party. Prof.Lee and other professors were so gentle and kind, that I determined to

make cooperation with KSCP as long. This was my first impression for Korean society and people.

Since then we invited Korean doctors to 5th Japan and China colorectal cancer symposium held at Harbin in 1994. Korean doctors were very eager and made so much effort to the symposium. Now this year 15th three countries symposium held at Beijing Many Korean doctors made fine presentation. Korean ability is now improving so much than Japan. Also it's a great pleasure to meet my old friends. I hope there may be many political problems between two countries, but our friendship never change and continue forever.



## 학술 및 사회공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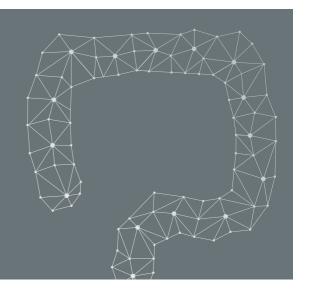
- 1. 학회지의 역사
- 2. 국내 및 국제 학술활동
- 3. 연구회 약사
- 4.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의 발전
- 5.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 **01** 학회지의 역사



## 대한대장항문학회지에서 Annals of Coloproctology로

이봉화(초대 편집위원장)



#### 서론

정보사회에서 학회는 최고 전문가 집단이며 새롭게 창출된 지식을 발표하는 장을 제 공하고 검증한다. 최종적으로 검증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관련 분야 학술잡지를 통 하여 발표해야 더 진보된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이 도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술지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창출 과정에 학회 행사나 학술대회보다도 더 결정적이고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네이처, 뉴잉글랜드저널, 외과계에서는 Annals of Surgery와 같은 학 술잡지가 그 분야의 가장 믿을 만한 최첨단 정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지는 편집위원회를 두고 학회 회원들을 대변하고 세계화에 맞추어 해외 전문가들의 새로운 논문을 포함하여 1년에 6회, 즉 격월간으로 'Annals of Coloproctolgy'를 발간한다. 세계의 모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간하여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 국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Pub Med에 실시간으로 등재되어 쉽게 인용이 가능하여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역할을 톡톡히 수행한다. 이에 저자는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차 대회를 기념하여 창간 준비사업부터현재까지를 더듬어 보고 나아가 향후 진로를 가늠하고자 한다.

#### 본론

#### 1.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창간 준비

#### 1) 학회지 존재의 필요성이 현실로 다가오다

1968년 학회 창립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학술대회 마다 관련 학술대회 발표 순서와 초록을 게재하는 초록집을 학술대회장에서 배포하는 형식으로 약 17년 간 계속되었다. 학회의 학술지 없이 학술대회마다 초록집만 일정한 형식으로 학술대회장에서 배포하는 형식이었다. 학술대회 순서와 초록만 게재하였으므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대한외과학회지나 기타 관련 학회지에 게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의 의학학술잡지의 모델은 대한의학협회지로서 학술논문 게재 이외에도 의료계 전반의 소식지를 겸한 종합학술지였다. 대한내과학회 잡지나 대한외과학회지의 경우에는 논문 원저의 게재 비중이 조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에서 분과학회 협의회가 설치되었으며 이어서 대한의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술단체들은 대한의학회에서 정회원학회와 준회원학회로 분류하였고, 대한대장항문병학회는 준회원학회로 분류되었다. 의학회 회원학회로서 정회원과 준회원 학회는 대표성과 의결권에 차이를 두었다. 대한대장 항문학회는 당시 의협 기획이사였던 현구원 선생님의 주선으로 정회원으로 인준되었다. 그러나 정회원학회를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항목으로 해당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유무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2) 학술위원들이 모이다

대한대장항문병학회의 구성으로서 총무위원회, 기획위원회, 보험위원회, 학술위원회 등이 있었으며 학술지 발간은 학술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학술위원을 중심으로 국립의료원 소재 스칸디나비안 클럽에서 모였다. 최용만, 전규영, 강중신, 최원 교수님 등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였고 당시 총무였던 우재

홍 교수님이 주도를 하였으며 실무는 이봉화 가시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1985년은 군사정권의 모든 체제가 유지되는 기간이었으므로 간행물 발간이 통제되는 상황이었다. 전국적인 배포를 고려하는 잡지는 문화공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의료계 잡지는 대한의사협회지이지만 문공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잡지이고, 내과학회 잡지 등은 무가지 비매품 잡지로서 등록이 안 된 잡지였다. 당시 거의 모든 의학회 회원 잡지는 무가지로서 임의 배포 형식이었으며, 국립도서관 등에서 따로 모으거나 분류하지 않은 상태였다. 문공부에 등록된 잡지는 유가지로서 판매가 가능하고 전국 도서관협회 산하 도서관에 비치되었다.

이제 창간되는 대한대장항문학회지를 문공부에 정식 등록하고 자동으로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대학병원의 정식 도서 리스트에 올리고자 하였다. 일단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도서는 의무적으로 국립 도서관에 50권을 매 호 납품하게 되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와 대한 의사협회지가 전국의 유수한 도서관에 비치되고 지방 대학병원 도서실에서는 학회 사무실로 학회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곤 하였다.

#### 3)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정부 인증 잡지의 표식인 문공부 등록필을 받아보고자 하던 중 문공부 잡지 담당 공무원의 어머님이 국립의료원 외과 이봉화 담당 환자로 입원하여 수술을 무사히 잘 받으시고 퇴원하게 되었다. 담당 공무원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었고 심중에 있던 학회지 문공부 등록필에 대한 상의를 하였다. 문공부 등록필을 위해서는 학회 대표자의 신원조회가 필수사항이었고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였다. 학회 대표자로서 서울대학교 박길수 교수님의 신원조회서를 작성하고 수속을 밟았다. 호적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는 신원조회서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결국은 학회 회장이나 이사장과 관계없이 학회지에는 박길수 교수님을 대표자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의 경복궁 안에 있던 문화공보부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배려 하에 학회지 문공부 등록필 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1985년 12월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제1권 제1호가 발간되었다.

학회지 발간에 앞서 학회지 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회지 제목은 당시의 의사 서예가였던 김사 달 선생님의 휘호로 한문으로 만들었다. 당시의 미국 외과의 대표적인 잡지는 Annals of Surgery와 American Journal of Surgery였고 각각의 표지가 노란색과 엷은 붉은색이어서 각각 yellow journal, red journal이란 별칭이 유행하였다. 당시 외과학회지는 주황색 표지였다. 학술위원회에서는 대한외과학회지가 주황색 표지였으므로 이보다 진한 인상으로 주기 위해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의 표지를 진한 붉은색으로 결정하였다.

#### 2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

1985년 창간의 모체가 학술위원회였으므로 학회지는 회장이 발행인으로 학술위원장이 편집인의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였다. 1986년부터 5년간은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발간하였다. 그러나 학회 회원의 규모가 커지고 학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한의학회에서 앞서가는 학회의 위상을 점거하기 위해서는 학회의 간판인 학회지의 발간 횟수가 적어도 1년에 네번 발간하도록 하였다. 전국 도서관에 배포될경우 사서들의 분류를 돕기 위해 잡지로서는 다른 잡지보다 앞서 초기에 표지에 ISSN 분류에 맞는 바코드를 표시하여 자동 분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1992년에 연 3회 1993년부터 4년간 연 4회를 발간하게 된다. 1999년에 연 5회 발간을 거쳐 드디어 2000년부터는 연 6회, 즉 격월간지로 발돋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술위원회에서 발 가하던 업무를 분리하여 1998년 편집위원회가 발족된다.

편집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이봉화 교수(간사 김남규), 한원곤 교수, 전호경 교수, 김남규 교수, 황대용 교수(간사 백무준, 김덕우)의 순으로 맡게 되었다. 그러나 학술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6년부터는 편집인(editor in chief)으로 황대용 교수가 연속으로 수행하여 2016년에 이르게 되었다. 사서 전문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분리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편집위원으로서는 전문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통계학자, 재미 학자, 미국을 비롯한 외국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심사위원단 풀을 구성하여 2인 이상의 심사 과정인 peer review 과정을 밟게 하였다.

#### 3. 학회지의 변천

학회지의 생명력은 발간 예정일을 잘 지키며 독자들이 기대하는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발간된 학회지의 원저들이 타 저널에 인용되는 생동력이 필수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지는 예정된 발간 일자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온 학회지임을 자부할 수 있다. 최근 전문기관의평가에 의하면 2006년의 인용 횟수는 120여 회였으나, 2015년에는 300여 회로서 전문학술지에 인용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창간호의 명칭은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로 출발하였으며, 학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발간 12년 만에 대한대장항문학회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7년 6월에 학회지 명칭을 개정하였다

대한의학회에서는 1997년 12월에 편집인 위원회 Korea Med를 발족하였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의학 관련 잡지를 단계별로 등록하여 인덱스를 만들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실무자인 이봉화 교수가 Korea Med의 실행위원으로 외과계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대한대장항망문학회지는 2000년부터 학회지를 격월간지로 발간하면서 영문 Index를 고려하게 되었고, 대한대

장항문학회지의 공식 인용 영문 약어를 2002년 12월부터 영문 약어 J Korean Soc Coloproctol로 제정하여 Korea Med, Pub Med 등에 게재하였다. 2003년에 드디어 박재갑 회장의 주도로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신청을 하게 된다. 2004년에 대한의학회에서 의학회 발족 후 처음으로 산하 155개 학회를 종합평가하였다. 대한대장항문학회가 영상의학과, 신장내과에 이어 당당히 3위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한대장항문학회지가 우수한 점수를 받아 입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 4. 국제적 학술잡지로서 발돋움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는 시기도 있었으나, 학술진홍재단에서 모든 학술 분야의 학술지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고 보조금도 지급하는 제도를 2000년도 초반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학술진홍재단의 사업에 부응하여 학술진홍재단등재지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이봉화 편집인(1998~2000년), 한원곤 편집인(2000~2002년)이 준비기간을 가졌다. 대한대장항문학회지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12월에 89.8점(편집인 전호경)으로 등재 후보 학술지에 선정되었고, 2005년에 87점으로 등재 후보 1차 통과(편집인 김남규)하였다. 2006년에 94점으로 등재 후보 2차 통과(편집인 황대용)하여 드디어 학술진홍재단 학술지로 정식 선정되었다. 2009년에 88.85점으로 등재학술지 유지 평가로서 약 10여 년의 연속 평가로 국내의 유수한 학술지로 내외에 공식화되었다.

오프라인의 작업에서 온라인 작업으로 투고 과정에서부터 심사, 그리고 발간에 이르기까지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시험기간을 거쳐 2007년 온라인 심사체계로 전환하였으며, 2007년 3호부터는 표지 전체 영문 제호 사용 및 표지 디자인을 교체하였다. 2007년 5호 각 논문마다 DOI를 부여하여 명실공히현대적인 학술지로서의 구성을 갖추었다.

2004년 전호경 편집인과 성균관 의과대학 의학정보센터 이동수 교수가 MOU를 체결하고 대한대장항문학회지를 모델로 하여 인용 예를 분석하고 학회지의 규격화·국제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국제화를 위해 영문잡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국문잡지의 역할로서 학술용어의 표준화, 국내 회원들에게는 국문 논문 투고가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문잡지를 유지하여야 할 이유도 있었다. 황대용 편집장은 국문잡지와 영문잡지를 병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업무의 중복과 영문잡지의 부실화 등이 문제가 되었다. 결국은 국문잡지를 중단하고 완전한 영문잡지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는 EMBASE 등재, 2010년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전문 홈페이지(www.coloproctol.org)를 개설하게 된다. 2010년 11월 SCOPUS 등재,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PMC, Pub Med에 등재되어 전 세계 의학자가 쉽게 대한대장항문학회지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5. Annals of Coloprotology와 국제학술지로서의 과제

영문학회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내 회원들의 투고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 학회지명을 대한대장 항문학회지에서 Annals of Coloproctolgy로 전환하여 외국에서의 투고를 유도하고자 하였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명실공히 국제학술지로서의 첫걸음을 디뎠다고 할 수 있다. 황대용 편집인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결과였다.

국제학술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있다. 가장 현저한 문제는 국문학회지의 경우에는 매 호당 10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하였으나 영문학회지가 되고 나서는 매 호당 원저의 수가 감소하여 3~4편에 불과하게 되었다. 부득이하게 invited editorial을 활성화함으로써 빈 공간을 보충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회지 인용을 늘리면 자연히 해결된다.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시절 1988년에 한국 대장암 분류 통일안 제정 워크숍의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였고, 참고로 일본 대장암 연구회 대장암 진료지침 제4판을 박영관 교수의 도움으로 완역하여 게재한 경력이 있다. 학회지 투고 내용을 보면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원저 투고 수나 내용이 크게 발전한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도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 통계에서 대장암과 항문암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여기에 대해 외국에서의 관심 표명과 질문이 상당히 있었다. 그러므로 인용 impact factor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장항문학의 특정한 분야에서 내·외국인을 망라하여 매력적이면서 충분히 인용 가능한 최신 특집 종설이나 심포지엄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투고자와 독자 모두가 인용하는 계기를 주기적으로 마련하였다. 현재도 원어민이 교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위해서는 원어민의 2인 이상의 교정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으면 영어권에서 인용하는 데 거부감이 있다. 인용지수가 올라가면 자연히 SCI로 진입될 것이고, 외국에서의 투고가 가속도가 붙게 되며 해당 분야에서 유수한 전문 국제학술지가 될 수 있다.

#### 결언

대한대장항문학회지가 창간된 지 31년이 경과했고, 영문학회지 Annals of Coloproctolgy로서 새출발 후 4년이 되어간다. 학회지로서 틀도 갖추었고 Pub Med에서 쉽게 인용된다. 이제부터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인용될 만한 원저를 유치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흠집이 없는 일류 학술지 수준의 영어가 필수이다. 원고료를 지불하더라도 매력적인 주제로 해당 분야의 첨단 의학자의 성의 있는 글들을 유치한다. 단순히 외과적 수술적 내용보다는 기초학문이나 비수술적 내용들도 자주 게재하여 범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계속된다면 감히 세계적 수준의 학술잡지로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 학회지의 발전 과정

편집위원회

#### **1. 학회지 발행**(1985~2016)

1968년 4월 학회 창립총회, 같은 해 12월 제1회 학술대회 이후 1984년 제17회 학술대 회까지 초록집의 형태로만 발간이 되어왔다. 그러나 학회의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학 술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당시 대한대장항문병학회가 대한의학협회 분과학 회 정회원의 자격을 얻으면서 1985년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영문: The Journal of the Korean Colo-Proctological Society〉를 창간, 그해 12월 제1권 1호가 발행되었다.

1990년대 들어 학회의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가장 눈에 띄는 학회지의 변화는 발간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1991년까지 연 2회 발행되던 학회지는 1992년부터 연간 3회, 1993년부터는 연간 4회로 점차 발행 횟수가 증가하였다. 1997년 정기 학술대회에서 학회 명칭이 대한대장항문학회로 바뀌면서 학회지 명칭도 1997년 2호부터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영문: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J Korean Soc Coloproctol〉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1998년까지 연 4회 발행되다가 1999년 연 5회를 거쳐 2000년부터는 격월간, 연 6회 발행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학회지 발간 횟수의 증가는 연구논문의 양적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증례보고와 종설을 제외한 원저(原著) 수는 1985~90년 58건이었던 것에 비해 1991~95년 172건, 1996~2000년에는 306건으로 급격 히 증가하였다. 이는 첫 5년 연평균 11건이었던 원저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연 61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 **2. 편집위원회 활동과 학회지의 발전**(1998~2010)

학회지 창간 이후 학회지 발간 업무는 학술간행위원회에서 맡아 해오고 있었으나, 투고 논문의 증가와함께 학회지 발간 제반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1998년 학술간행위원회가 학술위원회와 편집위원회가 분리되었다. 당시 마지막 학술간행위원장은 손승국이었고, 초대 편집위원장으로 이봉화 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이후 한원곤, 전호경, 김남규, 그리고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황대용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학술지 발행을 맡아오고 있다.

초대 이봉화 편집위원장 시절부터 학회지의 한국연구재단(옛 한국학술진홍재단) 등재의 필요성을 절 감하고 이후 약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끝에 2003년 7월 학술진홍재단에 학술지 평가요청서류를 제출하여 등재후보지 신청을 하였다. 이후 심사를 거쳐 2003년 12월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다. 2005년 12월 등재 후보 1차 심사에서 통과하고, 마침내 2006년 12월 2차 심사를 통과하여 한국학술진홍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2년마다 시행하는 등재지 평가에서 계속 8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 편집위원장



**이봉화**(한림대학교, 1998~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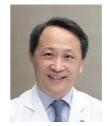
**한원곤**(성균관대학교, 2000~2002년)



**전호경**(성균관대학교, 2002~2004년)



**김남규**(연세대학교, 2004~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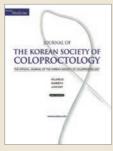
**황대용**(건국대학교, 2006년~현재)

#### 학회지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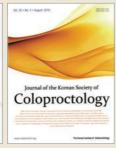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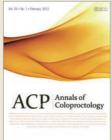












학회지의 제호는 대한대장항문병학회 시절인 1968년부터 국문 제호와 함께 영문 제호를 병기하기 시작하였다. 발행 초기 붉은 바탕에 학회 로고와 함께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영문: The Journal of the Korean Colo-Proctological Society〉라는 제호를 사용하였고, 이후 1997년부터는 학회명이 대한대장항문학회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학회 공식 로고와 함께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영문: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J Korean Soc Coloproctol〉로 제호를 변경하였으나 기본적인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00년 16권 3호부터는 기존 표지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책 판형 크기가 최초의 B5 크기에서 A4 크기로 변경되었다. 이후 표지 디자인은 2007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가 황대용을 편집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에서 '국제색인 등재 작업 진행과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가지는 학회지로의 개선'이라는 방침을 정하면서 표지 디자인이 크게 변화되었다. 제호 또한 2007년 3호부터 국문명을 빼고 영문 단독 제호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The'를 삭제》)로 바뀌었다.

이후 영문잡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차 출판의 형태를 가진 영문잡지를 2008년 6월에 창간하였으며 영문 제호를 〈Journal of Coloproctology〉로 하였다. 이후 5년 동안 유지되던 학회지의 발행은 2013년 가장 크게 바뀌게 되었다. 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해 기존의 영문 제호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를 〈Annals of Coloproctology; ACP〉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표지 디자인과 제호를 수정한 현재의 형태의 표지를 2013년 29권 1호부터 사용하여 오고 있다.

황대용을 편집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는 2006년 학회지 개선안을 논의하여 학회지 표지 및 제 호 변경, 내용 구성, 투고 형식 및 투고규정 수정, 심사 강화 및 출판윤리 제고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학회지의 논문투고는 2006년 후반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2007년부터 완전히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기존 출판 논문에 대한 온라인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우리 학회지 논문은 학회지 홈페이지(http://www.coloproctol.org/)에 창간호부터 전문이 PDF 파일로 수록 되어 있으며,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http://kmbase.medric.or.kr)에도 마찬가지로 창간호부터 링 크가 되어 있고, KoreaMed(www.koreamed.org)에는 2004년 이후부터 논문 전문이 링크되어 있다.

당시 매년 마지막 호 발행 시에는 전문의 취득을 위한 전공의 논문이 쇄도하고, 이의 심사 및 출판 일 정이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편집 업무의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편집위원 회의 제안으로 학회에서는 2007년부터 전공의 논문의 제출시한을 해당 연도 8월 말까지로 제한하는 조 치를 공표하였다. 또한 예전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당시 더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논문 출 판의 유리 문제인 논문의 중복 출판 및 이차 출판에 관해서도 학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여 그 방침을 학회지 2007년 4호에 천명하였다.

2000대 후반 들어서도 대한대장항문학회 학회지의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대한대장항 문학회지 표지는 향후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완전 영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학회지 제호를 영문으로 변경하여 2007년 3호부터 국문명을 빼고 영문 단독 제호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만을 사용하여 새로운 표지 디자인과 함께 출판하기 시작하였 다. 2007년 5호부터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와 연계하여 각 논문에 대한 고유식별번호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학회지 제호의 변경은 변화된 학술 지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영문잡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차 출 판의 형태를 가진 영문잡지를 2008년 6월에 새로 창간하였으며 제호를 〈Journal of Coloproctology〉로 명명하였다. 이후 매년 6월과 12월, 2회 발간하였고 이미 전년도의 국문 공식 학회지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에 실린 논문들 중에서 편집인의 글이 실린 흥미로운 논문들을 중 심으로 하여 영문으로 번역한 뒤 재심사 과정을 거쳐 이차 출판의 형태로 출판을 하게 되었다.

의학잡지의 최대 목표는 EMBASE(옛 Medicus Indecus; Elsevier, Netherlands), Pubmed (National Library Medicine, USA), SCI(E)(Thomson Reuters, USA)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등 재 및 국제 색인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회지의 가장 큰 과제는 논문의 피인용도, 즉 Impact Factor(IF)를 높여야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인데 당시 편집위원회 조사 결과 대한대장항문학회지는 1985년 학회지 창간 이래로 약 수십 회 정도만이 다른 논문에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회지

### 학회지 주요 연혁 1980 1985년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The Journal of the Korean Colo—Proctological Society) 창간, 연 2회 발행 1990 1992년 학회지 연 3회 발행으로 변경 1993년 학회지 연 4회 발행으로 변경 1997년 대한대장항문학회지(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로 제호 변경 1999년 학회지 연 5회 발행으로 변경 2000 2000년 학회지 연 6회 발행으로 변경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07년 영문 제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단독 사용 및 표지 디자인 변경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도입 논문 고유식별번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도입 2008년 영문 잡지 'Journal of Coloproctology'를 이차 출판 형식으로 창간 2009년 국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EMBASE 등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학술지 선정 2010 2010년 학회지를 완전 영문잡지로 전환 영문잡지 'Journal of Coloproctology' 발행 중지 학회지 홈페이지 www.coloproctol.org 오픈 온라인 영문 투고 시스템 전면 시작 국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SCOPUS 등재 외과 유관 학술지 최초로 Pubmed Central(PMC) 등재 2013년 'Annals of Coloproctology'로 제호 변경 및 표지 및 내지 디자인 변경

의 IF를 높이려면 논문이 연구자들에게 쉽게 접근되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Medline이 속한 Pubmed에서 논문이 검색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Pubmed는 상업 기업이 관장하는 SCI나 SCOPUS와 달리 공공성을 지니며 논문의 접근 포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착 안하여 대한대장항문학회지의 목표를 우선 Pubmed에 등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당시 Pubmed 등재를 위해 Medline 등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였는데, 등재 요건이 너무 강화되어 국내 어느 의학 잡지도 Medline에 등재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Pubmed 내에는 Pubmed Central (PMC)이란 또 하나의 체계가 있는데, 이것의 선제 조건은 잡지의 모든 언어가 영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이런 여러 이유로 학회지를 완전 영문 학회지로 전환하기로 하여 이를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 8월 완전히 영문으로 전환된 학회지를 처음 발간하게 되었고, 제호는 그대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J Korean Soc Coloproctol〉을 사용하였다. 동시에 2008년부터 발간하던 〈Journal of Coloproctology〉는 이차 출판이라는 점과 1년에 두 번 발간이라는 점들로 인해 국제 색인에 오르기에는 단점이 있어 2009년 12월 2권 4호를 끝으로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에는 J Korean Soc Coloproctol 이 국제 색인인 EMBASE(이전 Medicus Indecus)에 등재되었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우수학술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0년대 들어서도 학회지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2010년 10월 영문학회지 전환과 발맞추어 학회지 자체의 홈페이지(www.coloprotol.org)를 구축하였다. 2010년 3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ISUCRS와 대한대장항문학회의 공동 정기 학술대회에서 초청 유명 해외 의학자들을 대상으로 편집위원 위촉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약 60여 명의 해외 석학을 편집위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국제학술지로서 자리 잡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는 사이 2010년 11월 학회지가 EMBASE에 이어 저명한 국제 색인인 SCOPUS에 등재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또한 영문지로 완전 전환한 후 연속으로 발행된 2010년 4호, 5호 두 권을 Pubmed Central(PMC)에 등재신청을 한 결과 PMC로부터 2010년 12월 10일 등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 11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가 PMC에 제일 먼저 등재된 이후 34번째로 우리 학회지가 PMC에 등재된 것이었고, 대한외과학회지를 비롯한 외과학 연관 학회지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PMC에 등재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우리 학회지는 2010년 4호부터 Pubmed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된 논문은 대한대장항문학회 홈페이지로 연동되어 논문 전문을 무료로 HTML과 PDF 파일로 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 3. 지속적인 학회지 발전을 위한 노력과 SCI 등재를 위한 과제(2010~2016)

2010년 이후 최근까지 학회지의 발전을 위한 편집위원회 주요 활동을 보면 편집인 임기 보장, 학술지 구성요소 및 투고 규정, 논문심사 강화, 영문번역 및 교정 절차 정비 등이 있다. 2008년 전후 국내 의학학술지 7~8종이 등재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CIE에 등재되는 혜택을 받은 이후 Thomson

Reuters사의 지역 학술지 우대 정책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이에 게재 논문이 SCI 학술지에 최대한 인용되도록 함으로써 학회지의 영향 지표를 높이는 것만이 SCI 등재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학회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미국의 Edward Button 선생에게 영문 교정을 의뢰하고, manuscript editor를 고용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2010년 10월 학회지 자체의 홈페이지(www.coloprotol.org) 구축과 동시에 온라인 영문투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2011년 2월 온라인 시스템 논문 투고가 전면 시작되었다. 또한 국문논문의 투고도 허용하여 국문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영어 번역을 학회에서 지원하며 학회지 투고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병원의 교수 업적 산정 시 해외 SCI 등재 논문 출판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우리 학회지를 포함한 국내 학회지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용이 많이 될 양질의 논문 부족은 최근까지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는 2010년대 초반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학회지 영어 제호인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가 한국 내 의학잡지의 인상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보다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제호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를 대체할 제호를 내가지 선정하였고, 2012년 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대장항문학회 총회에서 〈Annals of Coloproctology; ACP〉로 변경하기로 정하였다.

《Annals of Coloproctology; ACP》는 2013년 29권 1호부터는 새로운 표지 및 내지 디자인에 학회지 전체가 컬러로 제작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호의 변화에 따라 많지는 않으나 해외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외에 온라인 투고체계를 포함한 홈페이지와, 이러한 발간 프로세스(DOI, xml 등 작업) 구축과 유지 및 영문 번역 등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 또한 향후 영문으로만 투고를 받는 문제, 그리고 학회지의 하드 카피 발행이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가 논의 중에 있다.

## 학회지로 본 대장항문학 연구 50년

편집위원회

#### 1. 전체 대상 논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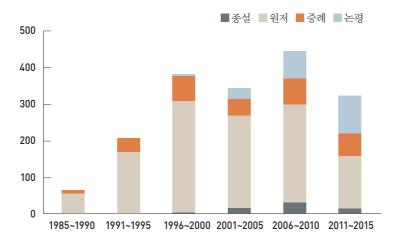
1985년부터 2015년까지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장하문 관련 연구의 양상과 시간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학회지 1권 1호 (1985년)부터 31권 6호(2015년)까지 31년간 발표된 논문 1,782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은 종설, 원저, 증례보고, 논평으로 나누어지며 논평은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보내는 글, 저자의 답신을 합친 것이다.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종설이 68편, 원저가 1,208편, 증례보고가 295편, 논평이 211편이다. 원저는 1996~2000년에 가장 많은 편수가 발표되었다. 2011년 이후는 편집 정책에 따라 편수를 제한하여 발표하고 있다.

#### 연도별 전체 발표 논문 종류별 편수

분야	1985~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계
종설	0	0	5	17	31	15	68
원저	60	172	306	255	269	146	1,208
증례보고	8	37	70	45	74	61	295
논평	0	0	2	30	73	106	211
계	68	209	383	347	447	328	1,782

#### 연도별 전체 발표 논문 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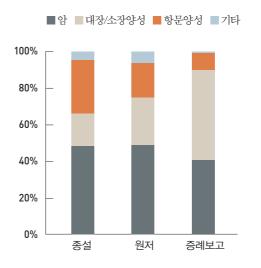
#### 2. 연구 주제 분야

발표된 논문을 암, 대장/소장양성, 항문양성, 생리, 술기/신기술의 다섯 연구 주제 분야로 나누어 보면, '임'이 796편, '대장/소장양성'이 515편, '항문양성'이 288편, '생리'가 42편, '술기/신기술'이 35편이다. 이것을 다시 논문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종설, 원저, 증례보고, 논평 모두 '임' 분야가 가장 많았다. 논평은 다섯 개 주제 중에서 '임', '대장/소장양성', '항문양성'에 관한 분야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주제 분야별 편수

주제	종설	원저	증례보고	논평	계
암	33	590	121	54	798
대장/소장양성	12	318	144	41	515
항문양성	20	228	28	12	288
기타 (생리, 술기신기술)	3	72	2	0	77
 계	68	1,208	295	107	1,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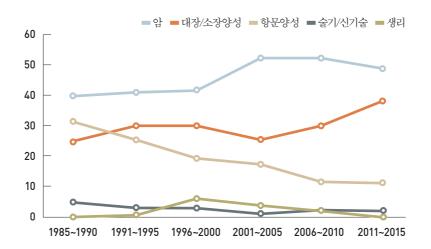
논문 종류별 주제 분야에 따른 비율



5년 단위로 연도를 나누어서 주제 분야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결과 중에서 기간 중 비중이 10% 이상이 분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85년부터 1990년에는 '암'이 39.7%, '항문양성'이 30.9%, '대장/소장양성'이 25.0%였고, 1991년부터 1995년에는 '암'이 41.1%, '대장/소장양성'이 30.1%, '항문양성'이 25.4%였다. 1996년부터 2000년에는 '암'이 42.3%, '대장/소장양성'이 29.9%, '항문양성'이 19.4%, 2001년부터 2005년에는 '암'이 52.1%, '대장/소장양성'이 25.9%, '항문양성'이 17.7%로 '암' 분야가 늘고 '항문양성' 분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0년에는 '암'이 53.0%, '대장/소장양성'이 30.7%, '항문양성'이 12.1%로 '암' 분야가 늘고 '항문양성' 본야가 감소했다. 2011년부터 2015년에는 '암'이 48.8%, '대장/소장양성'이 37.9%, '항문양성'이 11.8%로 '암' 분야가 줄고 '대장/소장양성' 분야가 늘었다.

#### 주제 분야에 따른 연도별 추이



#### 3. 연구자에 따른 분류

논문의 종류에 따라 참여한 저자의 총수를 보면 종설은 1인 저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2인이었고 5인이상이 참여한 논문은 2편으로 모두 8명이었다. 원저의 경우는 208편이 4명의 저자가 참여하였고 가장 많은 연구자가 참여한 논문은 77명이었다. 증례보고는 48편이 5명의 저자가 참여하여 가장 많았다. 논평은 거의 대부분을 1인 저자가 썼으며 4인 이상의 저자가 참여한 경우는 없었다. 다기관 연구는 전체원저 중 총 7편으로, 현재 활발한 다기관 연구의 투고가 학회지에는 드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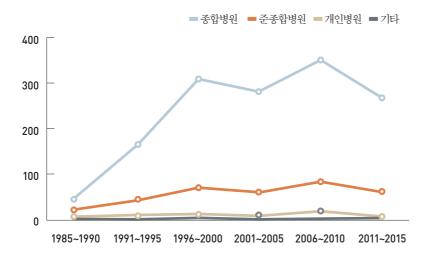
책임 저자의 국적에 따라 나누어 보면 1,782편 중에서 1,749편이 국내 저자이고, 33편이 해외 저자의 논문이었다. 해외 저자의 논문은 2000년대 이후부터 발표되고 있는데, 국적을 살펴보면 이란과 터키가 각 5편, 싱가포르가 4편, 인도가 3편, 미국·영국·네덜란드·스위스·스페인·호주가 2편, 네팔·리투아니아·일본·브라질이 1편씩 발표하였다.

책임 저자의 소속 기관에 따라 나누어 보면 종합병원이 1,409편, 준종합병원이 327편, 개인병원이 42 편, 기타가 4편이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종합병원 소속이 67.6%, 준종합병원 소속이 29.4%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81,1%, 17.4%로 나타나 종합병원의 비중이 보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병원 종류에 따른 연도별 논문 편수

병원 종류	1985~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계
종합병원	46	161	306	278	352	266	1,409
준종합병원	20	44	67	59	80	57	327
개인병원	2	4	8	9	15	4	42
기타	0	0	2	1	0	1	4
계	68	209	383	347	447	328	1,782

#### 병원 종류에 따른 연도별 논문 편수 비교



#### 4. 키워드 선정 방법

분석한 논문 1,782편 중 논평을 제외한 종설, 원저, 중례보고 1,566편에 키워드가 기재되었다. 논문당 기재한 키워드 수는 1개에서 7개까지로 다양하다. 키워드 1개를 기재한 논문은 131편, 2개는 399편, 3개는 563편, 4개는 310편, 5개는 147편, 6개는 12편, 7개는 4편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논문에는 최대 5개까지만 기재하였다.

논문 종류에 따른 상위 빈도를 나타낸 키워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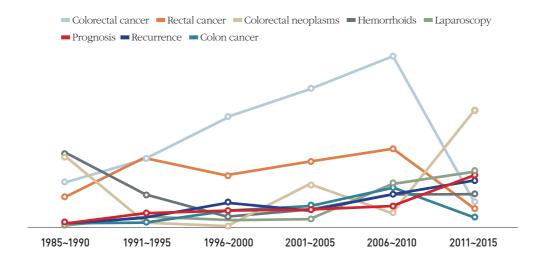
전체		원저		증례보고	
Colorectal cancer	184	Colorectal cancer	168	Appendix	17
Rectal cancer	95	Rectal cancer	87	Rectum	12
Colorectal neoplasms	53	Colorectal neoplasms	51	Colon	12
Hemorrhoids	43	Recurrence	38	Laparoscopy	8
Recurrence	39	Hemorrhoids	36	Adenocarcinoma	8
Laparoscopy	36	Prognosis	35	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8
Prognosis	35	Hemorrhoidectomy	28	Colon cancer	7
Colon cancer	31	Laparoscopy	26	Colonoscopy	7
Hemorrhoidectomy	30	Appendicitis	25	Intussusception	7
Colonoscopy	28	Colon cancer	23	Rectal cancer	6
Appendicitis	28	Colonoscopy	20	Hemorrhoids	4

전체 논문, 원저, 중례보고에서 각각 상위 빈도를 나타낸 키워드를 11개씩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체 논문에서 키워드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키워드를 기재한 논문 1,566편으로 나누어서 비율이 2.0% 이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85년부터 90년에 발표된 논문은 'Hemorrhoids', 'Colorectal neoplasms', 'Colorectal cancer', 'Rectal cancer'의 순으로, 91년부터 95년에는 'Colorectal cancer', 'Rectal cancer', 'Colorectal cancer', 'Rectal cancer', 'Colorectal cancer', 'Rectal cancer', 'Colorectal cancer', 'Rectal cancer', 'Laparoscopy' 순으로 2011년부터 2015년에는 'Colorectal neoplasms', 'Laparoscopy', 'Prognosis', 'Recurrence' 순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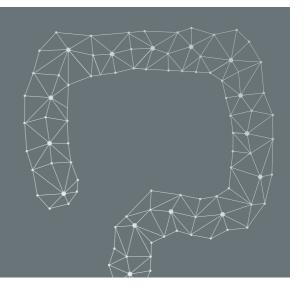
연도별 주요 키워드 논문 편수

	1985~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Colon cancer	0	1	6	7	15	2
Colorectal cancer	3	15	45	47	68	6
Colorectal neoplasms	5	1	0	14	5	28
Hemorrhoids	5	7	5	6	13	7
Laparoscopy	0	2	2	2	17	13
Prognosis	0	3	6	6	8	12
Rectal cancer	2	15	21	22	31	4
Recurrence	0	2	9	5	12	11

#### 연도별 키워드 변화 추이



## **02** 국내 및 국제 학술활동





**김광호** (이화의대)

## 국내 학술활동

#### 1. 학술대회

대한대장항문학회는 1967년 11월 창립 준비모임을 가진 후 1968년 4월 20일 대한의학협회 강단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8개월이 지난 12월 6일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내외에서 50여 명이 참가하여 제1회 대한대 장항문병학회 초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6편의 자유 연제가 발표되었고 "치핵 치료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패널 토의가 있었다.

학술대회는 1991년까지는 매년 1회 개최하였으나 1992년부터 춘계, 추계 연 2회 개최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 후 2008년부터 는 외과학회가 추계에 외과분과학회 전체를 포함하는 통합학술대회를 개 최하여 대장항문학회는 춘계에 연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추계에는 통합외과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1979년 제12회 학술대회부터 학술대회 초록집을 정식으로 편집하여 사용하였으며 대한대장항문 병학회를 상징하는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몇 번의 수정을 거쳐 1998년에 제작된 로고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1985년 제18회 학술대회부터 회장 특별강연을 신설하여 강중신 회장님의 "자동봉합기를 이용한 장관수술" 강연이 있은 후 현재까지 매년 총회 전에 회장 강연 시간을 가져 학회 회장님으로 헌신하신 선배 의사들의 지난 세월 Know How를 배울 기회를 가지고 있다.

#### 연례학술대회

회차	날짜	장소	연제 수
1	1969,12,20	앰배서더호텔	5
2	1970.12.19	고려병원	3
3	1971,11,27	풍전호텔	3
4	1972.12.14	풍전호텔	3
5	1973,11,15	풍전호텔	9
6	1974.11.29	풍전호텔	6
7	1975.11.14	풍전호텔	10
8	1976.11.19	풍전호텔	14
9	1977.12.8	풍전호텔	12
10	1978.12.8	국립의료원	11
11	1979.12.14	고려병원	37
12	1980.12.5	국립의료원	35
13	1981,11,27	서울대학교병원	34
14	1982,12,10	고려병원	37
15	1983.12.9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40
16	1984.12.7	국립의료원	42
17	1984.12.7	서울대학교병원	51

회차	날짜	장소	연제 수
18	1985,12,7	한일호텔	42
19	1986,11,28	여의도 63빌딩 3층	47
20	1987.11.28	대전 유성관광호텔	50
21	1988.12.2	대한생명 63빌딩	56
22	1989.12.8	광주 신양파크 호텔	53
23	1990.12.7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	76
24	1991,12,6	대구 프린스호텔	60
25	1992.12.4	신라호텔	36
26	1993.12.4	부산파라다이스호텔	36
27	1994.12.10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38
28	1995.12.2	서울 신라호텔	24
29	1996.12.7	서울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48
30	1997.12.6	호텔 리츠칼튼 서울	51
31	1998.11.27~28	호텔 리츠칼튼서울	70
32	1999.11.26~27	쉐라톤 워커힐호텔	60
33	2000,11,25	소공동 롯데호텔	7
34	2001.11.2~3	인터콘티넨탈호텔	57





#### 춘계학술대회

날짜	장소	연제 수
2002.11.29~30	메리어트호텔	76
2003.11.29	롯데호텔	48
2004.11.19~20	서울 메리어트호텔	130
2005.12.2~3	소공동 롯데호텔	123
2006,11,25	소공동 롯데호텔	127
2007.11.30~12.1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114
2008.4.4~6	제주 롯데호텔	171
2009.4.10~12	대구 인터불고 호텔	237
2010,3,19~21	서울 코엑스	175
2011.4.1~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46
2012.4.6~8	서울 코엑스	230
2013.4.5~7	경주 현대호텔	242
2014.4.11~13	무주리조트 카니발 컬처팰리스	221
2015.4.10~12	부산롯데호텔	230
2016.4.1~3	대전컨벤션	227
	2002.11.29~30 2003.11.29 2004.11.19~20 2005.12.2~3 2006.11.25 2007.11.30~12.1 2008.4.4~6 2009.4.10~12 2010.3.19~21 2011.4.1~3 2012.4.6~8 2013.4.5~7 2014.4.11~13 2015.4.10~12	2002.11.29~30       메리어트호텔         2003.11.29       롯데호텔         2004.11.19~20       서울 메리어트호텔         2005.12.2~3       소공동 롯데호텔         2006.11.25       소공동 롯데호텔         2007.11.30~12.1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2008.4.4~6       제주 롯데호텔         2009.4.10~12       대구 인터불고 호텔         2010.3.19~21       서울 코엑스         2011.4.1~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4.6~8       서울 코엑스         2013.4.5~7       경주 현대호텔         2014.4.11~13       무주리조트 카니발 철저팰리스         2015.4.10~12       부산롯데호텔

날짜	장소	연제 수
1992.4.4	전주코아호텔	8
1993.4.20	서울 교육문화회관 거문고 C홀	19
1994.4.9	제주 신라호텔	19
1995.4.15	대전 유성리베라호텔	20
1996.4.6	전주 코아호텔	18
1997.5.31	호텔리베라 유성	17
1998.4.25	용평 리조트	16
1999.4.24	대구프린스호텔	18
2000.4.29	무주 티롤호텔	36
2001.4.27~28	메리어트호텔	64
2002.3.29~30	제주 신라호텔	75
2003.4.11~12	제주 롯데호텔	81
2004.4.9~10	경주현대호텔	92
2005.4.8~9	부산 롯데호텔	87
2006.4.7~8	제주 롯데호텔	109
2007.4.6~7	부산 롯데호텔	113

#### 2. 집담회

1991년부터는 학술대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임상에서의 치료 경험과 최신지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학술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첫해에는 3회가 개최되었고, 그 다음해부터는 연 2회 학술대회가 없는 달에 개최하여 학술과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되었다. 그 후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각 연구회 별 집담회가 활성화되면서 2006년부터 정기 집담회는 없어지게 되었다.

#### 집담회 현황

회차	날짜	장소	연제 수
1	1991.3.30	국립의료원	2
2	1991.6.29	부산대학교병원	5
3	1991.9.14	고려병원	2
4	1992.7.4	한양대학교병원	7
5	1992.9.26	세브란스병원	3
6	1993.6.26	이대부속병원	4
7	1993,9,18	고대안암병원	3
8	1994.6.25	전남대학교병원	7
9	1994.9.24	충남대학교병원	10
10	1995.9.23	충주건국대학교	8
11	1996,6,29	서울 적십자병원	10
12	1996.9.21	부산대학교병원	10

회차	날짜	장소	연제 수
13	1997.3.8	전남대학교병원	6
14	1997.9.6	인하대학교병원	8
15	1998.3.14	충북대학교병원	7
16	1998.9.5	순천향대학교병원	5
17	1999.3.13	아주의대 부속병원 별관 대강당	8
18	1999,8,28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4층	8
19	2000,3,11	안산고대병원	4
20	2001.9.22	경북의대학교중앙강당	11
21	2002.9.28	고려의대 구로병원 강당	8
22	2003.9.27	부산대학교병원	9
23	2004.9.1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8
24	2005,9.3	가천의대 길병원	14



#### 3. 연수강좌

각 대학별로 시행되던 연수강좌를 통합하여 1999년 10월 3일 학회 주최 연수강좌가 이대목동병원 김옥 길 홀에서 개최되었다. 그 후 매년 6월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연수강좌가 개최되어 전공의, 전임의, 개원 의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 대장항문학을 시작하는 외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각 기수들 간의 친목을 다지고 연구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Future Forum을 개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년 연수강좌 전날 30명 내외의 새로운 전문의가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어 대장항문학회의 미래를 책임질 역군을 키우고 있다.

#### 연수강좌 현황

회차	날짜	장소	연제 수	참석자 수
1	1999.10.3	이화의대 목동병원 김옥길홀	19	349
	2000.	의약분업으로 개최하지 않음		
2	2001.6.17	전남의대 명학회관 대강당	19	415
3	2002.6.30	연세의대 대강당	18	375
4	2003.7.6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9	456
5	2004.6.27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19	421
6	2005.6.26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종합관 대강당	24	387
7	2006.6.18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기념관	24	467
8	2007.6.2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2	487
9	2008.9.28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19	512
10	2009,9,20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35	720
11	2010.10.3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	42	584
12	2011.9.25	충남대학교 대강당 정심화홀	15	460
13	2012,9,23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17	458
14	2013.6.23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17	393
15	2014.6.22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15	458
16	2015,12,13	성빈센트병원 별관 5층 빈센트홀	22	383
17	2016.6.26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	21	263

#### Future Forum 현황

회차	날짜	장소	참석자 수
1	2007.6.23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8
2	2008.9.27	아카데미하우스	35
3	2009.9.19	아카데미하우스	28
4	2010.10.2	아카데미하우스	30
5	2011.9.24	호텔 아드리아 5층 '크리스탈 홀'	39
6	2012.9.22	엘리시안 강촌	26
7	2013.6.22	전주코아리베라호텔	31
8	2014.6.21	아카데미 하우스 '새벽의 집'	31
9	2015.12.12	라마다플라자 수원 호텔	27
10	2016,06,25	엘리시안 강촌	29

#### 4. 연구회 활동

대장항문질환의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회원들의 학문적 요구도 증가하여 각 전문 분야에 맞는 연구회의 활동이 활발해져 2000년 11월 복강경대장수술 연구회가 발족하였다. 뒤를 이어 2002년 9월 항암요법연구회, 10월 장루연구회, 12월 염증성장질환연구회, 2004년 10월 항문질환연구회, 2007년 3월 항문직장생리연구회, 5월 대장내시경연구회, 그리고 2010년 7월 대장암연구회가 발족하여 학회 산하 8개 연구회가 2013년 9월부터 연구회 통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2014년 9월부터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을 개최하여 국제 학술대회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항암요법연구회에서는 2004년 "대장암의 항암요법』을 발간하였고,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에서는 2009년 "복강경 대장수술 아틀라스』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2012년 "대장암 진료권고안』을 대한의학회와 합동으로 발간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5. 학술상

1994년부터는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대한대장항문병학회 애보트 학술상'을 신설하여 학회지에 개제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여러 학술상이 신설되어 현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우수 구연과 포스터에 대한 학술상과 국내 학회지는 물론 국외 학회지에 개재된 우수논문에 대한 학술상, 그리고 우수 연구에 대한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 국제 학술활동

#### 1. 학회의 세계화

학회의 위상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아시아대장항문학회와 세계대장항문학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대장항문학회와는 2010년 11월 일본 Hamamatsu에서 제1회 한일 심포지엄을 시작하여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한 번씩 개최하여 양국 간의 정보 교류와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Lithuania와 학술교류를 시작하여 3년에 한 번씩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European Society of Coloproctology와는 2015년부터 매년 신진 의사들을 한 명씩 초청하여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에서 발표시키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유럽과의 교류도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몽골 등 아시아 여러 지역의젊은 대장항문 전공 외과 의사를 초청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1) 5th Congress of Asian Federatrion of Coloproctology

1995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제5차 아시아대장항문학회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전체 23 개국에서 1,055명(국내 633명, 국외 422명)이 등록하여 특별강연 38회, 심포지엄 38편, 구연 66편, 비디오 34편, 포스터 336편 등이 발표되었다.

#### 2) 9th Congress of Asia 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

2003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9차 아시아대장항문학회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전체 22개국에서 549명(국내 433명, 국외 116명)이 등록하여 특별강연 6회, 심포지엄 10회, 구연 발표 56편, 포스터 발표 83편, 비디오 발표 7편, 런천 심포지엄 3편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3) 4th Congress of Asian Society of Stoma Rehabilitation 2006년 10월 24일에 제4차 아시아장루학회가 25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9 개국에서 131명(국내 84명, 국외 47명)이 참가하여 특별강연 4회, 심포지엄 3회, 구연 31편, 포스터 33편이 발표되었다.

#### 4)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roctology(SISP 2006)

2006년 11월 26일에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roctology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9개국에서 150여 명이 참가하여 17편의 심포지엄이 발표되었다.

# 5) 14th Congress of International Society of University Colon and Rectal Surgeons 2010년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4차 세계대장항문학회를 서울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전체 46개국에서 1,076명(국내 676명, 국외 400명)이 등록하여 심포지엄 8회, 구연 164편, 포스터 235편이 발표되었다.

### 6)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loproctology(SISCP 2012) 2012년 4월 7일부터 8일까지 2006년에 이어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loproctology가 열

렸다. 전체 12개국에서 973명(국내 870명, 국외 103명)이 참석하였으며 25편의 심포지엄이 발표되었다.

### 7) 5th Congress of Asia Pacific Enterostomal Therapy Nurse Association 2013년 9월 6일 제5차 아시아상처장루학회를 광개토홀에서 개최하였다. 전체 17개국에서 411명(국내 146명, 국외 265명)이 등록하여 심포지엄 4회, 구연 23편, 포스터 109편 등 총 149개의 연제를 발표하였다.

#### 8) 16th Congress of Asia 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

5th Congress of Eurasian Colorectal Technologies Association, 10th Congress of Asian Society of Stoma Rehabilitation, 3rd Asia South Pacific Ostomy Association 2017.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랜드위커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2. 발전 방안

학회의 세계화에 부응하여 아시아권은 물론 유럽·미주 지역과의 학술 교류를 정례화하여 우리의 발전 된 의료 지식을 전파하고, 또한 서구의 최신지견을 습득하는 기회를 회원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 Korea-Japan Symposium

#### The 65th Annual Meeting of the JSCP

일시 : 2010.11.26~27 장소 : 하마마쓰, 일본

향후 초청연자나 공동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함.

#### 제44차 학술대회

일시 : 2011.4.1~3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Colorectal Cancer Korea vs. Japan	좌장 : Kotaro Maeda / 김남규
How to treat a unresectable or marginally resectable liver	황대용(건국의대)
metastasis i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Korea vs. Japan	Keiichi Takahashi(Cancer and Infectious diseases center Komagome Hospital)
What is your treatment strategy in patients with rectal cancer (cT3N1, Rb; below the peritoneal reflection? AV 7 cm from the anal verge)? Korea vs. Japan	서광욱(아주의대)
	Yukihide Kanemitsu(Aichi Cancer Center)
What are therapeutic approaches for locally recurrent rectal cancer in pelvic cavity? Korea vs. Japan	김형록(전남의대)
	Takayuki Akasu(National Cancer Center Hospital)

#### The 66th Annual Meeting of the JSCP

시:2011.11.25~26 장소 : 호텔 뉴오타니, 도쿄

Standard operation for colorectal cancer	좌장 : Kotaro Maeda / 오승택
Right side colon cancer	이강영(연세의대)
Right side Colon Cancer	Hidetoshi Katsuno(Fujita Health University)
	김창남(을지의대)
Left side colon cancer	Gotaro Katsuno(Juntendo University, Urayasu Hospital)
Rectal cancer	강성범(서울의대)
Nectal Calicel	Junichiro Kawamura(Kyoto University)

#### 제45차 학술대회

일시 : 2012.4.6~8 장소 : 서울 코엑스

Management for Low Rectal Cancer	좌장 : Masahiko Watanabe / 이우용
Rectal cT1 Tumor (cT1NxM0)	정승용(서울의대)
Rectal C11 Tumor (C11NxW0)	Tadahiko Masaki(Kyorin University)
	이석환(경희의대)
Advanced Rectal Cancer (cT3N+M0)	Yojiro Hashiguchi(National Defense Medicine College)
Motostatic Deatal Compan but Deacetable (TanaNIMI)	김희철(성균관의대)
Metastatic Rectal Cancer, but Resectable (cTanyN+M1)	Michio Itabashi(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 The 67th Annual Meeting of the JSCP

일시 : 2012.11.16~17

장소: Hotel Nikko Fukuoka

Treatment strategy for recurrent colorectal cancer	좌장 : Kotaro Maeda / 오승택
Colorectal cancer liver metastases	신응진(순천향의대)
Strategy of liver metastases from colorectal cancer in Japan	Keiichi Takahashi(Cancer and Infectious diseases center Komagome Hospital)
Treatment Strategy for Recurrent Colorectal Cancer; Pulmonary Metastasis	엄준원(고려의대)
Treatment strategy for pulmonary metastases from colorectal cancer	Michio Itabashi(Tokyo Women's Medical University)
Treatment strategy for locally recurrent rectal cancer	오재환(국립암센터)
Operation for Locally Recurrent Rectal Cancer	Mitsugu Sekimoto(Osaka National Hospital)

#### 제46차 학술대회

일시 : 2013.4.5~7 장소 : 경주현대호텔

Current Issues and Debates for Rectal Cancer	좌장 : Yoshiharu Sakai / 서광욱
Locally Degreeant Doctal Concer after Local Evoicion	정승용(서울의대)
Locally Recurrent Rectal Cancer after Local Excision	Tadahiko Masaki(Kyorin University)
Locally, Advanged Deptal Concer	김희철(성균관의대)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Norio Saito(National Cancer Center Hospital East)
Advanced Rectal Cancer with Resectable Liver	이석환(경희의대)
Metastasis	Keiichi Takahashi(Tokyo Metropolitan Cancer and Infectious diseases center Komagome Hospital)

#### The 68th Annual Meeting of the JSCP

일시 : 2013.11.15~16 장소: Keio Plaza Hotel, Tokyo

Colitic Cancer Related to Ulcerative Colitis	좌장 : Hyeong-Rok Kim / Masato Kusunoki	
Session 1: Basic Research on Colitic Cancer		
Establish of human intestinal organoid culture system: Application to inflammation and cancer	Toshiro Sato(Keio University)	
Calprotectin as a marker in IBD progression	이령아(이화의대)	
Session 2: Surveillance and Diagnosis		
Surveillance for colorectal cancer in ulcerative colitis	Toshiaki Watanabe(The University of Tokyo)	
Colitic cancer related to ulcerative colitis: Surveillance and Diagnosis	이길연(경희의대)	
Session 3: Surgical Management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surgery for cancer associated with ulcerative colitis patients	Hiroki Ikeuchi(Hyogo College of Medicine)	
Surgical Management of Colitic Cancer Related to UC	유창식(울산의대)	

#### 제47차 학술대회

일시 : 2014.4.11~13 장소 : 무주리조트

Treatment Strategy for Metastatic and/ or Recurrent Colorectal Cancer	좌장 : Kotaro Maeda / 김형록
Session 1 : Colorectal Liver Metastasis	
Present state of the treatment strategy for liver metastases from colorectal cancer in Japan	Keiichi Takahashi(Tokyo Metropolitan Komagome Hospital)
Optimal Management of Colorectal Liver Metastasis(CRLM); Present and the Future	김익용(연세원주의대)
Session 2 : Peritoneal Carcinomatosis	
Peritoneal Metastasis from Colorectal Cancer: Multicenter Study	Hirotoshi Kobayashi(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Cytoredcutive Surgery with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for Peritoneal Carcinomtosis: Experience of one Institution	박동국(단국의대)
Session 3: Loco-regional Recurrence for Rectal Cancer	
Treatment strategy for intra-pelvic recurrence of rectal cancer	Tadahiko Masaki(Kyorin University)
Multimodal Surgical Approach for Pelvic Recurrence	김진(고려의대)

#### The 69th Annual Meeting of the JSCP

일시 : 2014.11.7~8

장소: The Yokohama Bay Hotel Tokyu

Diagnosis and Treatment of Anorectal Fistula	좌장 : Yasunobu Tsujinaka / 김형록
Session 1 : Complicated Anal Fistula	
Etiology and surgical treatment of posterior complex fistulas	Hiroyuki Kurihara(Tokorozawa proctologic hospital)
Evaluation & Treatment of Anal fistula	남우정(서울송도병원)
Session 2: Rectovaginal Fistula	
Long term outcomes of transvaginal anterior levatorplasty for intractable rectovaginal fistula	Koutaro Maeda(Fujita Health University)
Surgical treatment for rectovaginal fistula	이윤석(가톨릭의대)
Session 3: Crohn's Fistula	
Surgery for Perianal Crohn's Disease	Kitaro Futami(Fukuoka University)
Results of Treatment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박규주(서울의대)

#### 제48차 학술대회

일시 : 2015.4.11 장소 : 부산 롯데호텔

Management of Early Colorectal Cancer	좌장 : Kazuo Hase / 김형록	
Session 1: Transanal Excision & TEM for Early Rectal Cancer		
When is Transanal Surgery Appropriate and How is It Done for Early Rectal Cancer?	Kotaro Maeda(Fujita Health University)	
Transanal Excision & TEM for Early Rectal Cancer	이인규(가톨릭의대)	
Session 2 : Colonoscopic Resection & Limited Resection for Early Colon Cancer		
How to Perform Endoscopic Diagnosis and Treatment for Early Colorectal Neoplasia	Takeshi Nakajima(National Cancer Center Hospital)	
Colonoscopic Resection and Limited Resection for Colon Cancer	이석환(경희의대)	
Session 3: Radical Resection of Early Colorectal Cancer		
Treatment Strategies for Locally Excised pT1 CRC in Japan	Hideki Ueno(National Defense Medical College)	
Radical Resection of Early Colorectal Cancer; Indication, Options and Evidences	정승용(서울의대)	

#### The 70th Annual Meeting of the JSCP

일시 : 2015.11.13 장소: Nagoya, Japan

Minimally invasive surgery of colorectal cancer	좌장: 박규주 / Tadahiko Masaki
Session 1: Laparoscopic surgery	
Laparoscopic surgery for colorectal cancer in Japan: Results of clinical trials and clinical researches	Seiichiro Yamamoto(Hiratsuka City Hospital)
Laparoscopic Surgery for Colorectal Cancer: Settled vs. Unsettled Issues	강성범(서울의대)
Session 2: Single port surgery / NOTES	
Single port surgery / Minimally invasive Surgery	Ichiro Takemasa(Osaka Univ.)
Single port surgery and NOTES for Colorectal cancer	윤성현(성균관의대)
Session 3: Robotic surgery	
Robotic Rectal Cancer Surgery in Shizuoka Cancer Center	Yusuke Kinugasa(Shizuoka Cancer Center Hospital)
Current status of robotic surgery for colorectal cancer	최규석(경북의대)

#### International Colorectal R esearch Summit 2016 장소 : 세종컨벤션

일시 : 2016.9.4

Korea & Japan Joint Symposium	좌장 : Kotarou Maeda / 이두한	
Session 1 : Recent Updates of Benign Colonic Disease		
Medical treatment of intractable chronic constipation	Toshiki Mimura(Sashiogi Hospital)	
Surgical treatment of intractable chronic constipation	박규주(서울의대)	
Conservative management of acute diverticulitis	Kenji Tomizawa(Toranomon Hospital)	
Preventive strategy for diverticulitis recurrence	박형철(한림의대)	
Session 2: All about Fecal Incontinence		
Assessment	박덕훈(서울송도병원)	
Non-operative management	Toshiki Mimura (Sashiogi Hospital)	
Ventral rectopecxy	이두석(대항병원)	
Gracilioplasty	Kazuhiko Yoshioka(Kansai Medical Univ. )	
Sphincteroplasty	Tetsuo Yamana(Tokyo Yamate Medical Center)	

#### The 71st Annual Meeting of the JSCP

일시 : 2016.11.18 장소 : Mie, Japan

Korea-Japan Joint Symposium	좌장 : 耕太郎 / 이두한	
Session 1 : Recent updates of benign colon disease		
Conservative management and Sacral Neuromodulation for Fecal Incontinence	味村 俊樹(指扇病院 排便機能センター)	
Surgical Management of Intractable Constipation	박규주(서울의대)	
Conservative management of acute diverticulitis	富沢 賢治(虎の門病院 消化器外科)	
Duration of antibiotic treatment for right colonic uncomplicated diverticulitis	박형철(한림의대)	
Session 2 : All about fecal incontinence		
Medical treatment of intractable chronic constipation	味村 俊樹(指扇病院 排便機能センター)	
Assessment of Fecal Incontinence : debates or dilemmas	박덕훈(서울송도병원)	
Graciloplasty for fecal incontinence	吉岡 和彦(関西医科大学総合医療センター)	
Laparoscopic ventral rectopexy	이두석(대항병원)	
Sphincteroplasty: Does it Still Play a Role in the Treatment of Fecal Incontinence	山名 哲郎(東京山手メディカルセンター 大腸肛門 病センター)	

#### Korea-Lithuania Joint Symposium

#### 8th Triennial Meeting of the Lithuanian Society of Coloproctologists

First joint session of the Lithuanian Society of Coloproctologists and Korean Society of Coloprocotology	좌강 : Ho-Kyung Chun, Narimantas Evaldas Samalavicius
Management of locally advanced rectal cancer: How and when?	Seung - Kook Sohn (연세의대)
Full response after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for rectal cancer	Narimantas Evaldas Samalavicius(Vilnius Univ.)
Genome-wide discovery of the efficient colorectal cancer markers and targets	Jin Cheon Kim(울산의대)
Early results (2009-2012) of the Lithuanian colorectal cancer screening program	Tomas Poskus(Vilnius Univ.)
Results of treatment of anal Crohns disease	Kyu-Joo Park(서울의대)
National burden of colorectal cancer in Lithuania and country's ranking across 45 European nations	Raimundas Lunevicius(Liverpool, UK)
Second joint session of the Lithuanian Society of Coloproctologists and Korean Society of Coloprocotology	좌장 : Kwang Ho Kim, Tomas Poskus
Laparoscopic inter-sphincteric resection (ISR) for a very low lying rectal cancer	Hyeong-Rok Kim(전남의대)
Does coffee intake decreases postoperative ileus after elective laparoscopic colectomy? A single centre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Audrius Dulskas(Vilnius Univ.)
Consideration of proper ligation of nominated vessels on laparosopic right hemicolectomy with D3 lymphadenectomy for right sided colon cancer	Seung-Kyu Jeong(양병원)
Results of treatment of stage II-III of rectal cancer	Henrikas Pauzas(Lithuanian Univ.)
Validation of effectiveness of selective ileostomy after laparoscopic low anterior resection for rectal cancer	Gyu-Seong Choi(경북의대)
Elective colectomy after colonoscopic polypectomy for unexpected polypoid T1 cancer	Nikas Samuolis(Vilnius Univ.)

일시 : 2014.4.24~25

장소 : Vilnius, Lithuania

####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 2015

일시 : 2015.9.12~13 장소 : 세종컨벤션센터

Colorectal Cancer	좌장 : Tomas Poskus, Ho-Kyung Chun
Resection of Primary Tumor in Metastatic Incurable Colorectal Cancer	Narimantas Evaldas Samalavicius (National Cancer Institute)
Resection of Primary Tumor in Metastatic Incurable Colorectal Cancer: Korea Experience	허정욱(성균관의대)
The Functional Results of Radical Rectal Cancer Surgery	Audrius Dulskas(National Cancer Institute)
Robotic Total Mesorectal Excision (TME) for Rectal Cancer Surgery: Long-Term Result of Functional and Oncologic Outcomes	김진(고려의대)
Laparoscopic Hand-Assisted Surgery for Colorectal Cancer: The Lithuanian Experience	Narimantas Evaldas Samalavicius (National Cancer Institute)
Proctology & Endoscopy	좌장 : Narimantas Evaldas Samalavicius, Kyu Joo Park
Laser Haemorrhoidoplasty - A New Surgical Option for Hemorrhoids	Tomas Poskus(Vilnius Univ,)
Hemorrhoidectomy: Korea Experience	신현근(양병원)
Colonoscopic Perforations	Gintautas Radziunas(National Cancer Institute)
Serrated Polyps of the Colorectum	이은정(대항병원)
Perianal Anesthetic Infiltration in Minor Anorectal Surgery	Rimvydas Civilka(Ukmerge Regional Hospital)

#### 9th Triennial Meeting of the Lithua-nian Society of Colopro-ctologists

일시 : 2016.5.13

장소: ARTIS HOTEL, Vilnius, Lithuania

Part I	좌장 : Narimantas Evaldas Samalavicius, Ho-Kyung Chun	
Advantages of robotic approach in the surgical treatment of lower rectal cancer	Nam-Kyu Kim(연세의대)	
Local rectal cancer treatment: options and outcomes	Narimantas Evaldas Samalavicius (National Cancer Institute)	
MIS for CRC: evidence and issues	Sung-Bum Kang(서울의대)	
ESD in colorectal tumor	Eui-Gon Youk(대항병원)	

I	
Audrius Dulskas(National Cancer Institute)	
Ji-Yeon Kim(충남의대)	
좌장 : Audrius Dulskas, Jong Hun Kim	
김선희(전북의대)	
Tomas Poskus(Vilnius Univ.)	
박원철(원광의대)	
김형진(가톨릭 의대)	
Gintautas Radziunas(National Cancer Institute)	
박규주(서울의대)	

#### Fellowship with KSCP and ESCP

Europ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10th	일시 : 2015.9.22~25
Scientific & Annual Meeting 2015	장소 : Dublin, Ireland
The Prognostic Factors of Lymph Node Status in Colorectal Cancer Patient received Inadequate Lymph Node Evaluation; Factors of LN Harvest in Colorectal Cancer,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Surgical Quality Assessment Service	이인규(가톨릭의대)
International Colorectal	일시 : 2016.9.3~4
Research Summit 2016	장소 : 세종컨벤션센터, 서울
Do converted patients have a worse long-term oncologic outcome compared to primarily open and successful laparoscopically operated patients?	Edgar Furnée(University of Aarhus, Denmark)
Europ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11th	일시 : 2016.9.28~30
Scientific & Annual Meeting 2016	장소 : Milano, Italy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Learning Curve for Robotic Total Mesorectal Excision for Rectal Cancer: Lessons From a Single Surgeon's Experience	김혜진(경북의대)

# 03 연구회약사

### 1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1. 창립연도:** 2000년

#### 2. 창립목적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을 통해 지식과 기술 및 유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기술의 향상과 술식의 표준화를 이루며, 나아가서는 복강경 대장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연구하여 복강경 대장 수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

#### 3. 역대 회장단 명단

연도	회장	간사
2000.11~2009.06	김준기	정승규/김병천
2009.06~2013.06	김선한	이길연
2013.06~2015.04	최규석	이강영
2015.04~현재	김형록	김진

 연도	행사	 장소
2005.12.9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12차 수술 시연회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4층 대강당
2006.2.17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1차 비디오심포지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5층 대강당
2006.5.19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2차 비디오심포지엄 및 Live Surgery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5층 대강당
2006.7.14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3차 비디오심포지엄	순천향대 부천병원 별관 대강당
2006.9.1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4차 비디오심포지엄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4층 강당
2006.10.27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5차 비디오심포지엄	국립암센터 행정동 강당
2007.12.14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3차 비디오심포지엄	서울양병원 지하2층 세미나실
2008.6.27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10차 비디오 심포지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별관 미카엘홀
2008.12.19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11차 비디오심포지엄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강당
2009.6.12	제13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비디오심포지엄 및 '복강경대장수술' 출판기념회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의과학 연구원 1002호
2009.9.22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추계집담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강당
2010,2,26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
2010.6.25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2차 집담회	경희의료원 제1세미나실
2010.10.29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3차 집담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3층 제2강의실
2011,3,11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1차 집담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향설대강당
2011.5.2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개원기념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로봇대장암수술심포지엄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
2011.6.24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2차 집담회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별관 5층 대강당
2011,9,18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A Hands-On Cadaver Workshop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별관 3층 해부학실습실
2011.10.28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3차 집담회	경희대학병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
2012.2.24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1차 집담회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
2012.6.9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A Hands-On Cadaver Workshop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별관 3층 해부학실습실
2012.7.13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원주의과대학
2012.10.26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3차 집담회	양병원
2013,2,22	제1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3.6.29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A Hands-On Cadaver Workshop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관 5층 응용해부학 실습실

연도	행사	장소
2014.1.24	2014년 제1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2014.6.13	2014년 제2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원광대학교병원 외래 1관 4층 법당
2014.12.6	2014년 제3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
2015.4.24	2015년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지하1층 대강당
2015,11,27	2015년 제2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의학관 418호

#### 5. 향후 사업계획

그 동안의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표준화된 복강경대장수술 기법을 젊은 외과의에게 교육 전파하고, 더 나은 술기를 개발/발전 시키도록 노력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 또 이러한 세계수준의 수술기법을 바탕으로 전국단위 연구를 진행하고 유수의 학술 잡지에 발표하여 연구회 및 대장항문학회의 위상을 높인다.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서울대학교병원, 2012.2.24)

### 2 항암요법연구회

**1. 창립연도:** 2002년

#### 2. 창립목적

본 연구회의 목적은 대장암의 항암요법에 대한 연구와 지식의 교환,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있으며,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원에게 대장암의 항암요법의 최신 지견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 3. 역대 회장단 명단

연도	회장	간사
2002~2007	김영진	김흥대
2007~2009	오승택	김형진
2009~2011	서광욱	엄준원
2011~2015	이석환	조현민/이윤석
2016~현재	엄준원	이윤석

연도	행사	장소
2003,2,22	제1차 대장암의 항암요법 Consensus Conference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2003.10.04	제2차 대장암의 항암요법 Consensus Conference 및 대장암 진료권고안 발표회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2층 강당
2005,3,12	제3차 대장암 항암요법 심포지엄	부산 메리어트호텔
2006.3.11	대장암의 항암요법 심포지엄	부산 메리어트호텔
2007,3,10	대장암의 항암요법 심포지엄	제주 블랙스톤 리조트
2008.3.8	항암요법연구회 심포지엄	대구인터불고호텔
2010.11.13	대장암의 항암요법총서(개정판) 출판 기념식 및 정기 집담회	영남대학교병원 강당
2011.1.15	항암요법연구회 정기 집담회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5층 대강당
2011,08,27~28	항암요법연구회 심포지엄	부산 노보텔 호텔 그랜드볼룸 A,B
2011.11.5~6	항암요법 심포지엄	대구 노보텔
2012.24~5	항암요법 심포지엄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2012,6,9	제2차 항암요법 심포지엄	단국대 천안병원
2012.11.2	제4차 항암요법연구회 집담회	원광대학교병원 외래 1관 4층 법당

연도	행사	장소
2013.10,25~26	항암요법 심포지엄	경주 현대호텔
2014.2.28~3.1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2014.6.13~14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부산 웨스틴 조선
2014.10.25~26	항암요법 심포지엄	제주 나인브릿지GC
2015,2,27~28	항암요법 심포지엄	부산 웨스틴 조선
2015,8,28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롯데호텔
2015.9.11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인터콘테넨탈 호텔
2015,8,28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롯데호텔
2016,2,26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인터콘테넨탈 호텔
2016.7.8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인터콘테넨탈 호텔
2016.9.2~3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인터콘테넨탈 호텔
2016,8,18	항암요법 연구회 심포지엄	더 프라자 호텔

#### 5. **발표 논문 및 저술: 대장암의 항암요법(**항암요법연구회)



항암요법연구회 집담회(단국대학교병원, 2012.6.9)

### 3 장루연구회

**1. 창립연도:** 2002년

#### 2. 창립목적

본 연구회는 대장항문 질환의 수술로 인해 조성된 장루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장루환자들의 성공적인 일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장루와 관련된 연구와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역대 회장단 명단

연도	회장	간사
2002.10~2011.11	박응범	이석환/정순섭
2011.11-2015.4	손승국	정순섭
2015.4~현재	김광호	백승혁

연도	행사	장소
2013,2,21	장루연구회 1차 집담회	이화의대 동대문병원
2003.4.26	장루연구회 2차 집담회	전남대학교병원
2003.6.13	장루연구회 3차 집담회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2003.9.26	장루연구회 4차 집담회	국립암센터
2004.3.20	장루연구회 1차 집담회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2004.6.25	장루연구회 2차 집담회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2004.9.10	장루연구회 3차 집담회	한솔병원
2004.12.3	장루연구회 4차 집담회	삼성서울병원
2008,11,28	장루연구회 집담회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제2세미나실

연도	행사	장소
2009.9.26	장루연구회 집담회	전남대학교병원 5동 1층 강당
2010.9.4	장루집담회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
2011.11.19	2011 가을 장루 집담회	대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3층 M212호
2012.7.7	장루연구회 집담회	토지문화관
2014.6.28	2014년 대한대장항문학회 장루연구회 집담회	충주 건국대학교병원

#### 5. 향후 사업계획

대한대장항문학회 장루연구회는 창립목적에 준하여 수술로 인해 조성된 장루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장루환자들의 성공적인 일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장루와 관련된 연구와 학술행사를 개최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장루의 적응증, 조성 방법, 관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전국의 장루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 하며 장루 환자를 위한 장루연구회에 의한 출판물을 제작하여 환자들이 장루를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속적 장루 간담회 및 학술행사를 통하여 장루 전반에 관한 지식의 교환과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본 연구회의 활성화를 통한 제반 지식을 이용하여 장루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보건 복지 정책 입안에 참여한다.



장루연구회 집담회(구병원, 2015.2.7)



**1. 창립연도:** 2002년

#### 2. 창립목적

본 연구회는 비교적 희귀 질환이고 합병증 및 재발이 흔하며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의 선택이 어려운 염증성장질환(BD)에 대한 임상경험의 교류 및 교육, 표준치료 및 최신 경향 소개, 유관학회와의 관계 개선 및 공조, 그리고 다기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3. 역대 회장단 명단

연도	회장	간사
2002~2009.10	손승국	유창식
2009.10~2015.11	유창식	윤상남
2015.12~현재	이길연	윤용식

연도	행사	장소
2007.9.1	제1회 IBD연구회 Workshop	서울이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
2007.10.10	제2회 IBD연구회 Workshop	서울이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
2010,6.5	제3회 IBD연구회 Workshop	대전 을지대학병원 을지홀
2010,10,23	제4회 IBD연구회 Workshop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1층 강당
2011.10.15	제5회 IBD연구회 Workshop	서울이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
2012.6.16	제6회 IBD연구회 Workshop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
2014.6.14	제7회 IBD연구회 Workshop	서울이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

#### 5. 발표 논문 및 저술

발표연도	제목	제1저자	교신저자
2012	Risk factors for repeat abdominal surgery in Korean patients with Crohn's Disease: a multi-center study of a Korean Inflammatory Bowel Disease Study Group	이길연	유창식
2013	Characteristic phenotypes in Korean Crohn's disease patients who underwent intestinal surgery for the treatment	백승혁	유창식
2015	Surgical outcomes of Korean ulcerative colitis patients with and without colitis—associated cancer	윤용식	유창식
2015	The clinical features and predictivie risk factors for reoperation in patients with perianal Crohn's disease: a multi-center study of a Korean Inflammatory Bowel Disease Study Group	이재범	유창식

#### 6. 향후 사업계획

- 1) 염증성 장질환 수술의 표준화를 이루고 전국단위 연구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 2) 이를 위한 전국 단위 웹 DB 구축하여 다기관 연구의 기초를 형성한다.
- 3) 매년 심포지엄 및 워크샵 등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7회 IBD연구회 Worshop(서울아산병원, 2014.6.14)

### 5 항문질환연구회

**1. 창립연도:** 2004년

#### 2. 창립목적

본 연구회는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을 통해 지식과 기술 및 유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기술의 향상과 술식의 표준회를 이루며, 항문병 분야의 기초지식 및 수술 술식을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

#### 3. 역대 회장단 명단

연도	회장	간사
2004.10~2008.4	이종균	양형규/이동근
2008.4~2011.4	이동근	이두한
2011.4~2013.4	양형규	임석원
2013.4~2015.3	이두한	임석원/이재범
2015.4~현재	임석원	조동호

연도	행사	장소
2005.8.21	제1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006.9.2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아주대학교병원 지하1층 아주홀
2007.5.13	항문질환연구회 1차 심포지엄	송도병원
2007.9.2	항문질환연구회 2차 심포지엄	대항병원
2007.12.9	항문질환연구회 3차 심포지엄	한솔병원
2008,2,24	제6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서울 양병원 세미나실
2008.3.16	제1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08.5.18	제7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2008.7.6	제2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연도	행사	장소
2008.9.7	제8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2008.9.21	제3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해운대 한화리조트 3층 진주실
2008.12.8~9	항문질환연구회 Anal Fistula Plug 시연회	8일(대항병원), 9일(한솔병원)
2009.2.8	제9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2009.3.8	제4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09.5.31	제10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한림대학교 의료원 강동성심병원 본관 창조홀
2009.6.7	제5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호텔 무등파크 4층 다이아몬드홀
2009.9.6	제11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2009.9.27	제6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09.12.6	제12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0.1.10	제7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대구 파티마병원 3층 대강당
2010.2.7	제13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0.4.11	제14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0.6.6	제8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0.7.4	제15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0.9.5	제16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전남대학교병원
2010.11.14	제9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0.12.5	제17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1.3.6	제18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1.5.1	제10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1.5.29	제19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1.7.17	제11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대전 을지대학병원 2층 세미나실
2011.10.16	제20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1,11,13	제12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1.12.18	제21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2,3,11	제22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2.6.7	제23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2.10.21	제24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3.1.20	제25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3.12.1	제26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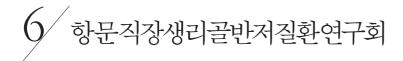
연도	행사	장소
2014.3.23	제27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4.7.20	제28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2014.11.30	제29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 5. 향후 사업계획

- 1) 전국 다기관 연구의 활성화
- 2) 항문질환의 근본적인 예방에 대한 연구
- 3)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
- 4) 연구회를 통한 임상 교육 강화
- 5) 타연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 활동



제23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1. 창립연도:** 2007년

#### 2. 창립목적

본 연구회의 목적은 항문직장생리 및 그 이상에 의한 질환과 골반저 질환에 관한 연구와 지식의 교환 및 연구위원 상호간의 친목에 있다.

#### 3. 역대 회장단 명단

연도	회장	간사
2007~2011.4	박웅채	황재관
2011.4~2015.3	이상전	황재관/남궁환
2015.4~현재	박덕훈	조선연

#### 4. 연도별 행사

연도	행사	장소
2007,8,24	항문직장생리 골반서질환연구회 제1차 집담회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별관 5층 강당
2010,12,17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집담회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2층 루이제홀
2011.10.22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정기집담회	영남대학교병원 이산대강당
2012,10,19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집담회	대항병원
2015,6,13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집담회	서울 송도병원 (메르스 영향으로 취소)
2015.9.11	Sacral Neuromodulation in Fecal Incontinence	잠실 롯데 호텔

#### 5. 발표 논문 및 저술

발표연도	제목	게재지	제1저자	교신저자
2007	Evaluation and treatment of pelvic floor disorders,	대한대장항문학회지 2007년 6월, 23권 3호 206-220p	이상전	이상전
2007	변실금 치료의 현재와 미래.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제 23권 2호	박덕훈	박덕훈
2013	long-term otucomes of artificial bowel sphincter for fecal incontine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american college of surgeons vol.217, No.4, october	홍광대	S.D. Wexner

2013	What is the best option for failed sphincter repair?	Colorectal disease 16, 298-303	홍광대	S.D. Wexner
2014	Suboptimal results after sphincteroplasty: another hazard of obesity.	Tech coloproctol 18:1055- 1059	홍광대	S. D. Wexner
2015	Redo sphincteroplasty: are the results sustainable?	Gastroenterology	홍광대	S. D. Wexner

#### 2007년 이전 논문

#### 1) 이상전, 이두한, 송영진, 최재운, 장이찬. '성별, 연령 및 생리주기에 따른 대장 통과시간의 변이'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제11권 1호 15-22, 1995년 3월

SJ Lee, DH Lee, YJ Song, JW Choi, LC Jang: Differences in colon transit time with gender, age and menstrual cycle, J Kor Colo-proctol Soc 1995;11(1):15-22.

#### 2) 이상전. 'Motility of the colon, rectum and anus'

대한소화관운동연구회지 제2권 1호 20-26, 1995년 11월

SJ Lee: Motility of the colon, rectum and anus. Korean Journal of Gastrointestinal Motility Study 1995;2(1):20-26.

#### 3) 이상전, 박진우, '질분만에 따른 음부신경 손상 및 그 회복 양상'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제13권 1호 63-69, 1997년 3월

SJ Lee, JW Park: Pudendal nerve damage and its recovery in vaginal delivery. J Kor Colo-proctol Soc 1997;13(1):63-9.

#### 4) 이상전. '항문직장 생리검사의 임상적 활용'

대한의사협회지 제40권 7호 886-893, 1997년 7월

SJ Lee: Clinical applications of anorectal physiologic laboratory. JKMA 1997;40(7):886-893.

#### 5) S.-J. Lee, Y.-S. Park. 'Serial evaluation of anorectal function following low anterior resection of the rectum' Int J Colorect Dis 1998:13(5):241-246 (SCI)

#### 6) 안광우, 이상전, 박진우, '산과적 손상에 의한 변실금에 대한 괄약근 복원술'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제15권 1호 9-19, 1999년 3월

KW Ahn, SJ Lee, JW Park: Sphincter repair for fecal incontinence after obstetric injury. J Kor Soc Coloproctol 1999;15(1):9–19.

#### 7) SJ Lee, JW Park. 'Follow-up evaluation of the effect of vaginal delivery on the pelvic floor (Abstract)' Dis Colon Rectum 1999;42(4):A52 1999년 4월 (SCI)

#### 8) 이상전 '직장류의 경질적 교정술'

충북의대학술지 제9권 1호 79-87, 1999년 6월

SJ Lee. Transvaginal repair of rectocele. Chungbuk J Med 1999;9(1):79-87.

9) Sang-Jeon Lee, Jin-Woo Park. 'Follow-up evaluation of the effect of vaginal delivery on the pelvic floor' Dis Colon Rectum 2000;43(11):1550-5.

#### 10) 이상전. '변실금에서 비수술적 요법 및 생체되먹임 훈련'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제17권 부록 # 62-70, 2001년 6월

SJ Lee. Nonoperative therapy and biofeedback in fecal incontinence. J Kor Soc Coloproctol 2001;17(Suppl, II): 62–70.

#### 11) 이상전, '항문내압검사'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제18권 부록 II호 34-40, 2002년 6월

SJ Lee, Anal Manometry. J Kor Soc Coloproctol 2002;17(Suppl. II): 34-40.

#### 12) 이상전. '산과적 변실금에서 괄약근전방복원술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대장항문학회지 21권 5호 279-285, 2005년 10월

Sang—Jeon Lee, Predictors of Outcome Following Anterior Sphincter Repair in Obstetric Fecal Incontinence, J Korean Soc Coloproctol 2005;21:279—85.

#### 13) 이상전 '대장운동 이상 질환'

대한대장항문학회지 21권 5호 337-352, 2005년 10월

Sang-Jeon Lee, Motility Disorders of the Colon, J Korean Soc Coloproctol 2005;21: 337-52,

#### 14) 박덕훈. '출구 폐쇄형 배변 장애의 성별에 다른 차이점 – 배변조영술 1,513예의 분석'

대한대장항문학회 vol.18, No2 73-82, 2002년 4월

#### 15) 박덕훈. '회음부 손상에 의한 변실금 환자에서 해부학적 복원 수술의 결과 및 수술전 예측인자'

대한대장항문학회 vol.18, No.4 222-228, 2002년 8월

#### 16) 박덕훈. 'comparison study between electrogalvanic stimulation and local injection therapy in levator ani syndrome

international journal of colorectal disease vol. 20, 272-276, 2005년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정기집담회(영남대학교병원 이산대강당, 2011.10.22)

### 7/대장내시경연구회

**1. 창립연도:** 2007년

#### 2. 창립목적

본 연구회는 정기적인 모임과 연구 활동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장내시경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역대 회장단 명단

연도	회장	간사
2007~2011.4	김현식	손대경/홍창원
2011.4~2013.12	정승용	홍창원/문상희
2014.1~현재	육의곤	이성대

연도	행사	장소
2007.10.9	대장내시경연구회 창립기념 및 집담회	송도병원 7층 회의실
2009,2,22	대장내시경연구회 집담회	송도병원 7층 회의실
2010.9.12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2011.9.4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2012.9.2	대장내시경연구회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2014.1.19	2014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2014.4.13	대장내시경 심포지엄	무주리조트
2014.11.19	2014년도 대장내시경연구회 집담회	대항병원 지하1층 대강당
2015,1,18	2015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2015.4.12	대장내시경 심포지엄	부산 롯데호텔
2015,11,21	대장내시경연구회 집담회	전북대학교병원
2016.1.24	2016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 대장내시경 전문의 관련

연도	장소
2008.11.24	제1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2009.12.24	제2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2011,11,28	제3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2013,11,6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2013,11,6	제4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2014.2.28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갱신 시행

연도	장소
2014.3.1	2014년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2015.2.4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2015,2,27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갱신 시행
2015,3,1	2015년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2015,3,25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2015.11.5	2016년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 5. 발표 논문 및 저술

연도	제목	제1저자
2010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olorectal carcinoid tumors	이재범
2012	A survey of colonoscopic surveillance after polypectomy	손대경

#### 6. 향후 사업계획

양질의 대장내시경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세부지침을 규정하고, 수련의 프로그램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장내시경 전문의의 자격 유지와 대장내시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평점 관리와 폭넓은 연수강좌 등을 기획하고 제공하여 최신 지견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대장내시경 연수강좌(2012.9.2)

### 8 대장암연구회

**1. 창립연도:** 2010년

#### 2. 창립목적

본 연구회는 대장암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하여, 대장암 치료를 위한 최신지견을 교환하고, 임상연구의 활성회를 통하여 한국의 실정을 고려한 최선의 대장암 치료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역대 회장단 명단

연도	회장	간사
2010.7.9~2014.8	이봉화	김희철
2014.9~현재	김남규	민병소

연도	행사	장소
2010,7,9	대장암연구회 창립식 및 집담회	신촌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1호
2010.12.10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1호
2011.12.9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서울성모병원
2012.7.6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서울아산병원
2012.12.7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대강당
2013.12.6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중앙보훈병원
2015.1.30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2015,3,6	대장암연구회 증례토론회	세브란스병원 6층 세미나실
2015.12.4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국립암센터 행정동 지하 1층 강당
2016. 3. 4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실
2016. 5. 27	대장암연구회 증례토론회	원주기독병원

#### 5. 발표 논문 및 저술

발표연도	제목	제1저자	교신저자
2013	Characteristics and survival of Korean anal cancer from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data	박형철	이봉화
2013	Data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survival of Korean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from the Korea Central Cancer Registry	박형철	이봉화

#### 6. 향후 사업계획

양질의 대장내시경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세부지침을 규정하고, 수련의 프로그램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장내시경 전문의의 자격 유지와 대장내시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평점 관리와 폭넓은 연수강좌 등을 기획하고 제공하여 최신 지견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대장암연구회 창립식 및 제1회 집담회(세브란스병원, 2010.7.9)

# O4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제도의 발전



**김영진** (전남의대)

외과의 세부전문의 제도는 학문적으로는 의학 지식의 팽창과 외과학의 발전으로 의학의 세분화 경향이 생기고 의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첨단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새로운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의 습득과 수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민들이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서비스의 요구가 중가하고, 의료산업 측면에서의 의료관광과 현실적으로 이미 교육기관에서 분과 수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외과학회는 1997년 대한외과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4.4%의 찬성을 보여 2000년 외과학회장이 추진의사를 밝히고 2001년 12월 외과학회 내에 세부전문의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는데 대장항문학회와 유방암학회, 위암학회, 외과내시경학회 등의 필요성에 찬성한 학회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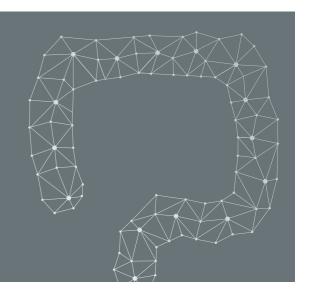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외과학회의 세부전문의 추진에 앞서 1996년 7월 '대 장항문병 전문화를 위한 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그해 12월 제29차 추계 학술대회에서 회원 대부분이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제도의 시행이 적절하 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1997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대장항문외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회칙이 통과하였고, 대한의학회에 인증을 신청하였고, 의학회에서 외과학회에 의견을 물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 의학회는 '전문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 대장항문외과 의사라는 명칭으로 1997년 12월 서류심사를 통해 81명에게 대장항문외과 의사 자격 인정증을 발부하였다.

대한의학회에서도 2001년 8월 '세부전공 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하여' 지침을 발표하였고,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 규정'(Medical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 for Medical Subspecialty Board Certification) 규정'을 확정하였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대한대장항문학회는 10여 차례의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추진위원회(손승국, 김영진, 박웅채, 황대용, 오승택, 강중구, 윤서구, 이두한)를 개최하여 내과의 세부전문의 제도와 일본의 대장항문 세부전문의 규정 등을 참조하여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시행규정'과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정',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2002년 1월 20일에 '제1차 대장항문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 자격시험'을 거쳐 1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그 후 외과학회 차원의 외과 세부전문의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7년과 2008년 세분전문분과학회와의 세부분과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과의 세부전문분과위원회에서 6차의 추진회의를 거쳐 2011년 9월 22일 외과학회 이사회의 추인을 받게 되었다. 외과학회는 2009년도 간담췌, 대장항문, 복강경, 소아, 위장관, 유방, 임상종양, 혈관, 화상, 이식 등 10개의 세부전문의를 추진하였으나 대한의학회로부터 의학회의 회원학회로 인정된 전문 분야만 해당된다는 문제와 다른 학회나 분야와 겹치는 부분 등의 문제로 우선 간담췌외과 분과, 대장항문외과 분과, 소아외과 분과, 위장관외과 분과 등 4개의 분과세부전문의제도라도 우선 출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2013년 서류심사를 거쳐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157명을 포함한 4개의 분과 세부전문의 536명을 배출하게 되었다. 그 후 유방질환외과 세부전문의 제도가 의학회의 인증을 받았고, 혈관외과 분과전문의 제도가 외과학회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수술하는 로봇의 시대에 대장항문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들이 전문화된 지식과 술기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앞서 가는 대장항문분과 전문의로서 더욱 대접받는 미래를 그리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

### 05 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 대장암의식 향상과 학회 홍보를 위한 발자취





**유창식** (울산의대)

2016년 아홉 번째 골드리본 캠페인을 마치고 우리는 2017년 학회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마침 골드리본 캠페인도 10회를 맞이하게 되어 내년에는 아마도 성대한 행사가 준비되리라 기대해 본다.

역대 섭외홍보위원장 중에서 네 번에 걸쳐 캠페인을 준비했던 '업(?)'으로 50주년 기념사 발간에 원고 청탁을 받아 놓고 수개월을 미루다 코발트빛 가을 하늘이 좋은 10월의 어느 좋은 날에 비로소 펜을 들게 되었다.

2007년 당시 학회 이사장이셨던 전호경 선생님이 학회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대장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시어 '제1회 대장앎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자그마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처음으로 학회에서 대단위기자간담회를 비롯한 언론 활동, 홍보 대행사를 선정하여 MTV 콘서트 및 연예인 홍보대사 위촉, 수기 공모 등 다양한 활동으로 대장암 치료에 있어대장항문학회가 가장 중심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많은 회원과 예산이 동원되었고, 첫 행사를 멋지게 치렀으나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효율성이 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8년 같은 집행부가 예산 부족 및 캠페인 지속 개최에 대한 이견으로

한 해 동안 캠페인이 열리지 못했다.

2009년 김남규 이사장은 캠페인이 학회 홍보에 매우 중요한 행사라는 점을 역설하며 필자를 독려했다. 섭외홍보위원회는 '제2회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이라 명칭을 바꾸고 '대장암, 바로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과 골드리본 배지를 약간 디자인을 변경하여 배포하고 회원들이 착용하게 하면서 캠페인의 identity 향상을 도모했다. 병원 내의 다른 의료진들이 가운에 부착된 배지를 보며 예쁜 디자인 덕에 부러워했고, 진짜 금으로 만들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국제학회에서도 해외 의학자들이 호기심을 보이며 몇 개씩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흔해졌다.



또한 캠페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의 51개 병원에서 9월에 집중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언론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해야 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급하게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의 10년간 수술 자료를 분석해 '우리나라 대장암의 명과 암'이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하고 '대장암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등 다소 자극적인 copy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홍보 전략은 이후로 캠페인의 성공적 정착에 가장 중요한 비결로 작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전국의 주요 병원에서는 9월이면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대장암 건강강좌를 정기 개최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대한암협회와 캠페인을 공동으로 주최하자는 정책 결정이 있어 더욱 홍보가 힘을 받게 되었으며 유방암 핑크리본 캠페인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암 캠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해 '대장암 완치 프로젝트'라는 대장암에 대한 건강 서적을 학회 회원 40여 명이 집필해 출간했으며,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아직도 이 부문 스테디셀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후원사 발굴이 항상 큰 걸림돌이었으나 2011년 4회 행사 때는 농협의 365운동본부가 힘을 보태어 대장암에 좋은 오색 과일, 야채 등을 선정해 홍보하기도 했다.

2012년 5회 캠페인에는 용종 유병률을 분석해 그 위험도를 알리고 '1, 3, 5 추적검사법'이라는 학회의 대장용종 추적검사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그 이후로도 매년 골드리본 캠페인을 통한 대장암 관련이슈들을 생산해내었는데 2013년에는 대장암과 변비와의 관계, 2014년 복부비만과 대장암, 2015년에는 한국인의 배변습관, 2016년에는 한국인의 장 건강 및 생활습관 등 다양한 주제로 대장암에 대한 경각심고취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학회의 여러 위원회들도 각자의 역할을 위해 엄청나게 바쁜 회원들이 모여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다. 사실 캠페인 이전에는 홍보위원회가 따로 없었고, 이 캠페인의 시작과 함께 학회 내에 신설돼 어느 위원 회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봄에 시작되는 골드리본 캠페인의 준비는 여름 내내 거의 매주 모여 캠페인 성공 전략을 토의하고 준비하며 무더위를 잊고 지낼 정도이다.

이러한 위원들의 열정에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 모든 회원과 회원 병원들의 동참 등이 어우러져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년에 10회 골드리본 캠페인을 비롯하여 향후 우리 학회의 홍보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라도 이 행사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항구적인 관심과 현행 법의 테두리 안 에서 후원 기업들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가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 생각한다.

#### |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행사 리스트(2007~2016) |

회차	주제	건강강좌 개최 수	주요 행사 일정	홍보대사
1회 2007,9,8	대장암,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세요.	_	1. 제1회 대장암의 날 수기공모전 2. 대장암 환자 대상 설문조사 3. 기자간담회 4. 제1회 대장암의 날 행사 • 대장항문 전문 의료진의 문진 및 대장 검사 • 대장항문 전문 의료진과의 건강상담 • 대형 대장 모형 전시 및 체험 • 대장 건강에 좋은 요구르트 만들기 및 요가교실 •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놀이기구 포토존 •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MTV 콘서트	김승환(연예인)
2회 2009. 10.19~23	대장암 바로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대장암 조기 발견의 열쇠, 대장내시경	51	<ol> <li>제2회 골드리본 캠페인 고지</li> <li>캠페인 홍보대사 봉중근 위촉</li> <li>기자간담회</li> <li>사진 행사</li> <li>전국 51개 병원 건강 강좌</li> </ol>	봉중근( 야구선수)
3호 2010. 9.1~10.14	조기 발견으로 대장암 이기게 하는 생활 속 3대 골든타임(Golden time)!	53	1. 기자간담회 2. 전국 53개 병원 건강 강좌 3. 일반인 대장암 인식 조사 및 대장내시경 검진권 추첨	이희대(강남세브란스 외과 교수)
4회 2011. 9.1~30	5! Happy Day 대장암 5년 생존, 완치의 행복한 기쁨	64	1. 기자간담회 2. 홍보대사 위촉 3. 대장암 건강 강좌 이벤트 • 대장암 완치 경험담 • 엔터테인먼트 공연 • 행운권 추첨 • 상담존 4. 전국 64개 병원 무료 건강강좌	최인선 (전 프로농구 감독)

회차	주제	건강강좌 개최 수	주요 행사 일정	홍보대사
5호  2012. 9.3~10.11	대장암의 씨앗-용종, 대장내시경으로 조기 진단하세요	68	1. 기자간담회 2. 전국 64개 병원 무료 건강강좌	_
6회 2013. 9.4~30	대장의 독(毒) 변비, 내 몸의 독(毒) 대장암	60	1. 대규모 환자 데이터 분석 2. 기자간담회 및 언론 홍보 3. 전국 60여 개 병원 무료 건강강좌 4. 외국인 노동자 대장내시경 검진	-
7호  2014. 9.1~30	러브핸들을 잡으면, 대장암이 잡힌다	65	<ol> <li>캠페인 개최</li> <li>보도자료 배포</li> <li>청계광장에서 사진 행사, 시민 행사</li> <li>인터뷰 기사, TV뉴스 인터뷰 전문가 조언 등을 소개</li> <li>캠페인 론칭 행사 프로그램         <ul> <li>사진 행사</li> <li>골드리본 룰렛 게임</li> <li>대장건강 문진 및 인바디, 허리둘레 측정</li> </ul> </li> <li>전국 64개 병원 무료 건강강좌</li> </ol>	-
8호  2015. 9.1~30	한국인의 화장실	60	1. 대국민 설문조사 2. 인포그래픽스 제작 및 언론 홍보 3. 전국 60개 병원 무료 건강강좌	_
9호  2016. 9.1~31	한국인의 장 건강	56	1. 설문 조사 2. 인포그래픽스 제작 및 언론 홍보 3. 전국 56개 병원 무료 건강강좌	-



#### (2007~2016)



제1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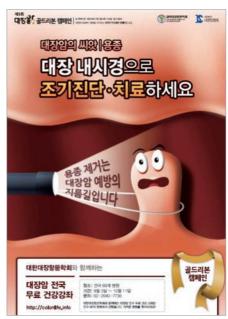
제2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09)



제3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10)



제4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11)



제5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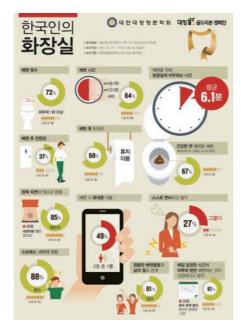
제6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13)



제7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14)



제8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15)



제8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15. 인포그래픽스)



제9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2016. 인포그래픽스)



# 부록

- 1.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칙
- 2. 역대 임원 명단
- 3. 역대 공로상 수상자
- 4. 연표
- 5. 회원 수 추이
- 6. 학회 제작 간행물 및 학회 로고·엠블럼
- 7. 학회 사무실







# 01

##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칙

**제정** 1968년 4월 20일

개정 1985년 12월 7일 1991년 12월 6일 1994년 5월 31일 1994년 12월 10일 1997년 12월 6일 1998년 11월 28일 2000년 11월 25일 2001년 11월 3일 2003년 11월 29일 2005년 4월 9일 2010년 3월 20일 2014년 4월 12일 2015년 4월 11일

#### ▮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목적및사업 │

제 3 조 본회는 대장항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본회는 제 3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 2. 학회지 및 학술도서 간행
- 3. 관련학회 및 협회와의 연락 및 제휴
- 4. 대장항문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자료수집, 연구 및 조사
- 5.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 7. 기타 대장항문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장 회원및구성│

#### 제 5 조 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평생회원 :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납부한 자 (단, 65세 이상의 평생회원은 본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면제한다.)
- 2. 정회원:
  - 가. 대한의학회 산하의 각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와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 나. 대한민국 의사로서 본 학회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 3. 준 회 원 : 대한민국 의사 또는 장루관리에 종사하는 간호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와 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 된 자
- 4.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 및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5. 찬조회원 :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액의 찬조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제 6 조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회비는 납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연속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원자격의 재취득을 원할 시에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이 부활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본회에 대하여 재산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

#### 제 9 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 1. 명예 회장 1명
- 2. 회장단: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제1부회장 1명, 제2부회장 1명
- 3. 이사장 1명
- 4.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무임소 상임이사 약간 명)
- 5. 이사 (정회원수의 10% 내외)
- 6. 감사 2명
- 7. 총무 1명, 부총무 2명

#### 제 10 조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명예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년 1회의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총괄한다.
- 3.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또한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4.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 회장 유고시 제1부회장이 차기회장직을 승계한다.
- 5.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재정 및 예결산을 수립 및 관리한다. 또한 전임 임원의 출석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6. 이사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며 1년 미만인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 7. 회장단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임원선출 시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 8.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겸한다.
- 9. 무임소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본회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10.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11. 총무는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 11조 임원의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차기 회장단 및 차기 이사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 후 전체 이사회 및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각 위원회 위원장과 무임소 상임이사, 이사, 및 총무는 이사장이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 12 조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단, 유고시 승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단임으로 한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단임으로 한다. 단, 유고시 승계자는 연임이 가능하다.
  - 3.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나 총 6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편집, 보험 위원회 상임이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4. 여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 ▮제5장 총회│

- 제 13 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학술대회에서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14 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5 조 정기 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인준한다.
  - 1. 제9조의 임원선출
  - 2. 회칙개정 및 본회 산회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 ▮제6장 이사회│

- 제 17 조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성한다.
- 제 18 조 전체 이사회는 년 1회 이사장이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의 요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재적 이사 과반수로 성원이 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2.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 각 위원회의 위원장, 무임소 상임이사 및 총무로 한다.
  - 3. 상임이사회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체 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전체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9 조 이사회는 역대 회장 및 이사장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며 자문위원으로부터 회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 20 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3.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 4.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 5. 회장단. 이사장의 인준
  - 6. 제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심의
  - 7. 기타 본회 운영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및 이사회에 위촉된 사항
- 제 21 조 정기회의는 10일전, 임시회의는 5일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2 조 이사회의 의사는 총무가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그 회의록은 차기 전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위원회 │

- 제 23 조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 제 24 조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1. 기획위원회
  - 2. 재정위원회
  - 3. 학술위원회
  - 4. 편집위원회
  - 5. 정보기술위원회
  - 6. 국제위원회
  - 7. 건강보험위원회
  - 8. 교육수련위원회
  - 9. 의무윤리위원회

- 10. 법제위원회
- 11. 고시위원회
- 12. 섭외홍보위원회
- 13. 내시경관리위원회
- 14. 진료권고안위원회
- 제 25 조 특별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 위원의 수, 선출방법과 임기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26 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 결정사항을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상의하고 각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종료되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학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8 장 재정 및 경리 │

- 제 27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8 조 본 회의 수지결산은 연도 폐쇄 후 감사를 거쳐 차기 전체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9 조 본 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 ▮제9장 부칙│

- 제 30 조 본 회의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라 한다.
- 제 31 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32 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출석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역대 임원 명단

### 1/역대 회장 명단



**진병호** (제1~5대, 1968~72)



**박길수** (제6~7대, 1973~74)



**김광연** (제8~9대, 1975~76)



**이인희** (제10~11대, 1977~78)



나도헌 (제12~13대, 1979~80)



이용각(제14대, 1981)



김학윤(제15대, 1982)



**장선택**(제16대, 1983)



김수태(제17대, 1984)





강중신(제18대, 1985)



김진복(제19대, 1986)



**손기섭**(제20대, 1987)



**이찬영**(제21대, 1988)



조영국(제22대, 1989)



원치규(제23대, 1990)



황일우(제24대, 1991)



이경식(제25대, 1992)



문상은(제26대, 1993)



전규영(제27대, 1994)



김세민(제28대, 1995)



유 희(제29대, 1996)

### 역대 회장 명단



민진식(제30대, 1997)



우제홍(제31대, 1998)



박응범(제32대, 1999)



황용(제33대, 2000)



전수한(제34대, 2001)



문**홍영**(제35대, 2002)



박재갑(제36대, 2003)



심민철(제37대, 2004)



손승국(제38대, 2005)





이종균(제39대, 2006)



배옥석(제40대, 2007)



오남건(제41대, 2008)



한원곤(제42대, 2009)



김영진(제43대, 2010)



이동근(제44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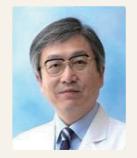
전호경(제45대, 2012)



김종훈(제46대, 2013)



김진천(제47대, 2014)



김남규(제48대, 2015)



이두한(제49대, 2016)

## 2/역대 이사장 명단



박<mark>길수</mark> (1968~72, 1975~76)



김광연 (1973~74, 1977~88)



전규영(1989~90)



우제홍(1991~92)



박응범(1993~94)



윤 충(1995~96)



박재갑(1997~98)



심민철(1999~2000)



손승국(2001~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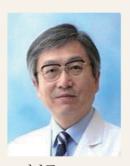
이봉화(2003~2004)



한원곤(2005~2006)



전호경(2007~2008)



김남규(2009~2010)



오승택(2011~2012)



김광호(2013~14)



박규주(2015~2016)

# 3/ 역대 임원 명단(1967~2015년)

위원회명			성명(	 소속)		
임기	1968.4~1972.11	1972.12~1974.11	1974.12~1976.11	1976.12~1978.11	1978.12~1980.11	1980.12~1981.11
회장	진병호(서울의대)	박길수(서울의대)	김광연(고려병원)	이인희(고려의대)	나도헌(국립의료원)	이용각(성남중앙병원)
차기회장						김학윤(전남의대)
부회장	김광연*(고려병원)	김광연(고려병원)	이인희(고려의대)	나도헌(국립의료원)	장선택(중앙의대)	장선택(중앙의대)
임기						1981.12~1982.11
회장						김학윤(전남의대)
차기회장						장선택(중앙의대)
부회장						김수태(서울의대)
임기	1968.4~1972.11	1972.12~1974.11	1974.12~1976.11	1976.12~1978.11	1978.12~1980.11	1980.12~1982.11
이사장	박길수(서울의대)	김광연(고려병원)	박길수(서울의대)	김광연(고려병원)	김광연(고려병원)	김광연(고려병원)
심사이사	장선택(성심병원)	장선택(성심병원)	장선택(성심병원)	장선택(성심병원)	김진복(서울의대)	김진복(서울의대)
학술이사	이인희(우석의대)	이인희(우석의대)	나도헌(국립의료원)	박길수(서울의대)	김수태(서울의대)	전규영(한양의대)
재정이사	이관윤(이관윤병원)	이관윤(이관윤병원)	이관윤(이관윤병원)	이관윤(이관윤병원)	이관윤(이관윤병원)	유희(순천향의대)
감사	이동식(경북의대) 박용철(이화의대)	이동식(경북의대) 박용철(이화의대)	홍성국(서울의대) 최용만(이화의대) 황의호(연세의대)	홍성국(서울의대) 최용만(이화의대) 황의호(연세의대)	홍성국(서울의대) 최용만(이화의대) 황의호(연세의대)	윤충(경희의대) 홍성국(서울의대)
총무이사	김진복(서울의대)	김진복(서울의대)	김진복(서울의대)	김진복(서울의대)	박용철(경희의대)	박용철(경희의대)
총무					우제홍(국립의료원)	우제홍(국립의료원)
비고	*김광연 1972년 진병호 회장 작고, 김광연 부회장이 회장잔여임기 위임				심사이사 김진복(서울의대), 주상용(가톨릭의대) 학술이사 김수태(서울의대), 전규영한양의대) 재정이사 이관윤(이관윤병원), 황정용(고려의대) 총무이사 박용철(경희의대), 이경식(연세의대)	심사이사 김진복(서울의대), 주상용(가톨릭의대), 황일우(경북의대) 학술이사 전규영(한양의대), 황정용(고려의대), 최용만(이화의대) 재정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이관윤(이관윤병원), 이종탁(남일의원) 총무이사 박용철(경희의대), 민진식(연세의대), 이혁상(인제의대)

위원회명				
 임기	1982.12~1983.11	1984.12~1985.11	1985.12~1986.11	1987.12~1988.11
회장	장선택(성심병원)	강중신(계명의대)	김진복(서울의대)	이찬영(국립의료원)
차기회장	김수태(서울의대)	김진복(서울의대)	손기섭(충남의대)	조영국(전남의대)
부회장	강중신(계명의대)	박용철(삼일병원)	박용철(삼일병원)	황일우(경북의대)
임기	1983.12~1984.11		1986.12~1987.11	
회장	김수태(서울의대)		손기섭(충남의대)	
차기회장	강중신(계명의대)		이찬영(국립의료원)	
부회장	김진복(서울의대)		황일우(경북의대)	
임기	1982.12~1984.11	1984.12~1985.11	1985.12~1987.11	1987.12~1988.11
이사장	김광연(고려병원)	김광연(고려병원)	김광연(고려병원)	김광연(고려병원)
심사이사	김진복(서울의대)	주상용(가톨릭의대)	주상용(가톨릭의대)	주상용(가톨릭의대)
학술이사	전규영(한양의대)	전규영(한양의대)	전규영(한양의대)	전규영(한양의대)
재정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유희(순천향의대)	유희(순천향의대)	유희(순천향의대)
감사	윤충(경희의대) 홍성국(서울의대)	윤충(경희의대) 박재갑(서울의대) 이승규(고려의대) 전수한(경북의대)	윤충(경희의대) 박재갑(서울의대) 이승규(고려의대) 전수한(경북의대)	윤충(경희의대) 박재갑(서울의대) 이승규(고려의대) 전수한(경북의대)
총무이사	박용철(경희의대)	민진식(연세의대)	민진식(연세의대)	민진식(연세의대)
총무	우제홍(국립의료원)	이봉화(국립의료원)	이봉화(국립의료원)	이봉화(국립의료원)
비고	심사이사 김진복(서울의대), 주상용(가톨릭의대), 황일우(경북의대), 이찬영(국립의료원), 강남부(전북의대) 학술이사 전규영(한양의대), 황정용(고려의대), 최용만(이화의대), 최원(전남의대), 문상은(부산의대) 재정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이관윤(이관윤병원), 이종탁(남일의원) 총무이사 박용철(경희의대), 민진식(연세의대), 이혁상(인제의대), 원치규(한양의대), 손기섭(충남의대)	심사이사 주상용(가톨릭의대), 황일우(경북의대), 이찬영(국립의료원), 강남부(전북의대), 우제홍(국립의료원) 학술이사 전규영(한양의대), 홍성국(서울의대), 황정용(고려의대), 최용만(이화의대), 최원(전남의대), 문상은(부산의대) 재정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이관윤(이관윤병원), 이종탁(남일의원) 총무이사 민진식(연세의대), 이혁상(인제의대), 원치규(한양의대), 손기섭(충남의대)	심사이사 주상용(가톨릭의대), 황일우(경북의대), 이찬영국립의료원), 강남부(전북의대), 우제홍(국립의료원) 학술이사 전규영(한양의대), 홍성국(서울의대), 최용만(이화의대), 최원(전남의대), 보상은(부산의대) 재정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이관윤(이관윤병원), 이종탁(남일의원) 총무이사 민진식(연세의대), 인혁상(인제의대), 원치규(한양의대)	심사이사 주상용(가톨릭의대), 강남부(전북의대), 우제홍(국립의료원) 학술이사 전규영(한양의대), 홍성국(서울의대), 황정용(고려의대), 최용만(이화의대), 최원(전남의대), 문상은(부산의대) 재정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이관윤(이관윤병원), 이종탁(남일의원) 총무이사 민진식(연세의대), 이혁상(인제의대), 원치규(한양의대)

위원회명		성명(소속)	
임기	1988.12~1989.11	1990.12~1991.11	1992.12~1993.11
회장	조영국(전남의대)	황일우(경북의대)	문상은(부산의대)
차기회장	원치규(한양의대)	이경식(연세의대)	전규영(한양의대)
부회장	황일우(경북의대)	홍성국(서울의대)	김세민(고려의대)
임기	1989.12~1990.11	1991.12~1992.11	
회장	원치규(한양의대)	이경식(연세의대)	
차기회장	황일우(경북의대)	문상은(부산의대)	
부회장		전규영(한양의대)	
임기	1988.12~1990.11	1990.12~1992.11	1992.12~1993.11
이사장	전규영(한양의대)	우제홍(국립의료원)	박응범(이화의대)
심사이사	주상용(가톨릭의대)	박응범(이화의대)	문홍영(고려의대)
학술이사	우제홍(국립의료원)	박재갑(서울의대)	심민철(영남의대)
재정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최경달(중앙외과의원)	김한선(적십자병원)
보험이사			박재갑(서울의대)
기획위원회			이윤우(이윤우외과)
감사	이봉화(국립의료원), 이기형(경희의대)	권성준(한양의대)	이봉화(국립의료원)
총무이사	민진식(연세의대)	이혁상(인제의대)	유희(순천향의대)
총무	권성준(한양의대)	이봉화(국립의료원)	손승국(연세의대)
비고	심사이사 주상용(가톨릭의대), 박용검(이화의대), 박재갑(서울의대), 소승국(연세의대), 박철재(한림의대) 황정용(고려의대), 최용만(이화의대), 문상은(부산의대), 배원길(고려병원) 재정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이관윤(이관윤병원), 소수상(계명의대), 이종균(송도병원) 총무이사 민진식(연세의대), 이혁상(인제의대), 강남부(전북의대), 김수한, 심민철(영남의대) 1988,12~1990,11 시기에만 차기이사장 홍성국(서울의대)이 있었음	심사이사 박용범(이화의대), 문상은(부산의대), 윤완희(충남의대), 정양수(조선의대), 장인택(중앙의대) 학술이사 박재갑(서울의대), 이기형(경희의대), 손승국(연세의대), 전수한(경북의대), 박철재(한림의대), 문흥영(고려의대), 김영진(전남의대) 재정이사 최경달(중앙외과), 이종균(송도병원), 이제성(한라병원), 강윤식(서울외과), 허무량(부산재해병원) 총무이사 이혁상(인제의대), 배원길(고려병원), 황용(전북의대), 장석균(가톨릭의대), 심민철(영남의대), 송영식(순천향의대)	심사이사 문흥영(고려의대), 손수상(계명의대), 김영덕(인제의대), 문덕진(광주기독병원), 윤완희(충남의대), 장선택(중앙의대), 오남건(부산의대), 김경래(인하의대), 권성준(한양의대), 배옥석(계명의대) 학술이사 심민철영남의대), 원종만(가톨릭의대), 최금자(이화의대), 이기형(경희의대), 전수한(경북의대), 박철재(한림의대), 김영진(전남의대), 한원곤(고려병원), 유승진(가톨릭의대), 김재준(순천향의대), 김재황(영남의대) 채정이사 김한선(적십자병원), 최경달(중앙외과), 강진국(경찰병원), 박희주(서울의대), 최건필(위생병원), 심문섭(부산의대), 이동근(금강의원), 송옥평(순천향의대), 김진천(서울중앙병원), 김도선(서울클리닉) 국제이사 박재갑(서울의대), 박웅채(신라병원), 윤광수(원주기독병원), 최상경(경상의대), 이상전(충북의대), 전호경(강남병원), 강윤식(서울외과) 보험이사 이윤우(이윤우외과), 이정식, 노병선(원주의대), 조장환(연세의대), 이종군(송도병원), 양형규(양외과의원), 김정용(조선의대), 이종군(송도병원), 양형규(양외과의원), 김정용(조선의대), 하무량(하무량외과), 이두한(서울클리닉) 총무이사 유희(순천향의대), 이혁상(인제의대), 황용(전북의대), 송영식(순천향의대), 기범환(고려의대), 한구원(구원외과의원), 장석균(가톨릭의대)

위원회명			성명(소속)		
임기	1993.12~1994.11	1994.12~1995.11	1996.12~1997.11	1998.12~1999.11	2000.12~2001.11
회장	전규영(한양의대)	김세민(고려의대)	민진식(연세의대)	박응범(이화의대)	전수한(경북의대)
차기회장	김세민(고려의대)	유희(순천향의대)	우제홍(국립의료원)	황용(전북의대)	문홍영(고려의대)
부회장	유희(순천향의대)	민진식(연세의대)	박응범(이화의대)	전수한(경북의대)	박재갑(서울의대) 최경달(중앙외과)
임기		1995.12~1996.11	1997.12~1998.11	1999.12~2000.11	2001.12~2002.11
회장		유희(순천향의대)	우제홍(국립의료원)	황용(전북의대)	문홍영(고려의대)
차기회장		민진식(연세의대)	박응범(이화의대)	전수한(경북의대)	박재갑(서울의대)
부회장		우제홍(국립의료원)	황용(전북의대)	문홍영(고려의대)	심민철(영남의대) 현구원(구원외과)
임기	1993.12~1994.11	1994.12~1996.11	1996.12~1998.11	1998.12~2000.11	2000.12~2002.11
이사장	박응범(이화의대)	윤충(경희의대)	박재갑(서울의대)	심민철(영남의대)	손승국(연세의대)
심사이사	문홍영(고려의대)	원종만(가톨릭의대)			
학술이사	심민철(영남의대)	문홍영(고려의대)	손승국(연세의대)	손승국(연세의대)	이봉화(한림의대)
재정이사	김한선(적십자병원)	강윤식(서울외과)	원종만(가톨릭의대)	이종균(송도병원)	이동근(한솔병원)
국제이사		이봉화(국립의료원)	이봉화(한림의대)	김영진(전남의대)	유승진(가톨릭의대)
보험이사	박재갑(서울의대)	이윤우(이윤우외과)	이종균(송도병원)	강윤식(대항병원)	강윤식(대항병원)
기획위원회	이윤우(이윤우외과)	손승국(연세의대)	김영진(전남의대)	현구원(구원외과)	이종균(송도병원)
건강보험위원회			이종균(송도병원)	강윤식(대항병원)	강윤식(대항병원)
고시위원회			심민철(영남의대)	한원곤(성균관의대)	박웅채(건국의대)
편집위원회				이봉화(한림의대)	한원곤(성균관의대)
교육수련위원회		황용(전북의대)		김한선(적십자병원)	김한선(적십자병원)
윤리위원회		한원곤(고려병원)		배옥석(계명의대)	배옥석(계명의대)
의무위원회					전호경(성균관의대)
전산위원회					이상전(충북의대)
법제위원회					김영진(전남의대)
감사	이봉화(국립의료원)		이기형(경희의대) 한원곤(성균관의대)	이기형(경희의대) 전호경(성균관의대)	김광호(이화의대)
<del>총무</del> 이사	황용(전북의대)				
총무	손승국(연세의대)		전호경(성균관의대)	김광호(이화의대)	김남규(연세의대)
비고					

위원회명				
임기	2002.12~2003.11	2004.12~2005.11	2006.12~2007.11	2009.4~2010.3
회장	박재갑(서울의대)	손승국(연세의대)	배옥석(계명의대)	한원곤(성균관의대)
차기회장	심민철(영남의대)	이종균(송도병원)	오남건(부산의대)	김영진(전남의대)
부회장	손승국(연세의대) 이종균(송도병원)	이봉화(한림의대) 허무량(사랑의외과)	한원곤(성균관의대) 김현식(송도병원)	주영화(학문외과)
임기	2003.12~2004.11	2005.12~2006.11	2007.12~2009.3	2010.4~2011.3
회장	심민철(영남의대)	이종균(송도병원)	오남건(부산의대)	김영진(전남의대)
차기회장	손승국(연세의대)	배옥석(계명의대)	한원곤(성균관의대)	이동근(한솔병원)
부회장	이종균(송도병원)	오남건(부산의대) 김영덕(인제의대)	김영진(전남의대) 이동근(한솔병원)	전호경(성균관의대) 조동윤(위대항외과)
임기	2002.12~2004.11	2004.12~2006.11	2006.12~2009.3	2009.4~2011.3
이사장	이봉화(한림의대)	한원곤(성균관의대)	전호경(성균관의대)	김남규(연세의대)
학술이사	한원곤(성균관의대)	전호경(성균관의대)	김남규(연세의대)	오승택(가톨릭의대)
재정이사	이동근(한솔병원)	양형규(양병원)	양형규(양병원)	양형규(양병원)
국제이사	김진천(울산의대)	김종훈(전북의대)	김종훈(전북의대)	서광욱(아주의대)
기획위원회	오남건(부산의대)	김영진(전남의대)	김광호(이화의대)	김광호(이화의대)
건강보험위원회*	이두한(대항병원)	강중구(일산병원)	강중구(일산병원)	강중구(일산병원)
고시위원회	박웅채(건국의대)	김진천(울산의대)	유창식*(울산의대)	최규석(경북의대)
편집위원회	전호경(성균관의대)	김남규(연세의대)	황대용(건국의대)	황대용(건국의대)
교육수련위원회	김종훈(전북의대)	박웅채(건국의대)	김선한(고려의대)	김선한(고려의대)
윤리위원회	배옥석(계명의대)	이동근(한솔병원)	김재황(영남의대)	김재황(영남의대)
의무위원회	김영춘(김외과의원)	김재황(영남의대)	이두한(대항병원)	구자일(구병원)
전산위원회*	이상전(충북의대)	이두한(대항병원)	장용석(장용석외과의원)	장용석(장용석외과의원)
법제위원회	김영진(전남의대)	김현식(송도병원)	오승택(가톨릭의대)	김흥대(성균관의대)
섭외홍보위원회*	김한선(고려의대)	오남건*(부산의대) 서광욱*(아주의대)	서광욱(아주의대)	유창식(울산의대)
출판물제작위원회*				김형록(전남의대)
감사	현구원(구원외과) 유승진(가톨릭의대)	김한선(적십자병원) 유승진(가톨릭의대) 이상전(충북의대)	이상전(충북의대) 송옥평(순천향의대) 김준기(가톨릭의대)	김준기(가톨릭의대) 황용희(삼육의료원) 김재준(순천향의대)
총무	박규주(서울의대)	김흥대(성균관의대) 오승택(가톨릭의대)	이우용(성균관의대) 정승용(서울의대)	이석환(경희의대) 이강영(연세의대)
비고		*오남건 섭외홍보위원회 1년 재임, 잔여기간1년 서광욱에 위임	*유창식 김진천이 2007년 유창식에 고시위원장 위임	

<sup>\*</sup> 건강보험위원회(2010 보험이사에서 명칭변경) \*전산위원회(2010 정보기술위원회로 명칭변경) \*섭외홍보위원회(2003 신설) \*출판물제작위원회(2009 신설)

위원회명		성명(소속) 	
임기	2011.4~2012.3	2013.4~2014.3	2015.4~2016.4
회장	이동근(한솔병원)	김종훈(전북의대)	김남규(연세의대)
차기회장	전호경(성균관의대)	김진천(울산의대)	이두한(대항병원)
부회장	김종훈(전북의대) 이상전(충북의대)	김남규(연세의대) 장용석(장용석외과의원)	오승택(가톨릭의대) 최성양(장문외과)
		1	
임기	2012.4~2013.3	2014.4~2015.3	2016.4~2017.3
회장	전호경(성균관의대)	김진천(울산의대)	이두한(대항병원)
차기회장	김종훈(전북의대)	김남규(연세의대)	오승택(가톨릭의대)
부회장	양형규(양병원) 김재황(영남의대)	이두한(대항병원) 박웅채(건국의대)	강중구(일산병원) 황성환(부산항운병원)
임기	2011.4~2013.3	2013.4~2015.3	2015.4~2017.3
이사장	오승택(가톨릭의대)	김광호(이화의대)	박규주(서울의대)
학술이사	김광호(이화의대)	박규주(서울의대)	이우용(성균관의대)
재정이사	임석원(항외과)	이한일(드림병원)	구자일(구병원)
국제이사	이우용(성균관의대)	김형록(전남의대)	김지연(국제위원장)
기획위원회	박규주(서울의대)	이석환(경희의대)	신응진(순천향의대)
건강보험위원회	강중구(일산병원)	강중구(일산병원)	강중구(일산병원)
고시위원회	최규석(경북의대)	최규석(경북의대)	박원철(원광의대)
편집위원회	황대용(건국의대)	황대용(건국의대)	황대용(건국의대)
교육수련위원회	서광욱(아주의대)	최원준(건양의대)	채기봉(강원의대)
의무윤리위원회*	이한일(드림병원)	윤서구(서울송도병원)	정승규(양병원)
의무위원회	육의곤(대항병원)	육의곤(대항병원)	
정보기술위원회*	최효성(국립암센터)	김익용(연세원주의대)	김익용(연세원주의대)
법제위원회	김형록(전남의대)	백정흠(가천의대)	조용걸(한솔병원)
섭외홍보위원회	유창식(울산의대)	이우용(성균관의대)	이석환(경희의대)
출판물제작위원회*	윤서구(서울송도병원)	정춘식(한솔병원)	
부분과 특별위원회*		서광욱*(아주의대)	
내시경관리위원회*		정승용*(서울의대)	육의곤(대항병원)
진료권고안위원회*			양성: 박덕훈(서울송도병원) 악성: 정승용(서울의대)
감사	김재준(순천향의대) 안병권(고신의대) 이강영(연세의대)	이강영(연세의대) 박동국(단국의대) 이윤석(가톨릭의대)	이윤석(가톨릭의대) 김흥대(성균관의대) 윤서구(서울송도병원)
총무	신응진(순천향의대) 이윤석(가톨릭의대)	엄준원(고려의대) 이인규(가톨릭의대) 정순섭*(이화의대)	강성범(분당서울의대)
부총무*			임석병(울산의대) 김형진(가톨릭의대)
비고		└ 3년 한해만 활동. 2014년에는 이석환선성 2014년에는 육의곤선생님으로 변경 <b>*장</b>	생님으로 변경 <b>*정승용</b> 내시경관리

<sup>\*</sup> 의무윤리위원회(2015 윤리위원회에서 통합명칭변경) \*정보기술위원회(2010 전산위원회에서 명칭변경) \*출판물제작위원회(2015 섭외홍보로 흡수통합) \*세부분과 특별위원회(2013 신설→2015 교육수련위원회로 업무 이관) \*내시경관리위원회(2013 신설→2015 상설 승격) \*부총무(2015 신설)

# 03 역대 공로상 수상자

시상일	수상자	소속
2003.4.12	최경달	중앙외과의원
2004.4.12	민진식	송도병원
2009.4.11	박응범	이화의대
2010.3.20	김광연	서울송도병원
2011.4.2	우제홍	강서송도병원
2012.4.7	전수한	대구가톨릭대
2013.4.6	송옥평	순천향의대
2014.4.12	심민철	구병원
2015.4.11	박재갑	서울의대
2016.4.2	손승국	연세의대



	_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1967	11,18	대한의사협회 강당	발기인 총회
1968	4.20	대한의학협회 강당	창립총회(창립목적: 대장항문병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에 있다.)
	12.6	엠버서드호텔	제1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1969	12,20	고려병원	제2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0	12.19	풍전호텔	제3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1	11,27	풍전호텔	제4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2	12.14	풍전호텔	제5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3	11,15	풍전호텔	제6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4	11,29	풍전호텔	제7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5	11.14	풍전호텔	제8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6	11,19	풍전호텔	제9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7	12.8	국립의료원 간호학과 대강당	제10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8	12.8	고려병원	제11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79	12.14	국립의료원	제12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80	12,5	서울대학교병원	제13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001	10,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 협의회 가입
1981	11,27	고려병원	제14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1982	12,10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제15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83	12.9	국립의료원	제16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1984	12.7	서울대학교병원	제17회 대한대장항문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3.6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 정회원 학회로 승격
1985	12,7	한일호텔	제18회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12.7		대한대장항문병학회지 1권 1호 창간
1986	11,28	여의도 63빌딩 3층	제19회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1987	11,28	대전 유성관광호텔	제20회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1000	6,28		한국대장암 분류 통일안 제정 Workshop 개최
1988	12,2	대한생명 63빌딩 코스모스룸	제21회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1989	12,8	광주 신양파크 호텔	제22회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1990	12,7	서울 리버사이드 호텔 컨벤션홀	제23회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3,30	국립의료원	정기집담회 개최 (1991–2005년까지 정기집담회 개최)
1001	6.29	부산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1991	9.14	고려병원	정기집담회
	12,6	대구 프린스호텔	제24차 추계학술대회
	4.4	전주코아호텔	춘계학술대회
1000	7.4	한양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1992	9.26	세브란스병원	정기집담회
	12.4	신라호텔	제25차 추계학술대회
	4.20	서울 교육문화회관 거문고 C홀	1993년 춘계학술대회
1002	6.26	이대부속병원	정기집담회
1993	9.18	고대안암병원	정기집담회
	12.4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제26차 추계학술대회
	4.9	제주 신라호텔	1994년 춘계학술대회
100.4	6.25	전남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1994	9.24	충남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12,10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제27차 추계학술대회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4.15         대전 유성리베라호텔         1995년 춘계학술대회           6.1~3         소공동 롯데호텔         5th Asia-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 개최(회장 김광연, 조직위원장 박재갑)           9.23         충주건국대학교         정기집담회           12.2         서울 신라호텔         제28차 추계학술대회           4.6         전주 코아호텔         1996년 춘계학술대회	1
1995     6.1~3     소공동 롯데호텔     5th Asia-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 개최 (회장 김광연, 조직위원장 박재갑)       9.23     충주건국대학교     정기집담회       12.2     서울 신라호텔     제28차 추계학술대회       4.6     전주 코아호텔     1996년 춘계학술대회	1
1995	
12.2     서울 신라호텔     제28차 추계학술대회       4.6     전주 코아호텔     1996년 춘계학술대회	
4.6 전주 코아호텔 1996년 춘계학술대회	
6.29 서울 적십자병원 정기집담회	
1996 9.21 부산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12.7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제29차 추계학술대회	
3.8 전남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b>5.31</b> 호텔리베라 유성 1997년 춘계학술대회	
6 대한대장항문학회로 학회명칭 변경(13권2호-14권2호 (이전 명칭: 대한대장항문병학회)	)
1997         6.30         13권 2호부터 대한대장항문학회지로 개칭	
9.6 인하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대장항문외과의사 자격인정의 심사 신설(서류전형, 대 의사 자격증 발부 83명)	장항문외과
12.6 호텔 리츠칼튼 서울 제30차 추계학술대회	
3.14 충북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3.21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무의 자격인정 심사 서류전형 추 (서류전형 , 추가 12명 합격)	가 접수
4.25 용평 리조트 1998년 춘계학술대회	
1998 9.5 순천향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9.30 대한대장항문학회지 표지 변경(14권 3호-23권 2호)	
11,27~28       호텔 리츠칼튼 서울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제31차 학술대회	
11,27 1차 평생회원명부 배포(400명)	
12,20 학회사무실 대한의사협회 건물 입소	
3.13 아주의대 부속병원 별관 대강당 정기집담회	
1999     4.24     대구프린스호텔     1999년 춘계학술대회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1999	10,3	이화의대 목동병원 김옥길홀	1999년 제1회 연수강좌
	11.26~27	쉐라톤 워커힐호텔	제32차 추계학술대회
2000	3,11	안산고대병원	정기집담회
	4.29	무주 티롤호텔	2000년 춘계학술대회
	11,25	소공동 롯데호텔	제33차 추계학술대회
			2차 평생회원명부 배포 (632명)
	4.27~28	메리어트호텔	2001년 춘계학술대회
	6.17	전남의대 명학회관 대강당	2001년 연수강좌
2001	7.18	국립암센터 행정동 2층 회의실	제1차 대장암 조기검진 지침개발—전문가 합의도출 심포지엄
	9.22	경북의대 중앙강당	정기집담회
	11.2~3	인터콘티넨탈호텔	제34차 추계학술대회
	1,20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지하1층	제1차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시험 시행 (130명응시, 122명 합격)
	3.29~30	제주 신라호텔	2001년 춘계학술대회
2002	6.30	연세의대 대강당	2002년 연수강좌
	9.28	고려의대 구로병원 강당	정기집담회
	11.29~30	메리어트호텔	제35차 추계학술대회
	1.19	연세의대 의과대학	제2차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시험 (90명 응시, 83명 합격)
	2,21	이화의대 동대문병원	장루연구회 1차 집담회
	2,22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제1차 대장암의 항암요법 Consensus Conference
	4.11~12	제주 롯데호텔	2003년 춘계학술대회
2003	4.26	전남대학교병원	장루연구회 2차 집담회
	6.13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장루연구회 3차 집담회
	7.6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2003년 연수강좌
	7		대한대장항문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 신청
	9.26	국립암센터	장루연구회 4차 집담회
	9.27	부산대학교병원	정기집담회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2003	10.4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2층 강당	제2차 대장암의 항암요법 Consensus Conference 및 대장암 진료권고안 발표회
			제1회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갱신증 발급 (58명 갱신)
	11.27~28	롯데호텔	The 9th Congress of Asia 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 2003
	11.29	롯데호텔	제36차 추계학술대회
			3차 평생회원명부 배포 (931명)
	12		대한대장항문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선정
	2,18	회원기부금 시작	2004 사업비 모금 : 약정 1293구좌 129,300,000원 (회장 심민철, 이사장 이봉화)
	3.20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장루연구회 1차 집담회
	4.9~10	경주현대호텔	2004년 춘계학술대회
	6.25	한솔병원	장루연구회 2차 집담회
	6.27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2004년 연수강좌
2004	8.29	연세의대 의과대학	제3차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시험 (112명응시, 100명 합격)
	9.10	송도병원	장루연구회 3차 집담회
	9.11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기집담회
	11.19		대장암의 항암요법 발간, 용어집, 제1차 규정집 배포
	11.19~20	서울 메리어트 호텔	제37차 추계학술대회
	12.3	삼성서울병원	장루연구회 4차 집담회
	3.11	부산 메리어트호텔	정책 세미나
	3.12	부산 메리어트호텔	제3차 대장암 항암요법 심포지엄
2005	4.8~9	부산 롯데호텔	2005년 춘계학술대회
	4.10	부산 롯데호텔	Vision 선포식 (선도적 학문연구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학회)
	6.25	오크벨리 빌리지센타	제1차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발전 정책세미나
	6.26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종합관 대강당	2005년 연수강좌
	6.30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1호 창간
	7		대한대장항문학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8.21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제1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2005	9.3	가천의대 길병원	정기집담회
	9.15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갱신증 추가발급 (1997~1998 합격자 미갱신자 추가갱신)
	12,2~3	소공동 롯데호텔	제38차 추계학술대회
	12.9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4층 대강당	복강대장수술연구회 제12차 수술 시연회
	2.1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5층 대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1차 비디오심포지엄
	3.10	부산 메리어트호텔	학회발전 세미나
		부산 메리어트호텔	대장암의 항암요법 심포지엄
	3.11	부산 메리어트호텔	정책세미나
		부산 메리어트호텔	제2차 대한대장항문학회지 발전 정책세미나
	3		대한의학회 학술평가 우수학회 선정 및 시상 (2005년)
	4.7~8	제주 롯데호텔	2006년 춘계 학술대회
	4.14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파스퇴르유업 대한대장항문학회 후원 기념 세미나
	5.19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5층 대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2차 비디오심포지엄 및 Live Surgery
	6.17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기념관	Pre-Symposium 항문직장 생리검사 워크숍
	6.18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기념관	2006년 연수강좌
2006	7.9	서울이산병원	제4차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시험 (101명 응시, 97명 합격)
	7.14	순천향대 부천병원 별관 대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3차 비디오심포지엄
	9,1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4층 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4차 비디오심포지엄
			학회지 논문심사 및 투고를 위한 E-submission 시스템 오픈
	9.2	아주대학교병원 지하1층 아주홀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10,27	국립암센터 행정동 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5차 비디오심포지엄
	11.24~25	소공동 롯데호텔	The 4th Congress of the Asian Society of Stoma Rehabilitation 2006 (ASSR)
	11.25	소공동 롯데호텔	제39차 추계학술대회
	11.26	소공동 롯데호텔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Proctology 2006 [SISP]
	12		대한대장항문학회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년도	날짜	장소	행시명
	1,13		학회사무실 입소식 (수서동 현대벤쳐빌 1519호)
	3.9	제주 블랙스톤 리조트	정책세미나
	3.10	제주 블랙스톤 리조트	대장암의 항암요법 심포지엄
	3		대한의학회 학술평가 우수학회 선정 및 시상 (2006년)
	4.6~7	부산 롯데호텔	2007년 춘계학술대회
	4.6		4차 평생회원명부 배포(1123명)
	4.13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세미나실	제1차 대한대장항문학회 Consensus Conference
	4.30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가온누리 출판 (편집위원회-)법제위원회로 업무 이관, 기존 낱장 소식지에서 책자형태로 변경하여 발간)
	5	송도병원	항문질환연구회 1차 심포지엄
2007	6.23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1회 Future Forum
	6.2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7년 연수강좌
	6,30		학회지 표지 변경 및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로 제호 변경 (23권 3호-26권 3호) (이전제호 : 대한대장항문학회지)
	7.13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세미나실	제2차 대한대장항문학회 Consensus Conference
	7.14	파크하얏트서울 3층 The Salon	제1회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을 위한 세미나
	8.24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별관 5층 강당	항문직장생리 골반서질환연구회 제1차 집담회
	9.1	서울이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	제1회 IBD연구회 Workshop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갱신증 발급 (45명)
	9.2	대항병원	항문질환연구회 2차 심포지엄
	9.4	웨스틴 조선호텔 2층 라일락 룸	제1회 대장앎의 날 기자간담회
	9.8	잠실운동장 농구경기장 및 주변	제1회 대장암의 날 개최: MTV 콘서트, 수기공모, 홍보대사 위촉 등 ・대장암,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세요 ・MTV콘서트, 수기공모전, 홍보대사 위촉(탤런트 김승환), 콜론터널 전시, 요가클리닉, 무료검진권 제공
	10.9	송도병원 7층 회의실	대장내시경연구회 창립기념 및 집담회
	10.13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세미나실	제3차 대한대장항문학회 Consensus Conference
	10,3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부여 (23권 5호)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2007	11.30~ 12.1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제40차 추계학술대회
	12.9	한솔병원	항문질환연구회 3차 심포지엄
	12.14	서울양병원 지하2층 세미나실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3차 비디오심포지엄
	1,19	파크하얏트서울 3층 The Salon	제2회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을 위한 세미나
	2.24	서울양병원 세미나실	제6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3.7	대구인터불고호텔	정책세미나
	3.8	대구인터불고호텔	항암요법연구회 심포지엄
	3.16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4.4~6	제주 롯데호텔	제41차 학술대회
	4.5	제주 롯데호텔	제4차 Consensus Conference "Rectal Cancer"
	5.1		대장항문외과 인정의 갱신증 발급 (112명)
	5.18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제7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2008	6.27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별관 미카엘홀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10차 비디오 심포지엄
	6.30		Journal of Coloproctology 영문잡지 발간 (1년에 2회, 기존에 한글로 발간했던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재출간 4개호 발간 2008–2009년)
	7,6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제2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서울이산병원	제5차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시험 (89명 응시, 63명 합격, 합격유예자 18명(추후 모두 합격))
	7.26	파크하얏트서울 3층 The Salon	제5차 대한대장항문학회 Consensus Conference
		파크하얏트서울 3층 The Salon	제3회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을 위한 세미나
	9.7	서울 시니어스 가양타워	제8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9.21	해운대 한화리조트 3층 진주실	제3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9.27	아카데미하우스	제2회 Future Forum
	9.28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2008년 연수강좌
	11,1		대한대장항문학회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11,21	삼성서울병원 동물실험실	제3회 Korean NOTES Study Group
	11.24		제1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안내 시행 (서류전형 189명 응시, 173명 합격)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11,28	신촌세브란스병원 6층 제2세미나실	장루연구회 집담회
2008	12.8~9	8일(대항병원), 9일(한솔병원)	항문질환연구회 Anal Fistula Plug 시연회
	12.19	국립암센터 연구동 1층 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제11차 비디오심포지엄
	2.8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제9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2,22	송도병원 7층 회의실	대장내시경연구회 집담회
	3.2		제1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 발급
	3.8	유한양행 4층 강당	제4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4.10~12	대구인터불고 호텔	제42차 학술대회
	5.31	한림대학교 의료원 강동성심병원 본관 15층 창조홀	제10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6.7	호텔 무등파크 4층 다이아몬드홀	제5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6.12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의과학 연구원 1002호	제13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비디오심포지엄 및 '복강경대장수술' 출판기념회
	6.27	밀레니엄 힐튼호텔	정책세미나
	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EMBASE 등재
	9.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	제11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2009	9.19	아카데미하우스	제3회 Future Forum
	9.20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2009년 연수강좌 (장연구학회와 공동개최)
	9.22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추계집담회
	9.26	전남대학교병원 5동 1층 강당	장루연구회 집담회
	9.27	유한양행 4층 강당	제6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10.7	웨스틴 조선호텔 2층 코스모스룸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기자간담회
	10.19~24	전국 회원병원	제2회 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 • 대장암! 바로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 홍보대사 위촉(봉중근), 건강강좌 개최(51개병원), 무료검진권 제공
	10.10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	제2회 IBD연구회 Workshop
	12.1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갱신증 발급 (98명)
	12.6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2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12.24		제2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서류전형 115명 응시, 115명 합격)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2009	12.30		대장항문학 의료행위 발간
	1.10	대구 파티마병원 3층 대강당	제7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1		규정집 발간 (2차)
	1,23	파크하얏트서울 3층 "보드룸"	제5회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위한 세미나
	2.7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3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2.26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3.19~23	서울 코엑스	XXIV International Society of University Colon & Rectal Surgeons Biennial Congress 2010
	3.19~21	서울 코엑스	제43차 학술대회
	4.11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4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4.17	밀레니엄 힐튼호텔	정책세미나
	4,28		제2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 발급
	6.5	대전 을지대학병원 을지홀	제3회 IBD연구회 Workshop
	6.6	유한양행 4층 강당	제8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2010	6,25	경희의료원 제1세미나실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2차 집담회
	7.4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5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7.9	신촌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1호	대장암연구회 창립식 및 제1회 집담회
	7.11	서울이산병원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시험 (71명 응시, 63명 합격)
	8.30		학회지 표지변경 및 영문학회지로 전환 (26권 4호-28권 6호)
	9.1	롯데호텔	제3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기자간담회
	9.1~30	전국 회원 병원	제3회 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     ・대장암을이기는생활속 3대 골든타임    ・건강강좌 개최(53개병원), 무료검진권 제공, 홍보대사위촉(이희대)   ・알기쉬운 대장암 책자 발간(머크)
	9.4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	장루집담회
	9.5	전남대학교병원	제16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9.12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10.2	아카데미하우스	제4회 Future Forum
	10.3	스위스그랜드힐튼호텔	2010년 연수강좌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10.14	웨스틴 조선호텔 3층 LOTUS룸	『대장암 완치 프로젝트』 출간
	10,23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1층 강당	제4회 IBD연구회 Workshop
	10,29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3층 제2강의실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3차 집담회
	10,30		학회지 홈페이지 오픈 (www.coloproctology.org)
	11,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SCOPUS 등재 (2009년 1호부터 등재인정)
	11.10	영남대학교병원 강당	항암요법연구회 정기 집담회
	11,13		대장암의 항암요법총세(개정판) 출판
2010	11.14	유한양행 4층 강당	제9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11,2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PMC 등재 (2010년 4호부터 등재인정)
	11,27	Hamamatsu, Japan	제1차 한일 심포지엄 개최 (일본대장항문병학회와 공동주최로 한일심포지엄개최시작)
	12,1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갱신증 발급 (35명)
	12.4~5	Shanghai, China	Korea-China-Japan Colorectal Cancer Symposium 개최
	12.5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7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12.10	세브란스병원 종합관 331호	제2회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12.17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2층 루이제홀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집담회
	1,15	충남대학교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5층 대강당	항암요법연구회 정기 집담회
	2,1		학회지 영문 Online 투고시스템 오픈
	3.6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8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3,11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향설대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1차 집담회
0044	4.1~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44차 학술대회
2011	4.1		제5차 평생회원명부 배포(1560명)
	4.2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차 한일심포지엄
	5.1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0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5,2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강당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개원기념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로봇대장암수술심포지엄
	5.29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9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6.24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별관 5층 대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2차 집담회	
	6.25	서울성모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106호	정책세미나	
	7.17	대전 을지대학병원 2층 세미나실	제11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8,27~28	부산 노보텔 호텔 그랜드볼룸 A,B	항암요법연구회 심포지엄	
	9.1	농협 대강당	제4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기자간담회	
	9.1~30	전국 회원병원	제4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 오! 해피데이, 대장암 5년 생존, 완치의 행복한 기쁨 • 건강강좌 개최(63개 병원), 무료검진권 제공, 홍보대사위촉(최인선) • 헬스조선 M 『대장암』 발간	
	9.4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9.18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별관 3층 해부학실습실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A Hands-On Cadaver Workshop 개최	
	9,24	호텔 아드리아 5층 "크리스탈 홀"	제5회 Future Forum	
2011	9,25	충남대학교 대강당 정심화홀	2011년 연수강좌	
	10.9	청계산	가을 "가족등반" 대회	
	10.15	서울이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	제5회 IBD연구회 Workshop	
	10.16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0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10.22	영남대학교병원 이산대강당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정기집담회	
	10.28	경희대학병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	2011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3차 집담회	
	11,13	유한양행 4층 강당	제12회 ALTA 4단계 주사법 강습회	
	11.19	대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3층 M212호	2011 가을 장루 집담회	
	11.26	도쿄, 일본	제3차 한일심포지엄	
	11,28		제3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77명 응시, 70명 합격)	
	12.1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갱신증 발급 (66명 발급)	
	12.9	서울성모병원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12,18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1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2012	2,24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1차 집담회	
2012	3.11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2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3,22		제3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 발급
	4.6~8	서울 코엑스	대한대장항문학회 제45차 학술대회
	4.7~8	서울 코엑스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loproctology
	4.7	서울 코엑스	제4차 한일심포지엄 개최
	5.18~19	세브란스병원	The 1st Asian Pacific Colorectal Cancer Congress & The 10th Yonsei Colorectal Cancer International Symposium
	6.7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3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단국대 천안병원	제2차 항암요법 심포지엄
	6.9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별관 3층 해부학실습실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A Hands-On Cadaver Workshop
	6.16	서울대학교병원	IBD연구회 집담회
	7.6	서울이산병원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7.7	토지문화관	장루연구회 집담회
	7.8	서울이산병원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시험 (52명 지원, 49명 합격)
012	7.13	원주의과대학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9.1~30	전국 회원병원	제5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 대장암의 씨앗! 용종, 대장내시경으로 조기진단, 치료하세요. • 건강강좌 개최(68개병원), 무료검진권 제공
	9.2	서울성모병원	대장내시경연구회 연수강좌
	9.5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제5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기자간담회
	9.8~9	서울성모병원	the 13th Korea-Japan-China Colorectal Cancer Symposium
	9,22	엘리시안 강촌	제6회 Future Forum
	9.23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2012년 연수강좌
	10.11~13	경북대학교병원	ARCCS 2012_1st Asian Robotic Camp for Colorectal Surgeons
	10.19	대항병원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집담회
	10.21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4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10.24		대장암진료권고안 v.1.0 발간 (대한의학회 지원)
	10,26	양병원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3차 집담회
	11.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 1관 4층 법당	제4차 항암요법연구회 집담회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11.3	소공동 롯데호텔	[ESMO] The 3rd ESMO Asia CME Partner Colorectal Cancer Program
2012	11.16	후쿠오카, 일본	제5차 한일심포지엄
	12.1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 갱신증 발급 (41명)
	12.7	건국대학교병원 지허3층 대강당	제6차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1.20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5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2.2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2,28		학회지 표지 변경 및 Annals of Coloproctology 로 제호 변경 (29권 1호—현재) (이전제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4.5~7	경주 현대호텔	제46차 학술대회
	4.6	경주 현대호텔	제6차 한일심포지엄
	5.15	프레지던트호텔 18층 "산호홀"	정책세미나
	6.22	전북대학교병원 건지홀	제7회 Future Forum
	6.23	전북대학교 학술문화관	2013년 연수강좌
	6.29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관 5층 응용해부학 실습실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 A Hands-On Cadaver Workshop
2013	9.1~30	전국 회원병원	제6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9.4	달개비	제6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기자간담회
	9.6~7	세종컨벤션센터	The 5th Congress of Asia Pacific Enterostomal Therapy Nurses Association in Conjunction with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2013 (APETNA)
	9.7~8	세종컨벤션센터	대한대장항문학회 연구회통합학술대회 시작
	10.31~ 11.2	경북대학교병원	The 2nd Asian Robotic Camp for Colorectal Surgeons (ARCCS 2013)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11.6		제4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86명 응시, 84명 합격)
	11,15~16	Keio Plaza Hotel, Tokyo	the 13th of the Japan-China-Korea Colorectal Cancer Symposium

	I keel	TLA	
년도 —	날짜	장소	행사명
	11,15	도쿄, 일본	제7차 한일심포지엄
	11.16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Tumor Specific Mesorectal Excision for Rectal Cancer Workshop
2013	12.1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6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_0.0	12.6	중앙보훈병원	제8차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12,13		대한대장항문학회 세부전문의 인준에 관해 외과학회에 학회 인정지 명단 송부 (대장항문외과 세부전문의(잠정) 자격유지자 553명 명단 외과학회 송부)
	1.19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2014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1.24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	2014년 제1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3.1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50개 기관 신청, 42개 기관 선정)
	3,23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7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4.3		제4회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 발급
	4.11~13	무주리조트 카니발 컬처팰리스	제47차 학술대회
	4.12	무주리조트 카니발 컬처팰리스	제8차 한일심포지엄
	4.25~26	Hotel Panorama, Vilnius, Lithuania	8th Triennial Meeting of the Lithuanian Society of Coloproctologists (리투아니아 대장항문학회와 공동학술프로그램 개최, 한국 14명 참석)
2014	6.13	원광대학교병원 외래 1관 4층 법당	2014년 제2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서울이산병원 교육연구관 1층 대강당	제7회 IBD연구회 Workshop
	6.14		2014 Yonsei Colorectal Cancer International Symposium
		아카데미 하우스 "새벽의 집"	정책세미나
	6,21	아카데미 하우스 "새벽의 집"	제8기 대한대장항문학회 Future Forum
	6,22	서울이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2014년 대한대장항문학회 연수강좌
	6.27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통과자 발표 (89명)
	6,28	충주 건국대학교병원	2014년 대한대장항문학회 장루연구회 집담회
	7.20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8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0.00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대강당	2014 건국대학교 대장암 국제심포지엄
	8.30		대한대장항문학회 소식지 e-뉴스레터로 변경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9.1~30	전국 회원병원	제7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 러브핸들을 잡으면 대장암이 잡힌다. • 건강강좌 개최(65개 병원), 제스프리 후원으로 키위제공
	9.13~14	Congre Convention Center, Knowledge Capital, Grand Front Osaka	The 14th of the Japan-China-Korea Colorectal Cancer Symposium
	9.15	동아일보 측 청계광장	제7회 대장암 골드리본 캠페인 시민행사 • 대장터널 전시, 전문의 상담, 룰렛 게임, 무료검진권 제공
2014	9.20~21	세종컨벤션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 2014 (hosted by KSCP) 명칭변경 및 국제학술대회로 전환 (이전명칭 : 연구회통합학술대회)
2014	10.30~ 11.1	경북대학교병원	The 3rd Asian Robotic Camp for Colorectal Surgeons
	11.7~8	요코하마, 일본	제9차 한일심포지엄
	11.19	대항병원 지하1층 대강당	2014년도 대장내시경연구회 집담회
	11,23	청계산 원터골 입구	가을 "가족등반"대회
	11.28~29	서울 코엑스	66차 외과통합학술대회
	11.30	유한양행 4층 강당	제29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12,6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	2014년 제3차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1,18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2015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1.30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	2015년 대장암연구회 집담회
	2.7	구병원	2015년 장루연구회 집담회
		유한양행 4층 강당	제30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3.1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50개 기관 신청, 46개 기관 선정)
2015	3.6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제1회 대장암연구회 증례토론회
	4.10~12	부산롯데호텔	제48차 학술대회 (1782명)
	4.11	부산롯데호텔	제10차 한일심포지엄
	4.2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지하1층 대강당	2015년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5.15~16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Asia-Pacific Colorectal Cancer Congress 2015
	7.24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통과자 발표 (99명)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9.1~30	전국 회원병원	제8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 한국인의 화장실 • 인포그래픽스 제작, 네이버 카드뉴스 광고, 건강강좌 개최(60개 병원)
2015	9.12~13	세종컨벤션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 2015 (hosted by KSCP) (리투아니아 대장항문학회와 공동학술프로그램 개최, 리투아니아 6명 참석)
	10.5~8	Melbourne, Australia	Asia 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 2015 (2017년 차기대회 홍보)
	11,13	나고야, 일본	제11차 한일심포지엄
	12.12	라마다플라자수원	제9기 대한대장항문학회 Future Forum
	12.13	가톨릭의대 성빈센트병원	2015년 대한대장항문학회 연수강좌
	1.10	유한양행 4층 강당	제33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1.24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	대장내시경 연수강좌
	2,28	유한양행 4층 강당	제34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3.1		대장내시경 전문의 자격취득에 대한 수련병원 등록시행 (51개 기관 신청, 48개 기관 선정)
	3.4	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지하2층 세미나실	제1차 대장암연구회 정기집담회
	3.7		대한대장항문학회 인증 대장내시경 인정의를 위한 학회인정 자격시험 공고 (27명 응시, 27명 합격)
	3,11	서울송도병원	제1차 항문직장생리연구회 집담회
2016	3.1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동 4층 법당	장루연구회 집담회
	3,1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강당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집담회
	3		대한의학회 학술평가 우수학회 선정 및 시상 (2015년)
	4.1~3	대전DCC	제49차 학술대회
	5,27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대장암연구회 증례집담회
	6.12	유한양행 4층 강당	제35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6.25	엘리시안 강촌리조트	제10기 Future Forum
	6.26	강원대학교	대한대장항문학회 연수강좌
	7.2	삼성서울병원	IBD연구회 Workshop

년도	날짜	장소	행사명
	9.1~30	전국 회원병원	제9회 대장앎 골드리본 캠페인 • 한국인의 장 • 인포그래픽스 제작, 건강강좌 개최(56개 병원)
	9.3~4	세종컨벤션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 2016 (hosted by KSCP)
		세종컨벤션	제12차 한일심포지엄
2010	9.4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인정증 발급
2016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통과자 발표 (22명)
	10.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	장루연구회 집담회
	10.29	대구 구병원	대장내시경연구회 집담회
	11.18	미에, 일본	제13차 한일심포지엄
	12.9	세브란스병원 ABMRC 1층 세미나실	제2차 대장암연구회 정기 집담회
	12,11	유한양행 4층 강당	제36차 항문질환연구회 집담회

# 05 회원수추이

년도	평생회원	정회원	합계
1968			19
1969		39	39
1970		39	39
1971		39	39
1972		40	40
1973		49	49
1974		100	100
1975		100	100
1976		100	100
1977		100	100
1978		70	70
1979		70	70
1980		81	81
1981		90	90
1982		108	108
1983		140	140
1984		121	121
1985		140	140
1986		164	164
1987		186	186
1988		219	219
1989		236	236
1990		233	233
1991		239	239

년도	평생회원	정회원	합계
1992		247	247
1993	56	312	368
1994	90	301	391
1995	109	316	425
1996	130	334	464
1997	361	271	632
1998	428	270	698
1999	534	276	810
2000	635	268	903
2001	773	275	1,048
2002	915	275	1,190
2003	1,007	278	1,285
2004	1,065	280	1,345

년도	평생회원	정회원	합계
2005	1,129	280	1,409
2006	1,229	290	1,519
2007	1,296	307	1,603
2008	1,374	297	1,671
2009	1,441	73	1,514
2010	1,538	76	1,614
2011	1,611	89	1,700
2012	1,681	98	1,779
2013	1,752	106	1,858
2014	1,794	114	1,908
2015	1,834	113	1,947
2016	1,888	123	2,011







# 06 학회 제작 간행물 및 학회 로고·엠블럼

### 1 학회 출판단행본

#### 팜플렛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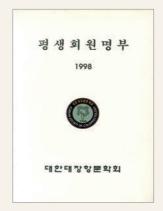
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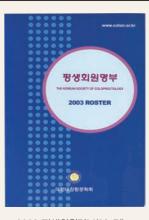




치핵







평생회원 명부

1998 평생회원명부(400명)

2000 평생회원명부(632명)

2003 평생회원명부(9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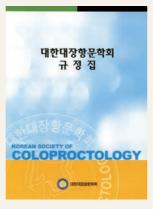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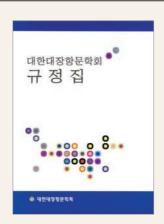
2007 평생회원명부(1,123명)

2011 평생회원명부(1,560명)

2015 평생회원명부(1,78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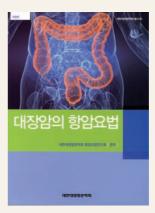
2 004 규정집

2010 규정집

#### 대장암의 항암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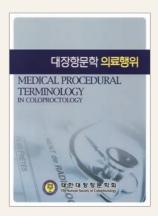
2004 대장암의 항암요법



2010 대장암의 항암요법







대장암 완치프로젝트(2010년 발간)

대장암진료권고안(2012년 발간)

대장항문학 의료행위(2009년 발간)





알기쉬운 대장암(2010년 발간)



용어집(2004년 발간)



헬스조선M(2011년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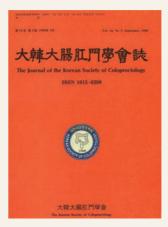
## 2/학회지







1997년 6월 13권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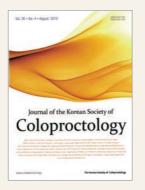
1998년 9월 14권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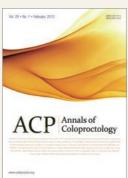
2007년 6월 23권 3호



2008년 6월 영문학회지 발간



2010년 8월 26권 4호



2013년 2월 29권 1호

## 3/소식지



2005년 6월 소식지 창간호



2007년 6월 13권 2호



2014년 8월 Vol 34. 여름호 뉴스레터



2015년 7월 Vol 38. 여름호 뉴스레터

## 4/학회 로고·엠블럼







 $\sim$ 1998

1998~99

1999~2005 상반기







2005 하반기~2016

50주년 기념 로고(2017)

50주년 기념 엠블럼(2017)

## 07 학회사무실

#### 1, 대한대장항문학회 사무실 소재지

<b>基型</b> 地。。	연도	장소
	~1998,12,19	의과대학 내
Figure 1 to the state of the st	1998.12.20~2007.12	대한의사협회 내 건물 입소
	2007.1~2016년 현재	수서동 소재 단독 사무실 마련
대한의사협회 건물(199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현대벤처빌 1519호)



수서동 사무실 개소식(2007.1.13)





#### • 편찬후기 •

2017년은 대한대장항문학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2015년 5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학회 창립 50주년 행사와 함께 학회의 반세기 역사를 정리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50주년 기념 TFT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편찬위원회의 역할이 부여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하나마 50주년 기념 TFT 위원장의 중책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강성범, 김형진, 박윤아, 신응진, 이강영, 이길연, 이석환 선생님 등 50주년 기념 TFT 위원 선생님들과 학회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고 그간의 이사회, 총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1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50년 역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초 자료가 될 만한 기존의 학회 역사서가 없었고, 특히 1990년대 이전의 자료는 학회 사무실에도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광연, 최경달, 이찬영 선생님 등 학회 원로 선생님들의 구술 인터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기억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10여 분 이상의 원로 선생님의 기억들이 교직(交織)되면서 문서 자료의 공백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생생한 역사를 복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70년사, 100년사를 정리할 때에도 귀중한 자료로 남으리라 확신합니다.

집필을 맡아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이동원 선생님은 한국현대사를 전공하면서도 의학사 관련 집필을 꾸준히 해온 전문 연구자로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원로 선생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학회 창설 이전의 전사(前史)를 발굴하여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감수를 맡아주신 김영진, 손승국, 이봉화, 임석원, 전수한, 전호경, 한원곤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오류를 꼼꼼하게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학회 사무실의 김주리 실장과 최혜원 씨도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바쁜 와중에 자료 정리를 돕고 부록 작업을 주도하여 큰 힘이 돼주었습니다. 디자인아이의 송은주 실장님께서는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책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50주년 기념 TFT 위원장으로서 이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를

완성하고 편찬 후기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부제인 '세계로 미래로'라는 글귀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 책의 편찬이 대한대장 항문학회 회원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하고 대장항문학회의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후학들의 귀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50주년 기념 TFT 위원회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50주년 기념 TFT 위원장 오 **승 택** 



편찬위원장 오승택(가톨릭의대)

간사 이길연(경희의대)

위원 강성범(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형진(가톨릭의대), 박윤아(성균관의대) 신응진(순천향의대), 이강영(연세의대), 이석환(경희의대)

집필가 이동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대한대장항문학회 50년사

(1967~2017)

발행일 | 2017년 3월 29일 발행인 | 이두한

**발행처** | 대한대장항문학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현대벤처빌 1519호

> 전화 | 02-2040-7736, 7737 팩스 | 02-2040-7735

이메일 | colon@kams.or.kr

**디자인 제작**│디자인아이 **인 쇄**│진성C&C

ISBN 979-11-85391-16-8